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임희진 · 황여정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광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저 자 임희진, 황여정

연구진 연구책임자_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폭넓게 파악하여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 연구내용

- 가치관의 개념 및 조사영역 설정,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내용 설계
- 청소년 가치관 실태 파악 및 시계열 추이 분석
- 성인 세대와의 청소년 가치관 비교 분석
-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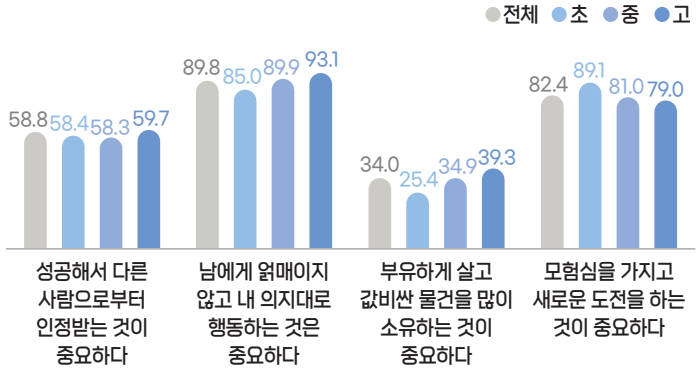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청소년 가치관 관련 연구 및 조사자료 검토, 가치관의 개념 및 조사영역 설정, 가족과 결혼, 진로와 미래, 학교와 친구, 사회와 국가·역사,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걸친 각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설문조사 분석:** 청소년들의 가치관 파악을 위해 전국의 초5~고3에 재학 중인 청소년 8천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여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2차 자료 분석:** 특정 대상의 가치관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실시하였음.
 - 시계열 비교: 2008년, 2010년, 2012년 및 2020년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와 공통 문항을 확인하여 시계열 추이를 비교 분석함.
 - 성인 세대와의 비교: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사회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함.

■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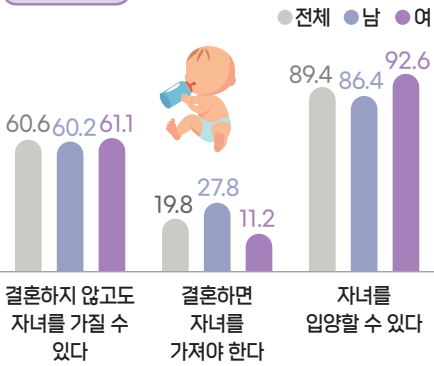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와 시계열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그림으로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성과와 부에 대한 가치관



가족관

자녀관



가족의 범주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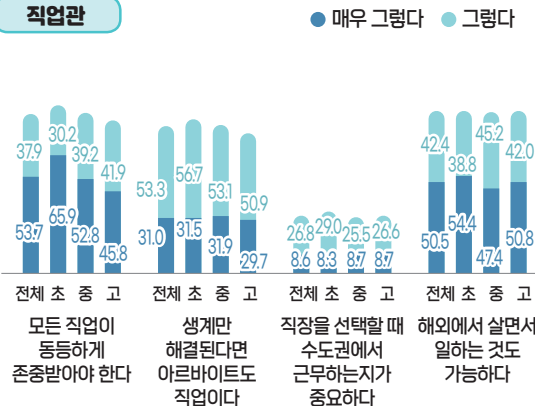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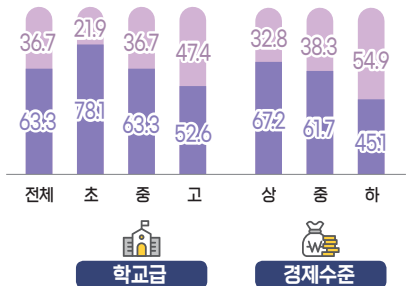
직업관·미래관

직업관



나의 미래 결정 요인

●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 ●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학교급



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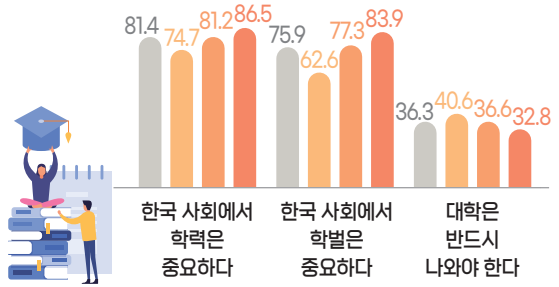
교육의 수월성 vs 형평성

-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학력주의 가치관

● 전체 ● 초 ● 중 ● 고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국가관·역사관

능력주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

61.1

초등학생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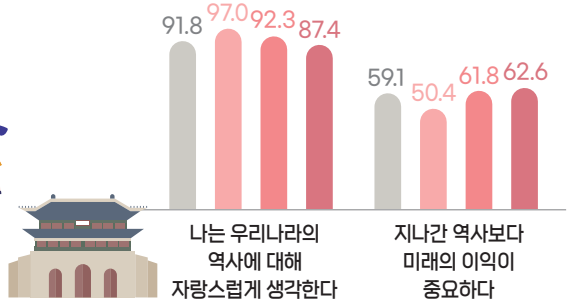
중학생 61.2

고등학생 77.1



역사관

● 전체 ● 초 ● 중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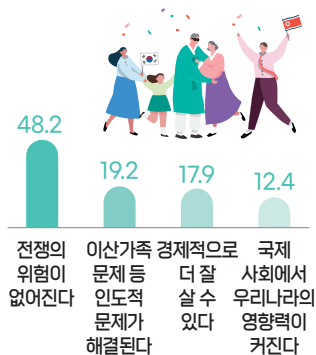


다문화 수용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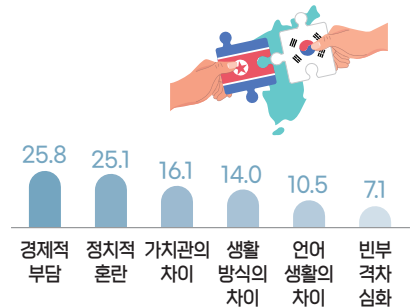
난민 수용 동의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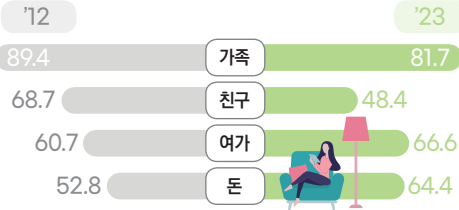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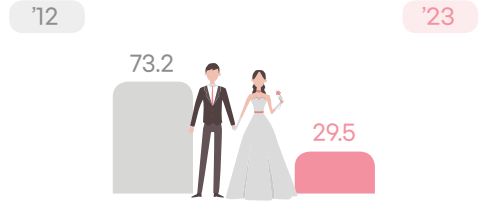
시계열 비교

단위: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매우 중요하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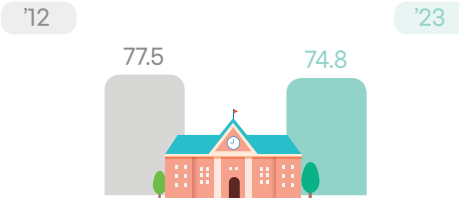
배우자 선택 기준



직업 선택 기준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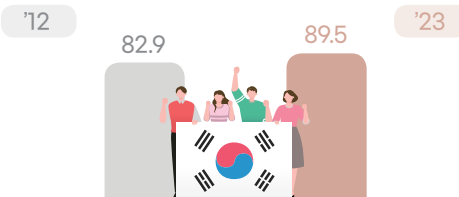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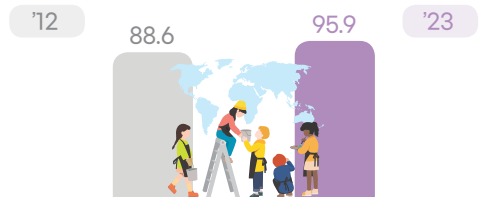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의사(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사)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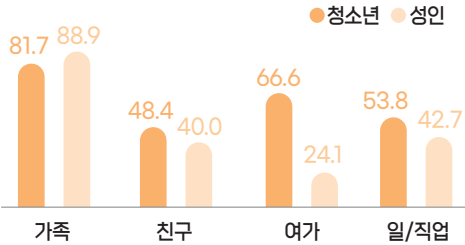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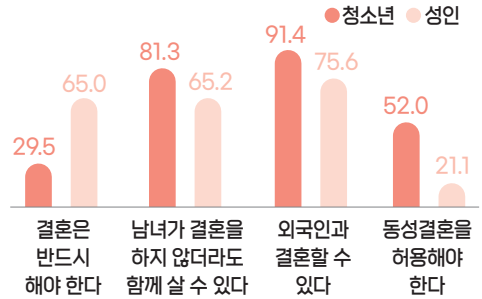
성인 세대와의 비교

단위: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매우 중요하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19.8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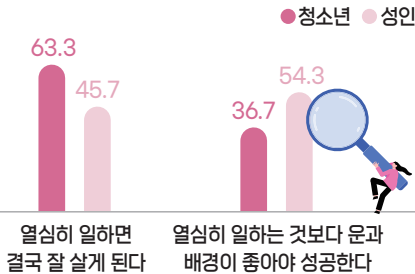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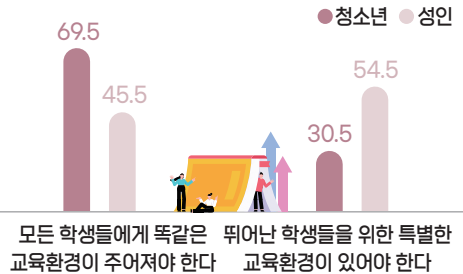
60.6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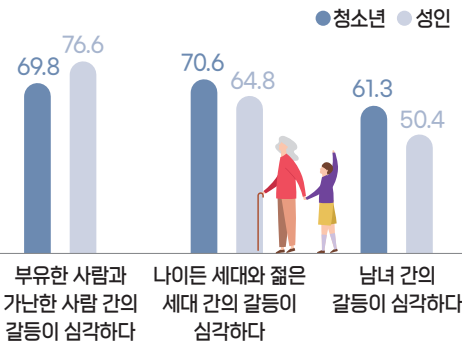
나의 미래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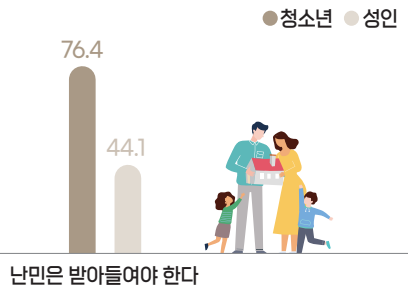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난민 수용 동의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및 시계열 비교·성인 세대와의 비교 등 2차 자료 분석 결과,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집중검토를 통해 제시된 자문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 및 가치관 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정책 개선 방안	1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결과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 여타 유관 정책계획 입안 시 활용
	2	가족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 · 사회적 돌봄시스템 확대
	3	미래세대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및 인정 ·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경제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 학교교육의 수직적·수평적 다양성 보장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 ·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방식의 변화
	4	청소년의 유연한 직업관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 ·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장정책 마련 · 청소년의 창업·창직 지원 진로정책 활성화
	5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 세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 기후위기, 난민수용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6	청소년 세대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자본 확충 ·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
조사 개선 방안	7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방식 및 조사 주기 관련: 3년 주기 반복 횡단조사 시행 · 조사 대상 관련: 조사대상 중복 방지를 위해 후기청소년 제외 필요 · 조사 내용 관련: 핵심/부가 영역 및 문항으로 구분 관리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연구보고23-기본04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4
- 3. 연구방법 6

II. 논의의 배경

- 1. 가치관에 대한 이해 11
- 2. 청소년 가치관의 의의 및 형성 21
- 3. 기존 가치관 조사 검토 28
- 4. 가치관의 개념 정의 및 조사영역 49

III. 청소년 가치관 조사내용 설계

-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55
- 2.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개발 57
- 3. 전문가 검토 78
- 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및 관계부처 검토 88
- 5. 조사내용의 도출 93

IV.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	97
2. 표본설계	98
3. 조사내용	98
4. 분석방법	105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6

V.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및 시계열 비교

1. 인생관	109
2. 가족관	134
3. 직업관·미래관	159
4. 교육관	170
5.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국가관·역사관	187
6. 다문화 수용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228

VI. 성인 세대와의 비교

1.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245
2. 복지와 경쟁에 대한 관점	248
3.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250
4.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251
5. 배우자 선택 기준	254
6. 나의 미래 결정 요인	255
7. 교육의 차등과 형평	257
8. 사회갈등에 대한 관점	258
9. 국가 및 역사에 대한 가치관	260
10. 주변 대상에 대한 신뢰	261
11.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	262
12.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점	263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271
2. 정책제언	279
3.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313

참고문헌 321

부 록 333

표 목차

표 II-1.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11
표 II-2. Schwartz 이론에서 제시한 가치영역 및 가치항목	19
표 II-3. 가치관의 기본 단위 및 주요 내용	27
표 II-4. 「청소년 가치관 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29
표 II-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33
표 II-6. 「세계가치관조사」 주요 추진 경과	35
표 II-7. 「세계가치관조사」 주요 조사내용	36
표 II-8. 「사회조사」 주요 조사내용(2021년 및 2022년)	38
표 II-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주요 연혁	40
표 II-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가치관/주관적 인식 관련 주요 조사항목	41
표 II-11.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치관/주관적 인식 관련 주요 조사항목	42
표 II-12.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조사문항	44
표 II-13.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주요 조사항목 ..	45
표 II-14.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기존 가치관 관련 조사의 영역 분류	47
표 III-1. '생활'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58
표 III-2. '가족과 결혼'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62
표 III-3. '진로와 미래'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67
표 III-4. '학교와 친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69
표 III-5.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72
표 III-6.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76
표 III-7. 전문가 검토 참가자	78
표 III-8. '생활' 영역 검토 의견	79
표 III-9. '가족과 결혼' 영역 검토 의견	81
표 III-10. '진로와 미래' 영역 검토 의견	82
표 III-11. '학교와 친구' 영역 검토 의견	84
표 III-12.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 검토 의견	85

표 Ⅲ-13.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 검토 의견	87
표 Ⅲ-1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참가자	88
표 Ⅲ-15. 예비조사 응답 소요 시간	89
표 Ⅲ-16.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검토의견 및 반영 방안	90
표 Ⅲ-17. 관계부처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92
표 Ⅲ-18.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93
표 Ⅳ-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학교 수 및 학생 수 할당	98
표 Ⅳ-2. 조사내용의 출처 및 시계열·세대 간 비교 가능 여부	99
표 Ⅳ-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6
표 Ⅴ-1. 행복감	110
표 Ⅴ-2.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	112
표 Ⅴ-3.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	114
표 Ⅴ-4.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16
표 Ⅴ-5.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117
표 Ⅴ-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118
표 Ⅴ-7.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120
표 Ⅴ-8.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121
표 Ⅴ-9.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22
표 Ⅴ-10.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3
표 Ⅴ-11.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	125
표 Ⅴ-12. 복지에 대한 생각	126
표 Ⅴ-13. 경쟁에 대한 생각	128
표 Ⅴ-14.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130
표 Ⅴ-15.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	131
표 Ⅴ-16.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32
표 Ⅴ-17.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133
표 Ⅴ-18.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36
표 Ⅴ-19.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137
표 Ⅴ-20.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138
표 Ⅴ-21.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139
표 Ⅴ-2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41
표 Ⅴ-2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142
표 Ⅴ-24.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143
표 Ⅴ-25.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144

표 V-26.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145
표 V-27.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7
표 V-28.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148
표 V-29. 집안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149
표 V-30.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150
표 V-31.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151
표 V-32.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53
표 V-33.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154
표 V-34. 배우자 선택 기준(1순위+2순위)	156
표 V-35. 배우자 선택 기준(시계열 비교)	157
표 V-36.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160
표 V-37.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161
표 V-38.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162
표 V-39.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163
표 V-40. 나의 미래: 노력이나 선택 vs. 환경	165
표 V-41. 나의 미래: 열심히 일 vs. 운과 배경	166
표 V-42. 직업 선택 기준(1순위+2순위)	168
표 V-43. 직업 선택 기준(시계열 비교)	169
표 V-44.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	171
표 V-45.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172
표 V-46.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173
표 V-47.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가치 있다	175
표 V-48.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176
표 V-49.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177
표 V-50.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178
표 V-51. 공부하는 이유: 재미있어서	180
표 V-52. 공부하는 이유: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181
표 V-53. 공부하는 이유: 못하면 부끄러워서	182
표 V-54. 공부하는 이유: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183
표 V-55. 기대교육수준	184
표 V-56.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186
표 V-57.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188
표 V-58.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189
표 V-59.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191

표 V-60.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193
표 V-61.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195
표 V-62.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196
표 V-63.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	198
표 V-64.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는 양보할 수 없다	200
표 V-65. 가족 신뢰도	203
표 V-66. 친구 신뢰도	204
표 V-67. 학교 선생님 신뢰도	206
표 V-68. 이웃 어른 신뢰도	208
표 V-69. 정치인(국회의원) 신뢰도	210
표 V-70. 언론(TV, 신문) 신뢰도	212
표 V-71. 인터넷정보(포털, 유튜브 등) 신뢰도	214
표 V-72. AI(챗GPT 등 인공지능) 신뢰도	215
표 V-73.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	217
표 V-74.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218
표 V-75.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219
표 V-76.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221
표 V-77.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221
표 V-78.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223
표 V-79.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225
표 V-80.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26
표 V-81.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	227
표 V-82.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229
표 V-83.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231
표 V-84.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33
표 V-85.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235
표 V-86. 가장 친숙한 나라	236
표 V-87. 북한에 대한 인식	238
표 V-88. 통일 시기	239
표 V-89.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241
표 V-90.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242
표 V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세대 비교)	246

표 VI-2. 현재의 행복 vs. 미래의 행복(세대 비교)	247
표 VI-3. 복지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249
표 VI-4. 경쟁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250
표 VI-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세대 비교)	251
표 VI-6. 결혼관(세대 비교)	253
표 VI-7. 자녀관(세대 비교)	254
표 VI-8. 배우자 선택 기준(세대 비교)	255
표 VI-9. 나의 미래 결정 요인(세대 비교)	256
표 VI-10.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258
표 VI-11.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세대 비교)	259
표 VI-12. 국가관 및 역사관(세대 비교)	260
표 VI-13. 대상별 신뢰도(세대 비교)	262
표 VI-14. 북한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263
표 VI-15. 통일 시기(세대 비교)	265
표 VI-16.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세대 비교)	266
표 VI-17.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세대 비교)	268
표 VII-1.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도출 근거	280
표 VII-2.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291
표 VII-3.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구성	295

그림 목차

그림 II-1. 가치관의 구성	14
그림 II-2. Schwartz 이론에 제시된 가치영역의 구조	20
그림 II-3. 가치관의 기본 단위	26
그림 II-4.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중요 가치의 대립축	32
그림 II-5.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영역 분류(안)	51
그림 III-1. 조사내용 설계 절차	56
그림 III-2.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조사 문항	65
그림 III-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조사 문항	65
그림 V-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시계열 비교)	113
그림 V-2. 일에 대한 가치관	115
그림 V-3.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119
그림 V-4.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학업성취수준별)	124
그림 V-5. 복지에 대한 생각(경제수준별)	126
그림 V-6. 경쟁에 대한 생각(학업성취수준별)	127
그림 V-7.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129
그림 V-8.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학교급별)	131
그림 V-9. 결혼관(성별)	135
그림 V-1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시계열 비교)	137
그림 V-11. 자녀관(성별)	140
그림 V-12. 양성평등(성별)	146
그림 V-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52
그림 V-14. 배우자 선택 기준(1순위+2순위)	155
그림 V-15.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158
그림 V-16. 직업관(학교급별)	160
그림 V-17. 나의 미래 결정 요인	164
그림 V-18. 직업 선택 기준(1순위+2순위)	167

그림 V-19.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171
그림 V-20.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174
그림 V-21. 공부하는 이유	179
그림 V-22.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185
그림 V-23.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시계열 비교)	188
그림 V-24.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시계열 비교)	190
그림 V-25.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시계열 비교)	192
그림 V-26.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계열 비교)	194
그림 V-27.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시계열 비교)	195
그림 V-28.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시계열 비교)	197
그림 V-29.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시계열 비교)	199
그림 V-30.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는 양보할 수 없다(시계열 비교)	200
그림 V-31. 사회에 대한 신뢰(시계열 비교)	201
그림 V-32. 가족 신뢰도(시계열 비교)	203
그림 V-33. 친구 신뢰도(시계열 비교)	205
그림 V-34. 학교 선생님 신뢰도(시계열 비교)	207
그림 V-35. 이웃 어른 신뢰도(시계열 비교)	209
그림 V-36. 정치인 신뢰도(시계열 비교)	211
그림 V-37. 언론 신뢰도(시계열 비교)	212
그림 V-38. 인터넷정보 신뢰도(시계열 비교)	214
그림 V-39. AI 신뢰도(시계열 비교)	216
그림 V-40.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217
그림 V-4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시계열 비교)	222
그림 V-42.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시계열 비교)	224
그림 V-43.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시계열 비교)	230
그림 V-44.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시계열 비교)	232
그림 V-45.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시계열 비교)	234
그림 V-46. 가장 친숙한 나라(시계열 비교)	237

그림 V-47. 북한에 대한 인식	238
그림 V-48.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240
그림 V-49.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242
그림 V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세대 비교)	245
그림 VI-2. 현재의 행복 vs. 미래의 행복(세대 비교)	247
그림 VI-3. 복지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248
그림 VI-4. 경쟁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249
그림 VI-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세대 비교)	251
그림 VI-6. 결혼관(세대 비교)	252
그림 VI-7. 자녀관(세대 비교)	253
그림 VI-8. 배우자 선택 기준(세대 비교)	255
그림 VI-9. 나의 미래 결정 요인(세대 비교)	256
그림 VI-10.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257
그림 VI-11.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세대 비교)	259
그림 VI-12. 국가관 및 역사관(세대 비교)	260
그림 VI-13. 대상별 신뢰도(세대 비교)	261
그림 VI-14. 난민 수용도(세대 비교)	262
그림 VI-15. 북한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263
그림 VI-16. 통일 시기(세대 비교)	264
그림 VI-17.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세대 비교)	265
그림 VI-18.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세대 비교)	267
그림 VI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	272
그림 VII-2.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272
그림 VII-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73
그림 VII-4. 자녀관	273
그림 VII-5. 직업관	274
그림 VII-6. 나의 미래: 열심히 일 vs. 운과 배경	274
그림 VII-7.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275
그림 VII-8. 학력주의 가치관	275
그림 VII-9. 능력주의 성향	276
그림 VII-10. 집단주의 성향	276
그림 VII-1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276
그림 VII-12. 역사관	276
그림 VII-13. 다문화 수용도	277
그림 VII-14. 난민 수용 동의	277
그림 VII-15.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277

그림 Ⅶ-16.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277
그림 Ⅶ-17.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278
그림 Ⅶ-18. 결혼관 및 자녀관	278
그림 Ⅶ-19. 미래 결정 요인	278
그림 Ⅶ-20. 교육의 수월성 vs. 형평성	278
그림 Ⅶ-21.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도출 과정	279
그림 Ⅶ-22.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283
그림 Ⅶ-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86
그림 Ⅶ-24.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활용 영역(안)	288
그림 Ⅶ-25.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의 중장기 정책 계획 연계·활용 방안(예시)	288
그림 Ⅶ-26. 오디세이학교의 주요 운영 원리	294
그림 Ⅶ-27.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도입 계획	298
그림 Ⅶ-28.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사례	303
그림 Ⅶ-29.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모형	310
그림 Ⅶ-30. 2023년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체계(안)	312
그림 Ⅶ-31.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조사주기와 정책계획 반영(안)	315
그림 Ⅶ-32. 가치관 관련 주요 조사의 청소년 연령대 포함 여부	316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치관(value orientation)은 자신과 세계를 평가하는 틀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의 가치관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Rokeach, 1968; Schwartz & Bilsky, 1987; 임희진, 김지연, 이경상, 2009: 3에서 재인용). 즉, 인간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가치 갈등(value conflict) 상황에 처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임희진 외, 2009: 3).

전통사회에서 가치관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공유되고 전승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 주기가 길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 주기가 짧아졌을 뿐 아니라 한 시대 내에서도 세대 간에 차이가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주도하고 있는 Inglehart(1990)는 코호트 비교연구에서 젊은 세대가 성인 세대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등 세대 간에 가치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일상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감염병 문제, 디지털전환 문제, 일자리 문제, 인구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임성근, 박준, 이광희, 이종한, 은재호, 2022: 3). 사회변화가 빠른 만큼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도 크다.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시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차이나 문화권별 차이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의 가치관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성인 세대와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이 성인이 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정부 주도 국가승인통계로 2008년, 2010년, 2012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조사의 행정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2017년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흡수 통합되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9~24세의 청소년을 학교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분량의 제약 등으로 가치관을 폭넓게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보다 폭넓게 조사하여 향후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 특성별 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과거에 실시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며, 셋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따른 청소년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여 국가 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청소년 가치관을 반영한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1) 가치관의 개념 및 조사영역 설정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 가치관의 특성을 고찰하고, Rokeach의 가치측정,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 등 가치 및 가치관에 대한 주요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청소년기 가치관의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가치관 형성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가치관 조사의 성과와 한계, 조사영역을 검토하고,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영역을 도출하였다.

2)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내용설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조사영역별로 기존 가치관 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를 거쳐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 정책적 측면에서 조사내용을 선정하고, 연속성·일관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거 조사와 향후 조사에서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속 측정 가능한 문항과 시의성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3) 청소년 가치관 실태 파악 및 시계열 추이 분석

전국의 초5~고3에 재학 중인 청소년 7,718명의 응답 자료를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가족구성,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다문화 배경, 다문화 친구유무에 따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8년, 2010년, 2012년, 2020년에 실시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가치관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향후 국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성인 세대와의 청소년 가치관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성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성인 세대와의 비교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주기로 실시 중인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및 「세계가치관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성인 대상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5)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 제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 주기,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청소년 가치관 관련 연구 및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가치관의 개념 및 조사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생활, 가족과 결혼, 진로와 미래, 학교와 친구, 사회와 국가·역사,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걸친 각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을 개발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8,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22년 4월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17개 광역 시도별로 집락화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동의¹⁾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과정을 진행하고,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23년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일정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개요 및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입력 검증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가족구성,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다문화 배경, 다문화 친구유무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제5장에 제시하였다.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3) 2차 자료 분석

특정 대상의 가치관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시계열 비교에서는 2008년, 2010년, 2012년, 2020년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와 본 조사와의 공통 문항을 분석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사회조사」, 「세계가치관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자료명	조사 기관	주요 검토 지표
2008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8)	보건복지가족부	시계열 비교
2010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여성가족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문화체육관광부	세대 간 비교
사회조사(2021, 2022)	통계청	
세계가치관조사(2018)	세계가치관조사협회	

4) 전문가 자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조사설계, 조사내용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 의견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연구에 반영하였다.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가 국가 정책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연구내용 및 조사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 — 제2장 논의의 배경

- 1. 가치관에 대한 이해
- 2. 청소년 가치관의 의의 및 형성
- 3. 기존 가치관 조사 검토
- 4. 가치관의 개념 정의 및 조사영역

1. 가치관에 대한 이해

1) 가치 및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 ‘가치(values)’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치는 학문 분야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김석호, 한준, 배영, 이윤석, 신인철, 한수진, 2013: 1). 예컨대 심리학에서 가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념 및 의식구조와

표 II-1.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구 분	내용
Kluckhohn(1967) ¹⁾	• 가치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방식이나 방법의 선택에서 영향을 끼치는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함축적 특성
Rokeach(1973) ²⁾	• 가치는 개인의 가장 심층적인 가치관으로서,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
McGuire(1969) ³⁾	• 가치는 특정 대상과 상황을 초월하여 향유 양식을 결정하고 존재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
최연실(1995) ⁴⁾	•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손현주, 강정인(2019) ⁵⁾	•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것이 가치있다고 평가할 때는 소유할 가치가 있거나, 해야 하거나 실천한 가치가 있거나,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

* 출처: 1) Kluckhohn, C.(1967),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p.395. 민보경 외(2020: 11)에서 재인용.

2)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김석호 외(2013: 2)에서 재인용.

3) McGuire, W. J.(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임희진 외(2009: 23)에서 재인용.

4) 최연실(1995).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삼식(2006: 98)에서 재인용.

5) 손현주, 강정인(2019).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래 선호가치. 182쪽.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태도와 가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임희진 외, 2009: 23). 그에 비해 사회학에서는 가치를 “공유된 상징체계의 한 요소로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안들 가운데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Parsons & Shills, 1951)” 또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의 내적 기준(Hechter, Nadel & Michod, 1993)”으로 정의하곤 한다(김석호 외, 2013: 1). <표 II-1>에는 ‘가치(values)’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Rokeach(1973)는 문화를 신념(beliefs), 태도(attitudes), 가치(values)의 3가지 층으로 분류하고, ‘신념’은 가장 구체적이고 표피적인 것으로서, 구체적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나 믿음을 의미하고, ‘태도’는 의견보다는 일반적이고 심층적인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며, ‘가치’는 개인의 가장 심층적인 가치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석호 외, 2013: 2). 신념-태도-가치의 3가지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은 ‘가치’인데,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신념이나 의견이 형성된다(김욱, 이이범, 2006; 김석호 외, 2013: 2에서 재인용).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태도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석호 외, 2013: 2). 이처럼 ‘가치’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대치되는 한 쌍의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가치가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 상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양중희, 1999; 김석호 외, 2013: 2에서 재인용).

또한 가치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체계 또는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가치가 위계서열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상호의존과 상호통제, 또는 중층결정의 관계가 있다(양중희, 1999; 김석호 외, 2013: 2에서 재인용). 아울러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리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근면과 근검이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었고 소비는 죄악시되는 분위기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 되었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가치는 역사적, 상대적, 탈도덕적 성격을 갖는다(손현주, 강정인, 2019: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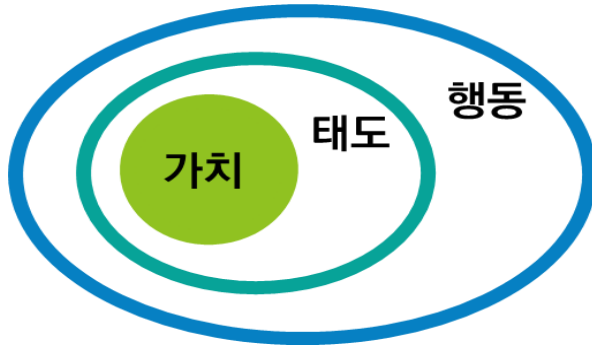
한편, '가치관(value orientation)'은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 되어 있는 평가적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주, 1985: 3; 손현주, 강정인, 2019: 183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Newcomb et al.(1970)은 가치관을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 인간 본성, 세계, 사회문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판단작용으로 정의하였다(김석호 외, 2013: 38에서 재인용).

흔히 가치관을 태도(attitude)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구분하면 여기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태도가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몇몇 신념의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개인의 선호방식을 의미하는 데 비해, 가치관은 어떤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행위의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McGuire, 1969; 임희진 외, 2009: 2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가치관은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더 일반적인 행동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00; 이삼식, 2006: 98에서 재인용).

2) 가치관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

가치관이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평가적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이상주, 1985: 3; 손현주, 강정인, 2019: 183에서 재인용, 기본적으로 가치관은 '판단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Parsons & Shills(1962)는 가치관은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는 인지적 기준, △만족을 위해 대상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평가적 기준, △행동의 결과를 검토하는 도덕적 기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임희진 외, 2009: 25에서 재인용). Kluckhohn & Strodtbeck(1961)이 가치관의 역할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 평가틀로써, 인간의 사고에 일관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희진 외, 2009: 25에서 재인용)이라고 설명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은 행동의 근간이 된다.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가치가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 판단과 선택 및 행동을 낳는다고 본다(김석호 외, 2013: 39). 가치관은 이처럼 가치→태도→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에서 가장 중핵에 해당하는 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구체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 출처: 김석호 외(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39쪽. [그림 3-1].

그림 II-1. 가치관의 구성

이러한 견지에서, 가치관은 일종의 '규율'로 기능하기도 한다.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 이삼식, 2006: 98에서 재인용).

이처럼 판단 기준과 규율로 작용하는 가치관은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지만, 역으로 사회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먼저, 가치관은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미래학자인 Herman Kahn은 유교적 가치가 1970~80년대 동아시아에서 목도된 놀라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호영, 2008: 175; 손현주, 강정인, 2019: 184에서 재인용). 동아시아 경제발전 초기의 높은 저축률, 교육열, 교육투자 등은 유교적 관습에 영향을 받고, 국가중심의 개발정책 역시 유교사회인 동아시아의 공동체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효사상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교적 공동체 사상이 기업활동, 기업구조, 노동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손현주, 강정인, 2019: 184).

보다 최근에는 가치관이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사례로 저출생 현상을 지목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이삼식 외, 2005). 교육수준의 상승과 경제활동 참가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모

하였고, 그것이 만혼이나 비혼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저출생이라는 사회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삼식, 2006).

한편, 사회변동이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급격한 사회발전이 가치관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1960년대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지난 60여년 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수용, 공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 도시로의 인구 집중, 교육의 대중화, 대중매체의 광범한 보급, 현대적 과학기술의 도입과 이용, 각종 사회조직의 발생과 사회의 관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가치관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이경희, 2012: 39; 손현주, 강정인, 2019: 184에서 재인용). 1960년대 산업화에 기초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사회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이 서서히 해체되고 근대적 가치관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손현주, 강정인, 2019: 184-185). 이는 사회변동이 가치관 변화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치관과 사회변동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reciprocal) 관계로 볼 수 있다.

3) 가치관의 특성

가치관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에서는 가치관의 핵심 특징을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시켜주는 평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다른 어떤 인식 유형보다 인간의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치관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보다 일관되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며, 넷째, 가치관은 일시적 감정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은 맥락의존적(context-dependent)이다. 따라서 시공을 초월한 절대불변하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적이고 특정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치관은 특정 시대와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안정적인 인지적 평가체계이자 추상적인 원리 혹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9).

다음으로, 임희섭(1997: 144-146)은 가치관의 개념적 특성을 6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개인이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선택성’이 있고, 둘째, 개인이 가진 가치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적 가치가 있는 ‘위계성’이 있다. 세 번째 특성은 가치관을 구성하는 가치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는 ‘체계성’이고, 네 번째는 같은 집단이나 사회는 공통된 가치체계를 갖는 가치 지향의 ‘공유성’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도록 개인 속에 내재화된 행위의 ‘지향성’이고, 여섯 번째는 ‘연속성’과 변화의 특성이 그것이다(임희섭, 1997; 민보경 외, 2019: 12에서 재인용).

앞서 살펴본 가치관의 특성이 일반적인 내용인 데 비해, 한국 사회 가치관이 갖는 특수성을 설명한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희(2012)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가치관은 ‘이중가치체계’라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측면에 걸쳐 변화의 속도가 그 이전의 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 외래적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면서 가치관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이경희, 2012; 손현주, 강정인, 2019: 185에서 재인용). 또한 가치체계와 사회구조 간의 부조화, 세대간·계층간 가치관의 차이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성, 근대성의 가치가 혼재하는 가치관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이경희, 2012; 손현주, 강정인, 2019: 185에서 재인용).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중적 가치관으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인본주의/물질주의, 권위주의/평등주의, 특수주의/보편주의 등이 언급된다(이경희, 2012; 손현주, 강정인, 2019: 185에서 재인용).

4) 가치 및 가치관에 대한 주요 이론

가치 및 가치관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Rokeach의 가치측정,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사회, 국가와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데 동의해왔으며(Rokeach, 1973),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련의 보편적 가치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e.g. Hofstede, 1980; Rokeach, 1973; 김연신, 최한나, 2009: 2에서 재인용). 상술한 Rokeach, Hofstede, Schwartz의 이론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1) Rokeach의 가치측정

먼저, 가치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Rokeach(1973)는 가치를 궁극적 가치(개인중심적, 사회중심적)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는 자아에 직접 기여하는 가치로, 편안함, 안락함, 성취감, 안정, 행복 등과 같은 개인중심적 가치와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국가안전 등의 사회중심적 가치를 포괄하고,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도구적 수단을 의미한다(차은주, 김영재, 2015: 203).

Rokeach는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8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통해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김연신, 최한나, 2009: 2에서 재인용). 이 같은 Rokeach의 가치측정 도구는 가치관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그가 개발한 도구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를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와 36개의 가치 목록에 대한 포괄성 및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Kahle, Beatty & Homer, 1986; 김연신, 최한나, 2009: 2에서 재인용).

(2)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²⁾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Hofstede의 연구로 이어진다. Hofstede는 다국적 기업 IBM의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문화 간의 차이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권력 거리,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등 4개의 문화차원을 도출하였다(최성욱, 2015: 1013).

먼저, 권력 거리(power distance)는 “한 국가 내 상대적 약자가 권력의 불평등성을 기대하고 용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 Hofstede, 2005: 46; 최성욱, 2015: 1013에서 재인용). 권력 거리는 사회가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이 깊는데, 권력이 적은 사람 또는 집단이 불평등한 권력 배분 상태를 용인할수록 권력 거리가 커진다고 해석하며, 반대로 권력의 불평등성을 수용하지 않을수록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권으로 해석한다(최성욱, 2015: 1013).

두 번째 문화차원은 개인주의-집합주의인데, 이 차원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역할 및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최성욱, 2015: 1013).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한 국가의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2)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은 “최성욱(2015).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7(4), 1011-1032.”를 토대로 발췌·요약하였음.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주의에 대립되는 가치는 집합주의(collectivism)이다(최성욱, 2015: 1013). 개인주의 사회는 집단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개인 간 연계가 느슨한 반면, 집합주의 사회는 개인 이익보다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고 조화와 체면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최성욱, 2015: 1013).

세 번째 차원은 남성성(masculinity)-여성성(femininity)이다. 이 차원은 남성의 역할과 관련된 ‘강인함의 가치(tough values)’가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부드러움의 가치(tender values)’를 압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1993: 90; 최성욱, 2015: 1015에서 재인용). 남성성의 사회에서는 성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남성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거칠고 물질적 성공에 초점을 둔다고 보는 반면, 여성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남녀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중첩되며 여성은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에 관심을 둔다고 가정한다(최성욱, 2015: 1015).

네 번째 차원은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strong vs. weak)다. 불확실성의 회피는 한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들이 애매하거나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성욱, 2015: 1015).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사회는 경직적인 반면에 약한 사회는 탄력적인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전자에서는 ‘다른 것은 위험하다’는 정서가 강하고, 후자에서는 ‘다른 것은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정서가 더 강하다(Hofstede, 1993: 90; 최성욱, 2015: 1016에서 재인용).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은 본래 상술한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추후 유교적 역동성(Confucian dynamics: 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의 다섯 번째 차원을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고(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 최성욱, 2015: 1013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세계가치관조사(WVS)를 활용하여 관대성의 정도(indulgence-restraint)와 겸양성의 정도(monumentalism-self-effacement) 등 6번째 및 7번째 문화차원을 추가한 바 있다(Hofstede et al., 2010; 최성욱, 2015: 1013에서 재인용).

(3)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³⁾

Hofstede의 연구는 광범하게 인용되고 활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료가 특정 기업의

3)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은 “김연신, 최현나(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을 토대로 발췌·요약하였음.

구성원들로부터 수집되어 표집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최성욱, 2015: 1017). 또한 국가 또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가치 혹은 가치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은 기존 연구들의 가치 측정 및 분석 수준을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유형들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김연신, 최한나, 2009: 2)는 점에서 상술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 Schwartz는 사람들의 가치를 정의하는 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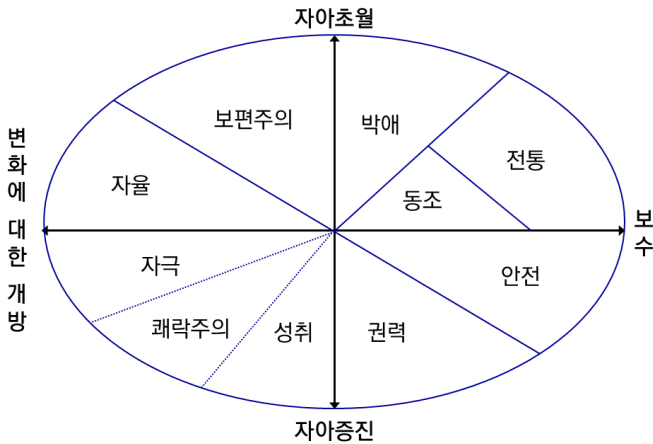
표 II-2. Schwartz 이론에서 제시한 가치영역 및 가치항목

가치영역	정의	대표적 가치항목
안전 (security)	• 사회, 본인, 그리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안전, 조화 및 안정	• 가족/국가의 안전, 사회질서, 소속감, 건강, 청결, 호의에 대한 보답
동조 (conformity)	•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자체	• 순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공경, 공손, 자기수양
전통 (tradition)	•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수락, 공경 및 이행	• 전통에 대한 존중, 종립적, 겸손, 헌신
박애 (benevolence)	•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welfare) 보존과 향상	• 영적인 삶, 의미있는 삶, 참된 우정, 충성, 용서, 도움, 정직, 책임감
보편주의 (universalism)	• 인류와 자연의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포용, 보호	• 평등, 내적 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사회정의, 관대함, 환경보호
자율 (self-direction)	• 자립적인 사고 및 행위	• 자유, 자존감, 프라이버시, 창의성, 주도성, 독립심, 호기심
자극 (stimulation)	• 흥분, 신기함, 도전	• 다채로운 삶, 재미있는 삶, 대범성
쾌락주의 (hedosim)	•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 쾌락, 즐기는 삶, 방종
성취 (achievement)	•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 영향력, 야심, 유능, 지성, 성공
권력 (power)	•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 사회적 힘, 부, 권위, 사회적 인정, 체면 유지

* 출처: 김연신, 최한나(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3쪽. <표 1>. (일부 표현은 연구진 수정)

한 측면을 확인하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가치내용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지닌 가치와 보편적 내용 및 구조 이론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구분되고 정의되는 유형에 따라 10개의 가치영역을 제시하였다(Schwartz & Bilsky, 1987, 1990; 김연신, 최한나, 2009: 2에서 재인용).

Schwartz 가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10개의 핵심가치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구조이다. 그에 따르면, 10개의 가치유형들이 원 모양과 유사한 관계구조(quasi-circumplex structure)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10개의 가치들이 양립 또는 대립 관계를 갖거나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김연신, 최한나, 2009: 3). Schwartz는 유사성 구조 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을 통해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기준을 제시했는데, 변화에 호의적이며 능동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변화에 대한 개방'과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 개인의 권력과 성취를 지향하는 '자아증진'과 자신보다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중시하는 '자아초월'이 그것이다(김연신, 최한나, 2009: 4). Schwartz의 이론에서 대립되는 가치들은 중심으로부터 반대방향에 위치하며, 양립하는 가치들은 원형 안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데, 이러한 가치유형들 간의 대립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각기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 신념, 태도 및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연신, 최한나, 2009: 4).



* 출처: 김연신, 최한나(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4쪽. [그림 1].

그림 II-2. Schwartz 이론에 제시된 가치영역의 구조

2. 청소년 가치관의 의의 및 형성

1) 청소년기 가치관의 의의와 중요성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하여, 특정 세대는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대’는 가치관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한 세대(cohort)는 출생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토대로 해당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징지음으로써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김기연, 신수진, 최혜경, 2003; 이삼식, 2006: 9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Inglehart는 세계 여러나라들의 가치관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이드는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가치관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 형성기에 궁핍과 동요를 경험한 나이드는 세대는 경제적 안정이나 질서 확립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풍요와 안정을 경험한 젊은 세대는 삶의 질,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 등 탈물질주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Inglehart, 1997: 4; 김석호 외, 2013: 4에서 재인용). 그는 경제발전이 물질주의 가치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로의 점진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가정하면서, ‘세대 간 가치변화 이론(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을 주장했다(Inglehart, 1997: 4; 김석호 외, 2013: 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는 일정 부분 차별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가치를 이어받은 전승자이자 잠재적인 변화의 주체이며, 그들의 집단 가치는 기성세대의 가치와 청소년 세대만의 독특한 가치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다(민보경 외, 2019: 223).

청소년기 가치관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Goodale, 1973; Lusk & Oliver, 1974; 임연, 박보경, 현진실, 2012; 민보경 외, 2019: 22에서 재인용). 10대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에 걸쳐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되며,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다소 조정과 변화를 겪을지라도 개인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잘 변하지 않는 심리 요인으로 자리잡게 된다(Steinburg & Morris, 2001; 민보경 외, 2019: 23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유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장 기초적인

내재 가치(implicit value)로 기능하며, 환경 변화에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심리 요인으로 간주된다(민보경 외, 2019: 23).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미래세대가 지닌 가치관은 향후 사회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은 미래를 주도할 중추 세대이므로 청소년이 중시하는 가치들이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민보경 외, 2019: 22).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민보경 외, 2019: 22).

특히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은 미래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가치관은 태도나 행동에 비해 관찰과 측정이 쉽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김석호 외, 2013: 42). 그러나 가치관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토대로 소통과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파악은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김석호 외, 2013: 42). 또한 가치관은 구성원들이 어떤 쟁점이나 정책대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책방향과 과제,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구성원의 가치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김석호 외, 2013: 4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 시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가치관이 특히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은 경쟁과 자율, 경제적 성취, 안보 등 물질주의의 가치보다 연대와 협력, 참여, 삶의 질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정부 정책이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미래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향후 청년정책 수립 시에도, 곧 청년 세대로 진입할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작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청소년기 가치관의 형성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으로는 △‘초자아’의 발달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학습이론적 관점, 그리고 △생태체계학적 관점이 대표적이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초자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내적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청소년기에 자신을 부모와 같은 권위의 소유자와 동일시하

는 초자아의 발달과정이 곧 가치관의 형성과정이라고 설명한다(임희진 외, 2009: 26).

다음으로, 학습이론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발달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강화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를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본다(임희진 외, 2009: 26).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적(ecology) 관점과 체계적(system) 관점이 결합한 것으로, 유기체를 둘러싼 여러 겹의 자연적·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95; 김희경, 김성훈, 2018: 2-3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청소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Mckinney(1975)는 행동 주체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주위 환경의 자극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은 다시 그 행동의 결과를 피드백하게 되는데, 이때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임희진 외, 2009: 27). 따라서 가치관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내적으로 통제할 때 형성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적 통제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명료한 가치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11; 임희진 외, 2009: 27에서 재인용).

가치관의 형성은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술한 초자아의 발달, 유의미한 타자에 대한 모방과 학습,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치관 발달 과정은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가치가 내면화되어 가치관으로 정립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환경, 학교교육, 사회 및 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가 청소년의 의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발달해 간다고 볼 수 있다(임희진 외, 2009: 27).

한편,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은 현 시대의 가치 체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의 가치관은 기성세대가 구성해 놓은 현 시대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바, 현재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자리잡은 기존 가치들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민보경 외, 2020: 21).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은 일반 성인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지향 및 표현 양식을 가진다. 주로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교사,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가치 표현 방식은 성인과 달리 대담하고 직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민보경 외, 2019: 23에서 재인용). 요컨대 청소년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정 부분 이를 극복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보경 외, 2019: 23).

그런데 청소년의 가치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민보경 외, 2019). 청소년의 가치관은 기성세대가 정립해 놓은 현 시대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고 나타나는 독특한 시각에 따라서 재구성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취업 불확실, 첨단기술의 일상화(정보화), 빈곤·사회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메가트렌드들이 청소년들에게 기회요인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기현 외, 2007; 민보경 외, 2020: 21에서 재인용).

3) 청소년 가치관 영역 구성을 위한 이론적 틀

가치관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키고 행동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임희진 외, 2009: 23).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생태체계적 관점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태도,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적합 정도가 적응 상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79; Germain, 1980; Zastrow, 2000; 임희진 외, 2009: 25에서 재인용).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을 중심으로 겹구조로 둘러싸인 형태로 개념화되어 있으며(이미리, 김춘경, 여종일, 2019: 108) 가정-또래-학교-지역사회-국가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가치관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가치관 영역 구성을 위한 이론적 틀로써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체계이론은 Bronfenbrenner에 의해 생태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을 통합한 것으로, 인간과 주변 환경 간의 상호교류, 상호의존성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한다(Bronfenbrenner, 1979; 권일남, 전명순, 2021: 78에서 재인용). 생태체계이론의 핵심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발달은 사회·물리적 환경의 맥락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데 있다(김희경, 김성훈, 2018: 4).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층위를 형성하는데, 그 층위에 따라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zzo system), 외부체계(exo 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와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김희경, 김성훈, 2018: 4). 이 가운데 미시체계는 매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활동하는 가장 근접적인 맥락으로, 청소년의 경우,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등 일상적으로 속해 있으면서 매일 직접 만나는 맥락적 환경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미리 외, 2019: 109). 미시체계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변경될 수 있고,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 또래, 교사, 이웃 등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주체들과 직접적이고 양방향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달하게 된다(이미리 외, 2019: 109).

중간체계는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경험의 관계, 가정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 또는 맥락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 가정과 또래집단, 학교와 청소년단체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유진이, 2013: 47). 예컨대 부모로부터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유진이, 2013: 47) 등이 중간체계와 관련이 있다.

외부체계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거나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맥락은 아니지만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의 직장, 정부 조직, 매스미디어, 복지 서비스,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 주요 사회적 기관들이 해당된다(Bronfenbrenner, 1977; 이미리 외, 2019: 1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외부체계는 청소년들이 매일 직접 경험하는 근접환경은 아니지만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리 외, 2019: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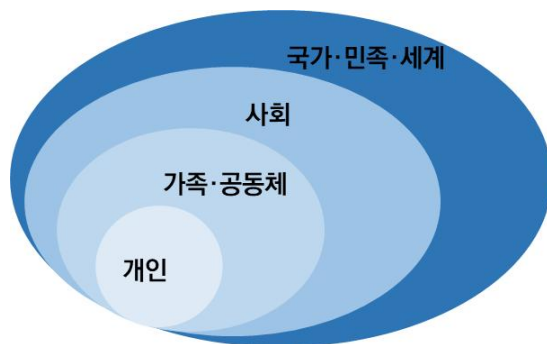
다음으로, 거시체계는 청소년이 속한 사회나 문화적 속성과 같이 사회문화적 규범, 이념, 태도, 관습 등을 이루는 거대한 체계를 의미한다(권일남, 전명순, 2021: 81). 거시체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나 중간체계, 외부체계의 특성이 발현 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며, 따라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가 어떠한 거시체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되고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미리 외, 2019: 111).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는 시간(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유진이, 2013: 49).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는 정지된 환경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맥락적인 체계이므로 시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아울러 생태체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므로 어떤 생애주기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생태 체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이미리 외, 2019: 111). 따라서 생태체계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시간 차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Bronfenbrenner(1977)는 이 같은 시간적 차원을 시간체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이미리 외, 2019: 111에서 재인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태체계이론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폭넓게 반영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가치관 조사의 틀로 유용하다. 이러한 연유로 임희진 외(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위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시체계-중간체계-외부체계-거시체계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반으로, 청소년 가치관을 인생관, 가족관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 통일의식 및 북한관 등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임희진 외, 2009: 2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석호 외(2013)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가치관의 기본 단위를 개인, 가족·공동체, 사회, 국가·민족·세계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기본 단위들은 개인<가족·공동체<사회<국가·민족·세계로 확장 되는 포함관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 출처: 김석호 외(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47쪽. [그림 3-2].

그림 11-3. 가치관의 기본 단위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와 함께, 가치관을 지향에 따라 구분한 Baier & Rescher (1969)의 구분법을 참고하여 가치를 개인지향적 가치, 집단지향적 가치, 사회지향적 가치, 국가지향적 가치, 인류지향적 가치 및 환경지향적 가치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가치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개인지향적 가치와 사회지향적 가치는 그대로 수용하되, 집단지향적 가치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족 및 공동체 지향으로, 국가지향적 가치와 인류지향적 가치는 하나로 합쳐서 국가·민족·세계 지향적 가치로 수정하였다. 각각의 단위는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 차원으로 각 부분에 대한 태도 및 선호를 측정하여, 한국인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김석호 외, 2013: 47). <표 II-3>에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3. 가치관의 기본 단위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철학을 의미하며, 삶의 많은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수행 •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삶의 운명론 등이 개인을 단위로 한 가치체계를 형성
가족 및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에 관해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조직화된 관념체계로 가족에 대한 포괄적 태도를 의미함. • 가족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은 가장 근간을 이룸.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매우 중요하며,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와 집단소속감은 심리적·정신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침. • 공동체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영역에 대한 가치관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 성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태도가 핵심적 내용임. • 특히 사회규범에 대한 준수관이 매우 중요하여, 처벌, 질서유지, 사회적 함양 등에 대한 태도를 주로 측정함. - 최근에는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간 갈등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개인욕구 추구에 대한 제한 정도, 부나 물질을 중시하는 정도 등도 중요하게 간주 - 정보화 등 빠르게 정착되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게 반영
국가·민족·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정체성이 강했으나 최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 관련 가치관이 중요 사항임.

* 출처: 김석호 외(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48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기존 가치관 조사 검토

1) 기존 가치관 조사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 가치관 조사⁴⁾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2007년 당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현실과 이해관심에 기반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처음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청소년들의 관심사, 가치의식, 생활의식 및 사회의식 등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치관의 하위 범주를 개인생활 및 미래, 가족, 학교생활 및 친구, 사회 및 국가, 세계 및 다문화 등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4개 영역에서 115개 문항이 2007년 11월 한 달간 중·고등학생 6,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제16706호)을 받고 국제비교 조사로 확대되었다. 2008년 11월 1일~12월 20일 기간에 한국, 중국, 일본의 중·고등학생 각각 2,000여명, 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추적하고,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비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외 조사는 중국청소년연구중심 소년아동연구소와 일본청소년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조사내용의 구성에서부터 자료수집의 전 과정을 3개국이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조사내용의 하위영역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체계들과 분리되어 기능할 수 없고, 청소년과 환경 사이의 적합성(goodness of fit) 부족을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가치관의 하위영역을 가족, 친구, 학교, 사회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체계와 청소년의 성장과정 및 사회적 사안을 고려하여 진로, 결혼, 다문화의식 등을 포함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국가 간 비교와 성인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인의 의식·

4) 이 절의 내용은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각년도)」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가치관 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문항을 일부 참고하였다. 또한 이 조사의 국제비교 목적과 시계열 자료 축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3차 조사는 2010년 10월~11월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내 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한 표본설계로 조사가 추진된 반면, 중국은 4개 지역(8개 학교)에서, 일본은 6개 지역(11개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한국 2,268명, 중국 1,167명, 일본 1,144명이었고 조사영역은 2008년 7개 영역에 역사관 영역(역사 교육의 필요성, 역사 보존의 필요성, 잘못된 역사 수정의 필요성, 역사 재조명의 필요성,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한·중·일 역사 문제에 대한 전망, 아시아국가연합 구성의 필요성)을 추가하여 8개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조사부터는 조사시기가 6월~7월로 변경되었고,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확대하여 초5~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조사 영역은 2010년과 동일한 8개 영역이었으나, 2010년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설문 영역 확대'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예술과 스포츠에 관한 9개 문항을 신규 개발하여 인생관에 추가하였다. 2012년 6월 4일~7월 23일에 한국 5,098명, 중국 2,083명, 일본 2,07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조사영역과 조사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청소년 가치관 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2012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인생 및 여가관	인생관	인생관	여가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미래에 대한 전망, 가족 중요도, 동성친구 중요도, 이성친구 중요도, 이웃 중요도, 여가 중요도, 건강 중요도, 일 중요도, 종교 중요도, 학력 중요도, 권력 중요도, 돈 중요도, 예술 중요도, 스포츠 중요도, 종교 유무 및 종교 종류, 종교를 갖는 이유, 예술은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됨, 예술은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됨, 예술은 즐겁고 재미있음, 예술은 시간이나 돈이 없더라도 즐길 수 있음, 고전음악이 대중음악보다 고급스러움, 스포츠는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성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됨, 스포츠는 즐겁고 재미있음, 스포츠는 시간이나 돈이 없더라도 즐길 수 있음, 스포츠 경기는 단합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됨
미래관			
이성 및 결혼관	가족 및 결혼관	가족 및 결혼관	가족과의 대화 정도, 가족 중 대화 상대, 가족과의 대화 주제, 가족과의 친밀감, 부모의 이해 정도, 가족생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정도, 친구보다

영역			조사내용(2012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가족관			친척이 가까움, 가정 분위기, 형제자매와의 친밀성, 형제자매보다 친구가 좋음, 아버지의 권위 존중 문제*, 장남의 재산 상속 정도*, 3대가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함*, 제사에 대한 생각*, 부모의 비용 부담(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학연수/해외유학, 취업준비, 결혼, 결혼후)*, 노부모 부양 책임, 자녀 양육 책임, 결혼에 대한 의견,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함, 한부모의 자녀 육아 가능성,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여성의 성공 기준,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배우자 선택 기준*, 희망 자녀 수,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동성애 수용도*, 낙태 수용도*, 이혼 수용도, 혼전성관계 수용도*, 혼전동거 수용도, 미혼모 수용도*, 입양 수용도*
직업관	진로 및 직업관	진로 및 직업관	인생목표 설정 여부, 대학 진학 필요성,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부모 의견의 고려 정도, 직업 낙관성, 직업 선택 기준
학교관	학교 및 친구관	학교 및 친구관	친구 선택 기준,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 특기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 교사에 의한 차별 대우 경험, 학교 다니는 것의 필요성,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음, 진학을 위한 과외수업의 필요성,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전망, 집단따돌림의 원인,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처벌 여부
신뢰감		사회 및 국가관	길거리에서 위험 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임,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임,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임, 부자는 존경의 대상임,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은 당연함,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조에 관한 견해, 집단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음,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음,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양보 못함,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국가에 대한 만족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 나라가 위급 시 무엇이든 하겠음,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음, 사는 나라에 관계없이 같은 민족은 형제자매임, 가족 신뢰도, 친구 신뢰도, 학교선생님 신뢰도, 이웃어른 신뢰도, 국가정상 신뢰도, 언론 신뢰도, 정치인 신뢰도, 종교인 신뢰도, 학원선생님 신뢰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이슈나 쟁점-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투표 연령의 적절성, 장기기증 수용도*, 탈세 수용도*, 뇌물수수 수용도*, 안락사 수용도*, 사형제도 수용도*
참여의식	사회 및 국가관	사회 및 국가관	
국가관	존경하는 인물 및 리더십	역사관	역사교육의 필요성, 역사 보존의 필요성, 잘못된 역사 수정의 필요성, 역사 재조명의 필요성*,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한·중·일 역사문제에 대한 전망*, 아시아국가연합(AU) 구성의 필요성*

영역			조사내용(2012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공동체 및 인권의식	다문화 의식	다문화 의식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 자국의 다문화 사회화 여부, 다문화 사회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됨,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음, 다문화 청소년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음, 다문화 청소년이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다문화 의식			
통일의식 및 북한관**	통일의식 및 북한관**	통일의식 및 북한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급성*, 통일 가능성, 가장 친숙한 나라,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신뢰도,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

* 주: *는 초등학교 대상 제외 문항이고, **통일의식 및 북한관은 한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출처: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각년도)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07년~2012년에 수행된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청소년 가치관 양상의 변화에 대한 추세연구와 국가 간 비교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포괄적인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실태를 묻는 문항이 많았고, 한국 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서 표본 추출 및 조사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반면, 중국, 일본 조사는 한국 조사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 관리의 엄밀성이 미흡하였다. 또 조사가 거듭될수록 리커트 척도를 국제 비교하는 한계가 드러나 국제비교를 2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4년에는 당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점측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 이용실태조사의 설문항목 유사증복에 따른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관련 체계 개편이 논의되었다(여성가족부, 2014.5.20.).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유성렬, 김기현, 이기재, 2014), 청소년가치관조사를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통합하였다.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내용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 중심으로 선정되었다(유성렬, 최창욱, 백혜정, 2016).

그러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조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생활 양상과 의식, 태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는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시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20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에서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7개 영역 중 통일의식 및 북한관을 제외)한 6개 영역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5,740명을 조사하였다(오해섭, 문호영, 2020). 오해섭과 문호영(2020: 228)은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 자료 축적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별도의 조사로 재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⁶⁾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한국 경제와 정치가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1996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김석호 외, 2013: 2-3). 이후 2001년, 2006년, 2008년에 실시되다가, 2013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2022년에는 8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김석호 외(2013)는 이 연구에서 그간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진단하고 가치관 조사의 체계 및 영역을 선정하여 조사방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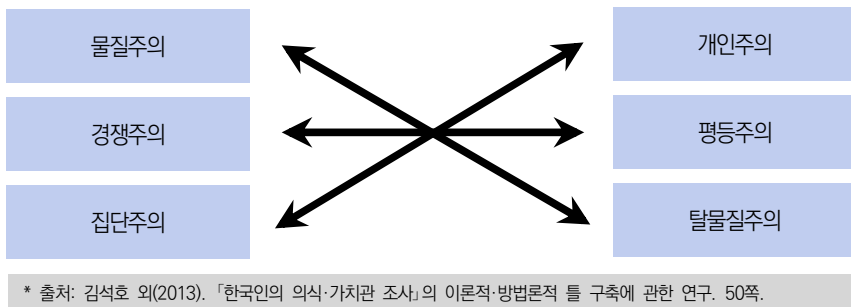


그림 II-4.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중요 가치의 대립축

5) 오해섭 외(2020: 7)는 조사문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통일의식과 북한관을 삭제하였음.

6) 이 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서는 가치관의 주요한 차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평등주의와 경쟁주의의 설명 틀을 적용하여 문항을 탐구하였다. 개인, 가족·공동체, 국가·민족·세계를 기본 단위로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 평등주의-경쟁주의의 축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 포함될 문항을 검토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가 실시되었다.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의 6차례 조사를 실시한 시점에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학술적,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 가치관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병합하고 DB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표 II-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개인생활	전반적 행복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 가족에 대한 만족, 친구에 대한 만족,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직업에 대한 만족, 주거에 대한 만족
결혼/가족생활	결혼에 대한 인식, 배우자 선택 기준,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동거(사실혼)에 대한 인식,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낙태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가정 경제 수준,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일/여가/노후 생활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경쟁에 대한 인식,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갈등/신뢰/공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기업가와 근로자,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진보와 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경제적 양극화 인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
사회일반/참여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자리, 빈부격차, 부동산·주택,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 복지, 집단갈등, 국가안보, 안전, 교육 등)
문화/역사/정체성	문화에 대한 자부심(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한국의 정신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다문화 가정, 난민 수용), 한국인의 정체성(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살기 좋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문화분야, 경제분야, 법치분야, 정치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북한/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시기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12.).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보고서, 2-64쪽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의식·가치관의 변화 추이와 핵심변화요인을 파악하여 7차 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22년 제8차 조사는 개인생활, 결혼/가족생활, 일/여가/노후 생활,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갈등/신뢰/공정, 사회일반/참여, 문화/역사/정체성, 북한/통일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79세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3일~8월 24일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II-5>와 같다.

(3)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⁷⁾

「세계가치관조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사회·경제·종교·문화 영역의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는 국제적인 연구 사업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관의 유지 또는 변화가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경제·기술 변화가 대중들의 가치관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1981년 시작된 「유럽 가치관 연구(European Values Study: EVS)」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 간 시계열 조사로 자리매김하였다(World Values Survey, 2023.2.9.).

「세계가치관조사」의 바탕이 된 「유럽 가치관 연구」는 1981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EVS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6개 대륙 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WVS로 거듭나게 되었다. EVS 형태로 추진된 1차 조사결과는 정치, 경제, 종교, 성 역할, 가족규범, 성적규범 등 기본적인 영역의 가치관에서 세대 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일관되게 차이를 보였다. 이후의 WVS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사 참여국의 확대를 위해 분산형 전략을 취했다(World Values Survey, 2023.2.9.). WVS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이 절의 내용은 World Values Survey(<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표 II-6. 「세계가치관조사」 주요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1차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가치관 조사 형태로 추진 • 조사 결과, 정치, 경제생활, 종교, 성역할, 가족규범, 성적규범 등 기본적인 가치관 영역에서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2차 (1990~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조사 실시 •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세대 간 차이가 경제·기술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포함하기 위해 참여국가 확대 추진
3차 (1995~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개 국가 참여 • 민주주의의 문화적 조건 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 강조
4차 (1999~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 국가 참여 • 이전 설문에서 과소 대표되었던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국가 추가에 역점
5차 (2005~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사항목 유지(빈곤에 대한 태도와 경험, 교육, 건강 및 보안, 사회적 관용과 신뢰,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 항목 등)
6차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사항목 유지(빈곤에 대한 태도와 경험, 교육, 건강 및 보안, 사회적 관용과 신뢰,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 항목 등)
7차 (2017~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개국으로 참여국 확대 • 새로운 사회 현상 및 가치관 변화 과정을 다루는 주제 및 조사항목으로 7차 조사 설문지 개선 • 신규 주제로 정의, 도덕 원칙, 부패, 책임 및 위험, 이주,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항목 추가
8차 (2024~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026년 추진 예정

* 출처: World Values Survey(2023.2.9.), 'What we do'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및 'History of 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CMSID=History&CMSID=History> 에서 인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연구진 재구성.

가장 최근에 실시된 7차 조사 기준, WVS의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고,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 최소 표본수는 1,000명인데, 인구 200만 미만 국가에서는 1,000명의 표본 크기가 허용되지만, 인구 200만 이상 국가의 경우에는 최소 1,500명 이상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World Values Survey, 2023.2.9.). 표본 추출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 상한선은 적용하지 않으며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확보하는데, 일반적으로 1차 단계에서는 지역(지구, 인구조사 단위, 선거구, 인구 등록 기준 등)을 표본설계의 기준으로 삼아 무작위 표본추출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기본 표본추출에 인구 규모 또는 도시화 정도(예: 대도시/중소도시 등)가 고려된다(위키피디아 세계가치관조사, 2023.2.13. 인출⁸⁾).

조사내용은 7차 조사 기준 약 2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문화적 가치, 성별, 가족 및 종교, 빈곤, 교육, 건강 및 보안, 사회적 관용 및 신뢰, 다자간 제도(multilateral institutions),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 특히 7차 조사에서는 정의, 도덕 원칙, 부패, 책임 및 위협, 이민,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거버넌스 등 신규 주제를 포함하여 조사문항을 정교화하였다. 또한 7차 조사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UN Post-2015 아젠다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1번(빈곤 퇴치), 2번(기아 종식), 3번(건강과 웰빙), 4번(양질의 교육), 5번(성 평등),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3번(기후변화와 대응), 16번(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지구촌 협력)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한편, WVS는 조사 설계의 종단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 조사에 포함된 다수의 문항을 반복 조사한다. 기존 문항 대 신규 문항의 비율은 대체로 60:40 정도의 비율로 유지한다. WVS 7차 조사의 14개 주제별 영역 구성은 <표 II-7>과 같다.

표 II-7. 「세계가치관조사」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수	구분	조사항목수
• 사회적 가치, 태도 및 고정관념	45개	• 과학기술	6개
• 사회 복지	11개	• 종교적 가치	12개
• 사회적 자본, 신뢰 및 조직구성원	49개	• 안보	21개
• 경제적 가치	6개	• 윤리적 가치 및 규범	23개
• 부패	9개	• 정치적 관심 및 정치 참여	36개
• 이주/이민	10개	• 정치문화 및 정치체제	25개
• 물질주의	6개	• 인구통계학적 배경	31개

* 출처: World Values Survey(2023.2.9.). 'What we do'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8) 위키피디아 세계가치관조사 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Values_Survey 에서 2023.2.13. 인출.

WVS는 가치관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국제비교연구라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 이미 7차 조사까지 실시되었고,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별·시기별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매 차수 조사를 공통 문항과 특별 문항으로 구성하여, 시계열별 변화와 더불어 시대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설계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다만, 모집단을 18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WVS 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관을 국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경제·기술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사회일 수록 세대 간에 가치관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한다는 WVS의 조사 결과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청소년 대상 가치관 조사는 성인 세대와의 비교도 염두에 두고 조사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조사⁹⁾

「사회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11.16.). 1977년 최초 조사가 실시된 이래 조사내용의 축소·확대와 조사주기의 변경 등 일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자료 중 하나이다.

가장 최근에 완료된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은 만 13세 이상 가구원으로, 표본 규모는 1,548개 조사구 18,445가구 내 35,792명이다. 「사회조사」는 매년 5월에 실사가 진행되는데, 조사방법으로는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가 병행 적용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총 10개 영역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영역씩 분리하여 조사한다. 짝수 해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을, 홀수 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례적으로 2021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사가 한시적으로 추가된 바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11.16.). 주요 조사내용은 <표 II-8>과 같다.

9) 이 절의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2022.11.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표 II-8. 「사회조사」 주요 조사내용(2021년 및 2022년)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시기	
가족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결혼/결혼문화/결혼식 문화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분담 청소년 고민 입양에 대한 견해 	짝수 해
교육과 훈련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 만족도 기대교육 수준 및 이유 교육비 부담 인식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회 충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학습 	
건강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평가/건강관리/유병 기간 스트레스 정도/자살 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 만족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범죄와 안전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안전 상태 변화 야간 보행의 안전도 	
생활환경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체감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 비용 부담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 상황 변화 환경오염 방지 노력 	
복지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여건의 변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유대관계 장애인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홀수 해
사회참여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관계망 계층의식/계층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기부/자원봉사 활동 	
여가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활용/여가 활용 만족도 레저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소득과 소비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소득수준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소득과 부채의 변화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노동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선택 요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근로여건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한시 조사
코로나19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관계망 변화 재택근무/원격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생활 변화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 	

* 출처: 1) 통계청 보도자료(2022.11.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 통계청 보도자료(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사회조사」는 조사내용으로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객관적 실태 파악 외에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 조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된 조사라는 점도 「사회조사」가 지닌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누적된 자료로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조사대상의 연령대가 다양하여 청소년 조사결과를 성인과 비교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조사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이 어렵고, 전 연령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같은 특정 세대의 실태 또는 주관적 인식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¹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조사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패널데이터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KCYPS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등 객관적 실태를 묻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지만, 삶의 만족도, 행복감, 협동심처럼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 자료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조사는 크게 3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KCYPS는 3기 조사에 해당한다. 제1기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라는 이름으로 2003년~2008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초4 코호트와 중2 코호트를 대상으로 6년 간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제2기 패널조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YCPS 2010)’으로 명칭을 바꾸어 2010년~2016년까지 7년 간 진행되었고, 초1, 초4, 중1 패널 각 2,300여 명씩 총 7,071명을 원패널로 구축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KCYPS 2018)는 제3기 패널로, 2018년 기준 초4 및 중1, 2개 코호트별로 각 2,500여 명씩 총 5,197명을 원패널로 구축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5차 조사가 실시되어 중학교 2학년이 된 초4 코호트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황진구 외, 2022: 4-5).

10) 이 절의 내용은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표 II-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주요 연혁

구분	내용	
제1기 조사 (2003~2008)	목적	• 청소년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결정 및 준비, 일탈행위, 자아관 등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
	대상	• 2개 코호트 - 2003년 기준 중2 3,449명 - 2004년 기준 초4 2,884명
제2기 조사 (2010~2016)	목적	•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
	대상	• 3개 코호트 -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각 2,300여 명, 총 7,071명
제3기 조사 (2018~)	목적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
	대상	• 2개 코호트 - 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 총 5,197명 - 보호자 및 형제자매 별도조사 실시

* 출처: 황진구 외(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요약 내용을 표로 재구성.

KCYPS 2018의 조사영역 및 항목은 크게 기본 모듈과 스페셜 모듈로 구성된다. 기본 모듈은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의 2개 대영역으로 구별되는데, 개인발달 대영역에는 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신체발달의 6개 중영역이 포함되며, 발달환경 영역은 매체, 활동/문화환경, 학교, 가정의 4개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기본 모듈 문항은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급적 기존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학령기에 따른 생활양상 차이와 어휘력 등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진다. 스페셜 모듈은 기본 모듈 조사내용과는 별도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이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이나 주제를 다룬다(황진구 외, 2022: 10). KCYPS 2018의 조사내용 중 가치관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KCYPS 자료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된 패널데이터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3년, 2010년, 2018년에 구축된 총 3기의 패널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코호트별로

표 II-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가치관/주관적 인식 관련 주요 조사항목

모듈	조사영역		조사항목	
	대영역	중영역		
기본 모듈	개인 발달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희망 교육수준 • 진로관심/진로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직업 결정여부 • 진로자신감
		사회/정서/ 역량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행복감 • 사회적 위축/우울 • 창의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 협동심 • 그릿(Grit)
	발달 환경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교사관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스페셜 모듈	3차(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안전 의식: 안전 체감도(자연재난/사회재난) • 안전인식도(행동요령 인식) 	
	4차(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인식 역량(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 	
	5차(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 출처: 황진구 외(2022). 2022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11쪽 <표 1-2>에서 가치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가치관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도 일부 활용 가능하다. 반면, KCYPS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전반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므로 조사영역이 무척 광범하며, 생활시간, 신체발달, 여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같은 기본 실태파악에 중점을 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치관이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¹¹⁾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이다.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되었으며¹²⁾, 2개 영역씩 격년으로 조사되던 것을 2013년부터 한 해에 종합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주기와 체계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반복횡단조사

11) 이 절의 내용은 「김영지, 최홍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12) 국가통계포털 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에서 2023.2.10. 인출.

이다¹³⁾. 조사 모집단은 전국의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초등학생 3천명, 중학생 3천명, 고등학생 3천명을 목표표본으로 삼아 실시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수행된 2022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2,994명, 중학생 2,996명, 고등학생 2,865명 등 총 8,854명을 조사하였다(김영지, 최홍일, 2022: 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영지, 최홍일,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포함된 조사내용 중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주요 항목을 선별해보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치관/주관적 인식 관련 주요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공간)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시민적 권리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교통사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 생각 여부 및 이유

* 주: 7대 영역 중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특별보호조치 등은 가치관 또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조사항목 미포함.
 * 출처: 김영지, 최홍일(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6쪽, <표 I-2>를 발췌하여 재구성.

이 조사는 2013년부터 유사한 틀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조사내용에 큰 변화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 청소년 세대에서 관련 실태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계열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장점이 있다. 반면, 조사내용이 ‘인권’,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7대 영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기 어렵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관리되므로 조사내용의 일관성을 유지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반복횡단조사 개요 설명.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471&siteId=null> 에서 2023.2.10. 인출.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적 현상이나 주제에 관한 문항을 자유롭게 가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각 영역별로 해당 영역과 관련한 주관적 인식이나 생각을 묻는 문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데 조사의 주된 목적이 있는 바, 가치관이나 인식을 충분히 살펴보는 데도 제한점이 있다.

(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¹⁴⁾

이 조사의 목적은 미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으로 한국인들의 가치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민보경 외, 2020: 27). 특히 청소년과 20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보경 외, 2020: 9). 이 조사에 앞서 2019년에는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가 실시되었고, 민보경 외(2019: 5)는 이 연구는 2020년에 수행될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조사가 청소년의 개인 가치/집단 문화와 국가·세계관, 미래에 대한 관점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론적·경험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상을 도출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민보경 외, 2020: 9).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청소년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이고, 가구조사로 5,321명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2020년 조사기간(2020년 9월 10일~10월 31일) 현재와 10년 후, 30년 후 미래 시점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인과 가치관, 주관적 웰빙 및 미래 전망, 사회와 가치관, 국가 및 정치에 대한 가치관 등 5개 영역 111개 항목으로 조사부문 및 조사항목은 <표 II-1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가치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민보경 외, 2020: 178) 조사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4) 이 절의 내용은 「민보경 외(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표 II-12.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조사문항

조사부문	조사항목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미래에 대한 관심도 (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개인적 노력과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중 나의 미래 결정 요인
개인적 가치관	좋은 학교에 대한 의견, 직업 선택시 중요한 것,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가치관,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 가족 범주에 대한 인식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희망하는 삶의 유형,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및 행복한/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30년 후의 나의 행복
사회와 가치관	타인에 대한 신뢰, 집단(대상)별 신뢰(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인공 지능), 사회 및 집단에 대한 인식, 사회의 수용 범위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우리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전망,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국가와 가치관	정치 참여 의식,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한 인식, 국가의 업무 중요도, 공익 목적시 국가의 권리 범위 인식, 국가관 및 정치의식, 세계시민·통일에 대한 의식, 남북통일에 대한 시기적 전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 및 전망,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것

* 출처: 민보경 외(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28쪽.

(8)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¹⁵⁾

이 조사는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국민자부심, 역사의식, 국제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0년 9월 1일~10월 7일의 기간 동안, 한국(서울/부산),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도쿄/쿄토), 미국(뉴욕/LA)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각 200명씩 국가당 600명을 조사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 조사내용은 <표 II-13>과 같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자긍심, 국가 지위, 평시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공동체 의식, 국민의 기본의무 자발적 이행의지, 역사발전에 대한 본인의 영향력 기여

15) 이 절의 내용은 「국가보훈처(2010).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여부, 우방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 지원의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가정환경 수준이 낮은 청소년,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보훈 의식 및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관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에게 보훈교육이 필요함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 조사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내용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영역의 조사문항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표 II-13.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주요 조사항목

영역	조사내용
국가관·보훈의식	각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각 국가의 국제적 지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위기 시 국난극복 의지, 전쟁발발 시 참여 의지, 국민의 기본의무 자발적 이행 의지, 국가이의 실현 의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역사관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 정도,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 역사발전에 기여 의식, 역사유적지 방문 정도, 역사의식 함양요인
국제관계관·다문화	우방국 지원 의지, 우방국 지원 참여 여부, 우방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 다문화 인식, 이주민의 자국사회 기여, 이주민에 대한 인정 여부
개인가치관	가장 고민하는 문제,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장 관심 있는 대중문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활용 방법

* 출처: 국가보훈처(2010).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결과보고서. 2쪽.

2) 가치관 조사의 영역

앞서 제2절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개인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단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김석호 외(2013) 및 임희진 외(2009) 등의 관점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치관 조사영역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치관 조사영역 도출을 위해, 그간 수행된 기존 가치관 조사의 조사영역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 혹은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사내용 설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기존 가치관 조사의 조사영역을 검토한 내용이 <표 II-14>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조사들 가운데 ‘가치관’ 조사에 집중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따라서 가치관이나 인식이 아닌 단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둔 조사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에 포함된 조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조사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2012년 내용 및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실시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변화 연구」의 조사문항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19년 실시한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조사」 문항을 검토하였다. 한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아니지만 가치관 조사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2022년 최신 문항과 2020년 실시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의 조사내용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준의 가치관 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문항도 검토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영역으로는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종교적 가치, 주관적 웰빙/행복, 건강과 환경, 개인 생활, 일/여가/노후 생활, 개인 차원의 미래전망 등이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주관적 웰빙/행복(개인적 미래전망 포함) 등이 복수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일상생활에서의 개인-환경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영역 중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 등 소속집단을 포함하는 영역에는 결혼관, 가족관, 친구관,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등이 포함되었다. 검토했던 대부분의 조사자료에 가족관 및 결혼관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가치관 조사에서 핵심 영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학교관, 사회적 지지(이웃) 관련 내용이 도출되었다. 다만, 개인 영역의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주관적 웰빙이나 가족·친구 영역의 가족 및 결혼관에 비해, 학교관 및 사회적 지지 관련 내용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관련 영역으로는 사회 및 국가관, 역사관, 다문화의식, 통일의식 및 북한관 등이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주요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갈등, 신뢰, 다양성, 공정 등의 이슈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표 II-14. 생태체제적 관점을 적용한 기존 가치관 관련 조사의 영역 분류

조사명 (최근 조사년도/조사기관/조사주거)	개인	가족·친구	학교·지역사회	국가·사회 및 세계
청소년 가치관 조사 ⁽¹²⁾ (2012/여성가족부/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결혼관 학교 및 친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관 다문화의식 통일 의식 및 북한관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조사 기반 연구 ⁽³⁾ (2019/국회미래연구원/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과 진로 개인의 행복 건강과 환경 개인적 미래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다양성 사회 및 국가관 과학기술과 미래 삶 미래진영(국가/세계) 주변국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변화 연구 ⁽⁴⁾ (2020/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비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결혼관 친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⁵⁾ (2022/문체부/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생활 일/여가/노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가족 생활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지(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신뢰/공정 사회일반/참여 문화/역사/정체성 통일/북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⁶⁾ (2020/국회미래연구원/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웰빙 개인적 미래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진영(국가) 신뢰/다양성/공정 환경/과학기술 정치/민주주의 세계시민 통일 미래진영(세계)

조사명 (최근 조사년도/조사기관/조사주기)	개인	가족·친구	학교·지역사회	국가·사회 및 세계
세계가치관조사 ⁷⁾ (2018/세계가치관조사협회/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와 태도 • 사회적 행복 • 경제적 가치 • 안전 • 종교적 가치 • 윤리적 가치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와 태도(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본, 신뢰 및 조직가입 •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 탈물질주의적 지표 • 과학기술 •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 정치적 문화 및 정권

* 주: 1)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처음 실시한 이래, 2008년, 2010년, 2012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는 2012년 조사내용을 검토하였음.

* 검토자료: 2) 임희진 외(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민보경 외(2019),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4) 오해심, 문호영(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6) 민보경 외(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7) World Value Survey(2018), WVS7_Questionnaire_South Korea_2018_Korean.

4. 가치관의 개념 정의 및 조사영역

이 장에서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가치관의 개념, 기능과 사회적 영향,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조사의 의의와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조사의 성과와 한계, 조사 영역 등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추진하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가치관의 개념 정의 및 조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가치관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의의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 인간 본성, 세계, 사회문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판단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Newcomb et al., 1970; 김석호 외, 2013: 38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치관은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평가적 특성을 비롯해, 보편적 특성, 지속성, 맥락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가치관은 일정 부분 추상적·관념적 성격이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이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도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변동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역으로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사회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 가치관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생애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가치로서 광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은 향후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의의를 지니는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은 다양한 경로로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부모 등 주변의 권위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초자아’의 발달과정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의 유의미한 타자를 모방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사회로 이어지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생태체계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치관은 다양한 경로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사회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변동을 촉발하기도 하며, 특히 청소년기 가치관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청소년 가치관 조사영역(안)의 도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치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조사설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본 틀로 설정하여 기존 가치관 조사의 조사영역을 분류·검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 포함될 조사영역(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주요 가치관 조사내용을 분류 틀에 맞추어 검토한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핵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 및 시계열 비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주요 조사영역(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인생관, 진로 및 직업관, 주관적 웰빙/행복 등이 주요 조사영역 또는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가족·친구 관련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족 및 결혼관이 핵심 내용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고, 학교·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가정만큼 중요한 외부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에 관한 가치관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및 세계와 관련해서는 사회관(갈등, 신뢰, 다양성, 공정 등)과 더불어 국가 및 역사관, 다문화 의식, 통일 및 북한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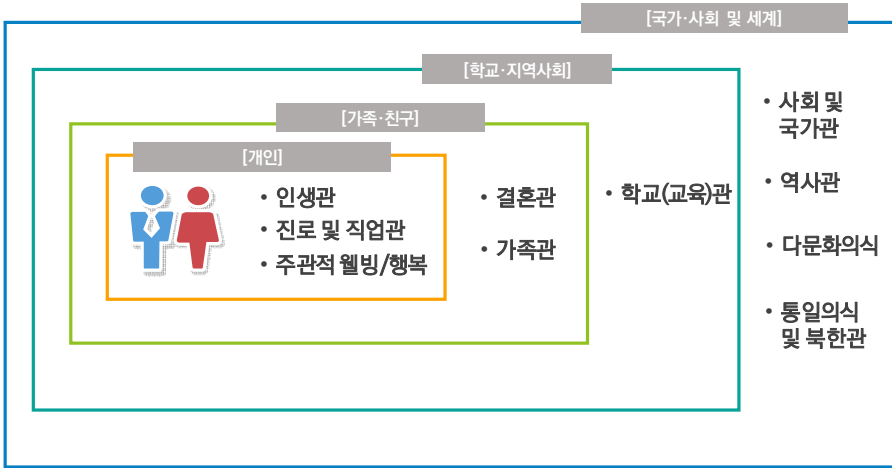


그림 11-5.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영역 분류(안)

○ — 제3장 청소년 가치관 조사내용 설계

-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 2.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개발
- 3. 전문가 검토
- 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및
관계부처 검토
- 5. 조사내용의 도출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1) 조사내용 설계 시 고려사항

제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치관 조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문항 설계 시 ‘상반된 가치에 대한 선택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중희(1999)는 ‘가치’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대치되는 한 쌍의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가치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 사이의 연속성 상에 존재하는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석호 외, 2013: 2에서 재인용).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치관의 주요 특징으로 ‘평가적 특성’이 있음을 지목한 바 있다. 가치관에 내재된 이 같은 속성을 고려하면, 가치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한 쌍의 상반된 가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묻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다수의 문항에 이 같은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의 내용에 따라 상반된 가치 중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관의 속성을 반영한 조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영역 및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 설계가 요구된다. ‘세대’는 가치관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실제로 Inglehart의 ‘세대 간 가치변화 이론(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 등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대에 따라 가치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석호 외, 2013: 4). 그런데 세대 간 가치관 차이 확인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단일 세대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는 어렵고,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비교’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풍부한 논의를 위해, 상술한 비교가능성

을 염두에 둔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코호트 간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내용을 설계할 때 핵심 조사영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전에 수행된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염두에 둔 조사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내용 설계 절차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2장에서 도출한 청소년 가치관의 조사영역별로 기존 가치관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를 거쳐 조사표(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202305-HR-고유-007)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사내용 설계 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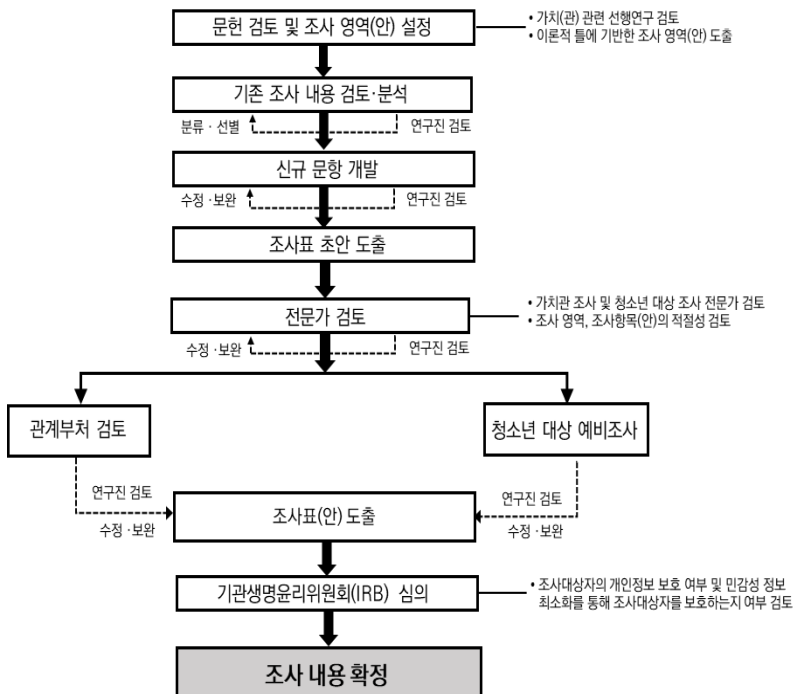


그림 III-1. 조사내용 설계 절차

2.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개발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2012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되었던 기존의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근간으로 하였다. 2012년 조사내용과 2023년 조사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2012년과 2023년 조사 결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청소년 코호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기존 조사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청소년 가치관 조사」가 향후에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계속 조사하기에 시대착오적이거나 당위적인 문항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이므로 단순히 생활실태를 묻는 문항은 지양하였다. 넷째, 청소년기는 가족과 교사, 또래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각 영역에 가족,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주변과의 관계에 따른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었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거나, 사회정책을 입안하는 데 시사를 줄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생활'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살펴보았다. 주요 검토 항목 및 검토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생활'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주관적 건강, 미래에 대한 전망 • 인생에서 중요한 사항(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여가, 건강, 일, 종교, 학력, 권력, 돈, 예술, 스포츠) • 종교, 종교를 갖는 이유 • 예술과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생활실태 문항 지양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행복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 • 만족도(가족, 친구, 소득/재산, 문화/여가생활, 건강, 직업, 주거)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 가치관 일반(경제, 경쟁, 교육 환경) 공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세계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협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에서 중요한 사항(가정, 친구, 여가생활, 정치, 직장, 종교)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주관적 건강 • 과학기술 • 종교적 가치 • 환경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항 파악 • 시의성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조건 • 가치 항목별 (일-여가, 현실-이상, 결과-과정, 개인-집단, 타인의 이목-자신의 주관)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에서 중요한 사항 • 상반된 가치에 대한 선호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감 • 인생에서 중요한 것 • 소비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비교 가능성 • 실태 파악 문항 지양 • 정책적 활용도 고려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삶에 대한 가치관 • 환경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성 •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고려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주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성
사회통합실태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이고 친화적인 상품 선택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활용도 고려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¹⁶⁾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던 ‘나는 지금 행복하다’와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 문항을 성인 세대의 가치관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10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②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여가, 건강, 일¹⁷⁾, 학력, 권력/사회적 지위, 돈이 각각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¹⁸⁾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는 4점 척도로 질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항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측정된 문항이므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세부 항목에서는 조사년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2010년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 조사에 추가하였던 예술, 스포츠 항목은 2020년에 실시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도 제외하였다.

16)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행복감’ 1개 문항으로 조정함.

17)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직업’으로 수정함.

18)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항목을 추가함.

또한 종교 항목을 제외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10점 척도의 만족도(가족, 친구, 소득/재산, 문화/여가생활, 건강, 직업, 주거)로 측정하고 있는데, 가치관을 측정하기에는 만족도보다는 중요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를 측정하기로 하였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가정, 친구, 여가생활, 직장 등의 중요도를 조사하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을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 일과 여가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 여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의 형태로 10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일 중시-여가 중시, 현실 중시-이상 중시, 결과 중시-과정 중시, 개인 중시-집단 중시, 타인의 이목 중시-자신의 주관 중시에 대한 선호 정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에서는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이 우선이다’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이 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삶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문항인,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의 4개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하였다.

⑤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 보통 →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의 10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해당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⑥ 복지, 경쟁에 대한 관점

만 19~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실시하는 가치관 일반에 대한 조사항목 중 청소년이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경쟁에 대한 인식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세대 간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⑦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 보호가 우선인지,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인지를 10점 척도로 묻는 쌍대비교 형태의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⑧ 물질주의 가치¹⁹⁾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찰되는 높은 물질주의 성향이 청소년들에게도 발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는 비싼 집, 차, 옷 등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 ‘나의 소유물은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물건을 사는 것은 내게 큰 즐거움을 준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좋다’,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물건들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더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의 6개 문항을 차용하였다.

⑨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보다는 과학에 지나치게 의지한다’, ‘과학의 나쁜 영향 중 하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과학과 기술 덕에 세상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의 6개 문항에 대해 동의 정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 문항을 추가하고 4점 척도로 수정하여 7개 문항²⁰⁾을 구성하였다.

19) 이후 절차에서 비의도적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 등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음.

20)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3개 문항으로 조정함.

2) '가족과 결혼'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가족과 결혼'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사회조사」,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양성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표 III-2. '가족과 결혼'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대화 • 가족과의 관계 • 부모의 비용 부담 책임 • 노부모 부양 책임 • 결혼에 대한 생각 • 배우자 선택 기준 • 동성애,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미혼, 입양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생활실태 문항 지양 • 시대 변화 반영 •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른 가치관 차이 파악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 배우자 선택 기준 • 동거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 •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 • 결혼필수에 대한 생각 • 노후 생활 부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사회조사	통계청(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 자녀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항 파악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만족도 • 결혼 후 부모 봉양 •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 명절에 대한 생각 • 부모님의 노후 돌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시대 변화 반영 • 정책적 활용도 고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대한 범주(반려동물,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도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미혼 동거에 대한 인식 • 남성의 육아휴직 •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 • 가족을 위한 부모 희생 • 가정의 민주적 의사소통 • 자신의 진로선택과 부모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변화 반영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가족과의 관계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질문하였던 가족과의 친밀감, 부모의 이해 정도, 가족 생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정도, 친구보다 친척이 가까움, 가정 분위기, 형제자매와의 친밀성, 형제자매보다 친구가 좋음의 8개 문항 중 친척과 형제자매에 관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의 ‘우리 집은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문항을 추가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과의 관계는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어 가족과 결혼 영역에 문항을 포함하였다.

② 결혼관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의 4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항목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이므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도 유사문항이 있어서 성인 세대와의 차이도 참고할 수 있다. 「사회조사」의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문항을 포함하였고,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동성애 수용도 문항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문항인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시계열 비교 및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자녀관

「사회조사」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문항을 포함하여 자녀관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입양 수용도를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④ 가족의 범주

청소년이 생각하는 새로운 가족 범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의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와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의 2개 문항을 가족과 결혼 영역에 포함하였다.

⑤ 양성평등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별에 상관없이 취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돈을 버는 일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해야 한다’,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해야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안일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의 6개 문항²¹⁾을 7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의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를 비교를 위해 추가하였다.

21)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3개 문항으로 축소함.

⑥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취업, 결혼, 결혼 후까지의 선택지 중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그림 III-2]의 형태였으나, 응답자가 응답하기 쉽도록 선택지를 축소하고 응답 방식을 수정하였다([그림 III-3] 참조).

문 11. 학생은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부모님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일부만을 부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①	②	③
3) 대학원을 졸업할 때 까지	①	②	③
4) 어학연수 또는 해외유학 까지	①	②	③
5) 취업할 때 까지	①	②	③
6) 결혼할 때 까지	①	②	③
7) 결혼 후에도	①	②	③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545쪽.

그림 III-2.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조사 문항

9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원)를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한 후에도 	

그림 III-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조사 문항

⑦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부모님이 늙으시면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기로 하였다.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결과는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의미한 문항이다.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장남’, ‘아들 중 누구든지’, ‘딸 중 누구든지’,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든 자녀들’,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에서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 ‘정부·사회’로 선택지가 수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정책 활용도를 고려하여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 ‘정부·사회’로 선택지를 수정하고 주요 돌봄 주체를 하나만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본인의 노후 생활 부담 주체로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가족’, ‘복지제도’로 질문하고 있어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⑧ 배우자 선택 기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는 문항으로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을 유지하여 2012년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도 배우자 선택 기준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다.

⑨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되기에 대한 태도를 부모 되기의 장점, 부모 되기의 단점, 부모 되기에 필요한 각오, 좋은 부모 요건의 4가지로 알아보았다. 이 조사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10대에서 50대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문항은 부모 역할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와 부모 역할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가 모두 응답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부모 되기에 대한 태도 중 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6개 문항을 선정하고, 문구를 부분 수정하여 질문하기로 하였다.

3) '진로와 미래'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진로 및 미래'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조사」,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표 III-3. '진로와 미래'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목표 설정 여부 대학 진학 필요성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부모 의견의 고려 정도 직업 낙관성 직업 선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생활실태 문항 지양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선택 중요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세계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협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미래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문항 파악
청소년 미래 선호가치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관 나의 미래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적 활용도 고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미래 결정 요인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적 활용도 고려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 직업 선택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부담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일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생애주기 고려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직업관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조사」에서는 직업관과 관련하여 8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직장을 선택할 때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해외에서 정착하여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의 4개 항목과 「세계가치관조사」의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는 문항²²⁾,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20)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문항²³⁾을 추가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② 나의 미래 결정 요인

나의 미래 결정 요인에 관한 문항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를 참고하였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에서는 나의 미래가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과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²⁴⁾ 중 무엇에 의해 더 결정된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다른 가치를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10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항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위 2개 문항의 응답 방식을 10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③ 직업 선택 기준

직업 선택 기준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을 그대로 유지²⁵⁾하였다. 이 문항은 2008년과 2010년에도 조사되어 해당 자료를 시계열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직업 선택 기준의 시대 변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수입(임금)이 많다’,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일하는 환경이

22)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함.

23)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함.

24)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과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으로 수정함.

25)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과 삶의 균형’ 선택지를 추가함.

쾌적하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의 12개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직업선택 중요요소로 '보수/급여', '주위의 평가', '개인의 적성',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안정성', '사회 기여도', '장래성', '지리적 위치' 등의 선택지를,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등의 선택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만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직업 선택이 미래의 일이므로 '자신의 능력', '대중적인 인기', '직업의 장래성',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지위', '안정성',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자아성취' 등 보다 일반적인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4) '학교와 친구'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학교와 친구'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사회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경기교육종단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표 III-4. '학교와 친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다니는 것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활용도 고려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세계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협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는 일의 가치 • 교육 기회 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항 파악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사회조사	통계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 희망하는 교육수준 및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에 대한 가치관 파악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가치관 파악 • 정책적 활용도 고려
한국교육총단 연구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른 가치관 차이 파악
경기교육총단 연구	경기도 교육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른 가치관 차이 파악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친구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조사내용 설계 기준의 하나로, 청소년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 친구, 교사 등 주변인과의 관계를 설문에 포함하여 주변인과의 관계에 따른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친구와의 관계는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을 믿는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교육총단연구2013」 문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②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선생님들은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을 대하기가 편하다’,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총단연구」 문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③ 공부하는 이유

본 연구의 대상인 초5~고3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는 가장 중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사회조사」의 ‘재미있어서’,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못하면 부끄러워서’,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학습 동기 문항을 활용하여 질문하기로 하였다.

④ 희망하는 교육 수준 및 이유

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 수준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유를 「사회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질문하기로 하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한 선택지로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능력이나 소질을 계발하게 하기 위해서’, ‘인격이나 교육을 쌓게 하기 위해서’, ‘주위(부모 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해지기 위해서’의 선택지²⁶⁾가 제시되었다.

⑤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문항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이 문항을 통해 시계열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가치 있다’와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 문항의 출처는 「세계가치관조사」로, 전자는 ‘귀하는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10점 척도)’ 문항을 연구진이 청소년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해당 문항들을 10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문항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의 3개 문항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5점 척도로 조사하는 문항을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⑥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 보통 →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의 형태로 상반된 가치를 제시하고 10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인의

26)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과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에 다들 가니까 나만 안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선택지를 추가함.

의식·가치관 조사」 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세대 간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사회통합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표 III-5.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인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 부자에 대한 인식 • 능력주의 가치 • 세계 시민사회 의식 • 개인주의-집단주의 • 지역이기주의(nimby, pimby) •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 국가에 대한 만족도 • 역사관 • 대상별 신뢰도 •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세대 간 비교 필요성 고려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신뢰도(인터넷 정보, AI(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시의성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정체성 • 개인의 자유와 질서에 관한 인식 • 우리 사회 신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세계가치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협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정도 • 행복 격차에 대한 인식 •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항 파악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국회미래연구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집단 인식 • 우리 사회의 다양성 인식 •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분석 필요성 고려
사회통합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신뢰도 •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분석 필요성 고려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인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인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와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문항²⁷⁾을 유지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대에 따른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인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②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 문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③ 부자에 대한 인식, 능력주의

청소년의 부자에 대한 인식과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이었던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④ 세계 시민사회 의식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조사했던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

27) 이후 절차에서 관계부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와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문항은 삭제함.

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문항을 유지하고, 이 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 시민사회 의식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⑤ 개인주의-집단주의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문항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⑥ 지역이기주의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²⁸⁾이 설치되어도 좋다'와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제개발사업이나 국제행사는 절대로 다른 지역에 양보할 수 없다' 문항을 조사함으로써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과 핼비(pimby: please in my backyard)현상의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지역이기주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⑦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한국인의 미래가치관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갈등 인식을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사회변화를 둘러싼 진보(변화 지향)와 보수(전통 유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의 3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진보와 보수의 갈등 문항을 제외한 빈부격차와 세대 간 갈등에 남녀 간의 갈등을 추가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⑧ 국가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도 국가관과 관련하여 자긍심, 국가에 대한 만족도 등의 문항이 있었으나, 세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해당 설문을 개정하였다. 국가관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의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8) 이후 절차에서 관계부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로 표현을 단순화함.

⑨ 역사관

국가관과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성인세대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항인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역사관 관련 문항 중,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는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한다’, ‘지나간 역사는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문제는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등의 문항을 포괄하여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⑩ 대상별 신뢰도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항목이었던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이웃 어른, 언론(TV, 신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하여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고,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이었던 인터넷정보와 AI(인공지능)을 추가하여 7개 항목²⁹⁾으로 구성하였다.

⑪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해당 문항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2012년에는 11점 척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문제를 고려하여 긍정응답률과 부정응답률로 평가할 수 있도록 10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⑫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사회·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 서와 같은 형태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식의 10여 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9)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인(국회의원)’ 항목을 추가함.

6)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

(1) 기존 조사 내용 검토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사회통합조사」 등을 참고하였다.

표 III-6.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작성기관	주요 검토 항목	주요 검토 내용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여성가족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수용도 • 가장 친숙한 나라 • 통일 의식 및 북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열 추이 분석 고려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수용도 • 다문화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 • 이주민 친구 수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 난민 수용 및 지원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문항 파악 • 시계열 분석 필요성 고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사회통합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관계(친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비교 가능성

(2) 조사항목의 도출

① 다문화 수용도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 또는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는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³⁰⁾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질문하고 2012년 조사 결과와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30) 이후 절차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으로 수정함.

② 난민 수용도

청소년들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난민 수용도를 질문하기로 하였다. 문항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비교도 가능하다.

③ 다문화 친구 유무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민 친구 수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다문화 친구의 유무에 따라 다문화 수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문화 청소년 유무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④ 다문화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³¹⁾

친구 중에 다문화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 학생과 '같은 반이 되는 것'과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질문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⑤ 가장 친숙한 나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조사하여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및 성인 대상 유사 통계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⑥ 통일의식 및 북한관

기존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도 통일의식 및 북한관과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 통일 가능성, 북한에 대한 친숙도 및 신뢰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 남북한은 한 민족이라는 생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 등의 문항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생각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시기,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과 어려움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전면 개정하여 성인 세대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1) 이후 절차에서 '이미 많은 지역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가 요구된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을 삭제함.

3. 전문가 검토

1) 전문가 검토 개요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안)을 기반으로, 기존 조사내용 분석 및 수차례의 연구진 협의를 거쳐 본 연구의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가치관’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성, 청소년 대상 조사 설계 및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특히 조사대상에 초등학생(5~6학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항 및 어휘의 난이도를 점검하기 위해 초등교사 2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실사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조사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III-7. 전문가 검토 참가자

구분		비고
대학교수 (3인)	전문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생 대상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한국교육종단연구 설계 및 운영 참여
	전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대상 조사 설계 및 시행 경험 다수
	전문가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생 대상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경기교육종단연구 운영 참여
연구기관 (2인)	전문가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대상 가치관 조사(설계) 연구 수행
	전문가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생 대상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한국교육종단연구 운영 참여
초등교사 (2인)	전문가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교사
	전문가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교사
조사전문가 (1인)	전문가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관 실무책임자 청소년 대상 다수의 설문조사 실시 운영

2) '생활' 영역 검토 의견

'생활' 영역에는 응답자가 기본적으로 체감하는 주관적 웰빙/행복과 인생관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 영역에서는 주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문항의 중복성,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문항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표 초안에서는 행복감/삶의 만족도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문항으로 제시하였는데, 응답자인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둘을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항을 분리하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복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행복감/삶의 만족도 문항은 행복감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 조사표 초안에서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세트를 제시했는데,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 물질주의 가치관만 비중을 두어 여러 문항이 제시되어 다소 균형이 맞지 않으며, 설문지 응답 과정에서 비의도적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 세트는 제외하였다. 다만, 물질주의 가치관의 핵심 내용(예: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은 여타 인생관 문항의 하위항목으로 포함하여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생활' 영역에서 제시된 전문가 검토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8. '생활'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행복감/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행복감과 주관적 삶의 만족을 별도 문항으로 각각 조사하고 있으나, 분리해서 조사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문항은 1개 문항으로 조정(청소년에게 더 쉽게 와 닿는 '행복감' 문항을 남기기로 함.)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사항목의 '일' 용어 수정 필요 (직업 또는 학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등의 용어로 포함된 조사항목에 '직업', '학업' 등의 용어를 병기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지수, 삶의 질 지표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안전(치안), 환경, 거주여건 등과 관련된 기준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를 묻는 가치에 '안전' 항목을 추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항목의 경우, 교육연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학벌의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밀하게 보면 학력(學歷)과 학벌(學閥)이 구분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지칭할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전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하기로 함.
물질주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주의 성향을 묻는 문항세트의 경우, 여타 문항에 포함된 세부 문항들과 일부 중복됨. 또한 응답자가 청소년이므로 설문조사 참여에 따른 비의도적 효과(학습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질주의 성향만을 묻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한 문항으로 조정하거나 혹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도적 학습효과 발생 가능성 및 여타 문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물질주의 가치관 문항은 제외함. 다만, 핵심 항목은 여타 문항에 반영 또는 포함하여 물질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느낌의 용어(예: 사치)를 중립적 용어로 대체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신앙과의 비교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과 종교적 신앙을 대립 또는 비교하는 문항은 삭제하고, 내용이 유사한 문항을 통합하여 기존 7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문항 중 일부 내용이 유사함. 	

3) ‘가족과 결혼’ 영역 검토 의견

‘가족과 결혼’ 영역에는 결혼관, 가족관, 양성평등, 부모의 자녀 지원 범위, 부모 노후책임의 주체, 배우자 선택의 주요 기준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결혼’ 영역에서는 결혼관을 묻는 세부 문항의 구성 및 가정 내 양성평등 관련 세부 문항의 표현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세부 문항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과 같은 단서조건이 응답자의 응답을 편향시킬 수 있으며, 단서조건으로 인해 추후 응답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단서조건을 삭제하고 제시문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문항을 조정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족과 결혼’ 영역에서 제기된 주요 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9>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 -9. '가족과 결혼'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족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조사내용 구성은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그 외에 가족구성원(예: 형제/자매, 대가족의 경우 조손관계 등)과의 관계 문항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관계는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태 파악 문항으로서,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해 조사표에 포함되었음.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의미한 타인은 부모, 친구, 교사이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함.
결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 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결혼 적정 연령 또는 결혼의 조건(경제력 충족, 사회경제적 지위의 동질성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 조건은 조사표에 기 포함되어 있는 '배우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관련 문항으로 측정 가능함. • 결혼 적정 연령 등은 응답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후 자녀 출산, 동성결혼 허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당위적 서술이 적합한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및 세대 간 비교 등을 위해 문항내용 및 서술방식을 현행 유지함.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항목 중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별에 상관없이 취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문항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의 단서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단서조건이 응답에 편의(bias)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라는 단서조건을 삭제하기로 함. •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별에 상관없이'를 삭제한 후의 진술문은 "취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로 가치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문항을 삭제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항목 중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 경우, 질문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간결하게 수정 필요 •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라는 조건을 전제하는 것과 해당 단서를 제외하고 질문한 후,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보다 효과적인 분석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단서조건이 응답에 편의(bias)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 문항을 간결하게 하고,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항목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안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술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당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추후 결과 해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단서조건이 응답에 편의(bias)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는 단서조건을 삭제하기로 함.
노부모 부양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에 제시된 ‘돌봄’은 표현을 재정적 차원과 생활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는 제시된 선택지가 적절하지만, 생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사회’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함. 이 경우 오히려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의 진술문이 ‘노후 돌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전달에는 무리가 없고, 노후 돌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는 제시된 선택지 ‘정부·사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4) ‘진로와 미래’ 영역 검토 의견

‘진로와 미래’ 영역은 개인의 진로·직업관 및 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표에서는 응답자 입장에서 조사내용의 전개를 고려하여 ‘진로와 미래’ → ‘학교와 친구’의 흐름으로 진로·학업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진로와 미래’ 영역에서는 주로 직업관 항목의 세부 문항에 대한 의견과 직업선택의 우선순위 선택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전문가 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10>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0. ‘진로와 미래’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일자리 선호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예: “나는 사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일자리 선호 현상에 대한 문항은 젊은 세대의 수도권 선호 성향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포함된 문항임. 문항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 제시된 문항(“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으로 충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 검토 문항은 조사결과 활용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하지 않음.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문항 중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는 질문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여타 문항과 이질적으로 보임. •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다” 하위 문항 관련, 진로 결정의 외재적 동기를 확인하는 문항이라면 평가의 주체를 굳이 부모님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의 간결성 제고 및 조사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하위문항은 삭제함.
나의 미래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 노력, 운, 가정배경, 사회 구조 및 제도 등 미래 전망과 관련된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 현재 문항 구성이 응답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외부환경’이 가정배경, 사회구조 및 제도 등 어디까지를 포괄할 것인지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항은 미래의 결정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과 ‘환경적 요인’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임. 검토 의견 중 ‘외부환경’ 표현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 문구를 ‘환경’으로 간결하게 수정하였음.
직업 선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선택지(예: 직업의 장래성/안정성, 사회적 지위/의사결정권)는 상호 간에 구분이 모호하거나 서로 연계된 개념으로 보임.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추가 예시를 제시하거나, 개인적 차원, 직업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의 항목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과 삶의 균형(시간적 여유, 생활권 등)과 관련된 선택지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선택 가치들이 모두 상호 배타적일 수는 없으며, 해당 문항은 이전 가치관 조사에도 포함되었던 문항으로 청소년들이 응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현행 유지함. • ‘일과 삶의 균형은 최근들어 젊은 세대에서 더 중시되는 가치로 생각되는 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선택지를 추가함.

5) '학교와 친구' 영역 검토 의견

'학교와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관계, 교사관계, 공부를 하는 이유, 기대 교육 수준과 그 이유, 교육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치관 조사 내용으로서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 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다. 본 조사에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그 자체로 청소년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니지만,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에 친구, 교사가 지목되는 바, 가치관 형성 영향요인으로서의 친구,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일종의 독립변인으로 조사표에 포함하였다. '학교와 친구' 영역에서 주로 제기된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1. '학교와 친구'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친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 문항의 경우,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실제 친구관계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보이는데, 해당 문항이 가치관 조사 문항으로 적절한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 문항은 가치관 파악이 아닌,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포함한 항목이므로 현행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이 상호 매우 유사하므로 청소년 응답자들이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응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유사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 문항은 기존 종단연구 조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되어 활용된 척도문항임. 하위문항이 상호 유사하지만, 각각 6개의 개별문항으로 활용되기보다는 6개 문항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친구관계' 변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행 유지함.
교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관계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치관 조사에서는 이보다는 선생님(교사)에 대한 가치 인식을 질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관계 문항은 가치관 파악이 아닌, 청소년기 가치관 형성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포함한 항목이므로 현행 유지함. 교사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은 정책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관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이 상호 유사하므로 청소년 응답자들이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응답하기 어려워 보임. 유사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관계 문항은 기존 종단연구 조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되어 활용된 척도문항임. 하위문항이 상호 유사하지만, 각각 6개의 개별문항으로 활용되기보다는 6개 문항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교사관계' 범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행 유지함.
대학 이상 교육 희망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대감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리함 이전에 불안심리(이 단계까지 졸업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간주하는 분위기)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선택지 보완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학에 다들 가니까 나만 안 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선택지를 추가함.

6)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 검토 의견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에는 주로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 국가관 및 역사관,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참여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사회관을 묻는 세부문항 중 일부 문항의 표현 수정, 국가관 및 역사관 세부문항의 적절성,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의 추가 필요성 등이 주요 검토 의견으로 제기되었다.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의 주요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12>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2.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문항 중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에서 '대체로'라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 긍정응답을 유도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응답의 편의(bias)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로' 표현을 삭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문항 중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의 경우, 응답자의 생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경향성을 묻는 것으로 문항 워딩을 수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의 경향성보다는 부자에 대한 응답자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국가관/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역사관 하위문항 중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항은 글로벌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 가능하다면 삭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항은 한국인의 인식·가치관 조사에도 포함된 문항으로서 세대 간 비교를 위해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사관은 가치관의 주요 영역에 해당하므로 현행 유지함.
대상별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뢰에 관한 조사 항목에는 정부, 국회, 공권력(경찰 등) 등에서도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가기관(입법, 사법, 행정 등)에 대한 신뢰도 측정할 필요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2012 가치관 조사 항목이었던 정치인(국회의원)을 포함함. 다만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응답자가 국가기관 중 입법/사법/행정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만을 포함하기로 함.

7)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 검토 의견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통일인식, 북한관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다문화 인식은 많은 가치관 조사에서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통일인식 및 북한관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문화 수용성 관련 가치관 조사를 위해 포함된 세부문항의 적절성,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파악 문항의 적절성 및 선택지 구성, 통일관 관련 문항의 질문 방식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문화 수용성 관련 문항 중, 응답자가 다문화 청소년인 경우 질문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항은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수정하였고, 일부 문항은 이미 다수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해당 문항은 제외하였다.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의 주요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이 <표 III-13>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3.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영역 검토 의견

조사내용	검토 의견	반영 방안
다문화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세부문항 중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에서 응답자가 다문화 청소년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음. • 다문화 학생과 같은 반 학생 또는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 이미 많은 지역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해당 문항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으로 수정함. •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으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은 삭제하고 다문화 수용성은 이를 제외한 여타 문항으로 파악하기로 함.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의 의도가 불분명함. • 국가를 5개(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문화 학생수에서 비중이 높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여타 국적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항은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선택지의 경우, 임의로 여타 국가를 포함하기보다는 과거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변국 5개국으로 한정하여 현행 유지하고자 함.
통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로 인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묻는 문항의 경우, 보기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질문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통일의 이익, 이점, 장점 등을 묻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구성이 '통일로 인한 국내외 환경 변화,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이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 '통일 후의 장점과 통일 후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보완함.

8) 기타

그 밖에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조사내용이 최대한 쉽게 전달되도록 문항 표현을 수정하고, 연령이 낮은 청소년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괄호에 부연 설명을 병기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하였다.

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및 관계부처 검토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조사표(안)를 대상으로 민감한 질문이나 표현의 난이도 등을 최종 점검하고자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검토 및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1)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응답 소요 시간을 비롯해 민감한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이동 로직의 이해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응답자가 체감하는 조사 난이도 및 부담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성적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의 목적은 실제 응답 결과 및 패턴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난이도 및 부담감을 확인하고 내용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비 조사는 조사대상 연령(초 5~고 3) 중 가급적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비중을 두어 예비조사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예비조사가 아닌,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예비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III-1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참가자

	구분	학년	성별
초등학생	참가자A	5학년	여
	참가자B	5학년	여
	참가자C	5학년	남
	참가자D	6학년	남
중학생	참가자E	2학년	남
	참가자F	2학년	여
	참가자G	3학년	여

(1) 응답 소요 시간

먼저, 전체적인 조사 분량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응답 소요 시간을 점검하였다. 확인 결과, 초등학생의 응답 소요 시간은 10분 34초~20분 10초 범위에 분포하였고, 대체로 약 19분~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학생은 11분 3초~14분 9초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초등학생에 비해 개인별 편차는 적은 편이었다. 평균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응답 소요 시간이 긴 편이었지만, 초등학생의 응답 시간도 약 20분에 수렴하여 초등학교 단위 수업시간인 40분 안에 조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고,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조사 분량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5. 예비조사 응답 소요 시간

	구분	학년	성별	소요시간
초등학생	참가자A	5학년	여	20분 10초
	참가자B	5학년	여	19분 01초
	참가자C	5학년	남	20분 54초
	참가자D	6학년	남	10분 34초
중학생	참가자E	2학년	남	14분 09초
	참가자F	2학년	여	11분 03초
	참가자G	3학년	여	13분 09초

(2) 문항별 의견

다음으로, 문항별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항에 대해 질문의 내용이 다소 명료하지 않거나, 단어나 표현의 의미가 어렵거나, 선택지의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더 간결·명료하게 다듬고,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단어를 교체하는 등 수정·보완하였다. 문항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결과가 <표 III-16>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16.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검토의견 및 반영 방안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족과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범위를 묻는 문항의 경우, 내가 희망하는 지원 기간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지원 기간이 상이할 경우 응답 방향이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의견이 아닌 청소년 당사자의 생각을 묻는 설문 의도가 보다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질문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 중, ‘취미/기호’의 ‘기호’ 의미가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기호’ 선택지를 청소년에게 더 익숙한 표현인 ‘취미’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요건을 묻는 문항의 설문표현(“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이 다소 어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으로 문항을 수정함.
진로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의 결정 요인에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서 ‘외부 환경 요인’의 의미가 와닿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수준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간결명료하게 수정함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 “환경에 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 중, ‘자아실현’, ‘의사 결정권’ 단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선택지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개념이 우선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응답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이전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 가능성 등을 위해 현행 유지함. 다만, 조사 과정에서 용어 개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경우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자료에 부연 설명을 추가함.
학교와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교육 수준을 묻는 문항의 이동 로직에 혼동 발생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이동 로직에 대해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표 디자인을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이상을 희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제시된 선택지 외에 ‘다수가 선택하는 길(대학진학)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선택지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에 다들 가니까 나만 안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선택지를 추가함.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사회와 국가,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표현이 다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로 표현을 수정함.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에 대한 친밀도를 묻는 문항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5개 국가 외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오픈형 응답으로 국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항은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를 묻는 문항인데, '기타' 항목이 추가될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국가가 기재되어 본래 조사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반복 조사 문항이므로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 중 '발전을 제약하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서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을 방해하는'으로 표현을 순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괄호 안에 부연설명으로 추가된 '점진적 통일, 당분간 관망' 표현이 초등학교 생에게 다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괄호 안의 부연설명이 오히려 체감 난이도를 높이므로, 해당 표현을 삭제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문항 중 현재 가정의 경제수준을 묻는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생이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항은 실제 가정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이 아니라,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파악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2) 관계부처 검토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검토도 실시하였다. 관계부처 검토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 총괄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목적, 조사 설계의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조사문항(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처 검토에서는 ‘사회와 국가, 역사’ 영역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는데,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일부 세부항목과 기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세부항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두 조사는 표본설계의 틀, 조사대상자의 연령, 표집방법 등 조사 설계가 상이하므로 각 조사를 통해 획득된 결과가 일정 부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비롯해, 조사대상자의 응답 부담 경감 및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통계자료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 유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및 반영 방안은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관계부처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사회와 국가,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문항을 구성하는 10개 문항 중, 일부 하위항목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이 승인통계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세부문항과 유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표집틀을 적용한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도출된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문항을 포함하였으나, 두 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 본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 경감, 문항의 간결성 확보 및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조사자료 간 중복성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제외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문항의 경우, 유사 예시가 반복되어 내용을 특정 분야에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지나치게 구체화된 예시를 축약하여 “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로 표현을 단순화하도록 수정함.

5. 조사내용의 도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내용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청소년 당사자 및 관계부처 검토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 III-18>과 같은 조사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III-18.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감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가치관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 복지, 경쟁에 대한 관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가족과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의 관계 결혼관 자녀관 가족의 범주 양성평등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배우자 선택 기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진로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관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직업 선택 기준
학교와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공부하는 이유 희망하는 교육 수준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사회와 국가,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자에 대한 인식 능력주의 세계 시민사회 의식 개인주의-집단주의 지역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국가관 역사관 대상별 신뢰도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수용도 난민 수용도 다문화 친구 유무 가장 친숙한 나라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시기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배경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구성 학업성적 본인과 부모님 출생지 부모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 — 제4장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
- 2. 표본설계
- 3. 조사내용
- 4. 분석방법
-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2012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되던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후속 조사의 성격을 띤다. 당시 청소년 대상 조사의 효율을 목적으로 「청소년종합 실태조사」에 흡수 통합되었으나,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청소년들이 최근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나아가 곧 성인이 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근거가 된다. 이 조사는 현재 시점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2012년 조사를 비롯한 과거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고,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상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8,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 설계에 따라 선정된 학교에 협조공문 및 조사안내문을 발송한 후 조사전문기관에서 해당 학교에 연락해 조사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조사를 수락한 학교에 대해 조사원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조사전문기관에서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5월 12일과 13일 양일 간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서 조사개요, 자료수집, 문항별 지침, 조사 진행 시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 표본설계

2022년 4월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기준의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각 학년 별로 지역×학교급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하고,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 IV-1>과 같이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표본학교는 각 학년별로 62개 층(지역×학교급)³²⁾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표 IV-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학교 수 및 학생 수 할당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직업계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직업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서울	10	12	9	3			6	250	324	225	75					150
경기	22	27	18	3			6	550	729	450	75					150
인천	4	6	6					100	162	150						
강원	2	3	3					50	81	75						
충북	2	3	3					50	81	75						
충남	4	6	3	3			6	100	162	75	75					150
대전	2	3	3					50	81	75						
세종	2	3	3					50	81	75						
경북	4	6	3		6			100	162	75		150				
경남	6	9	6					150	243	150						
부산	4	6	3	3			6	100	162	75	75					150
대구	4	6	3					100	162	75						
울산	2	3	3					50	81	75						
전북	4	3	3					100	81	75						
전남	2	3	3	3			6	50	81	75	75					150
광주	2	3	3					50	81	75						
제주	2	3	3					50	81	75						
합계	78	105	78	15	6	30	30	1,950	2,835	1,950	375	150	150	750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제3장의 조사내용 설계 절차를 통해 도출되었다. 조사내용의 출처 및 시계열·세대 간 비교 가능 여부를 <표 IV-2>에 제시하였다.

32) 지역은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였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5개 권역), 특수목적고(지역별 층화 제외), 특성화고(5개 권역)로 구분하였음.

표 IV-2. 조사내용의 출처 및 시계열·세대 간 비교 가능 여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척도	시계열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척도	공정성 증정당 /비율	비교	척도
생활	• 행복감	문1	• 「한국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10점	○	○	○	○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문2-1)~11)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를 토대로 연구진 의견,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하여 수정·보완	4점	○	○	△	(WWS) 가정, 친구, 여자, 직장
	•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문3-1)~4)	• 「한국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2020)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삶에 대한 가치관	문3-5)~8)						
	•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	문4-1)						
	• 복지, 경쟁에 대한 관점	문4-2)~3)	• 「한국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10점	×	×	○	○
	•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문4-4)	• 연구진 작성	10점	×	×	×	×
	•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문5-1)~3)	• 「세계가치관조사」(2018) 문항 활용, 10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가족과의 관계	문6-1)~6)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를 토대로 수정·보완	4점	4점	기치관 형성 배경요인으로 활용하고 시계열 비교 및 세대 간 비교는 하지 않음	○	○
	• 결혼관	문7-1) 문7-2)~3) 문7-4)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 「사회조사」(2022)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를 토대로	4점 4점 4점 4점	○ 4점(초) 10점(중고)	○ ○ ○	○ ○ ○	○ ○ ○
가족과 결혼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최도	시계열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최도	공정응답 /비율	비고	최도	공정응답 /비율	비고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를 참고하여 진술문 수정, 10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문7-5)~6)	• 「사회조사」(2022)	4점	10점	○	6)제외	○	○	—	—
	• 자녀관	문7-7)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를 토대로 진술문 수정, 10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10점	○	—	×	×	—	—
	• 가족의 범주	문7-8)~9)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2020)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	—
		문8-1)~3)	• 「청소년의 미래선택가치 설문 조사」(2019) 문항 활용, 7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하여 문구 수정	4점	×	×	—	×	×	—	—
	• 양성평등	문8-4)	• 연구진 작성	4점	×	×	—	×	×	—	—
		문8-5)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 조사」(2020)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	—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문9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를 토대로 질문 형태 수정, 예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구 수정	—	—	△	—	—	×	—	—
	•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문10	•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	—	—	○	—	—	△	(한국인) 노후생활 부담	부담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최도	시계열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최도	긍정응답/비율	비교	최도	긍정응답/비율	비교
진로와 미래	• 배우자 선택 기준	문11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진입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설문조사」(2017)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예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구 수정	-	-	○	-	○	(한국인) 선택지 순서 유의	
	• 직업관	문13-1)~4)	• 「청소년 미래선호기치 설문조사」(2019) 문항 활용, 7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 나의 미래 결정 요인	문14-1)	• 「청소년 미래선호기치 설문조사」(2019)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10점 척도로 수정, 예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구 수정	10점	×	×	-	×	-	
	• 직업 선택 기준	문14-2)	• 「세계가치관조사」(2018)	10점	×	×	-	○	조사 시기 고려 필요	
	• 친구와의 관계	문15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하여 선택지 추가	-	-	△	선택지 추가	-	×	
학교와 친구	• 친구와의 관계	문16-1)~6)	• 「한국교육종단연구2013」(2019)	가치관 형성 배경이므로 활용하고 시계열 비교 및 세대 간 비교는 하지 않음						
	• 교사와의 관계	문17-1)~6)	• 「경기교육종단연구」(2020)	가치관 형성 배경이므로 활용하고 시계열 비교 및 세대 간 비교는 하지 않음						
	• 공부하는 이유	문18-1)~4)	• 「사회조사」(2022)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척도	시계열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척도	공정 응답 /비율	비고	척도	공정 응답 /비율	비고
사회와 국가 역사	• 희망하는 교육 수준	문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조사(2022),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4년제 이상) 선택지 통합』 	-	x	-	-	x	-	
		문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조사(2022), 전문기 검토 의견 반영하여 선택지 추가』 	-	x	-	-	x	-	
	•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4점	○	-	x	x	-	
		문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가치관조사(2018) 문항 활용, 10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x	공부 가치	x	△	일 가치	
		문2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사회·경제·경제 실태조사(2021)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x	-	x	x	-	
		문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가치관조사(2018) 문항 활용, 10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x	-	x	○	-	
•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문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0)』 	10점	x	-	-	○	-		
•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문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4점	○	-	x	x	-		
•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문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 	4점	○	-	x	x	-		
• 부자에 대한 인식	문22-3)									
• 능력주의	문22-4)									
• 세계 시민사회 의식	문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4점	○	-	-	x	x	-	
• 개인주의-집단주의	문22-6)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척도	시계열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척도	긍정응답 /비율	비고	척도	긍정응답 /비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국가관 역사관 대통령 신뢰도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다문화 수용도 난민 수용도 		문22-7)~8)									
		문2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2020) 문항 활용,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4점	×	×	—	○	○		(한국인) 부유·세민 기성 젊은 남성·여성
		문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작성 	4점	×	×	—	○	○		
		문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4점	○	○	—	○	○		
		문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4점	×	×	—	○	○		
		문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4점	×	×	—	○	○		
		문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작성 	4점	×	×	—	×	×		
		문2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4점	○	○	—	△	△		(한국인) 친구, 이웃
		문2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 	4점	○	○	—	×	×		
		문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문항의 11점 척도를 10점 척도로 수정 	10점	11점	×	—	×	×		
		문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	—	○	—	—	×		
	다문화 사회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문2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4점	○	○	—	×	×	
		문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를 토대로 예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구 수정 	4점	×	×	—	○	○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출처	척도	세계별 비교 ¹⁾		세대 간 비교 ²⁾	
					척도	긍정응답/비율	비교	척도
배경문항	• 다문화 친구 유무	문29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2021)를 토대로 일부 문구 수정		가치관 형성 배경요인으로 활용하고 세계별 비교 및 세대 간 비교는 하지 않음			
		문30	•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2)	-	○	-	○	(한국 리서치) 주변국 호감도
	• 북한에 대한 인식	문31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예비조사 결과 반영하여 문구 수정	-		-		-
		문32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문33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를 토대로 일부 문구 수정	-		-		-
		문34						
	• 가족구성	배문1	• 연구진 작성					
	• 학업성적	배문2	• 연구진 작성					
	• 본인과 부모님 출생지	배문3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					
	• 부모님 학력	배문4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2022)	-		-		-
• 가정의 경제수준	배문5	• 연구진 작성						

가치관 형성 배경요인으로 활용하고
세계별 비교 및 세대 간 비교는 하지 않음

* 주: 1) 세계별 비교 자료는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 자료임.
2) 세대 간 비교 자료는 조사내용 및 문항의 출처에 명시된 조사 자료임.
3) (WVS)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의미함.
4) (한국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미함.

4. 분석방법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 비율 또는 평균으로 제시하였고, 가중치는 표본 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항목 별 응답 비율을 제시하고 배경변인별 집단 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참고값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 시 평균 비교는 지양하였다.³³⁾ 본 연구의 조사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리커트 척도는 한 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응답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하며, 정의적인 영역을 수량화하여 표현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강만기, 이창은, 최규탁, 2005; 박현애, 배성우, 박종석, 2014: 385에서 재인용) 각 선택지 간의 간격이 전적으로 등간격이라는 점을 실증하기는 쉽지 않다(박현애 외, 2014: 385).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비교나 시계열·세대 간 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준거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리커트 척도는 서열척도로서 선택지의 응답강도가 비례적인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한혁, 금현섭, 2017: 68-69). 이 경우 리커트 척도에 기반한 측정값의 평균을 비교하기보다는 특정 선택지에 응답한 비율,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 등을 비교하는 것이 측정단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유성렬, 2007). 조사 결과의 긍정응답 비율은 4점 척도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긍정응답 비율이 90% 또는 95%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 또는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가족구성,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 관계, 다문화 배경, 다문화 친구유무를 배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모든 문항에서 모든 배경변인별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결과는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조사영역 또는 조사문항에 따라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33) 리커트 척도의 결과 해석에 관한 내용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요약한 것임.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목표 표본 수 8,000명 대비 96.8%에 해당하는 7,747명이 319개 학교에서 조사되었고 최종 유효 표본 수는 7,718명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51.6%, 여학생이 48.4%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5.9%, 중학생 38.3%, 고등학생 35.8%가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27.8%, 서울 15.6%, 경남 7.2%, 인천 5.8%, 부산 5.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다문화 배경 청소년은 3.0%로 파악되었다.

표 IV-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7,718	100.0
성별	남학생	3,983	51.6
	여학생	3,735	48.4
학교급	초등학교	2,001	25.9
	중학교	2,953	38.3
	고등학교	2,764	35.8
지역(시도)	서울	1,201	15.6
	부산	425	5.5
	대구	341	4.4
	대전	222	2.9
	인천	448	5.8
	광주	238	3.1
	울산	182	2.4
	세종	96	1.2
	강원	209	2.7
	경기	2,149	27.8
	충북	233	3.0
	충남	357	4.6
	경북	380	4.9
	경남	554	7.2
	전북	250	3.2
	전남	287	3.7
	제주	146	1.9
다문화배경	다문화	235	3.0
	비(非)다문화	7,390	95.8



제5장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및 시계열 비교

- 1. 인생관
- 2. 가족관
- 3. 직업관·미래관
- 4. 교육관
- 5.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국가관·역사관
- 6. 다문화 수용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1. 인생관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인생에서 중요한 다양한 가치 중에 청소년은 가족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매우 중요하다 81.7%). 2012년 조사결과에 비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낮아지고, 여가, 돈, 권력 등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임.
- **(일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나 일을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에는 절반 정도만이 동의함.
-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10명 중 8명은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함.
- **(복지, 경쟁에 대한 관점)** 청소년의 61.8%는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데는 68.2%가 동의함.
-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생활의 편리함보다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함.

1) 행복감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생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인생관에 대한 질문에 앞서 먼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행복하지 않다'에서 '매우 행복하다'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행복하다(6~10점)는 긍정응답 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성

별로는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85.9%로 여학생의 긍정응답 비율 83.2%보다 2.7%p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6.8%, 중학생이 84.4%, 고등학생이 83.3%의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대체로 83~87%의 응답 비율을 보인 가운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 행복감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260	7.37	1.856	0.5	0.6	2.1	5.0	7.2	15.4	84.6	12.5	20.6	23.8	13.9	13.9	-	
성별	남학생	3,723	7.49	1.845	0.5	0.6	1.7	4.6	6.5	14.1	85.9	10.9	20.8	24.2	14.3	45.556*** (9)	
	여학생	3,537	7.25	1.860	0.5	0.6	2.6	5.3	7.9	16.8	83.2	14.1	20.4	23.3	13.5		12.0
학교급	초	1,894	7.68	1.841	0.6	0.2	1.3	4.6	6.5	13.2	86.8	9.8	16.6	25.0	16.4	19.0	140.937*** (18)
	중	2,772	7.35	1.859	0.4	0.6	2.4	5.0	7.2	15.6	84.4	12.7	20.4	23.4	14.3	13.5	
	고	2,594	7.16	1.833	0.5	0.9	2.5	5.2	7.7	16.7	83.3	14.1	23.7	23.2	11.5	10.7	
학업 성취 수준	상	2,692	7.70	1.784	0.6	0.4	1.6	3.2	4.9	10.7	89.3	10.0	19.9	24.9	16.6	17.9	293.316*** (18)
	중	2,875	7.39	1.753	0.3	0.4	1.6	4.2	7.7	14.2	85.8	13.3	21.5	24.2	14.1	12.6	
	하	1,658	6.80	2.008	0.8	1.2	3.9	9.0	9.9	24.9	75.1	15.2	19.8	21.0	9.0	10.1	
경제 수준	상	3,237	7.78	1.788	0.6	0.5	1.4	2.7	5.0	10.2	89.8	9.5	19.3	24.3	16.9	19.8	467.714*** (18)
	중	3,586	7.12	1.806	0.4	0.6	2.4	6.1	8.5	17.9	82.1	14.6	21.7	24.3	12.0	9.4	
	하	381	6.22	2.024	0.9	1.3	6.6	13.8	13.5	36.1	63.9	18.1	19.3	14.5	3.9	8.1	
가족 관계	상	2,519	8.33	1.529	0.2	0.2	0.5	1.2	3.0	5.1	94.9	5.6	14.2	26.3	20.6	28.2	1,705.564*** (18)
	중	2,230	7.46	1.639	0.5	0.2	1.2	3.9	5.6	11.3	88.7	11.8	23.7	26.9	16.4	9.8	
	하	2,507	6.33	1.790	0.9	1.4	4.6	9.6	12.8	29.3	70.7	20.0	24.2	18.4	4.8	3.3	
친구 관계	상	2,321	8.09	1.722	0.2	0.4	1.1	2.2	4.4	8.4	91.6	7.1	15.4	24.0	19.2	25.9	1,003.606*** (18)
	중	3,170	7.35	1.619	0.1	0.3	1.3	4.0	6.5	12.2	87.8	14.3	24.5	25.8	13.9	9.2	
	하	1,740	6.46	2.007	1.6	1.5	4.8	10.1	12.2	30.2	69.8	16.4	20.4	19.7	6.7	6.6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⑩ 매우 행복하다

학업성취수준별 긍정응답 비율은 상위집단 89.3%, 중간집단 85.8%, 하위집단 75.1%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약 15%p의 차이를 보였고, 이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행복감의 긍정응답 비율은 상위집단 89.8%, 중간집단 82.1%, 하위집단 63.9%였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차이가 25%p를 넘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가정이 빈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6.1%인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인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차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경제수준 하위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감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행복하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고, 특히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행복하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94.9%에 달했다.

2)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인생에서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이웃, 여가, 건강, 안전, 일/직업, 학력, 권력/사회적 지위, 돈과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제시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긍정응답(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비율이 가족 99.0%, 건강 98.1%, 안전 97.9%, 여가 97.6%, 동성친구 97.0%, 일/직업 96.7%, 돈 95.7% 등으로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 81.7%, 건강 78.7%, 안전 75.8%, 여가 66.6%, 돈 64.4%, 일/직업 53.8%, 동성친구 48.4%, 학력 37.3%, 권력/사회적 지위 31.7%, 이성친구 25.4%, 이웃 10.0%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값을 중심으로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증가하는 가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감소하는 가치, 중요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인과의 관계는 2008년, 2010년, 2012년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가족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9.4%에서 2023년 81.7%로 7.7%p 감소하였고, 친구는 2012

표 V-2.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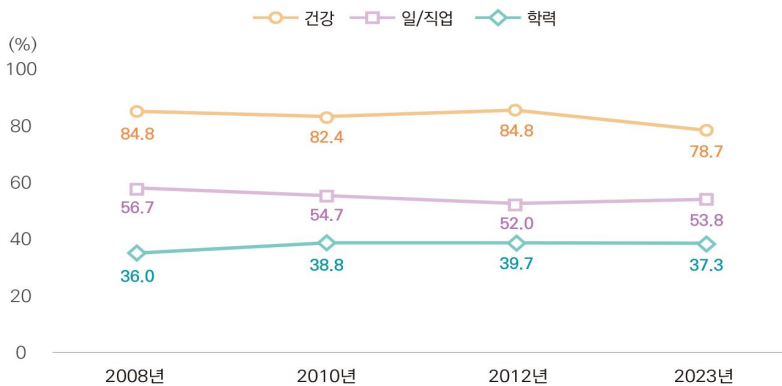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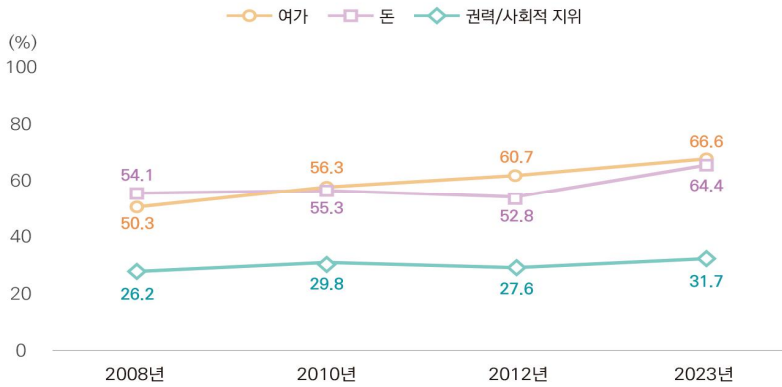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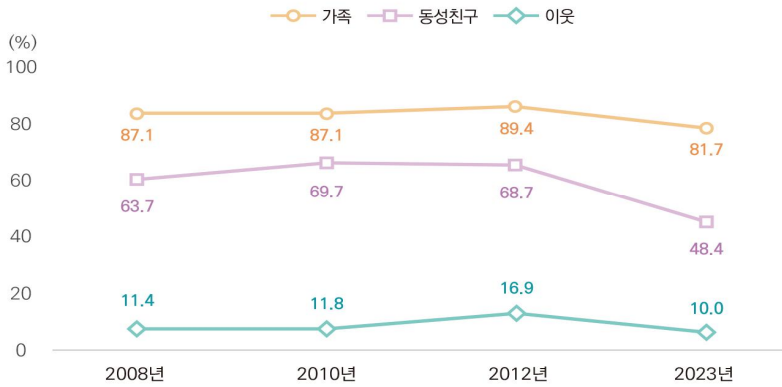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①	②		③	④	
가족	7,690	3.81	0.427	0.1	0.9	1.0	99.0	17.3	81.7
동성친구	7,676	3.45	0.568	0.4	2.6	3.0	97.0	48.6	48.4
이성친구	7,665	3.06	0.703	2.4	14.9	17.3	82.7	57.3	25.4
이웃	7,666	2.61	0.760	6.9	35.2	42.1	57.9	47.9	10.0
여가	7,685	3.64	0.538	0.3	2.1	2.4	97.6	31.0	66.6
건강	7,687	3.77	0.477	0.2	1.7	1.9	98.1	19.3	78.7
안전	7,677	3.73	0.497	0.2	1.9	2.1	97.9	22.1	75.8
일/직업	7,671	3.50	0.575	0.4	3.0	3.3	96.7	42.9	53.8
학력	7,668	3.22	0.708	1.5	12.0	13.4	86.6	49.2	37.3
권력/사회적 지위	7,669	3.07	0.783	2.9	18.6	21.5	78.5	46.8	31.7
돈	7,688	3.60	0.590	0.6	3.7	4.3	95.7	31.3	64.4

* 주: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년 68.7%에서 2023년 48.4%로 20%p 이상 감소하였다. 이웃도 2012년 16.9%에서 2023년 10.0%로 6.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10여 년 전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은 여가, 돈, 권력/사회적 지위 등이었다. 여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008년 50.3%, 2010년 56.3%, 2012년 60.7%, 2023년 6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돈과 권력/사회적 지위는 2008년, 2010년, 2012년 사이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등락하다가 2023년에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가족(81.7%), 건강(78.7%), 안전(75.8%), 여가(66.6%), 돈(64.4%), 일/직업(53.8%)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여 년 전의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여가, 돈, 권력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 1)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 비율임.
 2)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3)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시계열 비교)

3)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1) 학업/일과 여가

청소년들이 일과 여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라는 데 얼마나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과반인 52.6%가 동의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8.6%, 여학생의 56.9%가 동의하여 남학생은 여가시간을, 여학생은 학업과 일을 우선시하는 청소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 긍정응답 비율은 초등학생 57.2%, 중학생 50.8%, 고등학생 51.2%로 초등학생이 학업과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성취수준 상위집단은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에 60.8%가 동의하였고, 중간집단은 53.9%, 하위집단은 37.5%가 동의하였다. 이는 후술하는 '미래의

표 V-3.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3	2.55	0.787	8.0	39.4	47.4	52.6	42.0	10.6	-	
성별	남학생	3,961	2.48	0.782	9.5	41.9	51.4	48.6	40.0	8.7	72.902*** (3)
	여학생	3,722	2.63	0.785	6.4	36.7	43.1	56.9	44.2	12.7	
학교급	초	1,991	2.61	0.773	7.1	35.7	42.8	57.2	46.3	10.8	26.935*** (6)
	중	2,939	2.52	0.798	8.9	40.3	49.2	50.8	40.4	10.5	
	고	2,753	2.54	0.784	7.7	41.1	48.8	51.2	40.6	10.6	
학업 성취 수준	상	2,840	2.70	0.796	6.1	33.1	39.2	60.8	45.7	15.0	307.325*** (6)
	중	3,050	2.56	0.743	6.8	39.3	46.1	53.9	45.4	8.4	
	하	1,754	2.32	0.789	13.1	49.4	62.5	37.5	30.3	7.2	
경제 수준	상	3,406	2.59	0.790	7.7	36.9	44.6	55.4	44.0	11.4	46.281*** (6)
	중	3,803	2.53	0.773	7.7	41.0	48.7	51.3	41.5	9.8	
	하	404	2.40	0.863	13.8	43.4	57.2	42.8	31.5	11.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과 일치하는 결과로,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의 55.4%, 중간집단의 51.3%, 하위집단의 42.8%가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2) 일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의 가치에 대한 3개 문장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72.1%,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45.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49.5%의 비율로 동의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10명 중 7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나 일을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에는 절반 정도만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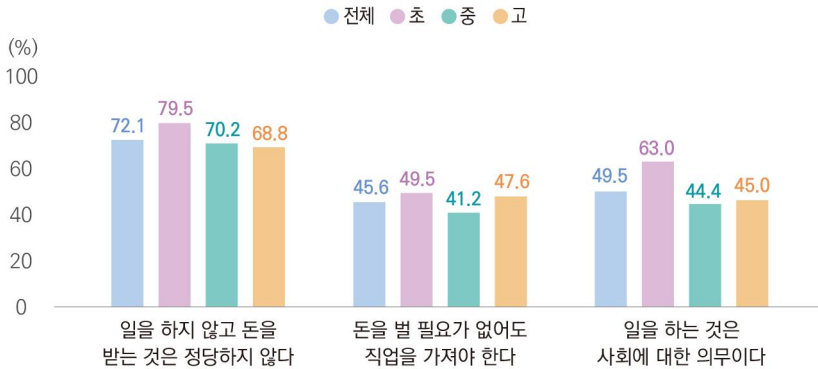


그림 V-2. 일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을 문항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데는 72.1%가 동의하였고, 여학생의 동의 비율(75.1%)이 남학생의 동의 비율(69.4%)보다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79.5%, 중학생 70.2%, 고등학생 68.8%로 어릴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74.4%, 중간집단 73.6%, 하위집단 66.2%) 및 가정의 경제수준별(상위집단 73.8%, 중간집단 71.0%, 하위집단 69.4%)로는 상위집단일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4.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4	2.93	0.854	6.2	21.6	27.9	72.1	45.2	27.0	-	
성별	남학생	3,960	2.89	0.898	7.8	22.9	30.6	69.4	41.6	27.8	62.242*** (3)
	여학생	3,724	2.97	0.804	4.6	20.3	24.9	75.1	49.0	26.1	
학교급	초	1,993	3.10	0.804	3.7	16.7	20.5	79.5	45.5	34.0	112.068*** (6)
	중	2,939	2.89	0.852	6.4	23.4	29.8	70.2	45.3	25.0	
	고	2,752	2.85	0.875	7.9	23.3	31.2	68.8	44.8	24.0	
학업 성취 수준	상	2,840	3.00	0.869	6.0	19.5	25.6	74.4	42.6	31.9	116.300*** (6)
	중	3,049	2.95	0.804	4.4	22.1	26.4	73.6	48.2	25.4	
	하	1,755	2.79	0.895	9.6	24.2	33.8	66.2	44.2	22.0	
경제 수준	상	3,408	2.98	0.863	6.1	20.1	26.2	73.8	43.6	30.2	38.552*** (6)
	중	3,803	2.90	0.842	6.1	22.9	29.0	71.0	46.3	24.7	
	하	404	2.82	0.875	8.9	21.7	30.6	69.4	47.4	22.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그렇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54.4%로 과반이었다.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수준별, 경제수준별 응답 비율에 차이는 있었으나, 각 배경변인별 집단에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청소년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성별(남 53.4%, 여 55.4%), 학교급별(초 등학생 50.5%, 중학생 58.8%, 고등학생 52.4%), 학업성취수준별(상위집단 54.5%, 중간 집단 52.8%, 하위집단 57.3%), 경제수준별(상위집단 52.0%, 중간집단 56.3%, 하위집단 58.0%)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로 청소년들의 과반은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60	2.43	0.828	12.4	41.9	54.4	45.6	36.0	9.6	-	
성별	남학생	3,945	2.43	0.848	13.8	39.5	53.4	46.6	36.8	9.9	25.517*** (3)
	여학생	3,715	2.43	0.807	11.0	44.5	55.4	44.6	35.2	9.4	
학교급	초	1,976	2.52	0.829	9.7	40.8	50.5	49.5	37.4	12.1	59.753*** (6)
	중	2,936	2.35	0.815	13.9	44.9	58.8	41.2	33.3	7.9	
	고	2,747	2.45	0.835	12.8	39.6	52.4	47.6	37.9	9.7	
학업 성취 수준	상	2,830	2.44	0.850	12.9	41.7	54.5	45.5	34.5	11.0	63.342*** (6)
	중	3,042	2.46	0.782	9.8	43.0	52.8	47.2	38.8	8.4	
	하	1,749	2.36	0.864	16.3	41.0	57.3	42.7	33.2	9.4	
경제 수준	상	3,398	2.47	0.836	11.8	40.2	52.0	48.0	37.3	10.7	32.682*** (6)
	중	3,791	2.40	0.816	12.5	43.8	56.3	43.7	35.0	8.8	
	하	403	2.32	0.877	19.0	39.0	58.0	42.0	33.4	8.6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진술에는 49.5%의 청소년이 긍정응답을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50.4%)이 여학생(48.4%)보다, 학교급별로는 초·고등학생보다(초등학생 63.0%, 중학생 44.4%, 고등학생 45.0%),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52.9%, 50.4%, 42.3%)과 경제수준별(상위집단 53.4%, 중간집단 46.8%, 하위집단 42.3%)로는 상위집단일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V-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8	2.50	0.813	10.0	40.6	50.5	49.5	38.9	10.6	-	
성별	남학생	3,961	2.52	0.847	11.1	38.5	49.6	50.4	38.1	12.3	43.252*** (3)
	여학생	3,718	2.48	0.775	8.8	42.8	51.6	48.4	39.7	8.7	
학교급	초	1,989	2.75	0.802	5.6	31.5	37.0	63.0	45.9	17.1	252.810*** (6)
	중	2,937	2.41	0.788	11.0	44.5	55.6	44.4	36.5	7.9	
	고	2,752	2.42	0.811	12.0	42.9	55.0	45.0	36.4	8.7	
학업 성취 수준	상	2,835	2.56	0.830	9.4	37.7	47.1	52.9	40.2	12.7	91.436*** (6)
	중	3,048	2.52	0.778	8.0	41.6	49.6	50.4	40.6	9.8	
	하	1,756	2.37	0.829	14.3	43.4	57.7	42.3	33.9	8.5	
경제 수준	상	3,404	2.56	0.835	10.0	36.7	46.6	53.4	40.8	12.6	64.664*** (6)
	중	3,801	2.46	0.784	9.5	43.7	53.2	46.8	38.1	8.8	
	하	404	2.37	0.847	14.5	43.2	57.7	42.3	32.7	9.5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들이 삶에서 성공이나 부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관련 문항의 긍정응답 비율은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58.8%,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89.8%,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34.0%,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82.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은 초등학생 89.1%, 중학생 81.0%, 고등학생 79.0%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초등학생 58.4%, 중학생 58.3%, 고등학생 59.7%),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초등학생 85.0%, 중학생 89.9%, 고등학생 93.1%),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초등학생 25.4%, 중학생 34.9%, 고등학생 39.3%)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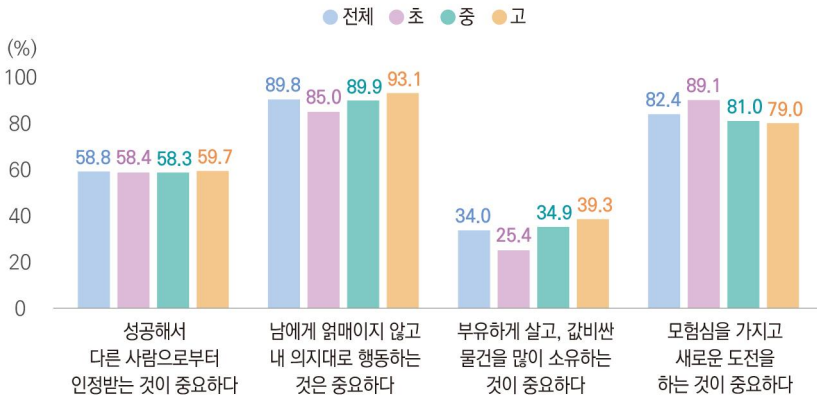


그림 V-3.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모험심·도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고등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은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10명 중 8명 정도는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여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관련 문항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58.8% 이었고, 여학생(62.4%)의 동의 비율이 남학생(55.5%)의 동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58.4%)과 중학생(58.3%)에 비해 고등학생(59.7%)의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62.4%, 중간집단 58.9%, 하위집단 53.0%)과 가정의 경제수준(상위집단 62.3%, 중간집단 56.6%, 하위집단 50.0%)이 높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7.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2	2.68	0.843	7.7	33.5	41.2	58.8	41.8	17.0	-	
성별	남학생	3,952	2.62	0.844	8.6	35.9	44.5	55.5	40.2	15.3	43.070*** (3)
	여학생	3,721	2.75	0.838	6.7	30.9	37.6	62.4	43.5	18.9	
학교급	초	1,989	2.70	0.862	7.4	34.1	41.6	58.4	39.1	19.3	22.171** (6)
	중	2,933	2.68	0.833	7.1	34.5	41.7	58.3	41.7	16.7	
	고	2,751	2.67	0.840	8.5	31.9	40.3	59.7	43.9	15.7	
학업 성취 수준	상	2,834	2.76	0.848	6.8	30.8	37.6	62.4	42.5	20.0	63.988*** (6)
	중	3,046	2.68	0.821	6.9	34.2	41.1	58.9	43.0	15.9	
	하	1,753	2.57	0.860	10.4	36.5	47.0	53.0	38.8	14.2	
경제 수준	상	3,402	2.74	0.854	7.4	30.3	37.7	62.3	42.8	19.5	65.769*** (6)
	중	3,798	2.64	0.820	7.5	35.9	43.4	56.6	42.0	14.6	
	하	402	2.55	0.921	12.5	37.5	50.0	50.0	32.6	17.4	

* 주: 1) * ρ .05, ** ρ .01, *** ρ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제시문에 대한 동의 비율은 89.8%였다. 성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5.0%, 중학생 89.9%, 고등학생 93.1%의 동의 비율을 보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중간집단(88.6%) 및 하위집단(89.5%)에 비해 상위집단(91.2%)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89.5%)과 중간집단(90.3%)이 하위집단(87.7%)에 비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8.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66	3.28	0.677	1.3	8.9	10.2	89.8	50.1	39.7	-	
성별	남학생	3,950	3.29	0.677	1.2	9.1	10.3	89.7	49.5	40.2	2.289 (3)
	여학생	3,717	3.28	0.678	1.4	8.7	10.1	89.9	50.7	39.1	
학교급	초	1,987	3.21	0.746	2.3	12.7	15.0	85.0	47.0	37.9	107.175*** (6)
	중	2,931	3.26	0.657	0.9	9.1	10.1	89.9	52.8	37.1	
	고	2,748	3.36	0.637	1.0	5.9	6.9	93.1	49.5	43.6	
학업 성취 수준	상	2,835	3.33	0.668	1.2	7.6	8.8	91.2	48.0	43.2	29.452*** (6)
	중	3,042	3.25	0.688	1.4	10.0	11.4	88.6	50.8	37.8	
	하	1,750	3.25	0.670	1.2	9.3	10.5	89.5	52.3	37.2	
경제 수준	상	3,400	3.29	0.697	1.7	8.8	10.5	89.5	48.0	41.5	22.753*** (6)
	중	3,794	3.28	0.655	0.8	8.9	9.7	90.3	51.9	38.4	
	하	403	3.25	0.719	2.1	10.2	12.3	87.7	48.7	39.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4.0%로 1/3 정도의 청소년이 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35.8%)이 여학생(32.1%)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4%, 중학생 34.9%, 고등학생 39.3%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36.4%), 하위집단(33.6%), 중간집단(31.9%)의 순이었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위집단(40.3%)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위집단(34.5%), 중간집단(32.7%)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9.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2	2.26	0.834	16.8	49.3	66.0	34.0	25.5	8.4	-	
성별	남학생	3,952	2.29	0.860	16.7	47.6	64.2	35.8	25.8	10.0	27.163*** (3)
	여학생	3,719	2.22	0.804	16.9	51.0	67.9	32.1	25.3	6.8	
학교급	초	1,987	2.10	0.784	21.1	53.5	74.6	25.4	20.1	5.3	117.620*** (6)
	중	2,933	2.29	0.830	15.1	50.1	65.1	34.9	25.8	9.1	
	고	2,751	2.34	0.857	15.5	45.3	60.7	39.3	29.2	10.0	
학업 성취 수준	상	2,835	2.30	0.839	15.4	48.2	63.6	36.4	27.1	9.2	38.783*** (6)
	중	3,047	2.22	0.800	16.6	51.5	68.1	31.9	25.1	6.8	
	하	1,750	2.24	0.879	19.4	47.0	66.4	33.6	23.5	10.1	
경제 수준	상	3,403	2.28	0.847	16.1	49.5	65.5	34.5	24.8	9.7	25.702*** (6)
	중	3,797	2.22	0.816	17.4	49.9	67.3	32.7	25.5	7.1	
	하	403	2.33	0.883	17.6	42.1	59.7	40.3	30.0	10.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82.4%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남학생의 85.6%, 여학생의 79.0%가 이 제시문에 동의하여 남학생이 모험심과 도전의 중요성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9.1%, 중학생 81.0%, 고등학생 79.0%로 어릴수록 모험심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상위집단 83.7%, 중간집단 84.0%, 하위집단 77.9%),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위집단 84.8%, 중간집단 81.0%, 하위집단 76.2%) 모험심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10.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0	3.08	0.718	2.1	15.4	17.6	82.4	54.2	28.2	-	
성별	남학생	3,964	3.16	0.714	2.1	12.2	14.4	85.6	52.8	32.9	121.448*** (3)
	여학생	3,726	3.00	0.712	2.1	18.9	21.0	79.0	55.7	23.2	
학교급	초	1,994	3.27	0.688	1.4	9.4	10.9	89.1	49.5	39.7	212.032*** (6)
	중	2,940	3.04	0.712	2.3	16.7	19.0	81.0	55.9	25.1	
	고	2,755	3.00	0.719	2.5	18.5	21.0	79.0	55.8	23.2	
학업 성취 수준	상	2,841	3.14	0.724	1.9	14.4	16.3	83.7	51.4	32.3	77.253*** (6)
	중	3,052	3.09	0.681	1.5	14.6	16.0	84.0	57.2	26.8	
	하	1,756	2.98	0.754	3.6	18.6	22.1	77.9	53.8	24.1	
경제 수준	상	3,410	3.16	0.710	1.7	13.4	15.2	84.8	52.4	32.4	78.622*** (6)
	중	3,806	3.04	0.708	2.2	16.8	19.0	81.0	56.3	24.7	
	하	404	2.98	0.804	4.9	18.9	23.8	76.2	50.1	26.2	

* 주: 1) * p .05, ** p .01, *** p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의 55.6%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학교급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학업성취 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수준 상위집단에서는 64.7%의 청소년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10점 척도로 평가하는 이 제시문에 대해 1점의 강한 긍정 응답을 한 청소년도 11.4%에 달했다. 학업성취수준 중간집단은 53.0%, 하위집단은 45.6%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약 20%p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는데, 이는 청년 세대나 성인 세대의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2)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소년 세대가 현재의 희생을 학업(현재의 희생 = 학업)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상위집단 56.0%, 중간집단 55.6%, 하위집단 53.2%), 청소년들은 현재의 여건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될 때 더 행복을 유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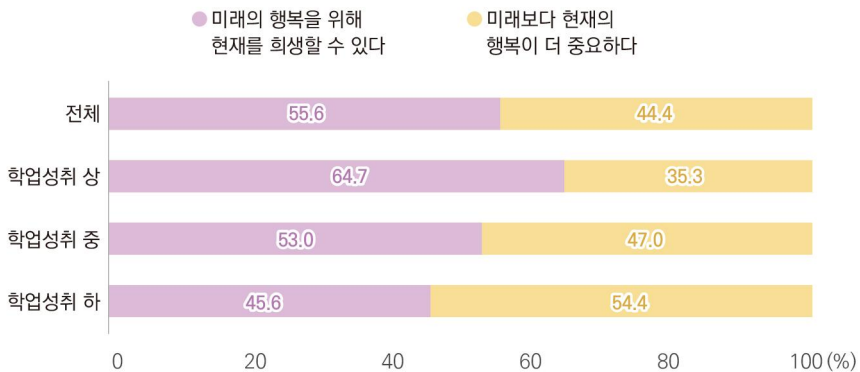


그림 V-4.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학업성취수준별)

표 V-11.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89	8.6	8.3	12.2	12.1	14.5	55.6	44.4	10.3	11.4	10.9	4.5	7.3	
성별	남학생	3,966	9.1	6.9	12.0	11.7	15.6	55.3	44.7	11.0	12.1	10.0	3.6	7.9
	여학생	3,723	8.0	9.8	12.5	12.5	13.2	56.0	44.0	9.6	10.5	11.8	5.5	6.6
학교급	초	1,997	9.9	7.4	10.9	10.8	16.5	55.5	44.5	10.2	8.5	10.2	5.1	10.5
	중	2,942	7.9	8.8	12.4	11.4	15.2	55.7	44.3	9.9	11.0	11.1	5.1	7.3
	고	2,751	8.3	8.6	12.9	13.7	12.2	55.7	44.3	10.8	13.9	11.2	3.5	4.9
학업 성취 수준	상	2,842	11.4	12.6	14.3	13.6	12.9	64.7	35.3	8.6	9.0	7.6	4.1	5.9
	중	3,047	7.2	6.2	12.3	11.5	15.7	53.0	47.0	12.1	11.5	12.2	4.1	7.1
	하	1,758	6.2	5.3	8.8	10.6	14.7	45.6	54.4	10.2	14.9	13.8	5.8	9.7
경제 수준	상	3,418	9.1	9.8	11.9	10.7	14.5	56.0	44.0	9.3	9.9	10.9	5.4	8.4
	중	3,798	7.9	7.1	12.4	13.5	14.7	55.6	44.4	11.3	12.3	10.9	3.9	6.0
	하	402	9.3	8.1	13.9	10.2	11.7	53.2	46.8	9.5	13.7	11.7	3.2	8.7

* 주: 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 ⑩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6) 복지, 경쟁에 대한 관점

(1) 복지에 대한 생각

청소년들이 복지와 경쟁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어느 쪽의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먼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와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립되는 가치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 61.8%가 동의하여 복지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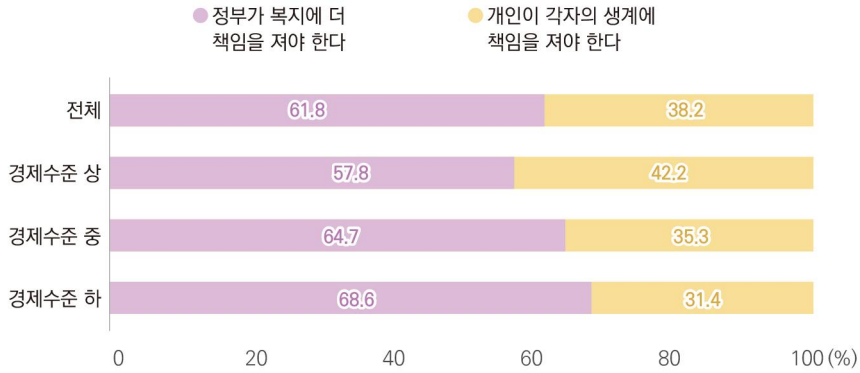


그림 V-5. 복지에 대한 생각(경제수준별)

표 V-12. 복지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84	10.5	7.9	12.5	14.0	16.9	61.8	38.2	11.0	9.7	8.6	4.2	4.7	
성별	남학생	3,961	10.3	6.3	11.7	12.3	17.2	57.8	42.2	12.2	10.3	9.3	4.6	5.8
	여학생	3,723	10.8	9.7	13.3	15.7	16.5	66.0	34.0	9.8	9.1	7.8	3.8	3.5
학교급	초	1,992	7.2	4.9	8.6	12.5	21.0	54.3	45.7	14.1	11.3	9.5	4.8	6.0
	중	2,941	11.3	8.0	13.4	13.9	16.6	63.1	36.9	10.2	9.2	8.0	4.5	5.0
	고	2,750	12.2	10.0	14.3	15.1	14.2	65.8	34.2	9.7	9.2	8.5	3.5	3.4
학업 성취 수준	상	2,841	10.2	8.6	12.2	14.2	15.3	60.4	39.6	10.5	9.4	9.3	4.8	5.6
	중	3,046	9.7	7.5	13.0	14.1	17.9	62.3	37.7	11.1	10.3	8.5	3.8	4.0
	하	1,756	12.6	7.6	11.8	13.4	17.5	62.9	37.1	11.8	9.5	7.4	4.0	4.4
경제수준	상	3,415	10.5	7.3	11.4	11.8	16.9	57.8	42.2	10.9	9.8	10.1	5.4	5.9
	중	3,795	10.1	8.4	13.1	15.9	17.2	64.7	35.3	11.4	9.8	7.4	3.1	3.6
	하	402	14.4	10.4	15.5	14.1	14.2	68.6	31.4	7.8	8.6	7.3	3.3	4.4

* 주: ①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⑩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7.8%의 동의 비율, 여학생이 66.0%의 동의 비율을 보여 여학생의 복지수요가 10%p 가까이 높았는데, 이는 다른 가치관에 비해서 성차가 두드러지는 결과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4.3%, 중학생 63.1%, 고등학생 65.8%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복지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의 57.8%, 중간집단의 64.7%, 하위집단의 68.6%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치에 동의하여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보다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쟁에 대한 생각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의 68.2%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 의견에 남학생(71.8%)이 여학생(64.3%)보다 더 동의하였으며,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수준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 상위집단은 74.4%가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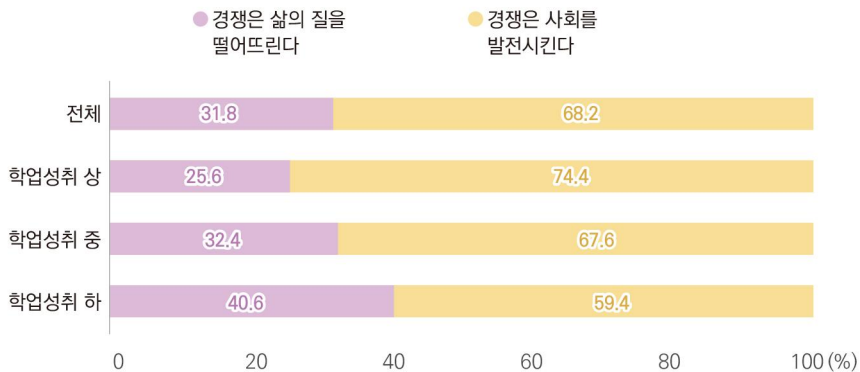


그림 V-6. 경쟁에 대한 생각(학업성취수준별)

표 V-13. 경쟁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74	3.4	3.1	5.4	7.6	12.3	31.8	68.2	13.2	16.9	16.5	11.1	10.6	
성별	남학생	3,960	3.2	2.8	5.1	5.7	11.3	28.2	71.8	12.6	16.5	18.0	11.6	13.3
	여학생	3,714	3.5	3.4	5.7	9.7	13.4	35.7	64.3	13.9	17.3	14.8	10.6	7.7
학교급	초	1,987	2.8	2.6	4.6	6.5	13.9	30.5	69.5	14.2	16.1	15.8	11.7	11.6
	중	2,937	3.2	3.2	5.2	7.2	11.7	30.5	69.5	12.3	16.5	17.4	11.8	11.4
	고	2,749	3.9	3.4	6.1	8.9	11.8	34.2	65.8	13.4	17.8	15.9	9.8	8.9
학업 성취 수준	상	2,835	2.5	2.8	4.5	6.3	9.5	25.6	74.4	10.8	17.4	18.7	14.3	13.2
	중	3,040	2.9	2.7	5.3	7.9	13.6	32.4	67.6	14.8	17.6	15.9	9.7	9.5
	하	1,756	5.5	4.2	6.8	9.4	14.7	40.6	59.4	14.3	14.7	13.7	8.4	8.3
경제 수준	상	3,408	3.2	2.9	4.5	6.7	11.4	28.7	71.3	11.2	16.9	16.7	13.4	13.1
	중	3,794	3.3	3.2	5.9	8.5	12.9	33.9	66.1	15.0	16.9	16.6	9.2	8.4
	하	402	5.6	3.8	7.3	8.2	12.3	37.2	62.8	12.3	17.2	12.7	9.9	10.7

* 주: ①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 ⑩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단은 67.6%, 하위집단은 59.4%가 이 의견에 동의하여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15%p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9.5%, 중학생 69.5%, 고등학생 65.8%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가치에 동의하여 집단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집단인 청소년은 71.3%, 중간집단은 66.1%, 하위집단은 62.8%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데 동의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와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라는 상호 대치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각 제시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70.1%,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29.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생활의 편리함보다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초등학생 83.0%, 중학생 70.6%, 고등학생 60.2%)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의 편리함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초등학생 17.0%, 중학생 29.4%, 고등학생 39.8%)이 증가하였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73.5%)이 남학생(66.8%)에 비해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71.5%, 중간집단 71.3%, 하위집단 65.4%), 가정의 경제수준(상위집단 69.9%, 중간집단 70.5%, 하위집단 66.8%)이 상위집단과 중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하위집단 청소년에 비해 생활의 편리함보다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데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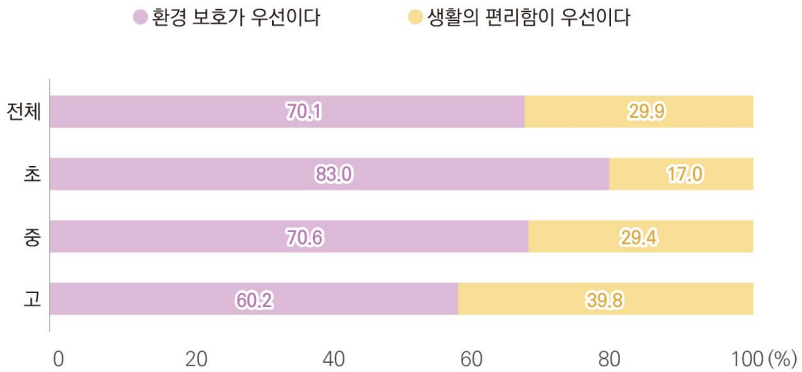


그림 V-7.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표 V-14.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73	16.6	10.1	14.4	14.1	14.9	70.1	29.9	9.5	7.8	5.2	2.8	4.7	
성별	남학생	3,957	16.7	9.5	12.6	12.2	15.8	66.8	33.2	9.8	9.1	5.6	2.5	6.2
	여학생	3,716	16.4	10.8	16.3	16.2	13.9	73.5	26.5	9.3	6.4	4.7	3.0	3.0
학교급	초	1,988	30.3	12.8	15.3	13.4	11.2	83.0	17.0	5.2	3.6	3.1	2.3	2.8
	중	2,937	15.7	10.8	16.2	13.9	14.0	70.6	29.4	9.0	6.7	5.9	3.1	4.9
	고	2,748	7.6	7.4	11.8	14.9	18.5	60.2	39.8	13.3	12.0	6.0	2.8	5.8
학업 성취 수준	상	2,834	18.5	12.0	14.9	12.9	13.2	71.5	28.5	8.5	6.8	5.4	3.1	4.7
	중	3,040	16.1	9.5	14.8	14.7	16.2	71.3	28.7	10.2	8.0	4.5	2.2	3.8
	하	1,756	14.4	7.9	12.9	14.9	15.4	65.4	34.6	10.3	9.0	6.1	3.2	5.9
경제 수준	상	3,413	18.8	11.4	13.6	12.8	13.3	69.9	30.1	8.9	7.3	5.5	2.9	5.6
	중	3,786	14.4	9.2	15.3	15.2	16.3	70.5	29.5	10.1	8.2	4.8	2.7	3.7
	하	402	17.6	7.2	13.1	14.2	14.6	66.8	33.2	10.4	8.9	6.1	2.4	5.4

* 주: ①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 ⑩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

8)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관한 3개 진술문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하고 긍정응답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을 살펴보았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90.6%,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87.2%,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73.8%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학교급별로는 과학기술의 건강·편리·안락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던 데 비해, 다음 세대에 기회 제공과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동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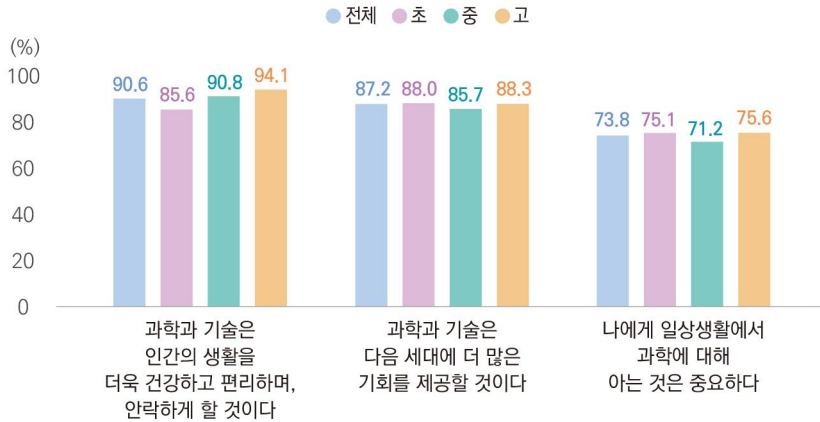


그림 V-8.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학교급별)

표 V-15.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1	3.17	0.609	1.0	8.4	9.4	90.6	62.9	27.8	-	
성별	남학생	3,966	3.24	0.621	1.1	6.8	7.9	92.1	58.9	33.2	131.851*** (3)
	여학생	3,724	3.10	0.588	0.9	10.0	10.9	89.1	67.1	22.0	
학교급	초	1,993	3.05	0.627	1.5	12.9	14.4	85.6	65.0	20.7	159.820*** (6)
	중	2,942	3.17	0.605	1.0	8.3	9.2	90.8	63.5	27.3	
	고	2,755	3.27	0.584	0.7	5.2	5.9	94.1	60.6	33.4	
학업 성취 수준	상	2,845	3.24	0.611	0.9	6.7	7.6	92.4	59.5	32.9	72.724*** (6)
	중	3,050	3.13	0.596	0.8	9.7	10.4	89.6	65.1	24.5	
	하	1,755	3.14	0.621	1.6	8.7	10.3	89.7	64.3	25.4	
경제 수준	상	3,418	3.20	0.625	1.3	7.7	8.9	91.1	60.7	30.3	35.936*** (6)
	중	3,801	3.16	0.590	0.7	8.7	9.4	90.6	64.6	26.0	
	하	402	3.09	0.651	2.1	10.6	12.7	87.3	63.3	24.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남학생이 92.1% 동의하여 여학생의 동의 비율 89.1%보다 더 높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 85.6%, 중학생 90.8%, 고등학생 94.1%)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92.4%, 중간집단 89.6%, 하위집단 89.7%)과 경제수준(상위집단 91.1%, 중간집단 90.6%, 하위집단 87.3%)이 높은 집단에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87.2%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남학생의 동의 비율은 88.1%로 여학생의 동의 비율 86.3%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85.7%로 초등학생(88.0%)과 고등학생(88.3%)의 동의 비율에 비해 낮았지만, 강한 긍정응답(매우 그렇다)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25.6%, 중학생 29.9%, 고등학생 34.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학과 기술이

표 V-16.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5	3.16	0.678	1.7	11.0	12.8	87.2	56.8	30.5	-	
성별	남학생	3,968	3.21	0.684	1.6	10.3	11.9	88.1	53.7	34.5	61.612*** (3)
	여학생	3,727	3.11	0.667	1.9	11.8	13.7	86.3	60.0	26.2	
학교급	초	1,994	3.12	0.631	1.2	10.8	12.0	88.0	62.4	25.6	62.449*** (6)
	중	2,943	3.14	0.691	1.8	12.5	14.3	85.7	55.8	29.9	
	고	2,757	3.21	0.694	2.0	9.6	11.7	88.3	53.7	34.6	
학업 성취 수준	상	2,846	3.24	0.683	1.3	10.1	11.5	88.5	51.4	37.2	110.557*** (6)
	중	3,053	3.12	0.648	1.5	11.2	12.7	87.3	61.0	26.3	
	하	1,755	3.10	0.704	2.8	11.9	14.8	85.2	58.1	27.1	
경제 수준	상	3,417	3.20	0.680	1.7	10.0	11.7	88.3	54.9	33.4	40.766*** (6)
	중	3,806	3.14	0.667	1.5	11.8	13.3	86.7	58.3	28.4	
	하	402	3.07	0.750	4.3	12.1	16.4	83.6	56.2	27.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더 확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88.5%, 중간집단 87.3%, 하위집단 85.2%)과 경제수준(상위집단 88.3%, 중간집단 86.7%, 하위집단 83.6%)은 상위집단일수록 과학기술이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73.8%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남학생의 동의 비율은 77.7%, 여학생의 동의 비율은 69.7%로 남녀 간에는 8%p의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71.2%로 초등학생의 75.1%와 고등학생의 75.6%에 비해 낮았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 81.8%, 중간집단 72.0%, 하위집단 64.0%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17.8%p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의 중요성에 76.4%가 동의하였고, 중간집단은 72.3%, 하위집단은 66.7%가 동의하였다.

표 V-17.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3	2.92	0.749	3.2	23.0	26.2	73.8	52.8	21.0	-	
성별	남학생	3,966	2.99	0.745	2.9	19.4	22.3	77.7	53.3	24.4	91.550*** (3)
	여학생	3,727	2.84	0.746	3.5	26.8	30.3	69.7	52.2	17.5	
학교급	초	1,995	2.93	0.736	2.9	22.0	24.9	75.1	53.9	21.2	28.902*** (6)
	중	2,943	2.86	0.763	4.1	24.7	28.8	71.2	52.1	19.1	
	고	2,755	2.96	0.741	2.5	21.8	24.4	75.6	52.6	23.0	
학업 성취 수준	상	2,846	3.09	0.721	1.8	16.4	18.2	81.8	52.6	29.2	311.053*** (6)
	중	3,053	2.87	0.730	3.0	24.9	28.0	72.0	54.1	18.0	
	하	1,753	2.71	0.767	5.9	30.1	36.0	64.0	50.7	13.2	
경제 수준	상	3,417	2.97	0.757	3.2	20.4	23.6	76.4	52.1	24.3	55.084*** (6)
	중	3,804	2.88	0.734	3.1	24.6	27.7	72.3	53.9	18.5	
	하	402	2.80	0.786	4.7	28.6	33.3	66.7	48.5	18.2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가족관

- **(결혼관)** 청소년의 29.5%만이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에 동의하였음. 이는 2012년 조사결과(73.2%)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반면 청소년들의 비혼동거(81.3%), 국제결혼(91.4%), 동성결혼(52.0%)에 대한 수용도는 높음.
- **(자녀관)** 청소년의 60.6%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19.8%에 불과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89.4%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가족의 범주)**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라는 데 청소년의 95.6%가 동의하였고, 61.4%는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 ‘집안일은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95.1%,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95.7%,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93.2%로 나타나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편임.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6%를 차지함.
-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청소년의 91.5%는 부모님이 늙으시면 주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선택 기준)** 2가지 복수 응답 기준으로 성격(82.0%), 외모/매력(44.2%), 경제력(33.2%) 순이었음. 2008년 조사 이래 1순위는 성격으로 변함이 없었고, 2순위는 2008년~2012년에 경제력이었는데 2023년에는 외모/매력이 차지함.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청소년들은 좋은 부모의 요건으로 경제적 지원(94.9%)보다 건강 유지(98.4%),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97.3%) 및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95.9%)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결혼관

결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 필수인지와 비혼동거, 국제결혼,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는 29.5%만이 동의하였고,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데는 81.3%,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데는 91.4%,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52.0%가 동의하였다. 결혼관은 성차가 두드러지는 가치관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는 남학생의 39.5%가 동의한 반면, 여학생의 동의 비율은 18.8%에 불과하였다. 비혼동거에는 남학생의 80.5%, 여학생의 82.1%가 동의하였고, 국제결혼에는 남학생의 89.8%, 여학생의 93.0%가 동의하였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학생의 36.0%, 여학생의 69.0%가 동의하여 남녀 간의 차이가 33.0%p로, 남학생은 3명 중 1명 정도가 동성결혼 허용에 동의한 데 비해, 여학생은 3명 중 2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낮게 평가하고, 여가나 돈,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점점 높게 평가하는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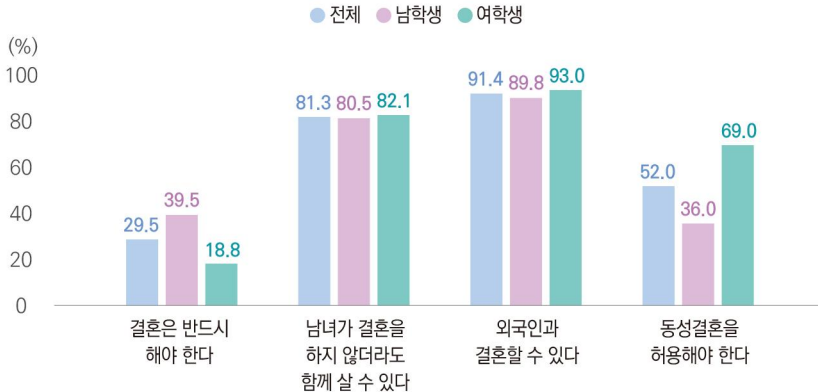


그림 V-9. 결혼관(성별)

결혼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청소년은 29.5%였고, 남학생의 동의 비율은 39.5%, 여학생의 동의 비율은 18.8%로 남녀 간에는 20%p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28.0%, 중학생 29.1%, 고등학생 30.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이 변화는 매우 그렇다(초등학생 6.9%, 중학생 8.0%, 고등학생 10.0%)는 강한 긍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의 긍정응답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중간집단 29.1%, 하위

집단 26.5%였으며, 경제수준별 긍정응답 비율은 상위집단 32.9%, 중간집단 26.4%, 하위 집단 28.9%로 중간집단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추가로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상위집단 32.9%, 중간집단 29.3%, 하위집단 26.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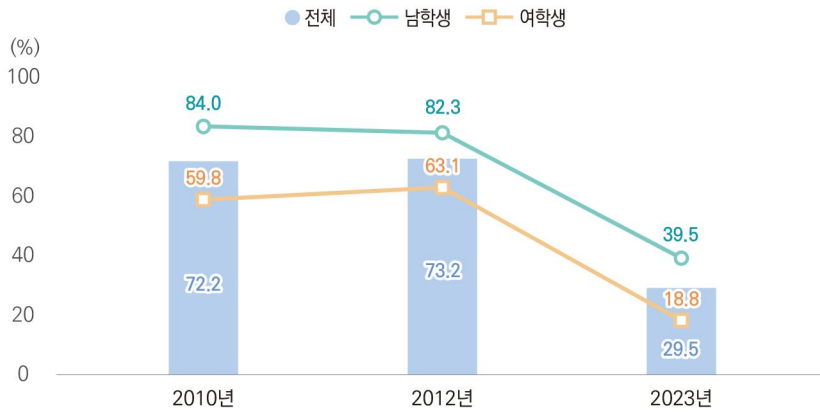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11	2.15	0.871	23.3	47.3	70.5	29.5	21.1	8.4	-	
성별	남학생	3,979	2.36	0.884	15.7	44.8	60.5	39.5	27.6	11.9	493.989*** (3)
	여학생	3,732	1.92	0.798	31.3	49.9	81.2	18.8	14.1	4.7	
학교급	초	1,997	2.15	0.811	19.5	52.5	72.0	28.0	21.1	6.9	56.267*** (6)
	중	2,952	2.14	0.863	23.3	47.6	70.9	29.1	21.1	8.0	
	고	2,762	2.15	0.920	26.0	43.1	69.1	30.9	21.0	10.0	
학업 성취 수준	상	2,852	2.18	0.890	23.2	45.0	68.2	31.8	22.7	9.1	60.168*** (6)
	중	3,056	2.16	0.831	20.4	50.6	70.9	29.1	21.7	7.4	
	하	1,762	2.08	0.900	28.0	45.5	73.5	26.5	17.5	9.0	
경제 수준	상	3,424	2.22	0.890	21.1	46.0	67.1	32.9	22.9	10.0	61.773*** (6)
	중	3,812	2.09	0.840	24.4	49.2	73.6	26.4	19.6	6.8	
	하	404	2.07	0.947	31.5	39.6	71.1	28.9	19.0	9.8	
가족 관계	상	2,689	2.21	0.893	22.0	45.1	67.1	32.9	23.2	9.7	35.863*** (6)
	중	2,343	2.16	0.870	22.4	48.4	70.7	29.3	20.4	8.9	
	하	2,676	2.08	0.844	25.4	48.4	73.8	26.2	19.4	6.8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 결과는 10여 년 전인 2010년과 2012년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010년과 2012년에는 각각 72.2%와 73.2%의 청소년들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청소년들의 70.5%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 주: 1) 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1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시계열 비교)

표 V-19.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5	2.97	0.737	5.1	13.6	18.7	81.3	60.8	20.5	-	
성별	남학생	3,975	2.94	0.736	5.4	14.1	19.5	80.5	61.6	18.9	13.481** (3)
	여학생	3,730	2.99	0.737	4.8	13.2	17.9	82.1	60.0	22.1	
학교급	초	1,995	2.96	0.735	5.4	12.9	18.3	81.7	62.0	19.6	10.007 (6)
	중	2,949	2.97	0.722	4.7	13.7	18.4	81.6	61.9	19.7	
	고	2,761	2.97	0.755	5.3	14.1	19.3	80.7	58.7	21.9	
학업 성취 수준	상	2,848	2.99	0.738	4.7	13.5	18.2	81.8	59.5	22.3	25.709*** (6)
	중	3,055	2.93	0.725	5.1	14.7	19.8	80.2	62.2	18.0	
	하	1,760	2.98	0.754	5.8	12.0	17.7	82.3	60.5	21.8	
경제 수준	상	3,420	2.96	0.763	5.5	14.9	20.3	79.7	58.0	21.7	24.263*** (6)
	중	3,810	2.98	0.711	4.6	12.5	17.2	82.8	63.4	19.5	
	하	404	2.95	0.771	5.9	14.4	20.4	79.6	58.3	21.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생각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앞으로의 가족정책과 저출산대책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는 81.3%의 청소년들이 동의 하였는데, 여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82.1%로 남학생의 80.5%보다 1.6%p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든 연령대에서 10명 중 8명 정도의 청소년은 비혼동거에 거부감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취수준은 하위집단의 긍정응답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위집단 81.8%, 중간집단 80.2%의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집단의 긍정응답 비율이 82.8%로 상위집단(79.7%)과 하위 집단(79.6%)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의 국제결혼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91.4%가 긍정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은 89.8%, 여학생은 93.0%가 긍정응답을 하여, 여학생의 국제결혼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92.7%, 중학생 91.6%, 고등학생 90.2%

표 V-20. 외국인과의 결혼할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7	3.36	0.721	2.9	5.7	8.6	91.4	43.6	47.8	-	
성별	남학생	3,968	3.28	0.737	3.4	6.7	10.2	89.8	47.9	41.9	116.576*** (3)
	여학생	3,729	3.45	0.694	2.4	4.6	7.0	93.0	39.0	54.0	
학교급	초	1,989	3.49	0.705	2.5	4.8	7.3	92.7	34.1	58.6	139.604*** (6)
	중	2,948	3.35	0.718	3.0	5.4	8.4	91.6	45.3	46.3	
	고	2,760	3.29	0.725	3.1	6.6	9.8	90.2	48.6	41.6	
학업 성취 수준	상	2,848	3.44	0.691	2.3	4.8	7.0	93.0	39.4	53.6	75.598*** (6)
	중	3,049	3.30	0.743	3.3	7.1	10.4	89.6	45.7	43.9	
	하	1,759	3.34	0.715	3.2	4.9	8.0	92.0	46.8	45.2	
경제 수준	상	3,416	3.37	0.745	3.3	6.0	9.4	90.6	40.7	50.0	23.310*** (6)
	중	3,809	3.35	0.701	2.5	5.6	8.1	91.9	45.9	46.0	
	하	401	3.37	0.696	2.7	4.4	7.1	92.9	45.7	47.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의 긍정응답 비율을 보였고, 특히 초등학생의 58.6%는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을 하여 어릴수록 국제결혼에 대해 더 수용적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93.0%), 하위집단(92.0%), 중간집단(89.6%)의 순이었고, 가정의 경제수준별 긍정응답은 하위집단(92.9%), 중간집단(91.9%), 상위집단(90.6%) 순이었다. 집단 간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집단에서 90% 정도의 긍정응답 비율을 보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국제결혼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혼관에서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과반인 52.0%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이 의견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 36.0%, 여학생 69.0%로 남녀 간에 33.0%p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55.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52.9%, 초등학생 46.4%의 순이었다. 학업성취수준은 하위집단(54.1%)이 상위집단(51.1%)과 중간집단(51.7%)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았고, 경제수준은 중간집단(54.5%)과 하위집단(54.7%)이 상위집단(48.9%)에 비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동의하였다.

표 V-21.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3	2.43	0.984	22.5	25.4	48.0	52.0	38.4	13.6	-	
성별	남학생	3,973	2.09	0.930	33.0	31.0	64.0	36.0	29.9	6.1	988.854*** (3)
	여학생	3,731	2.79	0.908	11.4	19.5	31.0	69.0	47.5	21.5	
학교급	초	1,995	2.34	0.925	21.7	31.9	53.6	46.4	36.6	9.8	115.619*** (6)
	중	2,951	2.50	0.969	19.7	25.3	45.0	55.0	40.3	14.7	
	고	2,758	2.42	1.034	26.2	20.9	47.1	52.9	37.8	15.1	
학업 성취 수준	상	2,846	2.42	0.989	23.1	25.8	48.9	51.1	37.4	13.7	13.763* (6)
	중	3,055	2.42	0.966	22.2	26.1	48.3	51.7	39.4	12.3	
	하	1,760	2.47	1.003	22.3	23.6	45.9	54.1	38.6	15.6	
경제 수준	상	3,421	2.36	0.989	24.9	26.2	51.1	48.9	36.5	12.4	49.201*** (6)
	중	3,809	2.48	0.965	20.1	25.4	45.5	54.5	40.5	14.0	
	하	402	2.47	1.075	26.3	19.0	45.3	54.7	35.9	18.9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자녀관

가족관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하였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은 19.8%에 불과하였으며,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데는 89.4%가 동의하여 청소년들은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서, 남학생은 27.8%가 동의한 데 비해, 여학생은 11.2%만이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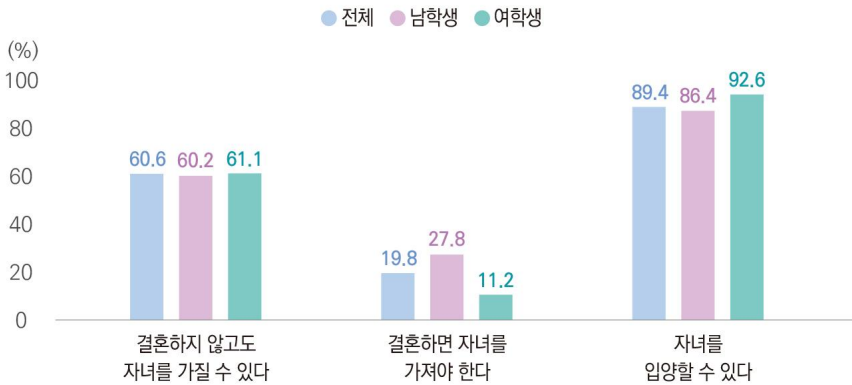


그림 V-11. 자녀관(성별)

결혼관에 관한 3개 문항을 한 문항씩 상세히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긍정응답 비율은 60.6%(남 60.2%, 여 61.1%)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어릴수록(초등학생 64.5%, 중학생 61.6%, 고등학생 56.9%) 비혼출산에 동의하는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취수준 하위집단과 경제수준 중간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V-2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4	2.65	0.914	13.1	26.2	39.4	60.6	43.5	17.2	-	
성별	남학생	3,977	2.62	0.906	13.8	26.0	39.8	60.2	44.8	15.4	21.985*** (3)
	여학생	3,727	2.68	0.921	12.4	26.4	38.9	61.1	42.0	19.1	
학교급	초	1,995	2.71	0.894	11.4	24.1	35.5	64.5	46.1	18.4	40.177*** (6)
	중	2,950	2.66	0.893	12.0	26.4	38.4	61.6	45.0	16.6	
	고	2,759	2.58	0.945	15.6	27.5	43.1	56.9	40.0	16.9	
학업 성취 수준	상	2,850	2.67	0.929	13.0	26.5	39.5	60.5	41.5	19.0	22.046** (6)
	중	3,052	2.62	0.895	13.4	26.5	39.8	60.2	45.3	14.9	
	하	1,760	2.67	0.919	13.0	25.2	38.2	61.8	43.6	18.2	
경제 수준	상	3,416	2.63	0.941	14.5	26.4	40.9	59.1	41.1	18.0	28.156*** (6)
	중	3,814	2.67	0.889	11.7	26.3	37.9	62.1	45.3	16.8	
	하	404	2.59	0.922	16.1	22.6	38.7	61.3	47.0	14.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9.8%의 청소년이 긍정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은 27.8%가 긍정응답을 한 데 비해 여학생은 11.2%만이 긍정응답을 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을 한 여학생은 2.2%에 불과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초등학교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생 19.3%, 중학생 18.6% 순이었다. 학업성취수준 상위집단(상위집단 21.2%, 중간집단 18.5%, 하위집단 19.7%)과 경제수준 상위집단(상위집단 22.1%, 중간집단 17.7%, 하위집단 17.9%)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2	1.93	0.801	31.1	49.2	80.2	19.8	15.2	4.6	-	
성별	남학생	3,974	2.14	0.817	20.5	51.8	72.2	27.8	20.9	6.8	577.229*** (3)
	여학생	3,728	1.71	0.719	42.4	46.4	88.8	11.2	9.1	2.2	
학교급	초	1,995	2.01	0.785	26.0	51.8	77.9	22.1	17.7	4.5	58.978*** (6)
	중	2,949	1.92	0.781	30.5	50.9	81.4	18.6	14.5	4.2	
	고	2,758	1.89	0.829	35.3	45.4	80.7	19.3	14.2	5.1	
학업 성취 수준	상	2,850	1.94	0.825	32.1	46.7	78.8	21.2	16.1	5.0	45.600*** (6)
	중	3,053	1.94	0.755	28.1	53.3	81.5	18.5	15.0	3.6	
	하	1,758	1.91	0.833	34.0	46.3	80.3	19.7	14.3	5.5	
경제 수준	상	3,419	1.98	0.822	29.5	48.4	77.9	22.1	16.8	5.4	37.932*** (6)
	중	3,808	1.90	0.774	31.7	50.6	82.3	17.7	13.9	3.8	
	하	404	1.82	0.819	39.6	42.5	82.1	17.9	13.7	4.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자녀의 입양에 대해서는 89.4%의 청소년이 '입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과반인 51.8%가 강한 긍정응답(매우 그렇다)을 하였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인 긍정응답 비율도 92.6%에 달해 자녀의 입양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은 86.4%로 여학생보다 6.2%p 낮았다. 자녀의 입양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취수준이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은 90.7%로 중간집단(88.7%)과 하위집단(88.6%)에 비해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87.2%)의 긍정응답 비율이 중간집단(91.2%)과 하위집단(91.6%)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V-24.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4	3.28	0.746	3.6	7.0	10.6	89.4	47.3	42.2	-	
성별	남학생	3,975	3.15	0.762	4.5	9.0	13.6	86.4	53.3	33.1	292.937*** (3)
	여학생	3,730	3.42	0.703	2.6	4.8	7.4	92.6	40.8	51.8	
학교급	초	1,999	3.31	0.755	3.6	7.1	10.6	89.4	44.2	45.2	11.712 (6)
	중	2,946	3.27	0.741	3.6	6.9	10.5	89.5	48.8	40.7	
	고	2,760	3.27	0.744	3.6	7.0	10.6	89.4	47.9	41.6	
학업 성취 수준	상	2,851	3.35	0.736	3.2	6.1	9.3	90.7	43.3	47.4	55.993*** (6)
	중	3,055	3.23	0.745	3.8	7.5	11.3	88.7	50.6	38.0	
	하	1,756	3.26	0.758	3.9	7.5	11.4	88.6	47.7	40.9	
경제 수준	상	3,420	3.26	0.793	4.5	8.3	12.8	87.2	44.0	43.2	51.467*** (6)
	중	3,809	3.29	0.701	2.7	6.0	8.8	91.2	50.4	40.8	
	하	404	3.35	0.723	3.2	5.3	8.4	91.6	45.3	46.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가족의 범주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의 국정과 제에도 동물복지 강화가 포함되는 등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라는 데 95.6%가 동의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60.5%에 달했다. 거의 모든 배경변인별 집단에서 95% 이상의 높은 긍정응답 비율을 보여 여기서는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71.7%, 중학생의 59.4%, 고등학생의 53.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릴수록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08	3.55	0.627	1.5	2.9	4.4	95.6	35.2	60.5	-	
성별	남학생	3,979	3.46	0.676	2.2	4.0	6.1	93.9	39.7	54.1	162.023*** (3)
	여학생	3,729	3.64	0.555	0.7	1.8	2.5	97.5	30.3	67.2	
학교급	초	1,999	3.68	0.554	1.0	1.6	2.6	97.4	25.8	71.7	166.938*** (6)
	중	2,947	3.54	0.628	1.5	2.9	4.4	95.6	36.3	59.4	
	고	2,762	3.46	0.659	1.8	3.9	5.7	94.3	40.8	53.5	
학업 성취 수준	상	2,850	3.56	0.631	1.5	3.0	4.6	95.4	33.1	62.3	11.995 (6)
	중	3,056	3.53	0.621	1.3	2.9	4.2	95.8	37.3	58.5	
	하	1,759	3.55	0.633	1.6	2.8	4.4	95.6	34.7	60.9	
경제 수준	상	3,421	3.58	0.627	1.6	2.7	4.3	95.7	31.7	64.0	43.511*** (6)
	중	3,812	3.52	0.621	1.2	3.1	4.3	95.7	37.9	57.8	
	하	404	3.45	0.688	2.5	3.9	6.3	93.7	39.6	54.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청소년들이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61.4%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59.4%, 여학생의 63.6%가 긍정응답을 하여 여학생의 동의 비율이 4.2%p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초등학생 72.7%, 중학생 62.4%, 고등학생 52.3%)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63.3%, 중간집단 61.5%, 하위집단 58.3%)과 경제수준(상위집단 63.4%, 중간집단 60.4%, 하위집단 54.9%)이 높을수록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6.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714	2.68	0.970	14.7	23.8	38.6	61.4	40.0	21.4	-	
성별	남학생	3,981	2.63	0.982	16.6	24.0	40.6	59.4	39.4	20.0	27.615*** (3)
	여학생	3,733	2.74	0.953	12.8	23.6	36.4	63.6	40.6	22.9	
학교급	초	2,000	2.94	0.944	10.1	17.2	27.3	72.7	41.1	31.6	299.177*** (6)
	중	2,952	2.70	0.943	13.2	24.5	37.6	62.4	41.6	20.8	
	고	2,762	2.47	0.969	19.7	28.0	47.7	52.3	37.5	14.7	
학업 성취 수준	상	2,852	2.73	0.971	13.6	23.1	36.7	63.3	39.6	23.6	34.363*** (6)
	중	3,057	2.67	0.944	14.1	24.4	38.5	61.5	42.2	19.3	
	하	1,762	2.62	1.007	17.4	24.3	41.7	58.3	36.8	21.5	
경제 수준	상	3,424	2.74	0.990	14.4	22.2	36.6	63.4	38.4	25.0	62.038*** (6)
	중	3,815	2.65	0.941	14.3	25.3	39.6	60.4	41.8	18.6	
	하	404	2.53	1.025	21.0	24.0	45.1	54.9	36.1	18.9	

* 주: 1) * p .05, ** p .01, *** p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 양성평등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5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표 V-27>~<표 V-31>에 제시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의 합인 긍정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4.7%,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80.2%, '집안일은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95.1%,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95.7%,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93.2%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 결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는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 69.5%, 여학생 59.6%로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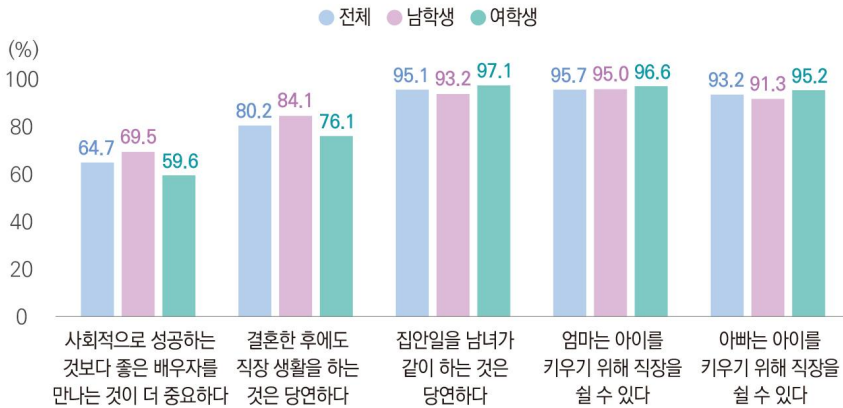


그림 V-12. 양성평등(성별)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육아휴직과 아버지의 육아휴직 둘 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는 데 95.7%의 청소년이 동의하였고,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는 데는 93.2%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과 여성의 육아휴직 간에 약간(2.5%p)의 인식 차이는 보이지만 최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 정책과 사용률 확대가 청소년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청소년의 64.7%가 동의하였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69.5%로 여학생의 59.6%보다 약 10%p 더 높아 남학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

표 V-27.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8	2.76	0.798	5.7	29.6	35.3	64.7	47.7	17.0	-	
성별	남학생	3,954	2.85	0.763	3.7	26.8	30.5	69.5	50.5	19.0	112.010*** (3)
	여학생	3,724	2.67	0.823	7.8	32.6	40.4	59.6	44.7	14.9	
학교급	초	1,984	2.74	0.744	4.2	31.7	35.9	64.1	50.3	13.8	82.097*** (6)
	중	2,945	2.77	0.773	5.1	28.7	33.9	66.1	50.3	15.8	
	고	2,749	2.77	0.859	7.4	29.1	36.4	63.6	43.0	20.6	
학업 성취 수준	상	2,843	2.73	0.813	6.3	31.4	37.7	62.3	45.5	16.8	35.346*** (6)
	중	3,043	2.77	0.763	4.7	28.9	33.6	66.4	50.9	15.5	
	하	1,751	2.80	0.824	6.1	27.8	33.8	66.2	46.3	19.9	
경제 수준	상	3,413	2.78	0.807	5.7	28.9	34.5	65.5	47.1	18.4	24.965*** (6)
	중	3,795	2.74	0.780	5.4	30.3	35.7	64.3	48.8	15.4	
	하	402	2.76	0.879	7.8	29.7	37.5	62.5	40.9	21.6	
가족 관계	상	2,680	2.83	0.827	5.8	26.6	32.4	67.6	46.2	21.4	72.968*** (6)
	중	2,330	2.75	0.766	5.2	29.3	34.5	65.5	50.7	14.8	
	하	2,666	2.70	0.789	6.0	33.0	39.0	61.0	46.5	14.5	

* 주: 1) * p .05, ** p .01, *** p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은 고등학생이 20.6%로 가장 높았다. 가족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에 더 동의하였다.

결혼 후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80.2%의 청소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84.1%, 여학생 76.1%의 긍정응답 비율을 보여 8%p의 차이로, 결혼한 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긍정응답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74.0%, 중학생 78.2%, 고등학생 86.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후 직장 생활을 당연시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은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에 비해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고, 경제수준의 경우는

표 V-28.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4	3.08	0.743	2.1	17.7	19.8	80.2	50.6	29.6	-	
성별	남학생	3,958	3.13	0.707	1.7	14.2	15.9	84.1	53.4	30.7	78.522*** (3)
	여학생	3,716	3.02	0.775	2.5	21.4	23.9	76.1	47.6	28.5	
학교급	초	1,979	2.96	0.777	3.0	23.0	26.0	74.0	48.5	25.4	169.411*** (6)
	중	2,945	3.02	0.742	2.3	19.5	21.8	78.2	51.8	26.4	
	고	2,750	3.22	0.695	1.3	11.9	13.1	86.9	50.8	36.1	
학업 성취 수준	상	2,837	3.13	0.753	2.3	15.8	18.1	81.9	48.3	33.6	56.843*** (6)
	중	3,042	3.03	0.717	1.6	19.4	20.9	79.1	53.3	25.8	
	하	1,752	3.06	0.764	2.8	18.0	20.7	79.3	49.7	29.6	
경제 수준	상	3,408	3.09	0.759	2.3	18.0	20.3	79.7	48.5	31.2	13.241* (6)
	중	3,796	3.07	0.730	2.0	17.7	19.6	80.4	52.2	28.1	
	하	402	3.12	0.729	2.0	15.4	17.4	82.6	51.5	31.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하위집단일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45.6%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 등 일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집안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95.1%(그렇다 39.9%+매우 그렇다 55.2%)의 청소년이 긍정응답을 하였고, 강한 긍정응답도 과반이었다. 다만 남학생 45.1%, 여학생 66.0%가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을 하여 남녀 간에는 약 2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강한 긍정응답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강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취수준이 중간

표 V-29. 집안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8	3.49	0.623	1.0	3.9	4.9	95.1	39.9	55.2	-	
성별	남학생	3,956	3.37	0.660	1.7	5.1	6.8	93.2	48.2	45.1	358.561*** (3)
	여학생	3,722	3.63	0.551	0.3	2.6	2.9	97.1	31.1	66.0	
학교급	초	1,984	3.45	0.660	1.1	6.2	7.2	92.8	39.4	53.4	55.855*** (6)
	중	2,945	3.49	0.604	0.9	3.1	4.0	96.0	42.6	53.4	
	고	2,748	3.53	0.615	1.1	3.0	4.2	95.8	37.3	58.5	
학업 성취 수준	상	2,843	3.54	0.615	0.9	3.9	4.7	95.3	35.9	59.4	34.827*** (6)
	중	3,042	3.46	0.630	1.1	4.1	5.2	94.8	42.4	52.4	
	하	1,751	3.47	0.624	1.2	3.5	4.7	95.3	42.0	53.3	
경제 수준	상	3,412	3.49	0.638	1.1	4.4	5.6	94.4	38.8	55.6	10.460 (6)
	중	3,796	3.50	0.607	0.9	3.3	4.2	95.8	40.9	54.9	
	하	402	3.47	0.659	1.6	4.4	6.0	94.0	39.2	54.8	
가족 관계	상	2,680	3.62	0.570	0.7	2.5	3.2	96.8	30.8	66.1	261.266*** (6)
	중	2,329	3.49	0.640	1.2	4.3	5.6	94.4	39.1	55.3	
	하	2,665	3.37	0.634	1.2	4.8	6.0	94.0	49.7	44.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및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66.1%, 보통 집단에서 55.3%, 좋지 않은 집단에서 44.3%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가사 분담을 당연시하는 생각이 더 확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표 V-30>~<표 V-31>에서 살펴보면 엄마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95.7%,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93.2%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엄마의 육아휴직(남 95.0%, 여 96.6%)에 대해서도 아빠의 육아휴직(남 91.3%, 여 95.2%)에 대해서도 여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과반의 여학생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모두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V-30.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3	3.44	0.603	0.8	3.5	4.3	95.7	46.6	49.2	-	
성별	남학생	3,955	3.40	0.612	0.8	4.2	5.0	95.0	49.5	45.5	49.737*** (3)
	여학생	3,718	3.49	0.589	0.7	2.7	3.4	96.6	43.5	53.1	
학교급	초	1,983	3.42	0.651	1.1	5.6	6.7	93.3	43.7	49.5	95.807*** (6)
	중	2,940	3.40	0.591	0.7	3.4	4.1	95.9	51.3	44.6	
	고	2,750	3.51	0.573	0.6	2.0	2.6	97.4	43.5	53.9	
학업 성취 수준	상	2,840	3.51	0.588	0.6	2.9	3.5	96.5	40.9	55.6	81.417*** (6)
	중	3,040	3.39	0.600	0.8	3.8	4.5	95.5	51.2	44.3	
	하	1,751	3.41	0.620	1.1	4.0	5.0	95.0	48.0	47.0	
경제 수준	상	3,410	3.44	0.625	1.1	3.9	5.0	95.0	44.7	50.3	21.610** (6)
	중	3,794	3.44	0.581	0.5	3.1	3.6	96.4	48.5	47.9	
	하	401	3.47	0.603	1.0	2.7	3.7	96.3	44.4	51.8	
가족 관계	상	2,680	3.57	0.586	0.8	2.5	3.3	96.7	36.1	60.6	284.022*** (6)
	중	2,326	3.43	0.610	0.7	4.1	4.9	95.1	46.3	48.9	
	하	2,663	3.32	0.588	0.8	3.9	4.7	95.3	57.4	37.8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강한 긍정응답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엄마의 육아휴직과 아빠의 육아휴직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고등학생은 과반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육아휴직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 상위집단과 가정의 경제수준 하위집단에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 간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가족관계에서 나타났는데, 엄마의 육아휴직에 대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은 가족관계가 좋은 상위집단 60.6%, 중간집단 48.9%, 하위집단 37.8%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22.8%p의 차이를 보였고,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의 차는 22.0%p였다.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1.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1	3.38	0.658	1.5	5.3	6.8	93.2	46.6	46.6	-	
성별	남학생	3,951	3.31	0.689	2.1	6.6	8.7	91.3	49.1	42.2	90.858*** (3)
	여학생	3,720	3.46	0.616	0.9	3.9	4.8	95.2	43.9	51.3	
학교급	초	1,980	3.32	0.718	2.4	7.7	10.1	89.9	45.4	44.6	118.513*** (6)
	중	2,942	3.34	0.653	1.4	6.0	7.4	92.6	50.3	42.3	
	고	2,749	3.48	0.605	1.0	3.0	3.9	96.1	43.4	52.7	
학업 성취 수준	상	2,839	3.45	0.664	1.7	4.5	6.3	93.7	41.3	52.5	74.956*** (6)
	중	3,040	3.33	0.644	1.3	5.7	7.0	93.0	51.2	41.8	
	하	1,749	3.36	0.663	1.5	5.9	7.4	92.6	47.4	45.3	
경제 수준	상	3,408	3.38	0.688	2.0	6.0	8.0	92.0	44.5	47.5	25.502*** (6)
	중	3,793	3.39	0.628	1.0	4.9	5.9	94.1	48.4	45.7	
	하	401	3.39	0.679	2.3	4.2	6.5	93.5	45.4	48.2	
가족 관계	상	2,677	3.52	0.638	1.4	3.8	5.1	94.9	36.7	58.2	280.787*** (6)
	중	2,328	3.35	0.685	1.8	6.8	8.6	91.4	46.3	45.1	
	하	2,662	3.28	0.631	1.4	5.6	7.0	93.0	56.8	36.2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부모님이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교(원)를 졸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26.4%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을 하였고, 이어서 ‘취업할 때까지’ 23.5%, ‘결혼할 때까지’ 3.0%, ‘결혼한 후에도’ 3.0%가 뒤를 이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6%를 차지하였다.

배경변인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대학교(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21.8%~30.6%, 취업할 때까지는 21.0%~25.5%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결혼할 때까지나 결혼한 후에도 지원을 바란다는 응답은 각각 3.0%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상위집단은 결혼할 때까지나 결혼한 후에도 지원을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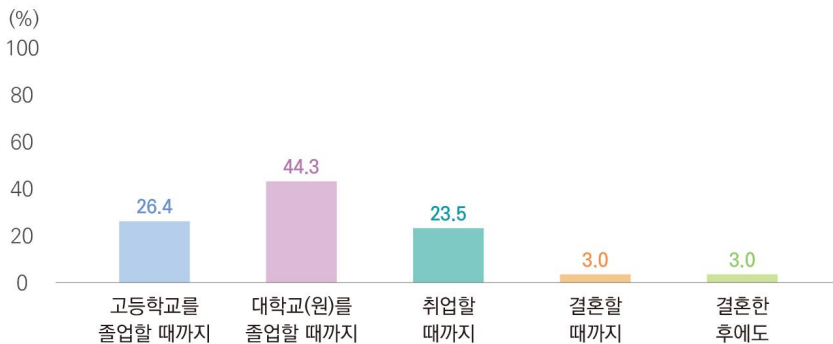


그림 V-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표 V-32.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고등학교졸 업할 때까지	대학교(원)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후에도	χ^2 (df)	
전체	7,676	26.4	44.3	23.5	3.0	3.0	-	
성별	남학생	3,953	29.0	42.2	22.5	2.9	3.3	36.160*** (4)
	여학생	3,723	23.5	46.4	24.4	3.0	2.6	
학교급	초	1,989	27.6	38.6	23.9	4.8	5.2	123.013*** (8)
	중	2,942	28.2	43.0	24.2	2.3	2.3	
	고	2,745	23.5	49.7	22.3	2.4	2.1	
고교 유형	일반계고	2,218	21.8	51.6	22.1	2.5	2.1	23.472*** (4)
	직업계고	527	30.6	42.1	23.4	1.8	2.2	
학업 성취 수준	상	2,846	23.7	44.6	25.5	3.1	3.2	38.377*** (8)
	중	3,036	27.1	45.9	21.0	3.3	2.7	
	하	1,753	29.2	41.1	24.2	2.3	3.1	
경제 수준	상	3,410	25.2	43.4	24.4	3.6	3.4	20.414** (8)
	중	3,797	27.2	44.8	22.9	2.6	2.5	
	하	401	29.1	44.5	21.9	1.8	2.7	

* 주: * $p < .05$, ** $p < .01$, *** $p < .001$

6)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91.5%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늙으시면 주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사회가 5.4%,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2.9%였다. 배경변인별 대부분의 집단에서 90% 이상이 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87.3%)과 경제수준 하위집단(84.3%)만이 90% 미만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경제수준 하위집단의 10.4%는 부모님이 늙으시면 정부·사회가 주로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앞에서 기술한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관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은 ‘개인이 각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38.2%,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61.8%의 응답을 하였는데, 부모의 노후 돌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사회’보다는 ‘가족’이라는 응답을 훨씬 더 많이 하였다. 다만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개인이 각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보다는 ‘정부·사회’의 응답 비율이 높아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표 V-33. 부모의 노후 돌봄 주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모님 스스로	가족	정부·사회	기타	χ^2 (df)	
전체	7,581	2.9	91.5	5.4	0.2	-	
성별	남학생	3,898	2.8	92.1	4.9	0.2	4.658 (3)
	여학생	3,683	3.0	90.9	5.9	0.2	
학교급	초	1,980	0.8	96.3	2.8	0.1	136.518*** (6)
	중	2,907	2.4	92.1	5.1	0.3	
	고	2,694	4.9	87.3	7.6	0.1	
학업 성취 수준	상	2,813	2.4	91.4	5.8	0.4	19.582** (6)
	중	3,005	2.6	92.1	5.1	0.1	
	하	1,720	4.1	90.7	5.2	0.1	
경제 수준	상	3,380	2.8	92.5	4.5	0.2	34.350*** (6)
	중	3,741	2.8	91.3	5.8	0.2	
	하	393	4.9	84.3	10.4	0.4	

* 주: * α .05, ** α .01, *** α .001

7) 배우자 선택 기준

청소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성격이라는 응답이 8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모/매력 44.2%, 경제력 33.2% 순이었다. 성격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80.2%, 여학생 83.9%로 남녀 청소년 모두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순위부터는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외모/매력(51.8%), 경제력(23.7%), 취미(15.6%) 순인 데 비해, 여학생은 경제력(43.1%), 외모/매력(36.2%), 자라온 환경(10.4%)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1순위 성격(초등학생 80.7%, 중학생 80.7%, 고등학생 84.5%), 2순위 외모/매력(초등학생 37.6%, 중학생 48.9%, 고등학생 44.0%), 3순위 경제력(초등학생 23.9%, 중학생 34.9%, 고등학생 38.2%)으로 3순위까지는 동일하였으나, 4순위가 초·중학생은 취미(초등학생 20.1%, 중학생 10.6%)였고, 고등학생은 자라온 환경(10.6%)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도 1순위~3순위는 동일하였고 4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1순위~3순위인 성격, 외모/매력, 경제력에 이어 성취수준 상위 집단은 학력/지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성취수준 중간 및 하위집단은 취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순위~3순위는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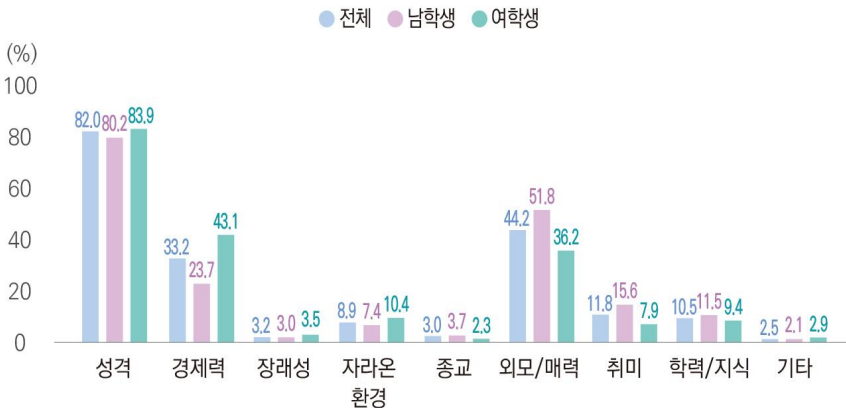


그림 V-14. 배우자 선택 기준(1순위+2순위)

외모/매력, 경제력으로 동일하였고, 4순위가 경제수준 상위 및 중간집단은 취미, 하위집단은 자라온 환경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V-34. 배우자 선택 기준(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성격	경제력	장래성	자라온 환경	종교	외모 매력	취미	학력 지식	기타	
전체	7,571	82.0	33.2	3.2	8.9	3.0	44.2	11.8	10.5	2.5	
성별	남학생	3,876	80.2	23.7	3.0	7.4	3.7	51.8	15.6	11.5	2.1
	여학생	3,696	83.9	43.1	3.5	10.4	2.3	36.2	7.9	9.4	2.9
학교급	초	1,981	80.7	23.9	3.1	8.1	3.7	37.6	20.1	18.4	4.2
	중	2,910	80.7	34.9	3.0	7.9	2.5	48.9	10.6	8.7	2.0
	고	2,681	84.5	38.2	3.6	10.6	3.1	44.0	7.1	6.5	1.8
학업 성취 수준	상	2,813	82.9	31.3	2.9	8.5	2.9	44.5	11.0	13.0	2.7
	중	3,007	81.7	32.8	3.9	8.8	3.0	43.0	13.3	10.2	2.6
	하	1,708	81.6	36.8	2.5	9.8	3.3	45.8	10.7	6.9	2.0
경제 수준	상	3,364	80.6	31.4	3.4	8.2	2.5	45.9	13.1	11.7	2.6
	중	3,750	83.3	34.5	3.1	9.4	3.2	43.4	10.9	9.5	2.3
	하	392	82.1	34.6	2.7	11.1	6.3	39.2	9.5	8.5	3.6

배우자 선택 기준의 시계열 추이는 <표 V-35>와 같다. 2008년 조사 이래 1순위는 성격으로 변함이 없었고, 2순위는 2008년~2012년에 경제력이었는데 2023년에는 외모/매력이 차지하였다. 2순위와 3순위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남학생은 2순위가 외모/매력, 3순위가 경제력이고, 여학생은 2순위 경제력, 3순위 외모/매력이었다. 이는 성별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2012년과 2023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10여 년 전에도 성별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성격, 외모/성적매력, 경제력이 차지한 1순위~3순위 외에 4순위와 5순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특히 남학생에게서 취미가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응답이 2012년 12.0%, 2023년 15.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학생

들이 취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 비율도 2012년 8.4%, 2023년 10.4%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11.3%, 9.7%로 4순위를 차지했던 장래성 응답 비율은 2023년에는 3.2%로 급감하였다(그림 V-14 참조). 청소년들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5. 배우자 선택 기준(시계열 비교)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8년	성격 (78.8)	경제력 (43.6)	외모/성적매력 (31.5)	장래성 (11.3)	학력/지적수준 (10.0)	
2010년	성격 (82.1)	경제력 (41.4)	외모/성적매력 (37.3)	장래성 (9.7)	학력/지적수준 (8.4)	
2012년	전체	성격 (81.0)	경제력 (41.0)	외모/성적매력 (40.6)	취미/기호 (9.5)	학력/지적수준 (8.1)
	남학생	성격 (80.0)	외모/성적매력 (57.2)	경제력 (25.8)	취미/기호 (12.0)	학력/지적수준 (9.2)
	여학생	성격 (82.2)	경제력 (57.8)	외모/성적매력 (22.2)	장래성 (8.7)	자라온 환경 (8.4)
2023년	전체	성격 (82.0)	외모/매력 (44.2)	경제력 (33.2)	취미 (11.8)	학력/지식 (10.5)
	남학생	성격 (80.2)	외모/매력 (51.8)	경제력 (23.7)	취미 (15.6)	학력/지식 (11.5)
	여학생	성격 (83.9)	경제력 (43.1)	외모/매력 (36.2)	자라온 환경 (10.4)	학력/지식 (9.4)

* 주: 1) 2008년/2010년/2012년은 중1~고3, 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청소년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진술을 제시하고 동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제시된 진술문 중에서 '부모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8.4%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97.3%,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95.9%, '자녀를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94.9%, '부모자신의 자기 계발을 계속해야 한다' 90.8%, '자녀에게 문화·예술적 경험을 시켜야 한다' 88.2% 순으로 파악되었다.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기준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적었고, 청소년들은 좋은 부모의 요건으로 경제적 지원보다 건강 유지,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및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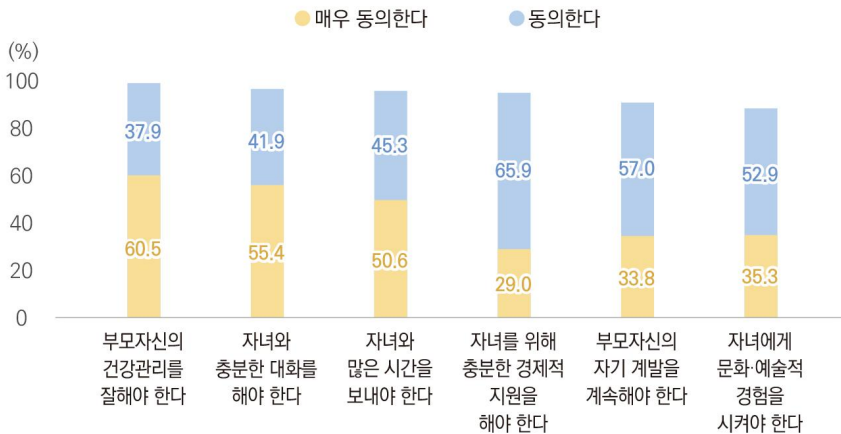


그림 V-15.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3. 직업관·미래관

- **(직업관)** 청소년들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91.5%),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며(84.3%),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92.9%)고 응답함.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35.4%로 수도권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청소년의 81.5%는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63.3%는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는 데 동의하였음.
- **(직업 선택 기준)** 2가지 복수 응답 기준으로 경제적 수입(55.1%), 자신의 적성(43.0%), 자신의 능력(38.4%), 안정성(21.2%), 일과 삶의 균형(14.4%) 순이었음. 경제적 수입은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1~2위를 차지했으나 그 비율이 50% 이하였는데, 2023년에는 55.1%로 증가함.

1) 직업관

진로와 미래 영역에 대한 가치관을 직업관,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직업 선택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우선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긍정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91.5%,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84.3%,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35.4%,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92.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모든 직업이 존중받아야 하고,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며, 해외 거주 및 취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고, 수도권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91.5%였고, 배경변인별 대부분의 집단에서 90%를 상회하였으므로, 집단 간 차이를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여학생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은 58.7%로 남학생의 48.9%보다 약 10%p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5.9%, 중학생 52.8%, 고등학생 45.8%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어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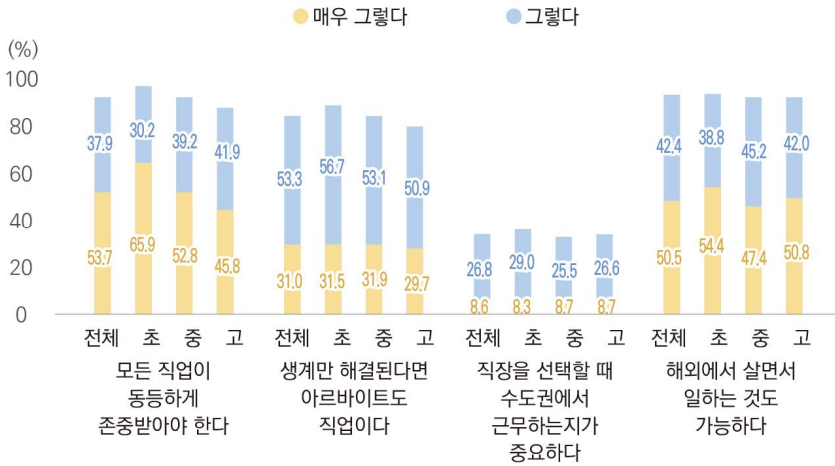


그림 V-16. 직업관(학교급별)

표 V-36.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7	3.44	0.688	1.5	7.0	8.5	91.5	37.9	53.7	-	
성별	남학생	3,969	3.36	0.733	2.3	8.6	10.8	89.2	40.2	48.9	111.697*** (3)
	여학생	3,729	3.52	0.626	0.6	5.3	5.9	94.1	35.3	58.7	
학교급	초	1,994	3.61	0.582	0.6	3.4	4.0	96.0	30.2	65.9	228.755*** (6)
	중	2,947	3.44	0.674	1.2	6.7	8.0	92.0	39.2	52.8	
	고	2,756	3.31	0.745	2.4	9.9	12.2	87.8	41.9	45.8	
학업 성취 수준	상	2,850	3.46	0.713	1.9	7.3	9.2	90.8	33.6	57.2	46.249*** (6)
	중	3,049	3.44	0.654	0.9	6.4	7.3	92.7	40.9	51.7	
	하	1,756	3.40	0.706	1.8	7.4	9.2	90.8	39.4	51.4	
경제 수준	상	3,418	3.46	0.707	1.7	7.5	9.2	90.8	33.8	57.0	50.987*** (6)
	중	3,808	3.43	0.667	1.2	6.4	7.6	92.4	40.9	51.5	
	하	402	3.33	0.727	2.0	9.4	11.3	88.7	42.3	46.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 57.2%, 중간집단 51.7%, 하위집단 51.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취 수준 상위집단이 이러한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상위집단은 57.0%, 중간집단은 51.5%, 하위집단은 46.4%의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보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라는 진술문에 84.3%의 청소년이 긍정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85.9%로 여학생의 82.5%보다 3.4%p 더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8.2%, 중학생 85.0%, 고등학생 80.6%로 어릴수록 생계만 해결되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의 경우 성취수준 하위집단의 동의 비율이 85.8%로 상위집단(82.8%)과 중간집단(84.7%)에 비해 더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7.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4	3.13	0.712	1.9	13.8	15.7	84.3	53.3	31.0	-	
성별	남학생	3,966	3.14	0.696	2.1	11.9	14.1	85.9	56.2	29.8	41.188*** (3)
	여학생	3,728	3.13	0.728	1.6	15.9	17.5	82.5	50.2	32.3	
학교급	초	1,994	3.18	0.665	1.4	10.3	11.8	88.2	56.7	31.5	55.344*** (6)
	중	2,946	3.15	0.704	1.6	13.3	15.0	85.0	53.1	31.9	
	고	2,754	3.08	0.748	2.5	16.9	19.4	80.6	50.9	29.7	
학업 성취 수준	상	2,850	3.13	0.738	2.2	14.9	17.2	82.8	50.6	32.2	37.333*** (6)
	중	3,047	3.11	0.683	1.5	13.8	15.3	84.7	56.7	28.0	
	하	1,755	3.18	0.716	2.0	12.1	14.2	85.8	51.7	34.1	
경제 수준	상	3,419	3.15	0.723	2.1	13.4	15.5	84.5	51.9	32.6	11.687 (6)
	중	3,804	3.12	0.699	1.7	14.1	15.8	84.2	54.6	29.6	
	하	402	3.11	0.735	2.4	14.7	17.2	82.8	52.2	30.6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비중은 2022년에 56.4%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수도권 50.8%, 비수도권 49.2%에서 22년간 5.6%p 증가한 수치이다(정규승, 강성중, 황영은, 2023: 4). 청년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수도권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문항의 긍정응답 비율은 35.4%, 부정응답 비율은 64.6%로 청소년들은 직장 선택 시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남학생 37.1%, 여학생 33.6%로 남학생이 3.5%p 더 많았다. 학교급별 차이는 없었고, 학업성취수준은 성취수준 중간집단(36.0%),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위집단(37.1%)에서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다는 긍정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표 V-38.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9	2.28	0.836	16.4	48.2	64.6	35.4	26.8	8.6	-
성별	남학생	3,964	2.31	0.851	15.9	47.0	62.9	37.1	27.4	9.7	15.346** (3)
	여학생	3,724	2.24	0.819	16.9	49.5	66.4	33.6	26.2	7.5	
학교급	초	1,986	2.31	0.822	14.8	47.9	62.7	37.3	29.0	8.3	12.030 (6)
	중	2,948	2.27	0.835	16.4	49.4	65.7	34.3	25.5	8.7	
	고	2,755	2.27	0.848	17.5	47.2	64.7	35.3	26.6	8.7	
학업 성취 수준	상	2,847	2.28	0.867	17.5	47.5	65.0	35.0	24.9	10.1	37.651*** (6)
	중	3,043	2.28	0.797	14.6	49.4	64.0	36.0	29.0	6.9	
	하	1,757	2.27	0.850	17.3	47.5	64.8	35.2	26.2	9.0	
경제 수준	상	3,414	2.31	0.856	16.3	46.6	62.9	37.1	27.3	9.8	23.054** (6)
	중	3,804	2.25	0.811	16.3	50.1	66.4	33.6	26.3	7.3	
	하	402	2.28	0.891	18.5	45.5	64.1	35.9	25.0	10.9	
수도권 여부	수도권	3,779	2.37	0.843	13.7	46.0	59.7	40.3	30.1	10.2	90.078*** (3)
	비수도권	3,910	2.19	0.821	18.9	50.4	69.3	30.7	23.7	7.1	
수도권 시도별	서울	1,196	2.46	0.856	12.3	41.8	54.1	45.9	34.0	12.0	-
	경기	2,139	2.32	0.835	15.0	47.3	62.3	37.7	28.6	9.1	
	인천	444	2.37	0.825	11.5	51.0	62.6	37.4	26.6	10.8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수도권 근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40.3%, 비수도권 30.7%로 수도권 청소년이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p 정도 더 높았다. 수도권 청소년들에게 수도권은 내가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 청소년들의 45.9%는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청소년들은 수도권 근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근무지에 대해서도 유연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데 92.9%(그렇다 42.4%+매우 그렇다 50.5%)가 긍정응답을 하였다. 배경변인별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의 긍정응답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여학생은 55.8%, 남학생은 45.4%로 약 10%p의 차이를 나타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해외 취업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

표 V-39.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3	3.42	0.674	1.7	5.4	7.1	92.9	42.4	50.5	-	
성별	남학생	3,955	3.34	0.705	2.3	6.7	9.0	91.0	45.6	45.4	101.866*** (3)
	여학생	3,719	3.50	0.630	1.1	4.1	5.2	94.8	39.0	55.8	
학교급	초	1,981	3.46	0.662	1.3	5.4	6.8	93.2	38.8	54.4	25.728*** (6)
	중	2,939	3.38	0.675	1.8	5.6	7.4	92.6	45.2	47.4	
	고	2,753	3.42	0.680	1.9	5.3	7.2	92.8	42.0	50.8	
학업 성취 수준	상	2,840	3.49	0.661	1.5	4.8	6.3	93.7	37.3	56.4	69.522*** (6)
	중	3,041	3.38	0.666	1.6	5.6	7.2	92.8	46.4	46.4	
	하	1,751	3.37	0.696	2.1	6.2	8.3	91.7	44.0	47.7	
경제 수준	상	3,408	3.45	0.681	2.0	4.9	6.8	93.2	39.5	53.6	32.118*** (6)
	중	3,795	3.39	0.668	1.5	5.8	7.3	92.7	44.8	47.9	
	하	401	3.41	0.646	0.7	6.5	7.2	92.8	43.7	49.0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학생 54.4%, 중학생 47.4%, 고등학생 50.8%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 초등학생이 해외 취업에 가장 긍정적이었고, 학업성취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는 상위집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해외취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청소년들에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운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과 ‘나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의 81.5%는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3.3%가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는 운이나 환경 등의 외재적 요인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선택, 성실함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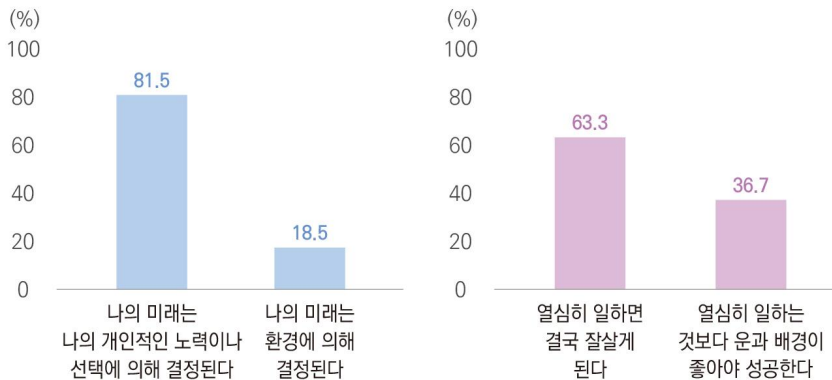


그림 V-17. 나의 미래 결정 요인

문항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미래에 대해서 여학생(82.7%)이 남학생(80.4%)보다, 어릴수록(초등학생 83.7%, 중학생 81.9%, 고등학생 79.4%), 학업성취수준(상위집단 84.9%, 중간집단 80.7%, 하위집단 77.3%)과 가정의 경제수준(상위집단 83.5%, 중간집단 80.8%, 하위집단 70.4%)이 높을수록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미래가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의 29.6%가 나의 미래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여 경제수준 상위집단의 응답 비율 16.5%보다 13.1%p 더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의 경우도 10명 중 7명 정도의 청소년은 미래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40. 나의 미래: 노력이나 선택 vs. 환경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나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83	23.5	15.7	19.6	13.3	9.4	81.5	18.5	4.7	4.5	4.3	1.9	3.1	
성별	남학생	3,959	25.0	13.4	19.2	13.1	9.7	80.4	19.6	5.1	5.0	4.3	1.6	3.7
	여학생	3,724	21.9	18.2	20.1	13.5	9.0	82.7	17.3	4.4	4.0	4.3	2.2	2.5
학교급	초	1,991	29.5	14.5	18.1	11.6	10.1	83.7	16.3	3.6	3.3	3.7	1.6	4.1
	중	2,943	23.9	16.6	20.1	12.4	9.0	81.9	18.1	4.2	4.0	4.2	2.5	3.2
	고	2,750	18.6	15.7	20.3	15.4	9.3	79.4	20.6	6.1	5.9	4.9	1.4	2.3
학업 성취 수준	상	2,844	26.8	17.1	20.1	13.8	7.2	84.9	15.1	3.6	3.5	3.4	1.5	3.0
	중	3,043	21.8	14.9	20.0	13.3	10.7	80.7	19.3	5.6	4.4	4.5	2.1	2.6
	하	1,756	21.3	15.0	18.3	12.4	10.3	77.3	22.7	4.9	6.1	5.4	2.2	4.0
경제 수준	상	3,416	26.9	17.8	18.5	12.0	8.3	83.5	16.5	3.6	3.8	4.1	1.8	3.3
	중	3,797	20.9	14.0	21.2	14.5	10.2	80.8	19.2	5.5	5.0	4.2	1.8	2.7
	하	402	19.8	14.5	14.6	12.5	8.9	70.4	29.6	6.9	5.9	7.3	3.8	5.7

* 주: ①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 ⑩ 나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들은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에 63.3%,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에 36.7%가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 문항의 경우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는 데 남학생 65.3%, 여학생 61.2%가 동의하여 남녀 간의 차이는 5%p 이내였던 데 비해, 학교급별 차이는 초등학생 78.1%, 중학생 63.3%, 고등학생 52.6%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약 25.5%p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수준 상위집단일수록(상위집단 67.6%, 중간집단 64.9%, 하위집단 53.6%),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위집단 67.2%, 중간집단 61.7%, 하위집단 45.1%)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 하위집단의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에 54.9%가 동의하여 다른 집단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문항에서 학교급에 따라 나타난 큰 차이는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명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41. 나의 미래: 열심히 일 vs. 운과 배경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90	15.7	10.9	13.3	11.5	11.8	63.3	36.7	8.1	8.9	8.4	5.1	6.2	
성별	남학생	3,963	17.4	11.2	13.5	11.2	12.1	65.3	34.7	7.7	8.6	7.5	4.2	6.7
	여학생	3,726	14.0	10.7	13.2	11.9	11.4	61.2	38.8	8.5	9.3	9.4	6.1	5.5
학교급	초	1,993	26.2	13.0	15.5	12.0	11.3	78.1	21.9	6.2	4.8	4.3	3.0	3.6
	중	2,945	15.3	11.6	14.0	11.2	11.2	63.3	36.7	7.3	8.4	8.7	5.8	6.6
	고	2,752	8.7	8.6	11.0	11.5	12.7	52.6	47.4	10.4	12.5	11.0	6.0	7.6
학업 성취 수준	상	2,845	19.1	11.8	13.5	12.1	11.0	67.6	32.4	7.4	7.8	7.3	4.3	5.6
	중	3,047	14.0	11.3	14.6	12.2	12.8	64.9	35.1	8.0	8.6	8.5	4.9	5.0
	하	1,756	13.2	8.6	11.1	9.3	11.3	53.6	46.4	9.4	11.3	9.9	6.9	8.9
경제 수준	상	3,417	19.0	12.9	14.0	10.8	10.6	67.2	32.8	7.1	7.1	7.7	4.8	6.1
	중	3,801	13.2	9.4	13.5	12.4	13.1	61.7	38.3	8.6	10.1	8.8	5.1	5.7
	하	402	12.3	8.3	6.6	8.8	9.2	45.1	54.9	11.6	13.8	11.5	7.9	10.0

* 주: ①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 ↔ ⑩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3) 직업 선택 기준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 2가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과반인 55.1%의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수입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순위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적성 43.0%, 자신의 능력 38.4%, 안정성 21.2%, 일과 삶의 균형 14.4% 순이었다. 성별로는 2순위와 3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경제적 수입 다음 2순위로 자신의 능력(41.3%)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자신의 적성(45.4%)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수입(초등학생 40.3%, 중학생 58.6%, 고등학생 62.3%), 자신의 적성(초등학생 33.6%, 중학생 45.1%, 고등학생 47.6%), 일과 삶의 균형(초등학생 11.0%, 중학생 12.7%, 고등학생 18.7%)을 고려하겠다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 비율(초등학생 56.8%, 중학생 35.9%, 고등학생 27.4%)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2023년 조사에서 추가된 선택지인 '일과 삶의 균형'을 직업 선택 기준 1순위 또는 2순위에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14.4%였고, 이 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은 18.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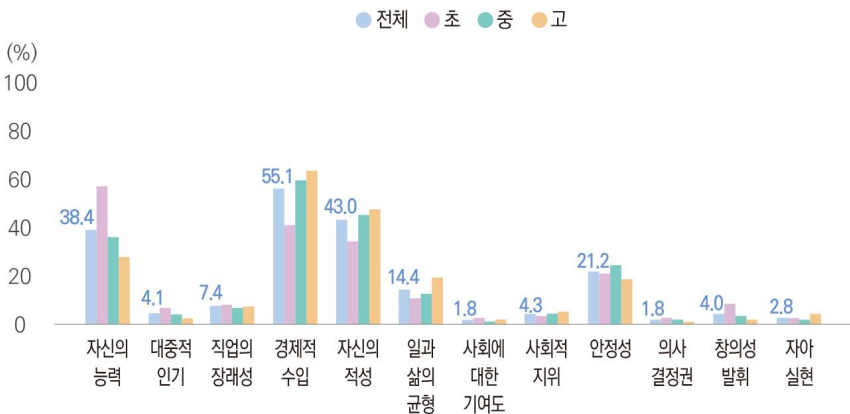


그림 V-18. 직업 선택 기준(1순위+2순위)

표 V-42. 직업 선택 기준(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신의 능력	대중적 인기	직업의 장래성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	일·삶 균형	사회 기여도	사회적 지위	안정성	의사 결정권	창의성 발휘	자아 실현	
전체	7,577	38.4	4.1	7.4	55.1	43.0	14.4	1.8	4.3	21.2	1.8	4.0	2.8	
성별	남학생	3,876	41.3	4.1	7.4	52.8	40.7	13.7	2.1	4.4	21.7	1.7	4.9	2.9
	여학생	3,701	35.3	4.1	7.3	57.6	45.4	15.1	1.6	4.2	20.7	1.9	3.1	2.6
학교급	초	1,984	56.8	6.6	8.7	40.3	33.6	11.0	2.5	3.5	20.8	2.6	8.2	2.3
	중	2,902	35.9	3.8	6.4	58.6	45.1	12.7	1.1	4.1	24.1	1.8	3.2	1.9
	고	2,691	27.4	2.5	7.4	62.3	47.6	18.7	2.1	5.1	18.4	1.2	1.9	4.1
학업 성취 수준	상	2,820	38.1	3.3	7.1	58.5	40.4	15.1	2.1	5.5	19.2	1.7	3.4	3.8
	중	3,004	40.5	4.7	7.6	52.0	43.2	13.9	1.8	3.6	22.2	1.7	4.4	2.4
	하	1,714	35.3	4.3	7.4	55.4	46.9	13.9	1.4	3.3	22.5	2.0	4.4	1.8
경제 수준	상	3,370	40.6	4.7	7.5	53.1	40.7	13.5	1.6	5.1	21.5	1.9	4.8	2.8
	중	3,754	36.3	3.5	7.3	56.5	45.3	15.4	2.0	3.4	20.9	1.6	3.5	2.7
	하	386	39.4	3.5	6.6	58.3	39.7	12.9	2.0	5.1	21.7	3.0	2.2	3.1

〈표 V-43〉에 직업 선택 기준의 시계열 추이를 제시하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 응답 비율 1순위는 2008년 경제적 수입, 2010년 자신의 적성, 2012년 자신의 능력이다가 2023년에 다시 경제적 수입이 부상되었다. 직업 선택 기준 2가지를 응답하는 복수응답에서 경제적 수입은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1~2위를 차지했으나 그 비율이 50% 이하였는데, 2023년에는 55.1%로 과반이 경제적 수입을 직업 선택 기준 우선순위로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중학생은 58.6%, 일반계고 학생은 무려 63.6%에 달했다.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 자신의 능력에 이어 안정성도 꾸준히 4순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일반계고 학생은 안정성보다 2023년 조사에서 새로 선택지에 추가된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19.2%로 안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 18.1%보다 더 높았다.

표 V-43. 직업 선택 기준(시계열 비교)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8년	경제적 수입 (47.4)	자신의 적성 (45.0)	자신의 능력 (43.9)	안정성 (23.6)	직업의 장래성 (14.1)	
2010년	자신의 적성 (53.6)	경제적 수입 (48.1)	자신의 능력 (40.2)	안정성 (20.0)	직업의 장래성 (13.1)	
2012년	전체	자신의 능력 (47.0)	경제적 수입 (43.9)	자신의 적성 (42.4)	안정성 (18.3)	자아성취 (16.0)
	초	자신의 능력 (52.8)	경제적 수입 (32.0)	자아성취 (30.0)	자신의 적성 (27.0)	직업의 장래성 (19.5)
	중	자신의 능력 (53.9)	경제적 수입 (44.3)	자신의 적성 (42.7)	안정성 (22.5)	자아성취 (10.7)
	일반계고	자신의 적성 (51.6)	경제적 수입 (51.4)	자신의 능력 (35.9)	안정성 (18.7)	자아성취 (14.3)
	직업계고	자신의 적성 (51.1)	경제적 수입 (48.3)	자신의 능력 (38.9)	안정성 (30.5)	직업의 장래성 (9.7)
2023년	전체	경제적 수입 (55.1)	자신의 적성 (43.0)	자신의 능력 (38.4)	안정성 (21.2)	일과 삶의 균형 (14.4)
	초	자신의 능력 (56.8)	경제적 수입 (40.3)	자신의 적성 (33.6)	안정성 (20.8)	일과 삶의 균형 (11.0)
	중	경제적 수입 (58.6)	자신의 적성 (45.1)	자신의 능력 (35.9)	안정성 (24.1)	일과 삶의 균형 (12.7)
	일반계고	경제적 수입 (63.6)	자신의 적성 (47.4)	자신의 능력 (26.5)	일과 삶의 균형 (19.2)	안정성 (18.1)
	직업계고	경제적 수입 (56.7)	자신의 적성 (48.6)	자신의 능력 (31.4)	안정성 (19.7)	일과 삶의 균형 (16.8)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23년은 "일과 삶의 균형" 보기가 추가됨.

4. 교육관

- **(수월성 vs. 형평성)**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교육의 수월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함.
- **(학교교육의 효용성)**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청소년은 74.8%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2012년 조사 결과(77.5%)에 비해 다소 감소함.
- **(학력주의)** 청소년의 81.4%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5.9%는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데는 36.3%만 동의함.
- **(기대교육수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최소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며,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임.

1) 교육의 차등과 형평

이 절에서는 교육 영역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의 차등과 형평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당위성)을 통해 파악하였다. 먼저, 교육의 차등 및 형평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의 비율이 57.4%,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2.6%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의 비율이 83.1%를 차지한 반면, 중학생 58.2%, 고등학생 37.9%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동의 비율이 상위집단 62.6%, 중간집단 54.1%, 하위집단 42.6%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배경에서 비롯되는 교육 기회의 차이가 균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문항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면, [그림 V-19]와 <표 V-45>에는 수월성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69.5%로 다수를 차지했고,

표 V-44.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0	2.64	1.001	16.1	26.5	42.6	57.4	34.9	22.4	-	
성별	남학생	3,956	2.67	1.000	15.8	24.3	40.1	59.9	36.7	23.1	24.538*** (3)
	여학생	3,724	2.60	1.001	16.5	28.8	45.3	54.7	33.1	21.7	
학교급	초	1,992	3.19	0.808	4.1	12.7	16.9	83.1	43.7	39.5	1,108.255*** (6)
	중	2,936	2.64	0.963	14.4	27.4	41.8	58.2	37.8	20.4	
	고	2,752	2.23	0.979	26.7	35.5	62.1	37.9	25.6	12.3	
학업 성취 수준	상	2,845	2.65	1.046	17.0	27.7	44.7	55.3	29.0	26.3	101.452*** (6)
	중	3,047	2.68	0.968	14.3	24.9	39.2	60.8	39.2	21.6	
	하	1,750	2.55	0.977	17.8	27.1	44.9	55.1	37.5	17.6	
경제 수준	상	3,411	2.76	0.989	13.4	24.0	37.4	62.6	36.2	26.4	124.152*** (6)
	중	3,802	2.56	0.993	17.5	28.5	45.9	54.1	34.5	19.6	
	하	399	2.31	1.050	27.9	29.5	57.4	42.6	26.2	16.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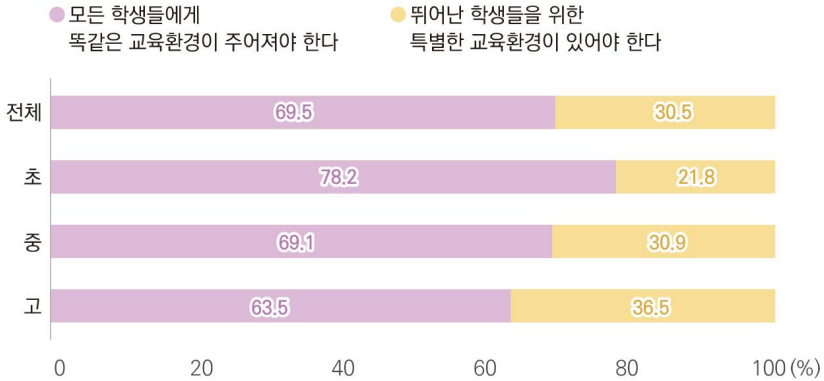


그림 V-19.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30.5%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교육의 수월성보다 형평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초등학생은 21.8%에 그친 반면, 중학생 30.9%, 고등학생 36.5%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증가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의 경우, 중간(25.8%) 및 하위(26.8%) 집단에 비해 상위(37.9%) 집단에서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비율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V-45.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52	26.7	12.8	12.9	8.9	8.1	69.5	30.5	7.0	7.9	7.1	3.5	5.1	
성별	남학생	3,949	27.5	12.2	12.7	8.5	8.5	69.3	30.7	6.8	7.7	6.9	3.3	5.9
	여학생	3,703	25.9	13.5	13.2	9.3	7.7	69.6	30.4	7.2	8.0	7.3	3.6	4.2
학교급	초	1,982	36.0	14.6	12.5	7.3	7.9	78.2	21.8	6.1	5.6	3.6	2.5	4.0
	중	2,927	25.0	13.9	12.9	9.5	7.9	69.1	30.9	7.1	6.8	7.5	4.5	5.0
	고	2,743	21.9	10.5	13.4	9.3	8.5	63.5	36.5	7.6	10.6	9.3	3.0	6.0
학업 성취 수준	상	2,828	24.2	11.7	10.7	8.2	7.3	62.1	37.9	7.9	9.5	9.3	4.5	6.7
	중	3,036	28.1	14.1	14.2	9.8	8.1	74.2	25.8	6.8	7.0	5.9	2.8	3.4
	하	1,750	28.6	12.5	14.3	8.4	9.4	73.2	26.8	5.8	6.8	5.7	2.9	5.5
경제 수준	상	3,397	27.6	14.1	10.9	8.0	7.7	68.3	31.7	6.5	7.5	7.8	3.8	6.1
	중	3,791	26.1	11.9	14.6	9.9	8.6	71.0	29.0	7.5	8.0	6.7	3.1	3.7
	하	399	25.5	11.6	14.6	6.4	6.0	64.1	35.9	7.0	10.8	5.0	3.4	9.7

* 주: 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 ⑩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2) 학교 교육의 효용성 및 학력주의 가치관

(1) 학교 교육의 효용성

학교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는 전체 응답자의 7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77.7%)이 여학생(71.8%)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2.1%, 중학생 73.5%, 고등학생 71.0%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약화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V-46.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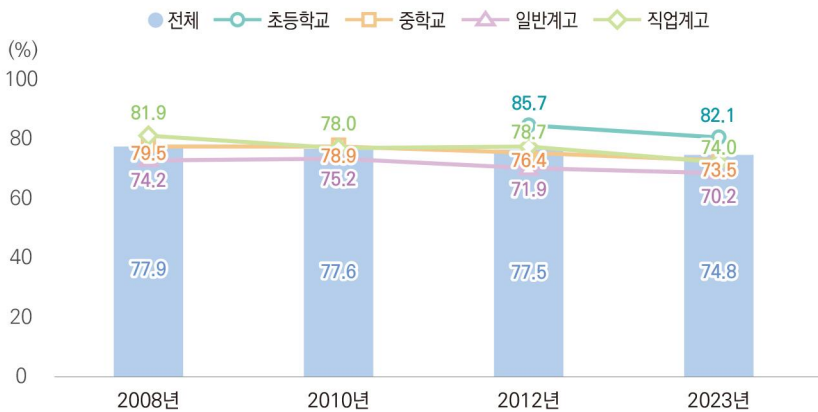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4	3.02	0.843	4.8	20.4	25.2	74.8	43.2	31.7	-	
성별	남학생	3,958	3.07	0.836	4.7	17.5	22.3	77.7	43.8	34.0	47.119*** (3)
	여학생	3,726	2.96	0.847	4.8	23.4	28.2	71.8	42.6	29.2	
학교급	초	1,993	3.19	0.770	2.1	15.8	17.9	82.1	43.5	38.6	116.970*** (6)
	중	2,936	2.98	0.850	5.2	21.2	26.5	73.5	43.4	30.1	
	고	2,754	2.93	0.868	6.2	22.8	29.0	71.0	42.7	28.2	
학업 성취 수준	상	2,845	3.13	0.838	4.1	17.3	21.4	78.6	40.3	38.3	163.798*** (6)
	중	3,049	3.02	0.806	3.6	20.5	24.1	75.9	45.8	30.1	
	하	1,751	2.83	0.879	7.8	25.0	32.8	67.2	43.4	23.8	
경제 수준	상	3,412	3.10	0.830	3.9	18.2	22.2	77.8	42.0	35.8	84.492*** (6)
	중	3,804	2.96	0.835	4.9	22.4	27.3	72.7	44.8	27.9	
	하	399	2.91	0.953	10.1	20.0	30.1	69.9	38.9	31.1	
친구 관계	상	2,468	3.18	0.903	5.6	16.6	22.3	77.7	32.2	45.5	399.441*** (6)
	중	3,368	2.97	0.765	3.0	22.1	25.0	75.0	50.3	24.6	
	하	1,842	2.90	0.864	6.8	22.4	29.2	70.8	44.8	25.9	
교사 관계	상	2,276	3.23	0.878	5.0	14.8	19.8	80.2	32.6	47.7	429.729*** (6)
	중	2,661	2.98	0.774	3.3	21.3	24.6	75.4	49.9	25.5	
	하	2,739	2.88	0.844	6.0	24.2	30.2	69.8	45.4	24.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학업성취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학업성취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은 상위집단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각각 45.5% 및 47.7%로 절반에 달한 반면, 관계가 좋지 못한 하위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25.9% 및 24.3%로 약 20%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2008년 77.9%, 2010년 77.6%, 2012년 77.5%, 2023년 74.8%로 나타나, 2008~2012년에는 77% 안팎에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74.8%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2008년 79.5%에서 2023년 73.5%로 6%p 감소하였고, 직업계고 학생도 2008년 81.9%에서 2023년 74.0%로 7.9%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경향성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과 직업계고 등학생 집단에서 그러한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2010년/2012년은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2008, 2010, 2012)의 결과임.

그림 V-20.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가치 있다’는 데는 전체 응답자의 81.8%가 동의하였고, 부정하는 응답은 18.2%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94.1%, 중학생 81.2%, 고등학생 73.5%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공부가 가치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약 20%p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공부가 가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도 관련이 있어서,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교 공부가 가치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상승하였다.

표 V-47.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가치 있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7	3.03	0.746	4.0	14.2	18.2	81.8	56.5	25.3	-	
성별	남학생	3,954	3.05	0.771	4.7	13.4	18.1	81.9	54.5	27.4	32.867*** (3)
	여학생	3,724	3.01	0.718	3.4	15.1	18.4	81.6	58.6	23.0	
학교급	초	1,990	3.32	0.617	1.1	4.8	5.9	94.1	55.3	38.8	485.398*** (6)
	중	2,935	3.00	0.734	4.0	14.9	18.8	81.2	58.0	23.2	
	고	2,753	2.85	0.780	6.3	20.3	26.5	73.5	55.7	17.8	
학업 성취 수준	상	2,842	3.16	0.729	3.1	10.6	13.7	86.3	53.7	32.6	248.358*** (6)
	중	3,047	3.03	0.709	3.2	14.0	17.2	82.8	59.1	23.7	
	하	1,751	2.82	0.784	7.0	20.3	27.4	72.6	56.3	16.3	
경제 수준	상	3,410	3.12	0.729	3.1	11.7	14.8	85.2	54.7	30.4	135.651*** (6)
	중	3,801	2.97	0.736	4.4	15.6	19.9	80.1	58.8	21.2	
	하	399	2.82	0.859	8.6	21.5	30.1	69.9	49.1	20.8	
친구 관계	상	2,465	3.24	0.785	3.6	10.8	14.5	85.5	43.7	41.9	619.826*** (6)
	중	3,365	2.97	0.652	3.0	13.8	16.8	83.2	66.4	16.8	
	하	1,841	2.86	0.787	6.5	19.5	25.9	74.1	55.6	18.5	
교사 관계	상	2,275	3.29	0.748	3.0	8.5	11.5	88.5	44.5	43.9	699.342*** (6)
	중	2,659	3.00	0.670	3.2	12.8	16.0	84.0	64.7	19.3	
	하	2,735	2.84	0.749	5.7	20.3	26.0	74.0	58.4	15.6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학력주의 가치관

〈표 V-48〉~〈표 V-50〉에는 학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36.3%였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63.7%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동의 비율(39.9%)이 여학생(32.4%)보다 7.5%p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40.6%, 중학생 36.6%, 고등학생 32.8%로 나타나,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대학에 반드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성취수준 상위집단 42.3%, 중간집단 36.0%, 하위집단 27.3%로 나타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집단 42.0%, 중간집단 32.1%, 하위집단 28.7%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양호할수록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V-48.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7,677	2.34	0.888	15.3	48.5	63.7	36.3	23.3	12.9	-	
성별	남학생	3,955	2.41	0.899	13.6	46.5	60.1	39.9	25.2	14.7	53.578*** (3)
	여학생	3,722	2.26	0.870	17.0	50.6	67.6	32.4	21.3	11.1	
학교급	초	1,990	2.45	0.894	11.6	47.8	59.4	40.6	24.6	16.0	58.948*** (6)
	중	2,934	2.34	0.888	15.2	48.2	63.4	36.6	23.7	12.9	
	고	2,753	2.26	0.875	17.9	49.3	67.2	32.8	22.0	10.8	
학업 성취 수준	상	2,841	2.46	0.913	12.7	45.0	57.7	42.3	25.8	16.6	164.868*** (6)
	중	3,047	2.34	0.855	13.5	50.5	64.0	36.0	24.2	11.8	
	하	1,751	2.14	0.868	22.3	50.4	72.7	27.3	18.1	9.2	
경제 수준	상	3,409	2.44	0.920	13.8	44.2	58.0	42.0	25.8	16.2	106.418*** (6)
	중	3,800	2.27	0.846	15.7	52.1	67.9	32.1	21.8	10.3	
	하	399	2.19	0.904	21.4	49.9	71.3	28.7	17.0	11.7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데는 전체 응답자의 81.4%가 동의(그렇다 46.4%+매우 그렇다 35.0%)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동의 비율이 초등학교 74.7%, 중학생 81.2%, 고등학교 86.5%로 나타나,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 대체로 교육 이수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력(學歷)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성취수준 상위집단 85.5%, 중간집단 79.8%, 하위집단 77.7%의 동의 비율을 나타내, 성취수준 상위집단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49.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3	3.12	0.802	4.1	14.5	18.6	81.4	46.4	35.0	-	
성별	남학생	3,956	3.10	0.813	4.4	15.4	19.8	80.2	45.9	34.3	7.860* (3)
	여학생	3,717	3.15	0.789	3.8	13.5	17.3	82.7	46.9	35.8	
학교급	초	1,984	2.94	0.789	4.5	20.8	25.3	74.7	50.9	23.7	234.612*** (6)
	중	2,936	3.12	0.805	4.1	14.6	18.8	81.2	46.1	35.1	
	고	2,753	3.26	0.780	3.7	9.8	13.5	86.5	43.5	43.0	
학업 성취 수준	상	2,838	3.22	0.771	3.3	11.3	14.5	85.5	45.4	40.1	101.916*** (6)
	중	3,047	3.08	0.783	3.5	16.7	20.2	79.8	48.5	31.3	
	하	1,749	3.05	0.864	6.3	16.0	22.3	77.7	44.1	33.7	
경제 수준	상	3,407	3.13	0.815	4.4	14.2	18.6	81.4	45.1	36.2	9.064 (6)
	중	3,798	3.11	0.790	3.8	14.8	18.6	81.4	47.6	33.8	
	하	399	3.14	0.821	4.4	14.2	18.6	81.4	43.9	37.5	

* 주: 1) * p .05, ** p .01, *** p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학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는 중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수준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렇다 41.6%+매우 그렇다 34.3%). 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 학벌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초등학생 62.6%, 중학생 77.3%, 고등학생 83.9%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벌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21.3%p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3.4%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 78.8%, 중간집단 74.2%, 하위집단 74.1%의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하위집단 및 중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50.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69	3.05	0.857	5.1	19.0	24.1	75.9	41.6	34.3	-	
성별	남학생	3,950	3.03	0.864	5.3	20.0	25.2	74.8	41.1	5.661 (3)	
	여학생	3,718	3.07	0.849	4.9	18.1	22.9	77.1	42.0		35.0
학교급	초	1,987	2.76	0.845	6.5	30.9	37.4	62.6	42.4	419.088*** (6)	
	중	2,935	3.08	0.856	5.2	17.4	22.7	77.3	41.8		35.5
	고	2,747	3.23	0.811	3.9	12.1	16.1	83.9	40.6		43.4
학업 성취 수준	상	2,843	3.13	0.843	4.4	16.8	21.2	78.8	40.5	53.746*** (6)	
	중	3,044	3.01	0.843	4.7	21.1	25.8	74.2	42.9		31.3
	하	1,744	3.00	0.893	6.8	19.1	25.9	74.1	40.8		33.2
경제 수준	상	3,411	3.05	0.868	5.4	19.1	24.5	75.5	40.8	10.002 (6)	
	중	3,795	3.05	0.845	4.8	19.2	24.0	76.0	42.7		33.4
	하	394	3.12	0.875	5.7	15.9	21.6	78.4	39.1		39.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학업에 대한 생각

(1) 공부하는 이유

학업은 청소년기의 주된 과업 중 하나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제시문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94.6%로 가장 많았고, ‘못하면 부끄러워서’ 45.0%, ‘재미있어서’ 27.6%,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25.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어서,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36.8%를 차지한 반면, 중·고등학생은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못하면 부끄러워서’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33.6%에 그친 반면, 중학생 46.2%, 고등학생 51.9%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대부분 공부가 미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내재적 동기는 학업경쟁이 본격화되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눈에 띄게 감소하고, 타인의 눈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외재적 동기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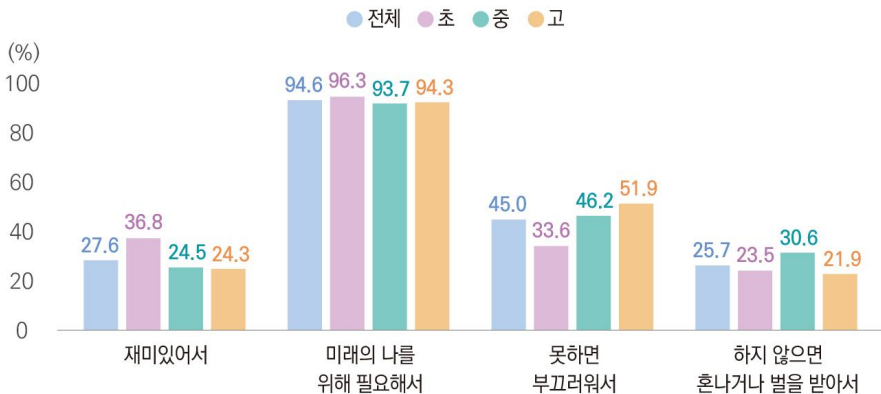


그림 V-21. 공부하는 이유

학업동기에 대한 세부분항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응답은 27.6%(그렇다 22.9%+매우 그렇다 4.7%)에 그쳐, 학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초등학생 36.8%, 중학생 24.5%, 고등학생 24.3%),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상위집단 41.4%, 중간 집단 24.7%, 하위집단 10.7%). 부모 학력의 경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응답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대학원졸업 집단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표 V-51. 공부하는 이유: 재미있어서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48	1.99	0.868	33.7	38.7	72.4	27.6	22.9	4.7	-	
성별	남학생	3,938	1.97	0.884	35.4	37.6	73.0	27.0	21.7	5.3	20.114*** (3)
	여학생	3,710	2.00	0.851	31.9	39.8	71.7	28.3	24.2	4.1	
학교급	초	1,979	2.19	0.886	24.4	38.8	63.2	36.8	29.8	7.0	155.722*** (6)
	중	2,922	1.92	0.850	36.1	39.3	75.5	24.5	20.5	4.0	
	고	2,747	1.90	0.851	37.8	37.9	75.7	24.3	20.5	3.7	
학업 성취 수준	상	2,832	2.28	0.905	22.4	36.2	58.6	41.4	32.9	8.6	758.979*** (6)
	중	3,039	1.95	0.808	32.3	43.0	75.3	24.7	21.8	2.8	
	하	1,737	1.59	0.726	53.9	35.5	89.3	10.7	8.9	1.8	
경제 수준	상	3,393	2.09	0.895	29.4	38.1	67.5	32.5	26.1	6.3	127.692*** (6)
	중	3,793	1.92	0.834	35.7	40.1	75.8	24.2	20.8	3.4	
	하	393	1.72	0.843	49.9	31.3	81.2	18.8	15.5	3.3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490	1.92	0.854	37.5	37.0	74.5	25.5	22.0	3.5	40.504*** (6)
	대학교졸업	3,880	1.99	0.866	33.3	38.9	72.2	27.8	23.2	4.6	
	대학원졸업	634	2.14	0.944	29.9	35.1	65.0	35.0	26.4	8.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557	1.93	0.842	35.6	39.6	75.2	24.8	21.1	3.7	33.739*** (6)
	대학교졸업	4,034	1.99	0.873	34.1	37.9	72.0	28.0	23.3	4.7	
	대학원졸업	474	2.14	0.959	30.9	33.0	63.8	36.2	27.3	8.9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공부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94.6%(그렇다 40.4%+매우 그렇다 54.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의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 보았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응답 비율(59.2%)이 남학생(49.6%)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1.2%, 중학생 52.8%, 고등학생 50.8%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 67.7%, 중간집단 51.5%, 하위집단 37.4%로 나타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에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2. 공부하는 이유: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63	3.47	0.667	2.2	3.2	5.4	94.6	40.4	54.2	-	
성별	남학생	3,949	3.40	0.704	3.1	3.5	6.6	93.4	43.8	49.6	89.278*** (3)
	여학생	3,715	3.54	0.617	1.2	2.9	4.1	95.9	36.7	59.2	
학교급	초	1,983	3.56	0.603	1.1	2.6	3.7	96.3	35.1	61.2	66.893*** (6)
	중	2,933	3.44	0.687	2.5	3.8	6.3	93.7	40.9	52.8	
	고	2,747	3.42	0.683	2.7	3.0	5.7	94.3	43.6	50.8	
학업 성취 수준	상	2,838	3.64	0.580	1.2	1.6	2.8	97.2	29.5	67.7	509.788*** (6)
	중	3,043	3.46	0.622	1.4	2.8	4.2	95.8	44.3	51.5	
	하	1,745	3.21	0.778	5.2	6.5	11.7	88.3	50.9	37.4	
경제 수준	상	3,403	3.53	0.637	1.6	2.9	4.5	95.5	35.9	59.5	95.129*** (6)
	중	3,795	3.43	0.668	2.3	3.2	5.5	94.5	43.7	50.8	
	하	396	3.27	0.799	5.9	4.1	10.1	89.9	46.6	43.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못하면 부끄러워서’ 공부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45.0%(그렇다 33.3%+매우 그렇다 11.7%)로 나타났다. 남학생(37.8%)보다 여학생(52.7%)의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은 과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공부를 못하면 부끄러워서 공부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3.6%, 중학생 46.2%, 고등학생 51.9%의 동의 비율을 나타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 등을 의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성취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V-53. 공부하는 이유: 못하면 부끄러워서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41	2.32	0.968	24.2	30.8	55.0	45.0	33.3	11.7	-	
성별	남학생	3,932	2.18	0.951	28.5	33.7	62.2	37.8	28.7	9.1	181.906*** (3)
	여학생	3,708	2.47	0.965	19.6	27.7	47.3	52.7	38.3	14.4	
학교급	초	1,976	2.11	0.958	31.8	34.6	66.4	33.6	24.4	9.2	182.226*** (6)
	중	2,921	2.36	0.975	22.9	30.9	53.8	46.2	33.2	13.1	
	고	2,743	2.44	0.944	20.2	27.9	48.1	51.9	39.9	12.1	
학업 성취 수준	상	2,833	2.34	1.014	26.1	28.1	54.1	45.9	31.7	14.2	65.416*** (6)
	중	3,034	2.34	0.929	21.4	34.2	55.6	44.4	33.8	10.6	
	하	1,735	2.28	0.960	26.2	29.0	55.2	44.8	35.1	9.7	
경제 수준	상	3,391	2.32	0.991	25.7	29.6	55.3	44.7	32.2	12.6	20.212** (6)
	중	3,787	2.33	0.946	22.8	32.1	55.0	45.0	34.2	10.8	
	하	395	2.37	1.004	24.8	27.0	51.8	48.2	34.4	13.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5.7%(그렇다 18.9%+매우 그렇다 6.8%)에 그쳤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4.3%(그렇지 않다 34.0%+전혀 그렇지 않다 40.3%)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의 경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23.5%, 중학생 30.6%, 고등학생 21.9%로 나타나, 중학교급에서 여타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성취수준이 낮아질수록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집단(25.0%)과 중간집단(25.9%)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하위집단은 그 비율이 2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4. 공부하는 이유: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36	1.92	0.925	40.3	34.0	74.3	25.7	18.9	6.8	-	
성별	남학생	3,928	1.92	0.927	40.2	34.0	74.3	25.7	18.9	6.9	0.117 (3)
	여학생	3,708	1.92	0.924	40.4	34.0	74.4	25.6	19.0	6.7	
학교급	초	1,978	1.86	0.931	44.0	32.4	76.5	23.5	16.5	7.0	107.081*** (6)
	중	2,920	2.05	0.966	35.2	34.1	69.4	30.6	21.4	9.2	
	고	2,738	1.83	0.860	43.0	35.1	78.1	21.9	18.0	4.0	
학업 성취 수준	상	2,827	1.85	0.925	44.8	32.0	76.9	23.1	16.5	6.6	62.685*** (6)
	중	3,032	1.93	0.896	38.1	36.5	74.6	25.4	19.7	5.7	
	하	1,737	2.02	0.966	37.0	32.8	69.8	30.2	21.5	8.7	
경제 수준	상	3,393	1.89	0.938	42.7	32.4	75.0	25.0	17.8	7.1	27.390*** (6)
	중	3,778	1.94	0.908	38.5	35.7	74.1	25.9	19.7	6.1	
	하	396	2.01	0.994	39.0	31.5	70.5	29.5	19.5	10.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기대교육수준 및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표 V-55〉에는 기대교육수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1.2%, 대학교 69.8%, 대학원 석사 10.9%, 대학원 박사 8.1%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22.7%, 대학 이상 교육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77.3%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와는 달리,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55. 기대교육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χ^2 (df)	
전체	7,384	11.2	69.8	10.9	8.1	-	
성별	남학생	3,779	12.2	69.3	10.0	8.5	16.030** (3)
	여학생	3,606	10.1	70.2	12.0	7.7	
학교급	초	1,872	12.2	63.7	12.2	11.9	113.114*** (6)
	중	2,817	11.9	74.1	8.0	6.0	
	고	2,695	9.7	69.4	13.1	7.8	
고교 유형	일반계고	2,179	6.6	71.4	13.7	8.3	126.304*** (3)
	직업계고	516	22.7	61.1	10.7	5.5	
학업 성취 수준	상	2,758	6.4	65.4	14.5	13.6	408.495*** (6)
	중	2,924	10.6	73.7	10.1	5.7	
	하	1,665	19.7	70.2	6.5	3.6	
경제 수준	상	3,258	10.3	67.2	12.0	10.6	64.504*** (6)
	중	3,684	11.6	72.0	10.5	5.9	
	하	381	13.7	70.2	7.3	8.8	

* 주: * $p < .05$, ** $p < .01$, *** $p < .001$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학 교육 이상을 희망한다고 답했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아래에서는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을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였다. 먼저, 학교급별로는 대학원 이상 교육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24.1%(석사 12.2%+박사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 14.0%(석사 8.0%+박사 6.0%), 고등학생 20.9%(석사 13.1%+박사 7.8%)로 파악되었다.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도 20%를 초과한 수치를 나타낸 반면, 중학생은 14.0%로 가장 낮게 도출된 점이 특징적이다. 고교유형의 경우, 직업계고에 비해 일반계고에서 대학원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집단 28.1%(석사 14.5%+박사 13.6%), 중간집단 15.8%(석사 10.1%+박사 5.7%), 하위집단 10.1%(석사 6.5%+박사 3.6%)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하위집단 또는 중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고, ‘능력이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25.2%, ‘결혼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해지기 위해서’ 4.5%, ‘주위(부모 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3.4%,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3.2%, ‘다들 가니까 나만 안 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3.0%, ‘기타’ 2.8%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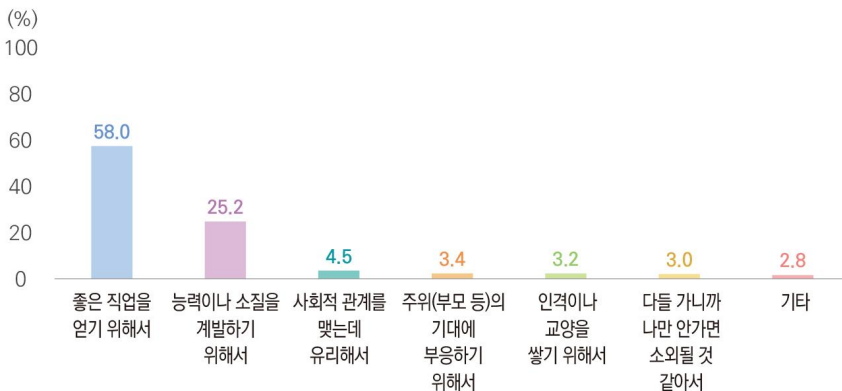


그림 V-22.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이를 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성별의 경우 남학생(55.8%)에 비해 여학생(60.3%)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62.8%)와 중학교(60.5%)에 비해 고등학교(52.1%)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고등학생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여타 학교급에 비해 낮았지만, '능력이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에서 나타난 이 같은 차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응답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56.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df)
전체		6,612	58.0	25.2	3.2	3.4	4.5	3.0	2.8	-
성별	남학생	3,355	55.8	25.1	3.8	3.5	5.6	3.2	3.1	33.534*** (6)
	여학생	3,257	60.3	25.2	2.6	3.2	3.4	2.8	2.5	
학교급	초	1,677	62.8	21.0	3.1	3.5	3.9	1.9	3.9	103.577*** (12)
	중	2,524	60.5	23.3	2.5	3.7	5.0	2.8	2.2	
	고	2,412	52.1	30.0	4.0	2.9	4.4	4.0	2.6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12	54.7	27.9	3.9	2.9	4.0	4.1	2.6	40.066*** (6)
	직업계고	400	39.2	40.5	4.9	2.8	6.7	3.1	2.8	
학업 성취 수준	상	2,587	59.7	25.8	3.4	3.0	4.1	1.5	2.6	72.505*** (12)
	중	2,644	59.3	24.1	2.9	3.4	4.6	3.0	2.8	
	하	1,353	52.4	26.1	3.6	4.0	5.2	5.7	3.0	
경제 수준	상	2,958	58.7	24.6	3.5	2.9	4.6	2.6	3.0	24.115* (12)
	중	3,273	57.5	26.0	2.8	3.6	4.5	3.0	2.6	
	하	329	55.9	22.1	4.9	3.8	4.0	6.0	3.3	

* 주: 1) * p .05, ** p .01, *** p .001

2) 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② 능력이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③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④ 주위(부모 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⑤ 결혼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해지기 위해서, ⑥ 대학에 다들 가니까 나만 안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⑦ 기타

5.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국가관·역사관

- **(부자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48.1%는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2012년 조사결과(37.1%)에 비해 11.0%p 증가한 것임.
- **(능력주의)**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10명 중 4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낸 청소년은 55.4%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결과(66.1%)에 비해 10.7%p 감소한 것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최근 세대일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참여)**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청소년 비율은 2012년 51.8%에서 2023년 35.7%로 감소하였음.
- **(국가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008년 70.1%, 2010년 78.3%, 2012년 82.9%에 이어 2023년 89.5%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역사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6명은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 사회에 대한 인식

(1)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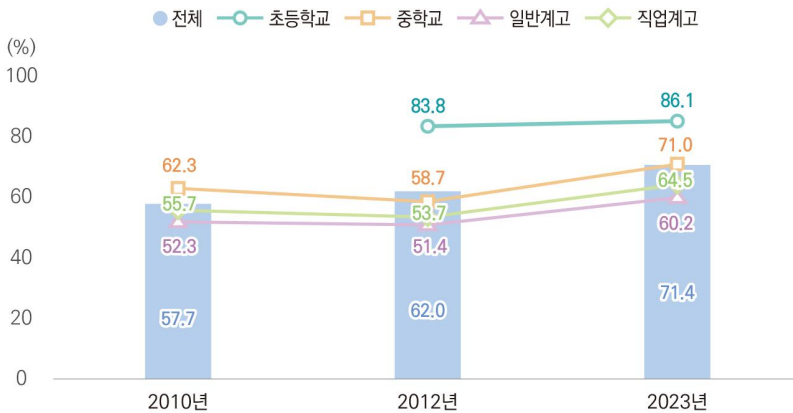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71.4%(그렇다 57.4%+매우 그렇다 14.0%)로 파악되었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은 28.6%(그렇지 않다 23.3%+전혀 그렇지 않다 5.3%)로 파악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동의 비율(74.5%)이 여학생(68.1%)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초등학생 86.1%, 중학생 71.0%, 고등학생 61.1%).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양성 존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상위집단 75.6%, 중간집단 69.4%, 하위집단 54.7%). 다문화 배경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간에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57.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7	2.80	0.738	5.3	23.3	28.6	71.4	57.4	14.0	-	
성별	남학생	3,965	2.84	0.748	5.8	19.7	25.5	74.5	59.0	15.5	67.591*** (3)
	여학생	3,722	2.76	0.725	4.7	27.2	31.9	68.1	55.7	12.4	
학교급	초	1,998	3.07	0.656	2.1	11.7	13.9	86.1	62.8	23.3	466.568*** (6)
	중	2,935	2.79	0.727	5.2	23.8	29.0	71.0	58.2	12.8	
	고	2,753	2.62	0.747	7.6	31.3	38.9	61.1	52.6	8.4	
지역 규모	대도시	2,962	2.81	0.744	5.2	23.3	28.5	71.5	56.8	14.7	14.912* (6)
	중소도시	3,799	2.78	0.744	5.8	23.9	29.7	70.3	57.1	13.3	
	읍면지역	926	2.87	0.693	3.5	21.1	24.5	75.5	60.6	14.8	
경제 수준	상	3,414	2.89	0.749	4.8	19.6	24.4	75.6	57.2	18.3	171.706*** (6)
	중	3,804	2.75	0.709	5.0	25.6	30.6	69.4	58.6	10.8	
	하	401	2.51	0.785	11.1	34.2	45.3	54.7	47.5	7.1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2.81	0.772	6.3	22.1	28.4	71.6	56.0	15.6	1.352 (3)
	비다문화	7,365	2.80	0.737	5.2	23.4	28.6	71.4	57.4	13.9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주: 1) 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3.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시계열 비교)

이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2010년 57.7%, 2012년 62.0%, 2023년 71.4%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동일한 201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각 연도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라는 진술에는 63.9%가 동의하였고(그렇다 46.9%+매우 그렇다 17.0%), 36.1%는 동의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28.8%+전혀 그렇지 않다 7.3%). 성별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 64.8%, 여학생 63.0%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 20.6%, 여학생 13.2%로,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58.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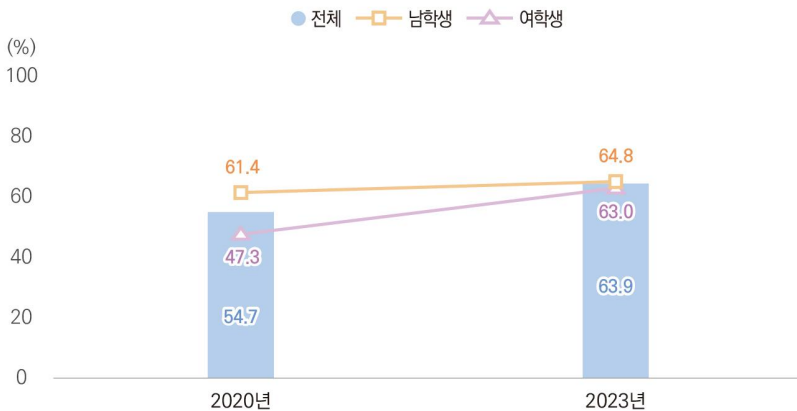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5	2.74	0.825	7.3	28.8	36.1	63.9	46.9	17.0	-	
성별	남학생	3,965	2.76	0.885	9.4	25.8	35.2	64.8	44.2	20.6	150.565*** (3)
	여학생	3,720	2.71	0.755	5.0	32.0	37.0	63.0	49.7	13.2	
학교급	초	1,990	3.07	0.770	3.0	17.1	20.1	79.9	49.2	30.6	528.106*** (6)
	중	2,938	2.68	0.811	7.4	31.3	38.8	61.2	46.6	14.6	
	고	2,756	2.55	0.804	10.1	34.6	44.7	55.3	45.5	9.8	
지역 규모	대도시	2,960	2.76	0.830	7.5	27.1	34.6	65.4	47.7	17.7	12.891* (6)
	중소도시	3,802	2.71	0.827	7.5	30.0	37.5	62.5	46.0	16.5	
	읍면지역	923	2.77	0.796	5.5	29.5	34.9	65.1	47.8	17.3	
경제 수준	상	3,413	2.84	0.835	6.0	26.4	32.4	67.6	45.6	22.0	158.818*** (6)
	중	3,802	2.68	0.798	7.6	30.1	37.7	62.3	48.9	13.4	
	하	403	2.43	0.848	14.5	37.1	51.7	48.3	39.3	9.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학교급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79.9%, 중학생 61.2%, 고등학생 55.3%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 67.6%, 중간집단 62.3%, 하위집단 48.3%의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상위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의 긍정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2020년 54.7%에서 2023년 63.9%로 3년 만에 9.2%p 증가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2020년 47.3%에서 2023년 63.0%로 15.7%p 증가하였다(남학생은 2020년 61.4%→2023년 64.8%).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며, 특히 상대적 약자로 간주되었던 여학생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36.1%는 아직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 1) 2020년은 중1~고3, 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20년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2020)의 결과임.

그림 V-24.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시계열 비교)

(3) 부자에 대한 인식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48.1%(그렇다 35.3%+매우 그렇다 12.8%), 동의하지 않는 응답 비율은 51.9%(그렇지 않다 37.3%+전혀 그렇지 않다 14.6%)로 나타나, 긍정 대 부정 응답 비율이 유사하긴 했지만 부정하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교 30.0%, 중학생 51.4%, 고등학생 57.7%로 나타나, 초등학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동의 비율이 증가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상위집단 46.6%, 중간집단 49.1%, 하위집단 52.1%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9.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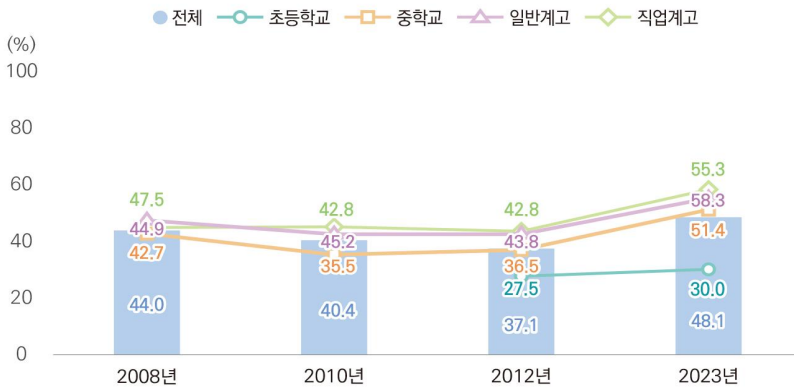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1	2.46	0.893	14.6	37.3	51.9	48.1	35.3	12.8	-	
성별	남학생	3,963	2.48	0.911	14.6	36.9	51.5	48.5	34.0	14.4	19.701*** (3)
	여학생	3,719	2.44	0.873	14.6	37.6	52.2	47.8	36.7	11.2	
학교급	초	1,989	2.14	0.853	23.0	46.9	70.0	30.0	22.8	7.2	407.689*** (6)
	중	2,938	2.52	0.879	12.6	36.0	48.6	51.4	37.9	13.5	
	고	2,755	2.63	0.877	10.6	31.6	42.3	57.7	41.6	16.2	
지역 규모	대도시	2,956	2.46	0.911	15.7	35.8	51.5	48.5	35.2	13.4	24.683*** (6)
	중소도시	3,804	2.48	0.892	13.8	37.9	51.6	48.4	34.9	13.5	
	읍면지역	921	2.40	0.836	14.5	39.5	54.0	46.0	37.6	8.5	
경제 수준	상	3,405	2.44	0.913	15.8	37.6	53.4	46.6	33.1	13.5	31.078*** (6)
	중	3,808	2.47	0.869	13.7	37.3	50.9	49.1	37.4	11.7	
	하	403	2.57	0.931	12.9	35.0	47.9	52.1	34.0	18.1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부자에 대한 인식을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2008년~2012년까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지만, 2023년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2023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초등학교(27.5%→30.0%)보다 중학생(36.5%→51.4%) 및 고등학생(일반계고: 43.8%→58.3%, 직업계고: 42.8%→55.3%)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청소년이 부자에 대해 갖는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자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한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5.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시계열 비교)

(4)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

〈표 V-60〉에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61.1%(그렇다 44.9%+매우 그렇다 16.1%)로 파악되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8.9%(그렇지 않다 27.8%+전혀 그렇지 않다 11.2%)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10명 중 4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능력주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남학생 65.2%, 여학생 56.7%로 남학생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교 38.6%, 중학생 61.2%, 고등학생 77.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그 결과, 능력주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생보다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 등 도시지역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이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능력주의에 대한 동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V-60.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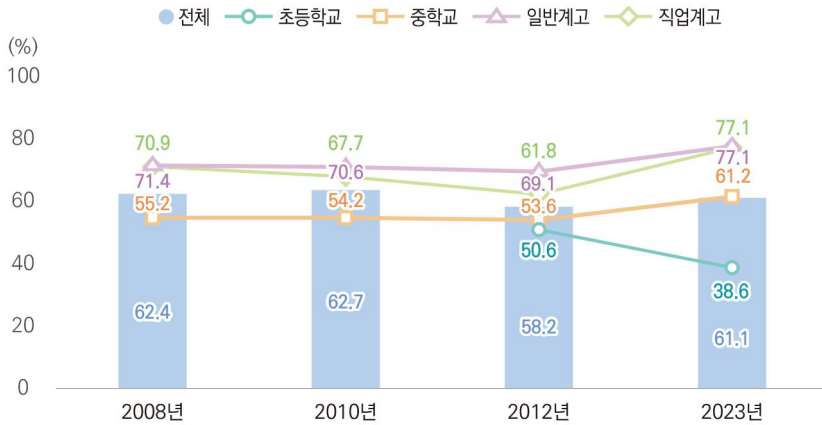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1	2.66	0.877	11.2	27.8	38.9	61.1	44.9	16.1	-	
성별	남학생	3,963	2.76	0.876	9.4	25.5	34.8	65.2	45.4	19.8	108.693*** (3)
	여학생	3,718	2.56	0.867	13.1	30.2	43.3	56.7	44.5	12.2	
학교급	초	1,994	2.28	0.893	20.0	41.3	61.4	38.6	28.9	9.7	744.908*** (6)
	중	2,935	2.66	0.873	11.0	27.8	38.8	61.2	45.3	16.0	
	고	2,752	2.93	0.763	5.0	17.9	22.9	77.1	56.2	20.9	
지역 규모	대도시	2,959	2.68	0.884	11.2	26.8	38.0	62.0	45.0	16.9	22.192** (6)
	중소도시	3,797	2.67	0.872	10.9	27.1	38.0	62.0	45.9	16.0	
	읍면지역	924	2.56	0.874	12.0	33.5	45.5	54.5	40.6	13.9	
경제 수준	상	3,405	2.61	0.919	13.4	29.3	42.7	57.3	40.3	17.0	70.733*** (6)
	중	3,806	2.69	0.838	9.4	26.9	36.3	63.7	48.7	15.0	
	하	403	2.78	0.850	8.7	22.9	31.7	68.3	49.4	18.9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그림 V-26]에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 추이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2008년 62.4%, 2010년 62.7%, 2012년 58.2%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61.1%로 다소 상승하였다. 특히 2012년 대비 202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은 모두 능력주의 경향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직업계고 학생은 긍정응답 비율이 2012년 61.8%→2023년 77.1%로 15.3%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현재 청소년들에게 능력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6.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시계열 비교)

(5) 세계 시민사회 의식

다음으로,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5%(그렇다 60.4%+매우 그렇다 28.0%)가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11.5%(그렇지 않다 9.3%+전혀 그렇지 않다 2.2%)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호 원조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동의하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85.9%)보다 여학생(91.3%)이 더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92.2%, 중학생 87.8%, 고등학생 86.6%).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89.3%) 및 중간집단(88.3%)에 비해 하위집단의 동의 비율(83.1%)이 약 5~6%p 가량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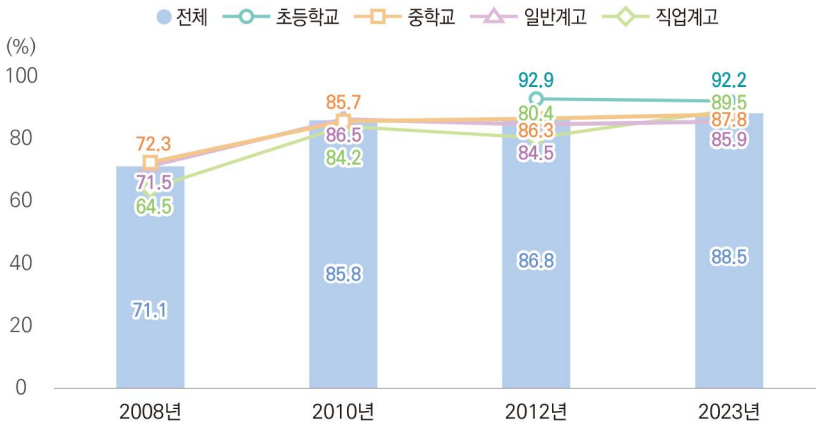
표 V-61.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7	3.14	0.665	2.2	9.3	11.5	88.5	60.4	28.0	-	
성별	남학생	3,959	3.10	0.704	3.1	11.0	14.1	85.9	58.9	27.0	63.382*** (3)
	여학생	3,717	3.19	0.616	1.3	7.5	8.7	91.3	62.1	29.2	
학교급	초	1,986	3.26	0.634	1.3	6.5	7.8	92.2	56.8	35.4	103.486*** (6)
	중	2,936	3.12	0.679	2.7	9.5	12.2	87.8	60.6	27.2	
	고	2,755	3.08	0.659	2.3	11.1	13.4	86.6	62.9	23.6	
지역 규모	대도시	2,956	3.15	0.657	2.1	8.9	11.0	89.0	60.9	28.1	4.129 (6)
	중소도시	3,796	3.13	0.675	2.4	9.7	12.2	87.8	60.0	27.8	
	읍면지역	925	3.17	0.646	1.7	8.7	10.4	89.6	60.8	28.8	
경제 수준	상	3,408	3.19	0.676	2.3	8.3	10.7	89.3	57.8	31.6	58.393*** (6)
	중	3,800	3.12	0.641	1.8	9.8	11.7	88.3	63.0	25.4	
	하	402	3.03	0.755	5.0	11.9	16.9	83.1	57.9	25.2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7.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시계열 비교)

시계열 추이를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2008년 71.1%에서 2010년 85.8%, 2012년 86.8%, 2023년 88.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지역이기주의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지역이기주의 가치관 수준을 알아보았다. 먼저,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집단주의 가치관에 가까운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동의하는 비율이 55.4%(그렇다 46.5%+매우 그렇다 8.9%),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4.6%(그렇지 않다 34.7%+매우 그렇지 않다 9.8%)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V-62.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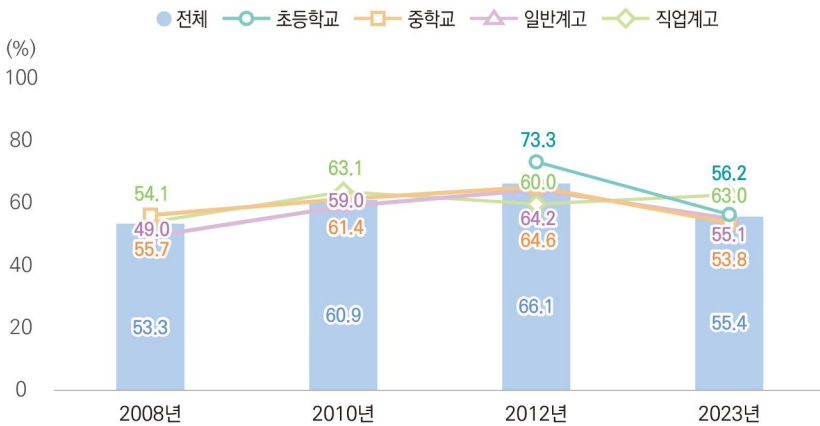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7,674	2.55	0.790	9.8	34.7	44.6	55.4	46.5	8.9	-		
성별	남학생	3,960	2.59	0.794	9.4	31.8	41.3	58.7	48.7	10.0	40.728*** (3)	
	여학생	3,715	2.49	0.782	10.3	37.8	48.1	51.9	44.1	7.8		
학교급	초	1,987	2.58	0.799	9.0	34.8	43.8	56.2	45.4	10.7	19.388** (6)	
	중	2,936	2.52	0.781	9.9	36.4	46.2	53.8	45.6	8.2		
	고	2,752	2.55	0.791	10.4	33.0	43.4	56.6	48.2	8.5		
지역 규모	대도시	2,955	2.55	0.780	9.6	33.8	43.4	56.6	48.1	8.5	12.735* (6)	
	중소도시	3,798	2.53	0.801	10.2	35.9	46.2	53.8	44.5	9.3		
	읍면지역	921	2.58	0.773	9.0	32.9	41.9	58.1	49.5	8.6		
경제 수준	상	3,409	2.56	0.810	10.0	34.1	44.1	55.9	45.3	10.5	37.189*** (6)	
	중	3,796	2.54	0.762	9.1	35.1	44.3	55.7	48.2	7.5		
	하	403	2.43	0.841	14.7	36.2	50.9	49.1	40.8	8.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동의 비율(58.7%)이 여학생(51.9%)보다 높아, 남학생이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위집단(55.9%) 및 중간집단(55.7%)에 비해 하위집단(49.1%)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성향이 2008년 53.3%→2010년 60.9%→2012년 66.1%로 2008~2012년 사이에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2023년 55.4%로 감소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 성향은 낮은 연령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응답 비율이 2012년 73.3%에서 2023년 56.2%로 17.1%p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폭은 중학생(64.6%→53.8%) 및 고등학생(일반계고: 64.2%→55.1%, 직업계고 60.0%→63.0%)과는 차이가 있다. 상술한 결과는 이전 세대에 비해 최근 세대일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8.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시계열 비교)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동의하는 응답은 45.2%(그렇다 35.9%+매우 그렇다 9.3%),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54.8%(그렇지 않다 37.4%+전혀 그렇지 않다 17.4%)로 나타나, 긍정응답 비율보다 부정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 더 우세함을 보여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40.4%)보다 남학생(49.7%)의 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중·고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63.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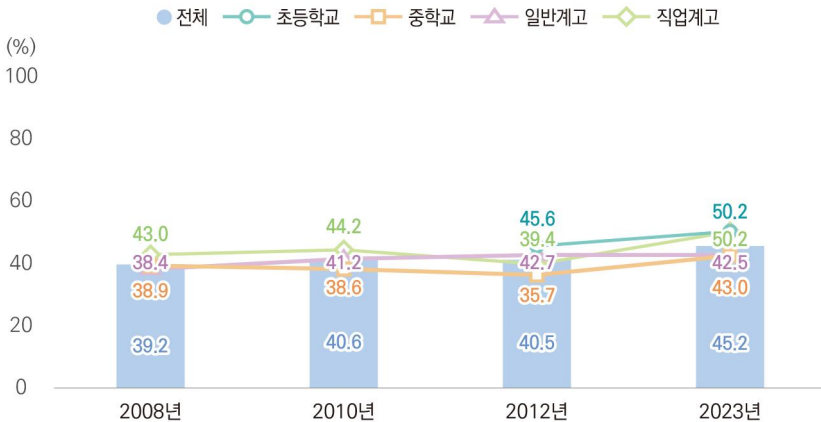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4	2.37	0.877	17.4	37.4	54.8	45.2	35.9	9.3	-	
성별	남학생	3,958	2.45	0.891	16.0	34.3	50.3	49.7	38.4	11.3	77.877*** (3)
	여학생	3,717	2.29	0.854	18.9	40.7	59.6	40.4	33.1	7.3	
학교급	초	1,990	2.48	0.916	15.7	34.0	49.8	50.2	36.5	13.7	75.691*** (6)
	중	2,932	2.33	0.876	18.7	38.3	57.0	43.0	34.4	8.6	
	고	2,752	2.34	0.841	17.2	38.8	56.0	44.0	37.0	7.0	
지역 규모	대도시	2,953	2.35	0.881	18.2	37.8	56.1	43.9	34.7	9.2	18.790** (6)
	중소도시	3,798	2.37	0.865	16.9	38.2	55.1	44.9	36.1	8.8	
	읍면지역	924	2.45	0.908	17.0	32.5	49.5	50.5	38.7	11.8	
경제 수준	상	3,405	2.37	0.908	18.7	36.6	55.3	44.7	33.9	10.9	34.643*** (6)
	중	3,801	2.37	0.849	16.4	38.5	54.9	45.1	37.1	8.0	
	하	401	2.45	0.861	15.2	34.0	49.2	50.8	41.4	9.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필요할 경우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는 동의 비율이 2008년 39.2%→2010년 40.6%→2012년 40.5%→2023년 45.2%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29.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시계열 비교)

다음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제개발사업이나 국제행사는 절대로 다른 지역에 양보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0.6%(그렇다 31.6%+매우 그렇다 9.1%)가 동의하였고, 59.4%(그렇지 않다 50.4%+전혀 그렇지 않다 9.0%)는 동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남학생 45.2%, 여학생 35.7%로 남학생이 더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6.0%, 중학생 42.8%, 고등학생 41.7%로 나타나,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08년 43.2%, 2010년 42.1%, 2012년 47.3%, 2023년 40.6%로 나타났다. 2008~2012년 사이에는 증감폭이 크지 않고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2012년~2023년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6.7%p 감소했다. 앞서 [그림 V-30]에서 살펴본 결과와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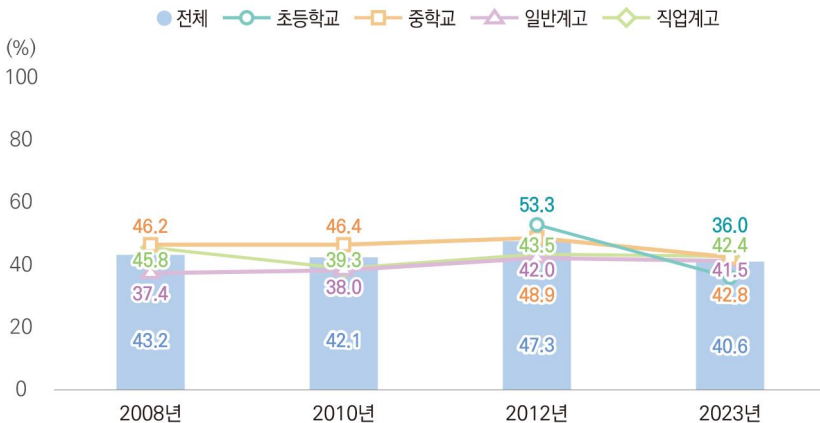
표 V-64.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는 양보할 수 없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55	2.41	0.776	9.0	50.4	59.4	40.6	31.6	9.1	-	
성별	남학생	3,945	2.48	0.818	9.3	45.5	54.8	45.2	33.5	11.7	113.613*** (3)
	여학생	3,709	2.33	0.721	8.7	55.6	64.3	35.7	29.5	6.2	
학교급	초	1,981	2.33	0.779	11.3	52.7	64.0	36.0	28.0	8.1	34.618*** (6)
	중	2,926	2.44	0.768	8.0	49.3	57.2	42.8	33.6	9.2	
	고	2,748	2.43	0.779	8.4	49.9	58.3	41.7	32.0	9.7	
지역 규모	대도시	2,940	2.40	0.776	8.8	51.3	60.1	39.9	30.6	9.3	5.389 (6)
	중소도시	3,793	2.41	0.773	9.0	50.5	59.4	40.6	31.7	8.9	
	읍면지역	921	2.43	0.789	9.6	47.3	56.9	43.1	33.9	9.2	
경제 수준	상	3,396	2.44	0.804	9.5	48.0	57.4	42.6	32.0	10.6	29.327*** (6)
	중	3,790	2.38	0.747	8.5	52.8	61.3	38.7	31.1	7.6	
	하	403	2.40	0.797	9.6	50.8	60.4	39.6	29.5	10.1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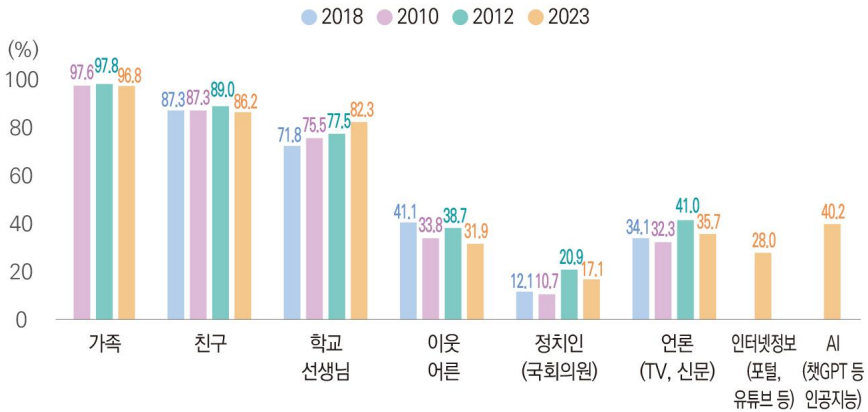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30.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는 양보할 수 없다(시계열 비교)

2) 사회에 대한 신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별 요소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긍정응답(믿을 수 있다+매우 믿을 수 있다) 비율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시계열 추이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V-3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학교 선생님이 그 뒤를 이었다.

가족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2010년 97.6%, 2012년 97.8%, 2023년 96.8%), 친구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이전보다 약간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2008년 87.3%, 2010년 87.3%, 2012년 89.0%, 2023년 86.2%). 그에 비해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2008년 71.8%, 2010년 75.5%, 2012년 77.5%, 2023년 82.3%). 이웃 어른, 정치인,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



-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 가족 신뢰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뢰도로 나뉘어져 있어 시계열 비교에서는 미포함됨.
 4) 인터넷정보, AI에 대한 조사는 2023년 신규 문항임.

그림 V-31. 사회에 대한 신뢰(시계열 비교)

비율은 일관된 증감세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인터넷정보 및 AI에 대한 신뢰수준 조사 결과, 인터넷정보(포털, 유튜브 등)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났고, AI(챗GPT 등 인공지능)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다.

(1) 가족에 대한 신뢰도

〈표 V-65〉~〈표 V-72〉에는 개별 항목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96.8%(믿을 수 있다 24.8%+매우 믿을 수 있다 72.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뢰의 수준을 차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가족구성, 가족관계, 다문화배경 등 주요 배경변인에 따라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가족을 '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남학생 74.9%, 여학생 68.9%로 나타나, 남학생이 6.0%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79.1%, 중학생 70.9%, 고등학생 68.0%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그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데, 상위집단 78.4%, 중간집단 68.7%, 하위집단 47.2%의 비율을 나타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31.2%p의 격차를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 가정 73.4%, 한부모 가정 63.3%, 기타(조손가정 등) 53.4%의 수치를 보였다. 가족에 대한 신뢰는 가족관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가족관계 상위집단은 '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95.6%에 이르는 반면, 중간집단 81.0%, 하위집단 40.4%의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배경에 따른 차이가 감지되었는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강한 신뢰를 보인 응답이 59.6%로 나타났고, 비(非)다문화 가정에서는 72.4%로 12.8%p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신뢰한다(믿을 수 있다+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긍정응답 비율이 2010년 97.6%, 2012년 97.8%, 2023년 96.8%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양상이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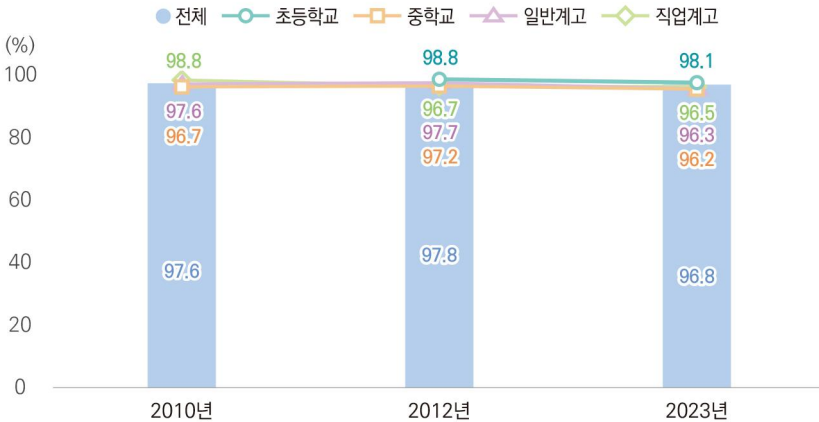
표 V-65. 가족 신뢰도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3	④				
전체	7,690	3.68	0.555	0.6	2.6	3.2	96.8	24.8	72.0	-	
성별	남학생	3,966	3.71	0.535	0.6	2.2	2.9	97.1	22.2	74.9	36.121*** (3)
	여학생	3,725	3.65	0.573	0.6	3.0	3.7	96.3	27.5	68.9	
학교급	초	1,996	3.77	0.473	0.2	1.7	1.9	98.1	19.0	79.1	77.779*** (6)
	중	2,939	3.66	0.575	0.8	3.0	3.8	96.2	25.3	70.9	
	고	2,755	3.64	0.579	0.8	2.9	3.7	96.3	28.3	68.0	
경제 수준	상	3,417	3.76	0.474	0.3	1.4	1.7	98.3	19.9	78.4	298.106*** (6)
	중	3,806	3.64	0.573	0.7	3.0	3.6	96.4	27.7	68.7	
	하	403	3.31	0.786	3.6	9.3	12.9	87.1	39.9	47.2	
가족 구성	양부모	6,732	3.70	0.528	0.5	2.1	2.6	97.4	24.0	73.4	118.416*** (6)
	한부모	798	3.55	0.661	1.3	5.6	6.9	93.1	29.8	63.3	
	기타	120	3.36	0.822	5.0	7.0	12.0	88.0	34.6	53.4	
가족 관계	상	2,685	3.95	0.220	0.0	0.2	0.2	99.8	4.1	95.6	2,230.339*** (6)
	중	2,336	3.81	0.403	0.0	0.3	0.3	99.7	18.7	81.0	
	하	2,665	3.30	0.678	1.8	7.0	8.9	91.1	50.8	40.4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3.51	0.656	0.9	6.4	7.2	92.8	33.2	59.6	25.858*** (3)
	비다문화	7,371	3.69	0.550	0.6	2.5	3.1	96.9	24.5	72.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 주: 1) 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32. 가족 신뢰도(시계열 비교)

(2) 친구에 대한 신뢰도

친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친구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86.2%(믿을 수 있다 62.2%+매우 믿을 수 있다 24.1%)로 나타났다. '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27.0%, 여학생 20.9%로, 남학생이 6.1%p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상위집단 28.0%, 중간집단 21.2%, 하위집단 18.9%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친구관계에 따른 차이는 무척 큰 편이었는데, 친구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위집단에서는 '매우 믿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49.5%로 절반에 이르는 반면, 중간집단 16.0%, 하위집단 4.7%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특히 친구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친구를 신뢰한다는 전반적인 긍정응답 비율도 60.8%에 그쳤고,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부정응답 비율이 39.2%에 달했다.

표 V-66. 친구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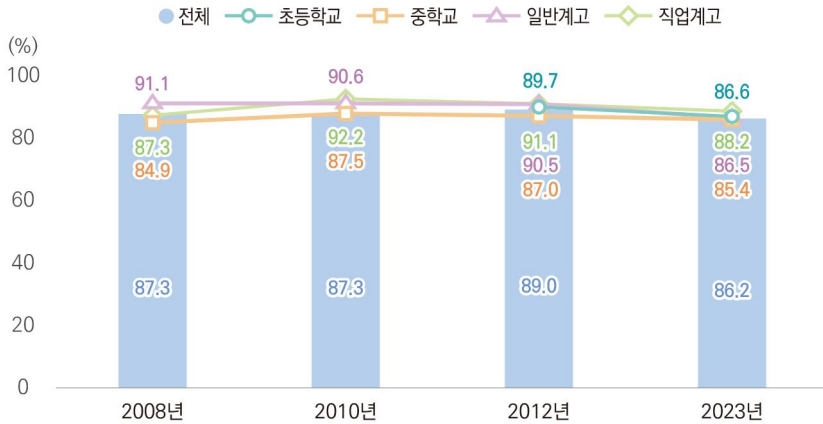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0	3.08	0.659	2.1	11.7	13.8	86.2	62.2	24.1	-	
성별	남학생	3,967	3.12	0.670	2.1	11.1	13.1	86.9	59.9	27.0	39.085*** (3)
	여학생	3,724	3.04	0.645	2.1	12.3	14.5	85.5	64.6	20.9	
학교급	초	1,995	3.08	0.649	2.1	11.4	13.4	86.6	63.5	23.0	9.869 (6)
	중	2,940	3.06	0.662	2.2	12.4	14.6	85.4	62.4	23.0	
	고	2,755	3.11	0.664	2.0	11.1	13.1	86.9	60.9	26.0	
경제 수준	상	3,418	3.14	0.651	1.5	10.6	12.1	87.9	59.9	28.0	125.580*** (6)
	중	3,805	3.05	0.643	2.2	11.6	13.8	86.2	64.9	21.2	
	하	402	2.85	0.800	6.7	20.1	26.8	73.2	54.3	18.9	
친구 관계	상	2,464	3.46	0.571	0.3	2.9	3.2	96.8	47.3	49.5	2,434.138*** (6)
	중	3,356	3.08	0.495	0.5	7.0	7.6	92.4	76.5	16.0	
	하	1,837	2.58	0.696	7.3	31.8	39.2	60.8	56.1	4.7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2.97	0.718	3.1	17.8	20.9	79.1	58.0	21.1	10.194* (3)
	非다문화	7,371	3.09	0.656	2.0	11.4	13.4	86.6	62.3	24.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87.3%, 2010년 87.3%, 2012년 89.0%, 2023년 86.2%로 나타나, 86~87% 안팎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대다수는 친구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33. 친구 신뢰도(시계열 비교)

(3)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표 V-67〉에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82.3%(믿을 수 있다 60.8%+매우 믿을 수 있다 21.5%)로 나타난 가운데, 배경변인별로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교사관계, 다문화 배경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 86.2%, 여학생 78.1%로, 남학생이 8.1%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9.4%, 중학생 80.1%, 고등학생 79.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업성취수준의 경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교사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상위집단(86.0%) 및 중간집단(80.7%)에 비해 하위집단(65.4%)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져서,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답한 상위집단의 경우,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95.9%에 달한 반면, 하위집단은 그 비율이 63.1%에 그쳤다. 특히 '매우 믿을 수 있다'는 강한 긍정응답의 경우, 상위집단 47.4%, 중간집단 14.9%, 하위집단 6.4%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그 만큼 교사에 대한 신뢰수준도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 배경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은 76.3%인 데 비해, 비(非)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은 82.5%로 나타나, 비(非)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V-67. 학교 선생님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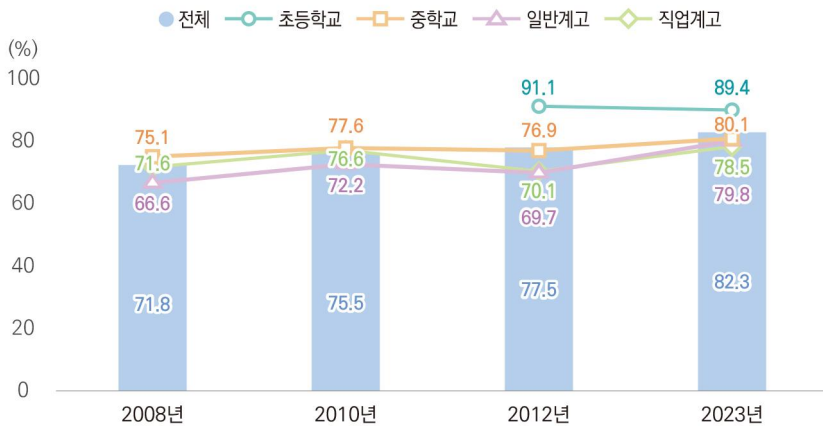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4	3.00	0.707	3.6	14.1	17.7	82.3	60.8	21.5	-	
성별	남학생	3,963	3.11	0.704	3.1	10.7	13.8	86.2	58.5	27.7	225.104*** (3)
	여학생	3,710	2.89	0.693	4.1	17.7	21.9	78.1	63.2	14.9	
학교급	초	1,990	3.17	0.658	2.0	8.6	10.6	89.4	59.8	29.6	158.456*** (6)
	중	2,935	2.95	0.718	4.2	15.7	19.9	80.1	60.9	19.3	
	고	2,749	2.94	0.711	4.1	16.4	20.5	79.5	61.4	18.1	
학업 성취 수준	상	2,838	3.09	0.721	3.5	11.4	15.0	85.0	57.8	27.2	182.512*** (6)
	중	3,049	3.00	0.639	2.0	14.2	16.2	83.8	65.2	18.6	
	하	1,750	2.86	0.771	6.5	18.1	24.6	75.4	58.2	17.2	
경제 수준	상	3,414	3.09	0.696	3.0	11.0	14.0	86.0	59.6	26.4	188.623*** (6)
	중	3,792	2.95	0.689	3.5	15.8	19.3	80.7	62.9	17.8	
	하	403	2.71	0.827	9.1	25.5	34.6	65.4	50.7	14.7	
교사 관계	상	2,263	3.43	0.593	0.6	3.5	4.1	95.9	48.4	47.4	2,146.898*** (6)
	중	2,649	3.05	0.514	0.8	8.7	9.5	90.5	75.6	14.9	
	하	2,727	2.61	0.738	8.9	28.0	36.9	63.1	56.8	6.4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2.87	0.723	5.0	18.8	23.7	76.3	61.0	15.2	10.254* (3)
	非다문화	7,354	3.01	0.706	3.5	14.0	17.5	82.5	60.8	21.7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2008년 71.8%, 2010년 75.5%, 2012년 77.5%, 2023년 82.3%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가족 및 친구의 경우, 시점과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점에서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은 "학교 교사"의 결과임.

그림 V-34. 학교 선생님 신뢰도(시계열 비교)

(4) 이웃 어른에 대한 신뢰도

다음으로, 이웃 어른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신뢰한다는 긍정응답은 31.9% (믿을 수 있다 28.2%+매우 믿을 수 있다 3.7%)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은 68.1%(믿을 수 없다 49.6%+전혀 믿을 수 없다 18.5%)로, 부정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웃 어른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띈다. 성별의 경우,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 38.0%, 여학생

25.5%로 나타나 남학생이 12.5%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39.3%, 중학생 32.4%, 고등학생 26.2%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웃 어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상위집단에서는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5.6%를 차지한 반면, 중간집단 29.6%, 하위집단 22.1%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화와 그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거주민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가족구성의 경우,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양부모 가정 32.0%, 한부모 가정 29.0%로 전체 평균(31.9%)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데 비해, 기타 유형에서 4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V-68. 이웃 어른 신뢰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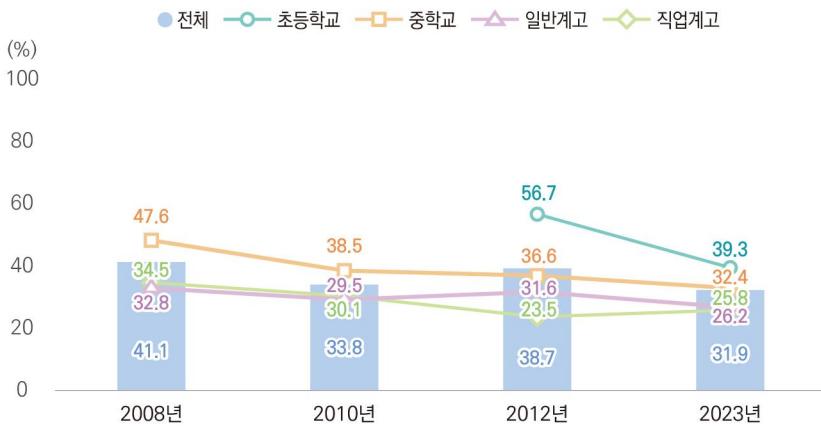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2	2.17	0.765	18.5	49.6	68.1	31.9	28.2	3.7	-	
성별	남학생	3,961	2.27	0.783	15.8	46.2	62.0	38.0	33.1	4.9	151.614*** (3)
	여학생	3,721	2.07	0.732	21.3	53.3	74.5	25.5	23.1	2.4	
학교급	초	1,991	2.32	0.739	11.9	48.8	60.7	39.3	34.8	4.5	144.912*** (6)
	중	2,938	2.18	0.771	18.5	49.2	67.6	32.4	28.5	3.9	
	고	2,753	2.06	0.759	23.2	50.6	73.8	26.2	23.3	2.9	
경제 수준	상	3,415	2.24	0.777	16.1	48.3	64.4	35.6	30.7	4.9	100.196*** (6)
	중	3,800	2.13	0.745	19.3	51.1	70.4	29.6	26.8	2.8	
	하	403	1.92	0.780	32.1	45.9	77.9	22.1	19.7	2.4	
가족 구성	양부모	6,726	2.17	0.758	18.3	49.7	68.0	32.0	28.7	3.3	50.643*** (6)
	한부모	796	2.13	0.784	20.6	50.5	71.0	29.0	24.4	4.5	
	기타	120	2.45	0.917	15.1	39.0	54.1	45.9	31.6	14.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41.1%, 2010년 33.8%, 2012년 38.7%, 2023년 31.9%로 나타나, 일관되게 증가 또는 감소세를 보이기보다는 32~41%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신뢰한다는 반응이 2008년 41.1%에서 2023년 31.9%로 감소하였다. 신뢰는 집단적으로 공유된 일종의 사회자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웃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이러한 감소폭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2012년에는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7%를 차지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39.3%로 17.4%p 감소하였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은 "이웃"의 결과임.

그림 V-35. 이웃 어른 신뢰도(시계열 비교)

(5)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정치인(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은 17.1%(믿을 수 있다 14.7%+매우 믿을 수 있다 2.5%)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이 82.9%(믿을 수 없다 43.8%+전혀 믿을 수 없다 3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정치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신뢰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구성, 다문화 배경 여부에 따라 응답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정치인(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은 3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 13.7%, 고등학생 6.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크게

줄어들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상위집단 21.3%, 중간집단 14.0%, 하위집단 10.6%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 가정 16.7%, 한부모 가정 16.6%로 대동소이한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기타의 경우 41.8%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다문화 배경 여부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은 25.6%가 정치인(국회의원)을 신뢰한다고 답한 데 비해, 비(非)다문화 청소년은 16.8%로 8.8%p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표 V-69. 정치인(국회의원)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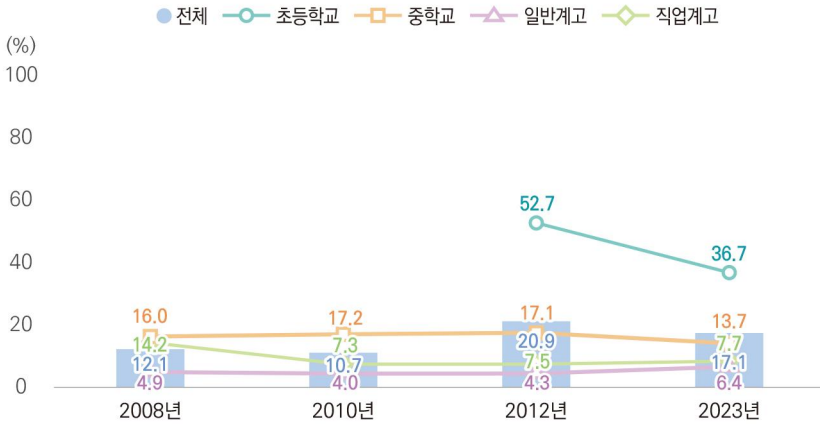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6	1.80	0.773	39.1	43.8	82.9	17.1	14.7	2.5	-	
성별	남학생	3,963	1.81	0.807	40.7	41.4	82.1	17.9	14.4	3.5	49.671*** (3)
	여학생	3,723	1.80	0.735	37.5	46.2	83.7	16.3	14.9	1.4	
학교급	초	1,990	2.21	0.827	20.9	42.5	63.3	36.7	31.6	5.0	928.800*** (6)
	중	2,940	1.76	0.727	39.8	46.5	86.3	13.7	11.9	1.7	
	고	2,756	1.56	0.658	51.5	41.8	93.3	6.7	5.3	1.3	
경제 수준	상	3,415	1.90	0.817	35.5	43.3	78.7	21.3	17.6	3.7	122.627*** (6)
	중	3,802	1.74	0.727	41.0	45.0	86.0	14.0	12.6	1.4	
	하	403	1.58	0.714	53.7	35.7	89.4	10.6	9.3	1.3	
가족 구성	양부모	6,729	1.79	0.762	39.4	43.9	83.3	16.7	14.6	2.1	111.750*** (6)
	한부모	795	1.81	0.792	38.8	44.6	83.4	16.6	13.1	3.6	
	기타	120	2.35	0.982	21.8	36.4	58.2	41.8	27.1	14.6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2.00	0.906	33.1	41.3	74.4	25.6	17.9	7.7	32.234*** (3)
	非다문화	7,366	1.80	0.767	39.4	43.8	83.2	16.8	14.5	2.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정치인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2008년 12.1%, 2010년 10.7%, 2012년 20.9%, 2023년 17.1%로, 일관된 증감패턴을 보이지 않고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모든 조사 시점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36. 정치인 신뢰도(시계열 비교)

(6) 언론에 대한 신뢰도

언론(TV, 신문)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35.7%(믿을 수 있다 32.7%+매우 믿을 수 있다 3.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64.3%(믿을 수 없다 43.3%+전혀 믿을 수 없다 20.9%)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5에 해당하는 20.9%의 청소년이 언론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언론을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42.9%, 중학생 36.3%, 고등학생 29.9%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신뢰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수준에 속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언론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37.5%를 차지한 반면, 중간집단 34.8%, 하위집단 27.4%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도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양부모 가정 35.9%, 한부모 가정 33.2%, 기타 42.1%로 나타나, 기타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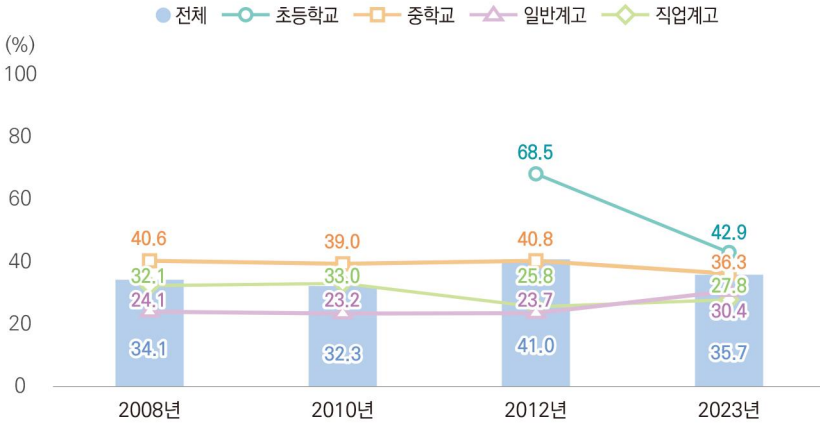
표 V-70. 언론(TV, 신문) 신뢰도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2	2.18	0.791	20.9	43.3	64.3	35.7	32.7	3.0	-	
성별	남학생	3,956	2.18	0.820	22.2	41.1	63.3	36.7	32.7	3.9	39.534*** (3)
	여학생	3,716	2.17	0.758	19.6	45.7	65.3	34.7	32.7	2.0	
학교급	초	1,989	2.33	0.768	14.2	42.8	57.1	42.9	38.7	4.2	140.309*** (6)
	중	2,933	2.19	0.792	20.6	43.1	63.7	36.3	33.2	3.2	
	고	2,750	2.06	0.785	26.2	44.0	70.1	29.9	27.9	2.0	
경제 수준	상	3,410	2.20	0.806	20.7	41.8	62.5	37.5	33.9	3.6	39.155*** (6)
	중	3,795	2.17	0.772	20.2	44.9	65.2	34.8	32.4	2.5	
	하	401	2.00	0.812	30.1	42.5	72.6	27.4	24.6	2.8	
가족 구성	양부모	6,717	2.17	0.785	21.0	43.1	64.1	35.9	33.2	2.6	50.247*** (6)
	한부모	795	2.17	0.789	20.2	46.7	66.8	33.2	29.3	3.9	
	기타	119	2.34	0.951	21.0	36.9	57.9	42.1	29.4	12.7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37. 언론 신뢰도(시계열 비교)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신뢰한다는 반응이 2008년 34.1%, 2010년 32.3%, 2012년 41.0%, 2023년 35.7%로 나타났다. 2008~2010년에 3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다소 상승했으나, 2023년 조사에서 30% 중반으로 낮아진 추이를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조사에서는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68.5%로 높게 나타났는데, 2023년에는 42.9%로 25.6%p 감소하였다.

(7)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도

앞서 TV, 신문 등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수준을 알아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최근 들어 정보를 유통하는 중요한 매체로 부각된 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보았다. 조사 결과, 인터넷정보(포털, 유튜브 등)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8.0%(믿을 수 있다 25.7%+매우 믿을 수 있다 2.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0%(믿을 수 없다 52.0%+전혀 믿을 수 없다 19.9%)로 나타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6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강한 불신을 표시한 응답 비율이 19.9%로 전체 응답자의 1/5을 차지했다. 앞서 언론(TV, 신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5.7%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청소년들은 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보다는 기존 언론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을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인터넷정보를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 33.7%, 여학생 22.0%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1.1%, 중학생 29.4%, 고등학생 24.4%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족구성의 경우, 양부모 가정(27.5%), 한부모 가정(29.8%)에 비해 기타 유형(43.3%)에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2008~2012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아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2020년 실시된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에 동일 항목이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0년 조사에서는 인터넷정보를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43.9%로 나타난 반면, 2023년에는 28.0%로 15.9%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청소년이 인터넷정보에 부여하는 신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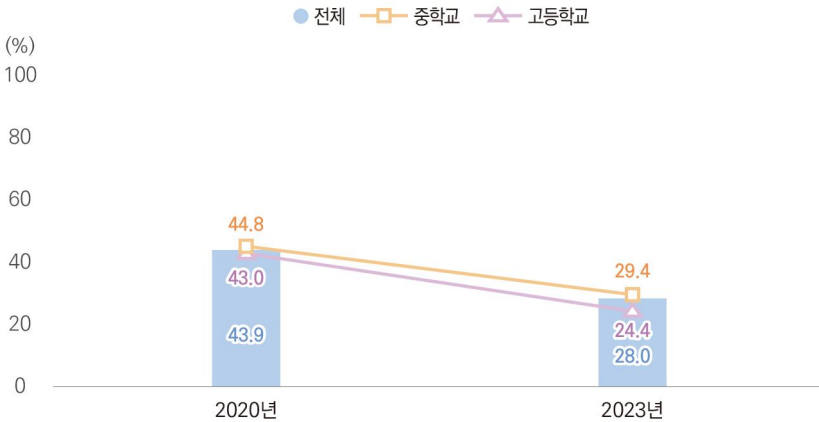
표 V-71. 인터넷정보(포털, 유튜브 등) 신뢰도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7	2.10	0.734	19.9	52.0	72.0	28.0	25.7	2.3	-	
성별	남학생	3,959	2.18	0.779	19.4	47.0	66.3	33.7	30.1	3.6	156.630*** (3)
	여학생	3,718	2.03	0.675	20.5	57.4	78.0	22.0	21.0	1.0	
학교급	초	1,984	2.17	0.725	16.5	52.4	68.9	31.1	28.4	2.6	50.680*** (6)
	중	2,940	2.13	0.735	19.1	51.5	70.6	29.4	27.0	2.4	
	고	2,752	2.03	0.734	23.3	52.3	75.6	24.4	22.3	2.1	
경제 수준	상	3,410	2.12	0.754	20.0	51.0	71.0	29.0	25.9	3.1	25.308*** (6)
	중	3,799	2.10	0.714	19.4	53.2	72.6	27.4	25.7	1.7	
	하	401	2.00	0.739	25.5	50.8	76.3	23.7	21.9	1.8	
가족 구성	양부모	6,722	2.09	0.723	20.1	52.4	72.5	27.5	25.6	1.8	128.993*** (6)
	한부모	795	2.15	0.756	18.2	52.0	70.2	29.8	26.0	3.8	
	기타	119	2.41	0.984	19.1	37.6	56.7	43.3	26.5	16.8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 주: 1) 2020년은 중1~고3, 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20년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2020)의 결과임.

그림 V-38. 인터넷정보 신뢰도(시계열 비교)

(8) AI에 대한 신뢰도

대상별 신뢰도의 마지막 항목으로 AI(챗GPT 등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표 V-7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40.2%(믿을 수 있다 34.7%+매우 믿을 수 있다 5.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8%(믿을 수 없다 42.6%+전혀 믿을 수 없다 17.2%)로 나타나, AI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AI(챗GPT 등 인공지능)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학생 44.8%, 여학생 35.3%로, 남학생이 9.5%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40.0%, 중학생 41.2%, 고등학생 39.3%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AI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도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상위집단 41.6%, 중간집단 39.4%, 하위집단 35.2%). 가족구성의 경우,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양부모 가정(39.9%) 및 한부모 가정(40.9%)에 비해 기타 유형(5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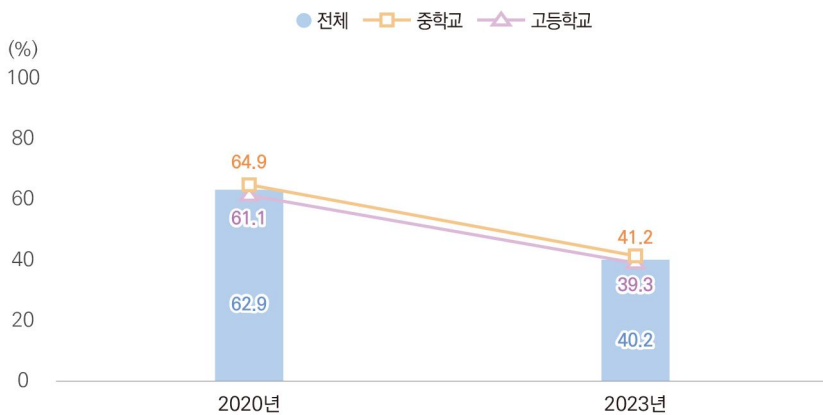
표 V-72. AI(챗GPT 등 인공지능) 신뢰도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4	2.28	0.811	17.2	42.6	59.8	40.2	34.7	5.5	-
성별	남학생	3,962	2.36	0.850	16.6	38.6	55.2	44.8	36.8	8.0	132.326*** (3)
	여학생	3,722	2.20	0.760	17.8	46.8	64.7	35.3	32.4	2.9	
학교급	초	1,990	2.31	0.807	15.6	44.4	60.0	40.0	33.7	6.3	14.796* (6)
	중	2,941	2.30	0.808	16.8	42.0	58.8	41.2	35.8	5.4	
	고	2,753	2.26	0.817	18.8	41.9	60.7	39.3	34.2	5.1	
경제 수준	상	3,415	2.30	0.826	17.5	40.9	58.4	41.6	35.5	6.1	17.988** (6)
	중	3,801	2.28	0.795	16.4	44.1	60.6	39.4	34.4	5.0	
	하	403	2.18	0.830	22.1	42.7	64.8	35.2	30.3	4.9	
가족 구성	양부모	6,727	2.28	0.806	17.5	42.6	60.1	39.9	34.9	5.0	27.072*** (6)
	한부모	796	2.34	0.819	14.8	44.3	59.1	40.9	33.4	7.5	
	기타	119	2.45	0.932	18.1	31.5	49.6	50.4	37.8	12.6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믿을 수 없다, ③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AI 항목도 앞서 살펴본 인터넷정보와 마찬가지로 2008~2012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고, 2020년 실시된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와 제한된 범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고 2020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2020년 조사에서는 AI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62.9%에 달한 반면, 2023년에는 40.2%로 크게 줄어들었다. 3년 전에 비해 AI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 주: 1) 2020년은 중1~고3, 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20년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2020)의 결과임.

그림 V-39. AI 신뢰도(시계열 비교)

3)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다음으로, 사회 내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았다.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빈부 갈등(69.8%), 남녀 갈등(61.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갈등 유형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먼저, 빈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8%(그렇다 51.8%+매우 그렇다 18.1%),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0.2%(그렇지 않다 26.5%+전혀 그렇지 않다 3.6%)로 나타나,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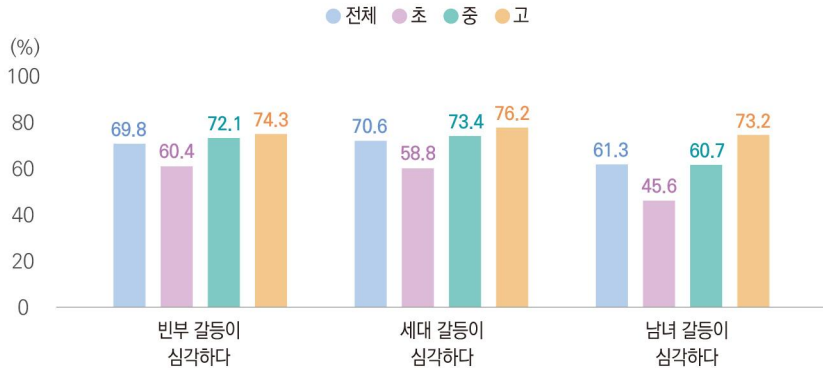


그림 V-40.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

표 V-73.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4	2.84	0.752	3.6	26.5	30.2	69.8	51.8	18.1	-	
성별	남학생	3,962	2.89	0.763	3.7	24.0	27.8	72.2	51.8	20.5	46.172*** (3)
	여학생	3,722	2.79	0.737	3.5	29.2	32.7	67.3	51.8	15.5	
학교급	초	1,993	2.69	0.782	5.8	33.7	39.6	60.4	46.5	13.9	140.479*** (6)
	중	2,936	2.87	0.733	3.1	24.8	27.9	72.1	54.0	18.0	
	고	2,755	2.93	0.733	2.5	23.2	25.7	74.3	53.2	21.1	
지역 규모	대도시	2,957	2.85	0.751	3.5	26.3	29.8	70.2	51.9	18.3	16.983** (6)
	중소도시	3,804	2.86	0.745	3.2	26.1	29.3	70.7	52.2	18.5	
	읍면지역	924	2.76	0.780	5.5	29.2	34.6	65.4	49.7	15.7	
경제 수준	상	3,413	2.83	0.777	4.2	27.3	31.5	68.5	49.4	19.1	39.683*** (6)
	중	3,803	2.84	0.728	3.1	26.8	29.9	70.1	53.6	16.5	
	하	403	2.99	0.753	3.4	18.4	21.8	78.2	53.6	24.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특히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경제수준 상위집단에 비해 중간집단 및 하위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6%(그렇다 50.4%+매우 그렇다 20.2%)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관계 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여학생(68.4%) 보다 남학생(72.6%)에게서 더 많았고, 학교급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초등학교 58.8%, 중학생 73.4%, 고등학교 76.2%).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상위집단 68.7%, 중간집단 71.4%, 하위집단 78.1%), 가족관계가

표 V-74.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77	2.88	0.756	3.0	26.4	29.4	70.6	50.4	20.2	-	
성별	남학생	3,956	2.91	0.762	3.2	24.2	27.4	72.6	50.9	21.8	26.774*** (3)
	여학생	3,721	2.84	0.748	2.8	28.7	31.6	68.4	50.0	18.5	
학교급	초	1,989	2.67	0.785	5.6	35.7	41.2	58.8	44.5	14.3	249.348*** (6)
	중	2,936	2.90	0.732	2.9	23.8	26.6	73.4	54.0	19.3	
	고	2,752	3.00	0.730	1.4	22.4	23.8	76.2	50.9	25.4	
지역 규모	대도시	2,955	2.87	0.759	2.8	27.5	30.3	69.7	49.3	20.4	9.454 (6)
	중소도시	3,798	2.89	0.756	3.1	25.1	28.2	71.8	51.2	20.6	
	읍면지역	924	2.83	0.748	3.3	27.8	31.1	68.9	51.1	17.8	
경제 수준	상	3,409	2.85	0.785	3.9	27.4	31.3	68.7	48.0	20.7	47.019*** (6)
	중	3,800	2.88	0.730	2.4	26.1	28.6	71.4	52.6	18.9	
	하	403	3.05	0.729	1.2	20.7	21.9	78.1	50.2	28.0	
가족 관계	상	2,686	2.87	0.814	4.5	27.2	31.7	68.3	45.4	22.8	96.350*** (6)
	중	2,332	2.84	0.744	2.6	29.3	31.9	68.1	49.9	18.2	
	하	2,655	2.92	0.702	1.9	22.9	24.8	75.2	56.0	19.2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좋거나 중간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가 좋지 못한 하위집단에서 세대 갈등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상위집단 68.3%, 중간집단 68.1%, 하위집단 75.2%). 가정 내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가 세대 갈등 문제로 투영되어 인식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61.3%(그렇다 41.1%+매우 그렇다 20.2%)로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세대 갈등과 마찬가지로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관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별의 경우,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여학생(57.0%)보다 남학생(65.3%)이 8.3%p 더 높게 도출되어, 남학생이 젠더 갈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급별로는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은 45.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학생

표 V-75.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3	2.76	0.832	5.4	33.3	38.7	61.3	41.1	20.2	-	
성별	남학생	3,961	2.85	0.862	5.5	29.2	34.7	65.3	40.0	25.4	155.871*** (3)
	여학생	3,721	2.66	0.788	5.2	37.8	43.0	57.0	42.4	14.6	
학교급	초	1,993	2.47	0.819	10.1	44.3	54.4	45.6	34.6	11.0	492.159*** (6)
	중	2,937	2.74	0.808	4.9	34.3	39.3	60.7	42.7	18.1	
	고	2,753	3.00	0.795	2.4	24.4	26.8	73.2	44.2	29.0	
지역 규모	대도시	2,958	2.75	0.848	5.9	34.0	39.8	60.2	39.5	20.7	12.629* (6)
	중소도시	3,800	2.78	0.823	4.8	32.7	37.6	62.4	42.0	20.4	
	읍면지역	925	2.72	0.818	5.9	33.9	39.8	60.2	42.8	17.3	
경제 수준	상	3,410	2.72	0.852	6.8	34.1	40.9	59.1	39.7	19.4	63.561*** (6)
	중	3,805	2.78	0.810	4.4	33.2	37.6	62.4	42.7	19.7	
	하	403	2.99	0.831	2.2	28.1	30.4	69.6	37.9	31.8	
가족 관계	상	2,685	2.73	0.891	7.8	33.2	41.1	58.9	36.9	22.0	102.559*** (6)
	중	2,334	2.72	0.817	5.1	36.2	41.3	58.7	40.6	18.1	
	하	2,660	2.83	0.778	3.1	31.0	34.1	65.9	45.9	20.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60.7%)과 고등학생(73.2%)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상위집단 59.1%, 중간집단 62.4, 하위집단 69.6%), 가족관계가 상위(58.9%) 또는 중간인 집단(58.7%)에 비해 관계가 좋지 못한 하위집단(65.9%)에서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4)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6점~10점)이 49.9%, '관심이 없다'는 응답(1점~5점)이 5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절반은 사회적 이슈, 쟁점,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절반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여학생(47.7%)보다 남학생(52.0%)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초등학생 45.0%, 중학생 46.3%, 고등학생 57.3%).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상위집단 58.7%, 중간집단 46.4%, 하위집단 42.0%).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 및 하위집단에 비해 중간집단에서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상위집단 52.4%, 중간집단 47.4%, 하위집단 54.3%).

앞서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다음 단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5.7%,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4.3%로 파악되었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사회·정치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중학생(31.7%)에게서 가장 낮았고, 초등학생(35.3%), 고등학생(4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상위집단 42.4%, 중간집단 33.3%, 하위집단 29.0%).

표 V-76.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관심 없다					매우 관심 있다					χ^2 (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7,678	5.31	2.502	10.1	6.3	8.9	11.3	13.5	50.1	49.9	15.0	15.9	8.9	4.5	5.5	-	
성별	남학생	3,957	5.46	2.579	10.7	5.4	7.8	10.5	13.6	48.0	52.0	14.4	15.6	10.0	4.8	7.2	84.025*** (9)
	여학생	3,721	5.15	2.407	9.5	7.1	10.2	12.1	13.3	52.3	47.7	15.7	16.3	7.8	4.2	3.7	
학교급	초	1,988	5.16	2.534	10.7	7.3	10.1	10.0	16.8	55.0	45.0	14.1	12.3	8.1	4.7	5.8	172.044*** (18)
	중	2,935	5.04	2.532	13.1	6.7	9.0	12.5	12.5	53.7	46.3	14.6	15.5	7.7	3.9	4.6	
	고	2,755	5.70	2.395	6.6	5.0	8.1	10.9	12.1	42.7	57.3	16.1	18.9	10.8	5.2	6.3	
학업 성취 수준	상	2,835	5.79	2.513	7.4	5.6	7.3	9.9	11.0	41.3	58.7	14.7	18.7	11.4	6.1	7.9	245.534*** (18)
	중	3,051	5.16	2.407	9.9	6.2	9.8	11.8	16.0	53.6	46.4	16.0	14.3	7.6	4.1	4.4	
	하	1,752	4.80	2.514	14.9	7.6	10.0	12.6	12.9	58.0	42.0	14.0	14.1	7.3	2.8	3.8	
경제 수준	상	3,409	5.45	2.564	10.4	5.9	8.0	9.9	13.3	47.6	52.4	14.9	16.1	9.5	5.4	6.6	66.312*** (18)
	중	3,802	5.18	2.423	9.7	6.6	9.8	12.4	14.0	52.6	47.4	14.9	16.0	8.3	3.7	4.4	
	하	403	5.42	2.660	11.1	6.4	9.5	10.7	8.0	45.7	54.3	17.3	13.4	10.7	5.6	7.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관심 없다 ↔ ⑩ 매우 관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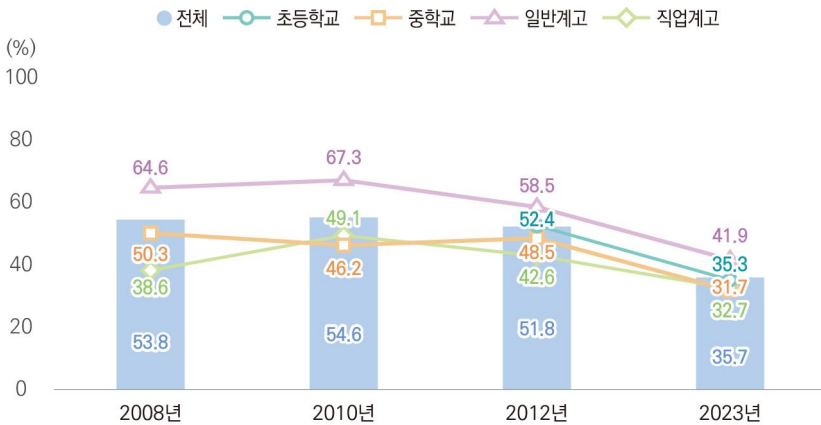
표 V-77.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df)	
전체	7,667	35.7	64.3	-	
성별	남학생	3,952	36.0	64.0	0.340 (1)
	여학생	3,715	35.3	64.7	
학교급	초	1,984	35.3	64.7	43.958*** (2)
	중	2,935	31.7	68.3	
	고	2,748	40.1	59.9	
학업 성취 수준	상	2,836	42.4	57.6	97.423*** (2)
	중	3,046	33.3	66.7	
	하	1,747	29.0	71.0	
경제 수준	상	3,407	37.9	62.1	16.382*** (2)
	중	3,796	33.5	66.5	
	하	403	38.2	61.8	

* 주: * α .05, ** α .01, *** α .001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2008년 53.8%, 2010년 54.6%, 2012년 51.8%로 나타나 대체로 50% 초중반 수준을 유지했던 데 비해, 2023년에는 35.7%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4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시계열 비교)

5) 국가관 및 역사관

(1) 국가관

청소년의 국가관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데는 전체 응답자의 89.5%가 동의하였고(그렇다 46.2%+매우 그렇다 43.3%),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10.5%에 그쳐(그렇지 않다 8.2%+전혀 그렇지 않다 2.2%),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교급의 경우,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96.4%,

중학생 90.8%, 고등학생 83.2%로 도출되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68.0%, 중학생 44.1%, 고등학생 24.6%로 나타나,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약 1/3 수준에 그쳤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상위집단 92.1%, 중간집단 88.6%, 하위집단 77.5%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도 감소하였다.

표 V-78.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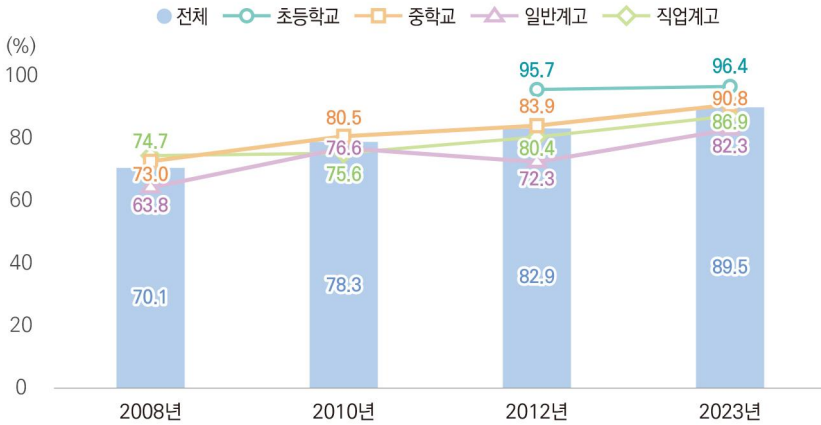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8	3.31	0.714	2.2	8.2	10.5	89.5	46.2	43.3	-	
성별	남학생	3,965	3.31	0.744	2.8	8.6	11.4	88.6	43.3	45.3	36.307*** (3)
	여학생	3,722	3.30	0.681	1.6	7.9	9.5	90.5	49.3	41.2	
학교급	초	1,990	3.64	0.578	0.8	2.8	3.6	96.4	28.4	68.0	935.058*** (6)
	중	2,942	3.33	0.699	2.1	7.0	9.2	90.8	46.7	44.1	
	고	2,755	3.04	0.716	3.3	13.5	16.8	83.2	58.6	24.6	
지역 규모	대도시	2,959	3.30	0.721	2.1	9.1	11.2	88.8	45.2	43.6	27.482*** (6)
	중소도시	3,802	3.29	0.719	2.5	8.2	10.7	89.3	47.7	41.7	
	읍면지역	927	3.41	0.666	1.5	5.6	7.1	92.9	43.8	49.1	
경제 수준	상	3,411	3.42	0.692	1.9	6.0	7.9	92.1	40.0	52.1	249.731*** (6)
	중	3,808	3.23	0.703	2.2	9.3	11.4	88.6	51.6	36.9	
	하	403	3.02	0.824	5.1	17.4	22.5	77.5	47.6	29.9	
다문화 배경	다문화	228	3.23	0.738	3.4	8.0	11.4	88.6	50.4	38.2	4.149 (3)
	非다문화	7,372	3.31	0.713	2.2	8.3	10.4	89.6	46.2	43.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시계열 추이를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데 동의한 응답 비율이 2008년 70.1%→2010년 78.3%→2012년 82.9%→2023년 89.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종단적 관점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이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끼는 수준은 강화되고 있다. 다만 횡단적 관점에서 보면,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강도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42.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시계열 비교)

다음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데는 85.4%(그렇다 45.1%+매우 그렇다 40.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정응답은 14.6%(그렇지 않다 11.0%+전혀 그렇지 않다 3.6%)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감지되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 86.0%, 여학생 84.7%로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남학생 44.8%, 여학생 35.6%로, 남학생이 9.2%p 더 높았다. 학교급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94.6%, 중학생 84.9%, 고등학생 79.3%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4%, 중학생 38.6%, 고등학생 26.9%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34.5%p 더 낮게 파악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상위집단 88.4%, 중간집단 84.1%, 하위집단 72.4%).

표 V-79.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91	3.22	0.780	3.6	11.0	14.6	85.4	45.1	40.3	-	
성별	남학생	3,968	3.27	0.797	4.0	10.0	14.0	86.0	41.2	44.8	78.286*** (3)
	여학생	3,723	3.17	0.758	3.2	12.1	15.3	84.7	49.2	35.6	
학교급	초	1,994	3.55	0.631	1.1	4.3	5.4	94.6	33.2	61.4	628.253*** (6)
	중	2,941	3.20	0.781	3.7	11.4	15.1	84.9	46.2	38.6	
	고	2,756	3.01	0.796	5.3	15.5	20.7	79.3	52.4	26.9	
지역 규모	대도시	2,959	3.23	0.777	3.6	10.5	14.1	85.9	44.9	41.1	9.204 (6)
	중소도시	3,805	3.20	0.790	3.9	11.5	15.4	84.6	45.3	39.3	
	읍면지역	927	3.27	0.741	2.3	10.6	12.9	87.1	44.7	42.4	
경제 수준	상	3,415	3.35	0.755	2.8	8.8	11.6	88.4	39.2	49.2	259.510*** (6)
	중	3,807	3.14	0.765	3.6	12.3	15.9	84.1	50.3	33.8	
	하	403	2.90	0.920	10.0	17.6	27.6	72.4	44.7	27.7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2	3.15	0.832	6.1	9.7	15.8	84.2	47.2	37.0	5.382 (3)
	非다문화	7,371	3.22	0.778	3.5	11.1	14.6	85.4	45.0	40.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역사관

〈표 V-80〉 및 〈표 V-81〉에는 청소년의 역사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데는 전체 응답자의 91.8%(그렇다 45.9%+매우 그렇다 4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집단별로는 그 강도와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88.9%)보다 여학생(94.9%)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97.0%, 중학생 92.3%, 고등학생 87.4%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7.6%가 ‘매우 그렇다’고 강한 긍정응답을 나타낸 데 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은 각각 43.8%와 32.2%에 머물렀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의 경우, 경제적 수준 상위집단 52.3%, 중간집단 41.3%, 하위집단 35.0%의 응답 분포를 나타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17.3%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표 V-80.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7	3.36	0.687	2.0	6.3	8.2	91.8	45.9	45.8	-
성별	남학생	3,965	3.32	0.750	3.1	8.0	11.1	88.9	43.1	45.7	109.752*** (3)
	여학생	3,722	3.40	0.610	0.7	4.4	5.1	94.9	48.9	45.9	
학교급	초	1,994	3.64	0.567	0.7	2.3	3.0	97.0	29.4	67.6	625.678*** (6)
	중	2,941	3.34	0.673	1.9	5.9	7.7	92.3	48.5	43.8	
	고	2,753	3.17	0.713	2.9	9.6	12.6	87.4	55.2	32.2	
지역 규모	대도시	2,957	3.37	0.692	2.2	5.6	7.8	92.2	45.1	47.1	15.241* (6)
	중소도시	3,804	3.34	0.690	1.9	6.8	8.8	91.2	47.0	44.2	
	읍면지역	926	3.40	0.657	1.1	6.2	7.3	92.7	44.3	48.4	
경제 수준	상	3,415	3.44	0.670	1.8	4.8	6.6	93.4	41.1	52.3	159.935*** (6)
	중	3,804	3.31	0.674	1.6	7.3	8.9	91.1	49.8	41.3	
	하	403	3.12	0.830	6.4	9.8	16.2	83.8	48.9	35.0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3.28	0.699	3.0	5.3	8.2	91.8	52.1	39.6	5.923 (3)
	非다문화	7,368	3.36	0.686	1.9	6.3	8.2	91.8	45.8	46.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는 59.1%(그렇다 38.2%+매우 그렇다 21.0%)의 청소년이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40.9%(그렇지 않다 34.2%+전혀 그렇지 않다 6.7%)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성별,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63.1%)이 여학생(54.9%)보다 8.2%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동의 비율이 초등학생 50.4%, 중학생 61.8%, 고등학생 62.6%로 나타나,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81.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80	2.73	0.865	6.7	34.2	40.9	59.1	38.2	21.0	-	
성별	남학생	3,961	2.81	0.878	6.5	30.4	36.9	63.1	38.8	24.3	79.449*** (3)
	여학생	3,720	2.65	0.844	6.9	38.3	45.1	54.9	37.5	17.4	
학교급	초	1,991	2.58	0.874	9.1	40.5	49.6	50.4	33.5	16.8	106.017*** (6)
	중	2,942	2.78	0.834	5.1	33.1	38.2	61.8	40.7	21.0	
	고	2,748	2.80	0.877	6.6	30.8	37.4	62.6	38.7	23.9	
지역 규모	대도시	2,957	2.76	0.861	6.3	33.3	39.6	60.4	38.9	21.5	4.607 (6)
	중소도시	3,802	2.73	0.868	6.8	34.7	41.5	58.5	37.6	20.9	
	읍면지역	921	2.70	0.863	7.2	35.3	42.5	57.5	38.1	19.4	
경제 수준	상	3,412	2.75	0.883	7.0	33.7	40.7	59.3	36.7	22.7	15.749* (6)
	중	3,800	2.72	0.846	6.4	34.7	41.1	58.9	39.6	19.3	
	하	403	2.74	0.887	7.5	33.2	40.7	59.3	37.2	22.1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2.81	0.884	6.8	29.7	36.5	63.5	39.0	24.5	2.965 (3)
	비다문화	7,361	2.73	0.865	6.7	34.4	41.1	58.9	38.1	20.9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6. 다문화 수용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 **(다문화 수용도)**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도 95.9%를 차지해, 청소년들은 비교적 높은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나타냈음.
- **(난민 수용)**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76.4%로, 반대 의견(23.6%)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남.
-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고,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라는 의견은 34.1%였음.
- **(통일관)**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2.5%를 차지했음.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통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25.8%), ‘정치적 혼란’(25.1%) 순으로 나타남.

1) 다문화 수용도

이 절에서는 다문화 수용도 및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귄 수 있다는 긍정응답이 95.9%(그렇다 47.5%+매우 그렇다 4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도 48.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것이 별다른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전반적인 긍정응답 비율은 남학생(94.5%)보다 여학생(97.4%)이 2.9%p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55.9%로 나타나, 남학생(41.3%)보다 14.6%p 더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상위집단 50.8%, 중간집단 46.8%, 하위집단 43.5%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의 강도가 더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감지되었는데,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친구를

사귌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양부모 가정 96.2%, 한부모 가정 95.2%, 기타 86.7%로 나타나, 기타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문화 배경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다문화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었다. 다문화 친구가 있는 청소년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55.2%로 과반에 달한 반면, 다문화 친구가 없는 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44.0%로 11.2%p 낮게 나타났다.

표 V-82.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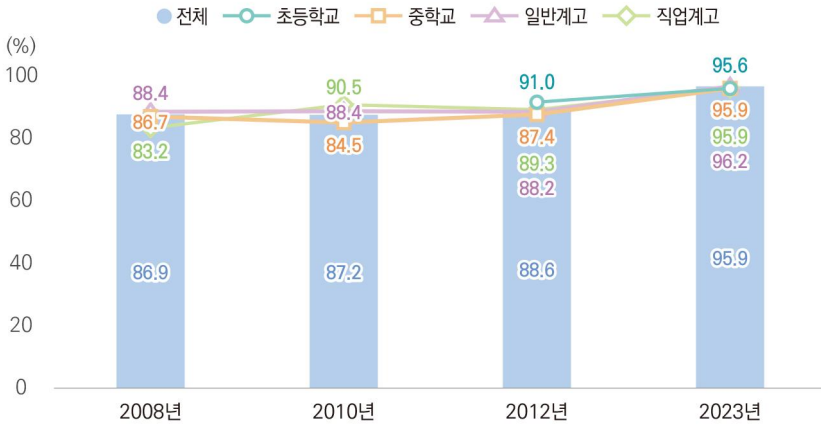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67	3.43	0.612	1.2	2.9	4.1	95.9	47.5	48.4	-
성별	남학생	3,946	3.34	0.630	1.5	4.0	5.5	94.5	53.2	41.3	178.014*** (3)
	여학생	3,720	3.53	0.576	0.8	1.8	2.6	97.4	41.5	55.9	
학교급	초	1,980	3.44	0.609	0.9	3.5	4.4	95.6	46.4	49.2	5.960 (6)
	중	2,938	3.42	0.615	1.3	2.8	4.1	95.9	48.2	47.7	
	고	2,749	3.43	0.610	1.2	2.6	3.9	96.1	47.6	48.6	
경제 수준	상	3,409	3.45	0.624	1.3	3.2	4.5	95.5	44.7	50.8	26.846*** (6)
	중	3,795	3.42	0.598	1.0	2.5	3.6	96.4	49.6	46.8	
	하	400	3.36	0.643	1.4	4.8	6.2	93.8	50.3	43.5	
가족 구성	양부모	6,728	3.44	0.604	1.0	2.8	3.8	96.2	47.2	48.9	41.105*** (6)
	한부모	798	3.40	0.622	1.3	3.4	4.8	95.2	49.5	45.8	
	기타	120	3.16	0.793	5.6	7.7	13.3	86.7	51.9	34.8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3.44	0.671	2.2	3.5	5.7	94.3	42.6	51.7	4.174 (3)
	非다문화	7,350	3.43	0.609	1.1	2.9	4.0	96.0	47.6	48.3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53	3.51	0.592	1.1	1.7	2.8	97.2	42.0	55.2	106.113*** (3)
	없음	4,577	3.38	0.619	1.2	3.7	5.0	95.0	51.1	44.0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이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귌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08년 86.9%→2010년 87.2%→2012년 88.6%→2023년 95.9%로 일관되게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다문화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학교급별로 미세한

범위에서나마 응답 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학교급과 무관하게 95~96%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2010년은 "다문화 청소년", 2012년/2023년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의 결과임.

그림 V-43.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친구로 사귄다(시계열 비교)

다음으로, <표 V-83>에는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귄 수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86.1%(그렇다 49.6%+매우 그렇다 36.5%), 사귀지 않겠다는 부정응답 비율은 13.9%(그렇지 않다 11.3%+전혀 그렇지 않다 2.6%)로 나타났다.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앞서 살펴본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비율(95.9%) 보다는 9.8%p 낮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남학생(83.6%)보다 여학생(88.8%)이 5.2%p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의 경우, 남학생 29.8%, 여학생 43.6%로, 여학생이 13.8%p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3.7%, 중학생 85.5%, 고등학생 88.6%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고(상위집단 84.2%,

중간집단 87.4%, 하위집단 90.0%),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양부모 가정(86.2%)과 한부모 가정(87.6%)에 비해 기타 유형(76.0%)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낮게 도출되었다. 다문화 친구 여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다문화 친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긍정응답 비율은 89.2%, 다문화 친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긍정응답 비율은 84.1%로 파악되었고, 특히 강한 긍정응답 비율에서는 약 10%p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V-83.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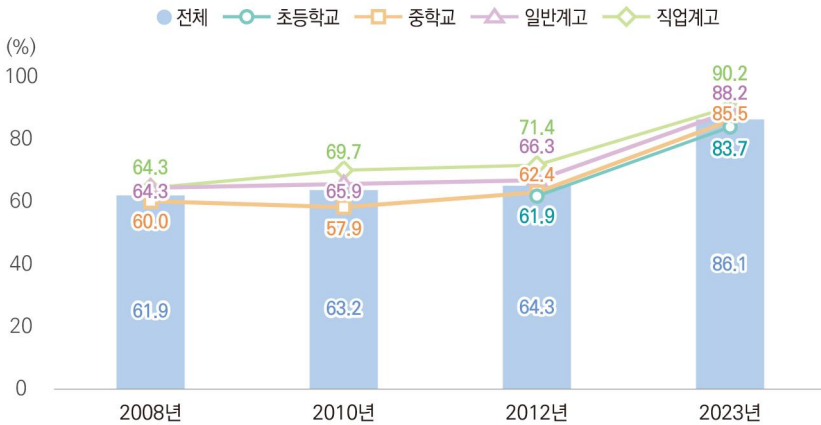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58	3.20	0.735	2.6	11.3	13.9	86.1	49.6	36.5	-	
성별	남학생	3,941	3.10	0.741	3.2	13.1	16.4	83.6	53.8	29.8	168.638*** (3)
	여학생	3,717	3.31	0.714	1.8	9.3	11.2	88.8	45.2	43.6	
학교급	초	1,976	3.13	0.732	2.5	13.8	16.3	83.7	52.4	31.3	58.814*** (6)
	중	2,935	3.19	0.739	2.5	12.0	14.5	85.5	49.3	36.2	
	고	2,747	3.26	0.728	2.7	8.8	11.4	88.6	48.0	40.5	
경제 수준	상	3,406	3.18	0.765	3.1	12.7	15.8	84.2	47.5	36.7	24.736*** (6)
	중	3,791	3.21	0.712	2.2	10.4	12.6	87.4	51.3	36.1	
	하	400	3.27	0.698	2.2	7.8	10.0	90.0	50.6	39.4	
가족 구성	양부모	6,720	3.20	0.734	2.5	11.3	13.8	86.2	49.5	36.7	13.367* (6)
	한부모	797	3.21	0.716	2.4	9.9	12.4	87.6	51.6	36.1	
	기타	120	3.01	0.837	5.2	18.8	24.0	76.0	46.0	30.0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3	3.24	0.738	2.4	10.7	13.1	86.9	47.0	39.8	1.076 (3)
	非다문화	7,342	3.20	0.735	2.6	11.3	13.9	86.1	49.7	36.5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48	3.29	0.714	2.1	8.7	10.8	89.2	46.7	42.4	89.365*** (3)
	없음	4,573	3.14	0.744	2.9	13.0	15.9	84.1	51.5	32.7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61.9%, 2010년 63.2%, 2012년 64.3%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조사에서는 86.1%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을 방증한다. 학교급별로는

조사 시점을 막론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2010년은 "다문화 청소년", 2012년/2023년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의 결과임.

그림 V-44.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시계열 비교)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95.9%(그렇다 46.8%+매우 그렇다 49.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는 데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나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동의하는 응답이 남학생 94.5%, 여학생 97.3%로 여학생이 2.8%p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은 남학생 44.4%, 여학생 54.1%로 여학생이 9.7%p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긍정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97.6%, 중학생 96.0%, 고등학생 94.5%로 나타난 가운데, 강한 긍정응답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55.0%, 중학생 48.0%, 고등학생 46.0%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동의수준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이 상위집단은 50.7%로 과반에 달한 반면, 중간집단 48.3%, 하위집단

44.3%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족구성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이 양부모 가정 96.2%, 한부모 가정 95.1%를 나타낸 반면, 기타 유형의 경우는 84.9%로, 전체 평균에 비해 11.0%p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문화 배경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 친구 유무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 친구가 없는 경우(46.2%)에 비해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53.8%)에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표 V-84.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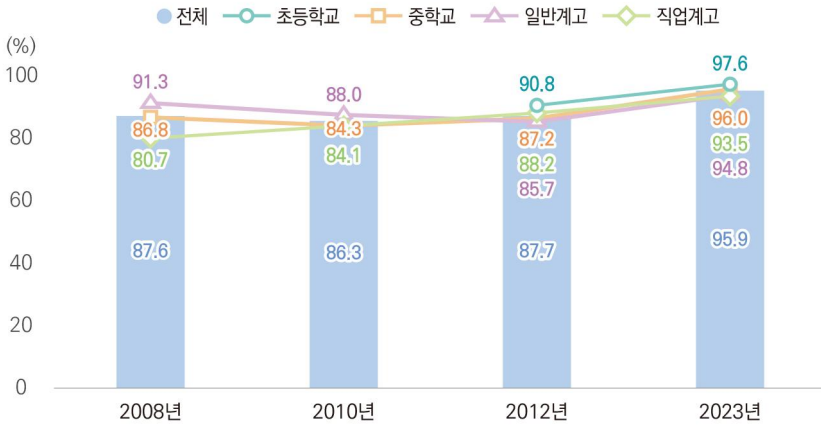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51	3.44	0.611	1.1	3.0	4.1	95.9	46.8	49.1	-	
성별	남학생	3,936	3.37	0.637	1.5	3.9	5.5	94.5	50.1	44.4	91.920*** (3)
	여학생	3,715	3.51	0.574	0.6	2.1	2.7	97.3	43.2	54.1	
학교급	초	1,973	3.52	0.558	0.3	2.1	2.4	97.6	42.6	55.0	62.867*** (6)
	중	2,928	3.43	0.604	1.0	3.1	4.0	96.0	47.9	48.0	
	고	2,749	3.39	0.647	1.8	3.7	5.5	94.5	48.5	46.0	
경제 수준	상	3,402	3.45	0.618	1.2	3.2	4.3	95.7	44.9	50.7	13.041* (6)
	중	3,787	3.43	0.603	1.0	3.0	4.0	96.0	47.8	48.3	
	하	401	3.38	0.625	1.8	2.3	4.1	95.9	51.6	44.3	
가족 구성	양부모	6,715	3.45	0.604	1.0	2.8	3.8	96.2	46.6	49.6	53.980*** (6)
	한부모	795	3.41	0.614	0.9	4.0	4.9	95.1	47.9	47.2	
	기타	121	3.15	0.829	6.4	8.6	15.1	84.9	48.9	36.0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2	3.46	0.641	2.0	2.1	4.1	95.9	43.8	52.1	3.718 (3)
	非다문화	7,336	3.44	0.610	1.1	3.0	4.1	95.9	46.8	49.1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47	3.49	0.608	1.2	2.5	3.7	96.3	42.5	53.8	44.220*** (3)
	없음	4,569	3.41	0.611	1.1	3.4	4.5	95.5	49.3	46.2	(3)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08년 87.6%, 2010년 86.3%, 2012년 87.7%, 2023년 95.9% 나타나, 2008~2012년에 비해 2023년에 동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 주: 1) 2008년/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3) 2008년/2010년은 "다문화 청소년", 2012년/2023년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의 결과임.
 4) 2008년/2010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 2012년은 "우리나라", 2023년은 "대한민국"의 결과임.

그림 V-45.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시계열 비교)

마지막으로, <표 V-85>에는 난민 수용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76.4%(그렇다 57.4%+매우 그렇다 19.0%), 반대하는 의견은 23.6%(그렇지 않다 18.8%+전혀 그렇지 않다 4.8%)로 나타나, 반대 입장보다 찬성 입장이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의 경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남학생(73.7%)에 비해 여학생(79.3%)이 5.6%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7.4%, 중학생 78.7%, 고등학생 66.0%의 긍정응답 비율을 나타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79.1%로, 다문화 친구가 없는 경우(7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V-85.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단위: 점,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부정			긍정			χ^2 (df)	
				①	②		③	④			
전체	7,634	2.91	0.749	4.8	18.8	23.6	76.4	57.4	19.0	-	
성별	남학생	3,933	2.85	0.781	6.4	19.9	26.3	73.7	56.0	17.7	59.850*** (3)
	여학생	3,701	2.97	0.710	3.1	17.6	20.7	79.3	58.8	20.5	
학교급	초	1,964	3.15	0.677	1.9	10.7	12.6	87.4	57.7	29.6	436.020*** (6)
	중	2,927	2.93	0.709	3.8	17.5	21.3	78.7	60.7	18.0	
	고	2,742	2.71	0.785	7.9	26.1	34.0	66.0	53.5	12.5	
경제 수준	상	3,394	2.93	0.779	5.3	18.3	23.6	76.4	54.8	21.7	38.030*** (6)
	중	3,779	2.89	0.718	4.2	19.2	23.3	76.7	59.8	16.9	
	하	400	2.85	0.783	6.3	20.4	26.7	73.3	55.4	17.8	
가족 구성	양부모	6,699	2.90	0.747	4.7	18.9	23.7	76.3	57.5	18.8	6.175 (6)
	한부모	794	2.92	0.751	4.9	17.6	22.4	77.6	57.7	19.8	
	기타	120	2.91	0.854	7.6	18.5	26.1	73.9	49.6	24.3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1	3.03	0.705	2.7	15.2	17.9	82.1	58.6	23.5	6.569 (3)
	비다문화	7,320	2.90	0.751	4.9	18.9	23.8	76.2	57.3	18.9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39	2.98	0.756	4.5	16.5	20.9	79.1	56.2	22.9	56.840*** (3)
	없음	4,559	2.86	0.742	5.0	20.4	25.4	74.6	58.1	16.5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

다음으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나라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미국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일본(31.1%), 북한(7.5%), 중국(3.3%), 러시아(1.9%) 순으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선택한 비율이 87.3%를 차지해, 이들 2개 국가에 대한 친숙도가 전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친숙하게 느끼는 국가 순위에는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은 미국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일본을 친숙하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학교급별 비교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가장 친숙한 나라로 미국을 택한 비율이 초등학생 75.5%, 중학생 56.2%, 고등학생 42.2%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미국에 대한 집중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생은 가장 친숙한 나라로 일본을 택한 응답 비율이 46.1%로 가장 많았고, 미국(42.2%)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배경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비(非)다문화 청소년은 친숙한 나라로 미국(56.7%), 일본(31.5%), 북한(7.5%), 중국(2.7%), 러시아(1.7%)의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다문화 청소년은 미국(39.8%), 중국(24.0%), 일본(22.9%), 북한(7.6%), 러시아(5.6%) 순으로 나타나,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친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내 다문화 학생의 부모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24.3%)이 베트남(32.4%)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86. 가장 친숙한 나라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χ^2 (df)
전체	7,643	56.2	31.1	7.5	3.3	1.9	-
성별	남학생	3,938	61.5	27.6	6.5	2.3	113.434*** (4)
	여학생	3,705	50.6	34.9	8.6	4.4	
학교급	초	1,975	75.5	11.9	7.0	3.2	668.659*** (8)
	중	2,929	56.2	30.1	7.9	3.7	
	고	2,739	42.2	46.1	7.4	3.0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1	39.8	22.9	7.6	24.0	344.924*** (4)
	非다문화	7,329	56.7	31.5	7.5	2.7	

*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변 국가 친밀도를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8년 40.1%, 2010년 51.9%, 2012년 69.5%로 증가하다가 2023년 56.2%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21.7%, 2010년 21.1%, 2012년 10.2%에서 2023년 31.1%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2008년 21.6%를 나타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7.5%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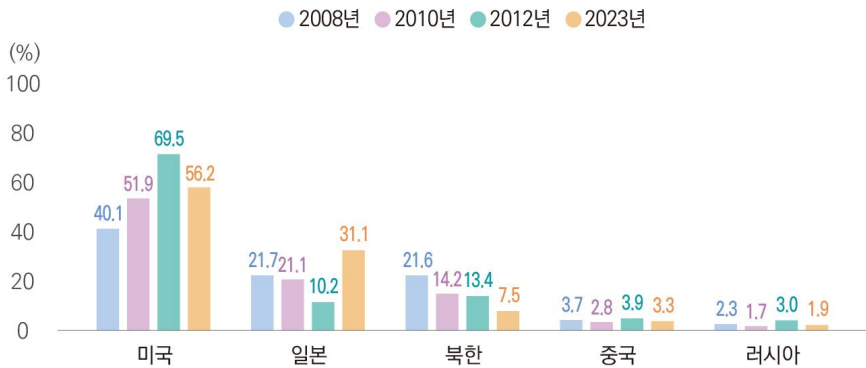


그림 V-46. 가장 친숙한 나라(시계열 비교)

3)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통일관

(1) 북한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34.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7.6%,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경계 대상이다' 7.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대상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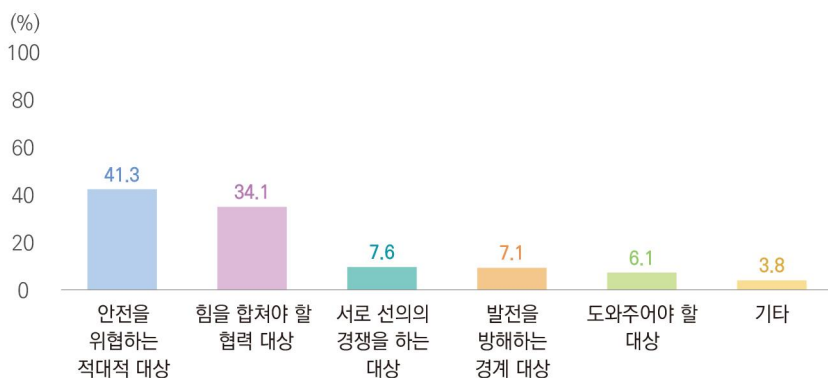


그림 V-47. 북한에 대한 인식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학교급에 따라 응답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교급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 V-87.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χ^2 (df)	
전체	7,504	6.1	34.1	7.6	7.1	41.3	3.8	-	
성별	남학생	3,882	6.1	32.6	5.8	8.2	43.5	3.9	64.651*** (5)
	여학생	3,622	6.0	35.7	9.6	6.0	39.0	3.8	
학교급	초	1,947	5.3	37.9	8.3	6.9	37.7	3.8	33.844*** (10)
	중	2,872	6.6	33.9	7.7	7.4	40.8	3.6	
	고	2,685	6.0	31.4	7.1	7.0	44.5	4.0	
다문화 배경	다문화	227	8.1	35.5	8.3	10.2	36.0	1.9	8.818 (5)
	非다문화	7,195	6.0	34.1	7.6	7.0	41.4	3.9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②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 ③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경계 대상이다, 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 ⑥ 기타

(2) 통일관

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2.5%로 뒤를 이었다.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은 2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기보다는, 서두를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우세함을 보여준다.

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학생은 24.7%에 그친 반면, 남학생은 34.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43.5%, 중학생 27.2%, 고등학생 21.8%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 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2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배 더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21.0%, 고등학생 40.9%). 다문화 배경 여부의 경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은 23.9%, 비(非)다문화 청소년은 32.7%로 나타나, 비(非)다문화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88. 통일 시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χ^2 (df)	
전체	7,684	29.5	38.0	32.5	-	
성별	남학생	3,959	34.0	35.6	30.4	80.868*** (2)
	여학생	3,726	24.7	40.6	34.7	
학교급	초	1,989	43.5	35.5	21.0	339.963*** (4)
	중	2,938	27.2	40.3	32.5	
	고	2,757	21.8	37.3	40.9	
다문화 배경	다문화	234	30.6	45.5	23.9	9.178* (2)
	非다문화	7,365	29.4	37.9	32.7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61	30.2	39.2	30.6	8.827* (2)
	없음	4,586	29.0	37.2	33.8	

* 주: * $p < .05$, ** $p < .01$, *** $p < .001$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얻게 될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19.2%,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17.9%,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12.4%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의견은 2.4%였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응답이 여학생(14.1%)에 비해 남학생(21.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응답은 남학생(16.0%)보다 여학생(22.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27.1%, 중학생 18.2%, 고등학교 14.5%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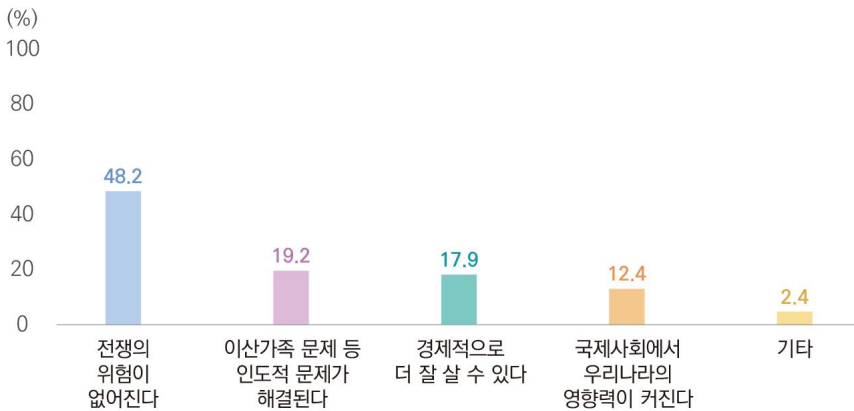


그림 V-48.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표 V-89.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χ^2 (df)	
전체	7,560	17.9	48.2	12.4	19.2	2.4	-	
성별	남학생	3,878	21.5	46.3	13.2	16.0	3.0	122.146*** (4)
	여학생	3,682	14.1	50.1	11.5	22.5	1.7	
학교급	초	1,956	17.1	46.6	6.2	27.1	3.0	205.832*** (8)
	중	2,899	19.5	47.2	12.9	18.2	2.2	
	고	2,705	16.9	50.3	16.2	14.5	2.1	
다문화 배경	다문화	229	20.6	43.4	13.0	22.0	0.9	5.196 (4)
	비다문화	7,247	17.8	48.4	12.3	19.1	2.4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3,010	17.6	46.3	12.3	21.4	2.4	17.632** (4)
	없음	4,513	18.1	49.5	12.5	17.6	2.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②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③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④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⑤ 기타

한편, 통일이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혼란’ 25.1%, ‘가치관의 차이’ 16.1%, ‘생활방식의 차이’ 14.0%, ‘언어생활의 차이’ 10.5%, ‘빈부격차 심화’ 7.1%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응답은 1.5%였다.

주요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학교급별 차이가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 19.1%, 중학생 25.0%, 고등학교 31.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차이’가 문제라는 응답도 초등학교는 9.4%에 그친 반면, 중학생 15.1%, 고등학교 22.0%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치관의 차이를 우려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초등학교는 ‘생활방식의 차이’, ‘언어생활의 차이’를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 배경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통일 후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로 ‘가치관의 차이’를 택한 응답자가 다문화 청소년은 22.0%인 데 비해, 비(非)다문화 청소년은 15.9%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비(非)다문화 청소년이 25.3%로 다문화 청소년(18.8%) 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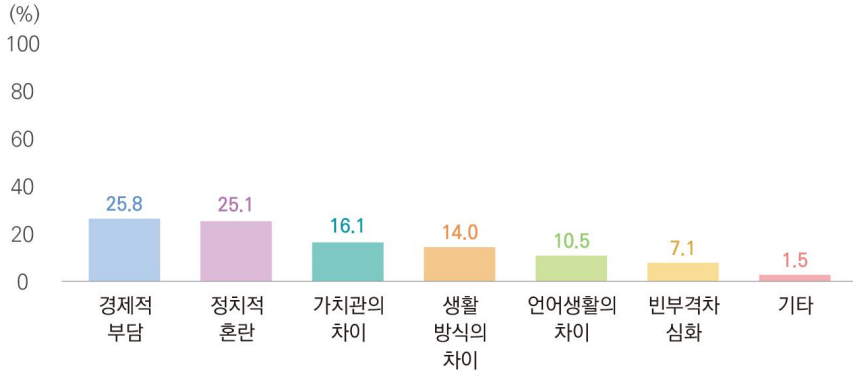


그림 V-49.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표 V-90.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df)	
전체	7,528	25.8	16.1	14.0	10.5	25.1	7.1	1.5	-	
성별	남학생	3,862	27.3	15.8	12.2	11.2	23.5	7.9	1.9	52.745*** (6)
	여학생	3,666	24.1	16.4	15.8	9.7	26.7	6.1	1.1	
학교급	초	1,943	19.1	9.4	20.8	21.0	21.9	5.0	2.8	657.792*** (12)
	중	2,887	25.0	15.1	13.1	9.3	27.7	8.4	1.4	
	고	2,698	31.4	22.0	10.0	4.2	24.5	7.1	0.7	
다문화 배경	다문화	226	22.3	22.0	13.1	14.5	18.8	8.0	1.4	14.522* (6)
	非다문화	7,220	25.9	15.9	14.0	10.3	25.3	7.1	1.5	
다문화 친구유무	있음	2,976	24.9	16.6	14.0	10.5	24.4	8.0	1.7	9.842 (6)
	없음	4,519	26.4	15.7	14.0	10.5	25.5	6.5	1.4	

* 주: 1) * α .05, ** α .01, *** α .001

2) ① 경제적 부담, ② 가치관의 차이, ③ 생활방식의 차이, ④ 언어생활의 차이, ⑤ 정치적 혼란, ⑥ 빈부격차 심화,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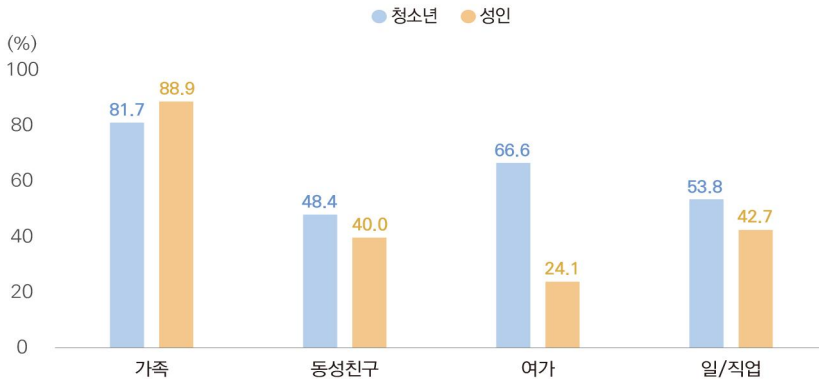


제6장 성인 세대와의 비교

- 1.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 2. 복지와 경쟁에 대한 관점
- 3.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4.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 5. 배우자 선택 기준
- 6. 나의 미래 결정 요인
- 7. 교육의 차등과 형평
- 8. 사회갈등에 대한 관점
- 9. 국가 및 역사에 대한 가치관
- 10. 주변 대상에 대한 신뢰
- 11.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
- 12.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점

1.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족, 친구, 이웃, 여가, 건강, 안전, 일/직업, 학력, 권력/사회적 지위, 돈과 같은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고, 이 중 가족, 친구, 여가, 일/직업에 대한 가치 평가 정도를 성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가장 최근의 「세계가치관조사」는 2017년~2020년에 세계 80개국에서 실시된 7차 조사인데 국내에서의 조사는 2018년에 실시되었다. 조사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그림 VI-1]와 <표 VI-1>에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족, 친구, 여가 일/직업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긍정응답 비율은 청소년 96.7%~99.0%, 성인 86.4%~99.7%로 상당히 높아, 여기서는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을 비교하였다.



* 주: 1)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가정, 친구, 여가생활, 직장 결과임.
2)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 비율임.

그림 V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세대 비교)

[그림 VI-1]을 살펴보면 성인은 청소년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 일/직업,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1.7%로 여전히 8할을 넘기는 높은 수치이지만 성인의 88.9%보다 7.2%p 낮고, 이 비율은 초등학생 89.4%, 중학생 79.8%, 고등학생 78.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족의 중요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중시하게 되는 가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표 VI-1>).

표 V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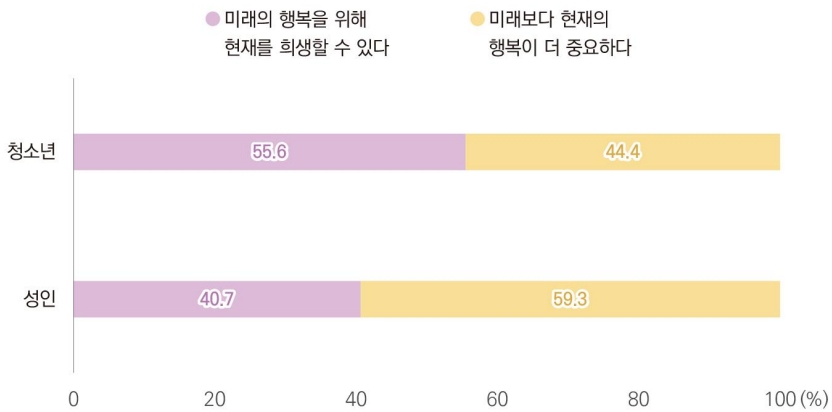
구 분	가족	동성친구	여가	일/직업
청소년	81.7	48.4	66.6	53.8
↳초등학생	89.4	42.4	62.1	47.7
↳중학생	79.8	49.8	64.3	53.2
↳고등학생	78.2	51.4	72.2	58.8
성인	88.9	40.0	24.1	42.7

* 주: 1)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가정, 친구, 여가생활, 직장 결과임.
2)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 비율임.

청소년 세대는 성인 세대에 비해 여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은 여가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24.1%에 그친 데 비해, 청소년은 66.6%가 여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42.5%p의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이 응답 비율은 초등학생 62.1%, 중학생 64.3%, 고등학생 72.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가를 중시하는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직업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청소년 53.8%, 성인 42.7%로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10%p 이상 높았고, 이 응답 비율도 여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47.7%, 중학생 53.2%, 고등학생 58.8%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일/직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친구의 중요성 또한 청소년 48.4%, 성인 40.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8.4%p 더 높았고, 청소년 세대 내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청소년 세대는 성인 세대에 비해 가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친구, 여가, 일/직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여가의 중요성은 청소년 66.6%, 성인 24.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는 개개인이 여가를 더욱 중시하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면, 성인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9.3%로 더 많았던 데 비해, 청소년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2. 현재의 행복 vs. 미래의 행복(세대 비교)

표 VI-2. 현재의 행복 vs. 미래의 행복(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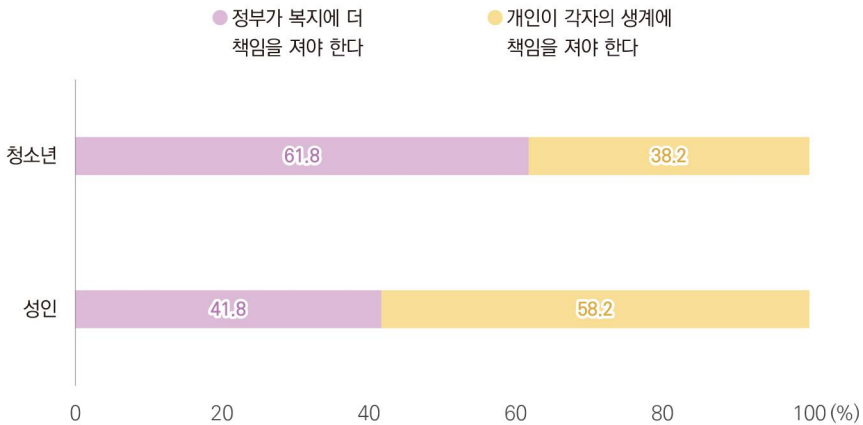
구 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	55.6	44.4
↳초등학생	55.5	44.5
↳중학생	55.7	44.3
↳고등학생	55.7	44.3
성인	40.7	59.3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55.6%로 더 많았다. 또한 이 응답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 결과는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로 해석하기보다는 청소년기가 생애주기 상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복지와 경쟁에 대한 관점

복지와 경쟁에 대한 관점을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간 비교하였다. 우선 복지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VI-3]과 <표 VI-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61.8%로 과반이었고, 성인은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58.2%로 과반이었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3. 복지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청소년 세대 내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54.3%, 중학생 63.1%, 고등학생 65.8%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응답 비율도 증가하여 이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복지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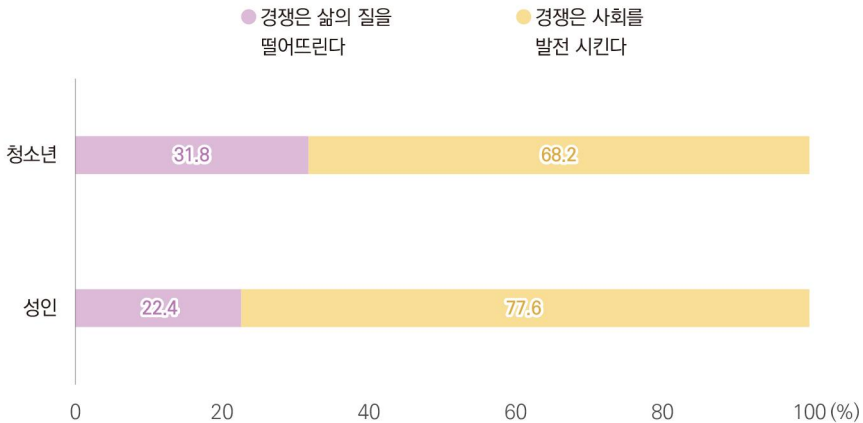
표 VI-3. 복지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단위: %)

구 분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청소년	61.8	38.2
↳초등학생	54.3	45.7
↳중학생	63.1	36.9
↳고등학생	65.8	34.2
성인	41.8	58.2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경쟁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에 더 동의하였다. 다만 응답 비율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성인은 77.6%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응답한 데 비해, 청소년은 68.2%의 응답 비율을 보여 9.4%p의 차이를 나타냈다. 대립되는 가치로 제시한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에 대해서는 청소년 31.8%, 성인 22.4%의 응답 비율을 보였고, 청소년들의 이러한 생각은 고등학생이 34.2%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30.5%에 비해 높았다. 이 결과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교육환경의 영향일 수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4. 경쟁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표 VI-4. 경쟁에 대한 생각(세대 비교)

(단위: %)

구 분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청소년	31.8	68.2
↳초등학생	30.5	69.5
↳중학생	30.5	69.5
↳고등학생	34.2	65.8
성인	22.4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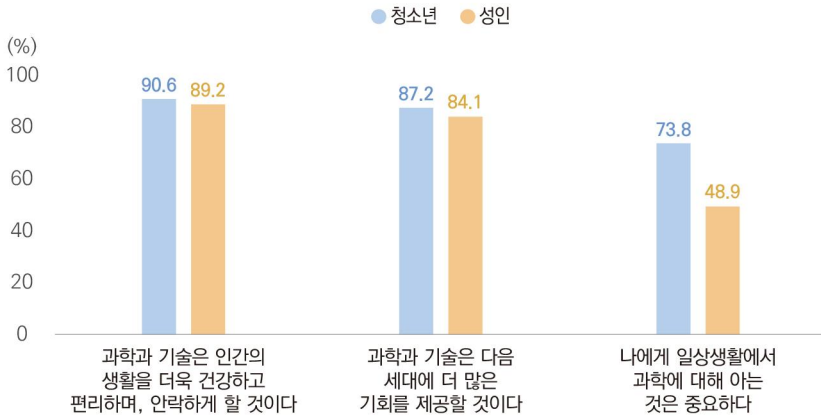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 비율도 성인의 응답 비율과는 8.1%p의 차이를 보인 바, 청소년들은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지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현대의 삶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고 성인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청소년의 90.6%, 성인의 89.2%가 동의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청소년 87.2%, 성인 84.1%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청소년이 73.8%인 데 비해, 성인은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고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결과임.

그림 VI-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세대 비교)

표 VI-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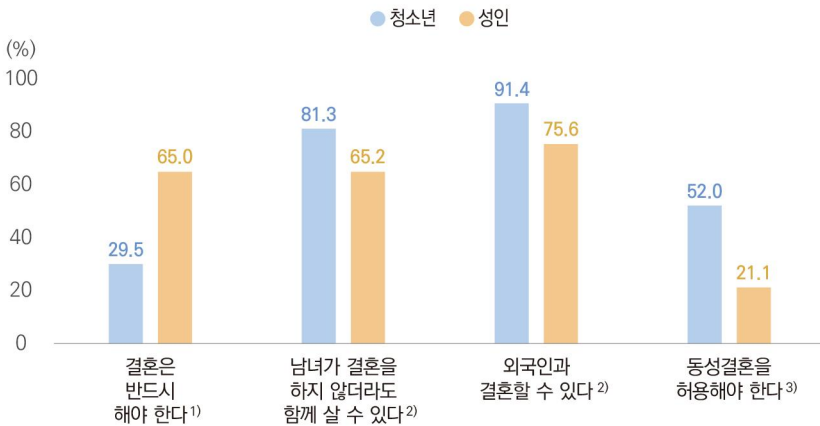
구분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락하게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	90.6	87.2	73.8
↳초등학생	85.6	88.0	75.1
↳중학생	90.8	85.7	71.2
↳고등학생	94.1	88.3	75.6
성인	89.2	84.1	48.9

* 주: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결과임.

4.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다음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을 성인 세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와 비혼동거, 국제결혼,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결과,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는 청소년

29.5%, 성인 65.0%가 동의하였고, 비혼동거에 대해서는 청소년 81.3%, 성인 65.2%,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청소년 91.4%, 성인 75.6%,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52.0%, 성인 21.1%가 긍정응답을 하였다. 청소년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성인보다 적고, 비혼동거, 국제결혼,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 청소년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합임.
 2) 성인은 「사회조사」(2022)의 결과임.
 3)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6. 결혼관(세대 비교)

청소년 세대 내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초등학생 28.0%, 중학생 29.1%, 고등학생 30.9%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혼동거와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미미하게 감소하였고,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동의 비율은 중학생이 5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52.9%, 초등학생 46.4%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결혼관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미미하게 보수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과 성인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도 세대 간 차이는 매우 커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6. 결혼관(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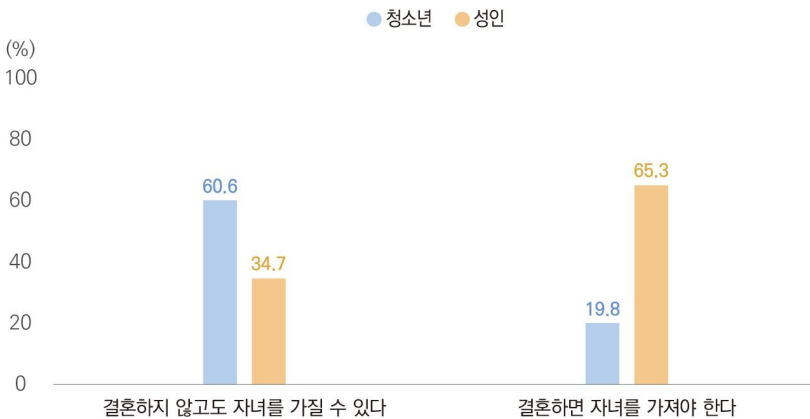
구 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¹⁾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²⁾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²⁾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³⁾
청소년	29.5	81.3	91.4	52.0
↳초등학생	28.0	81.7	92.7	46.4
↳중학생	29.1	81.6	91.6	55.0
↳고등학생	30.9	80.7	90.2	52.9
성인	65.0	65.2	75.6	21.1

* 주: 1) 청소년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합임.

2) 성인은 「사회조사」(2022)의 결과임.

3)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또한 자녀관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60.6%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은 19.8%에 불과하였다. 이는 성인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4.7%,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65.3%의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가족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 성인은 「사회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7. 자녀관(세대 비교)

자녀관에서도 결혼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다소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응답과의 차이는 매우 커서 결혼을 전제로 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I-7. 자녀관(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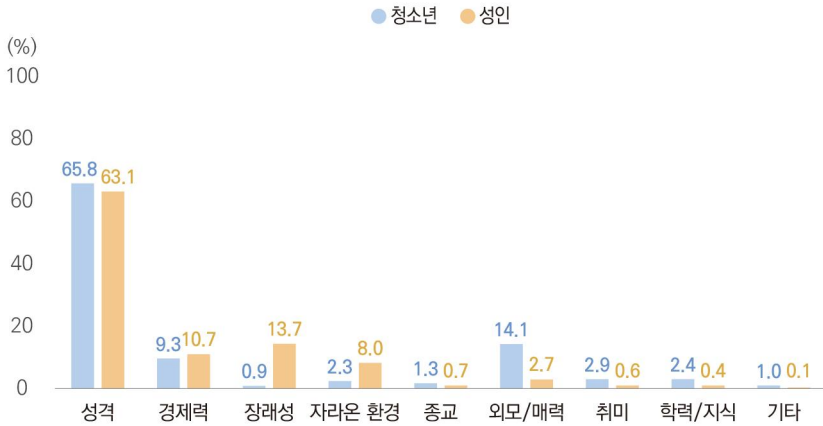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	60.6	19.8
↳초등학생	64.5	22.1
↳중학생	61.6	18.6
↳고등학생	56.9	19.3
성인	34.7	65.3

* 주: 성인은 「사회조사」(2022)의 결과임.

5. 배우자 선택 기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1순위로는 성격이라는 응답이 각각 65.8%와 63.1%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14.1%의 청소년은 외모/매력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성인은 장래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13.7%로 성격의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의 2순위인 외모/매력이 성인 세대의 응답에서는 2.7%에 불과하였고, 성인의 2순위인 장래성이 청소년 세대의 응답에서는 0.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장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청소년의 결과에 대한 시계열 추이에서도 최근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경제력으로 청소년의 9.3%, 성인의 10.7%가 경제력을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8. 배우자 선택 기준(세대 비교)

표 VI-8. 배우자 선택 기준(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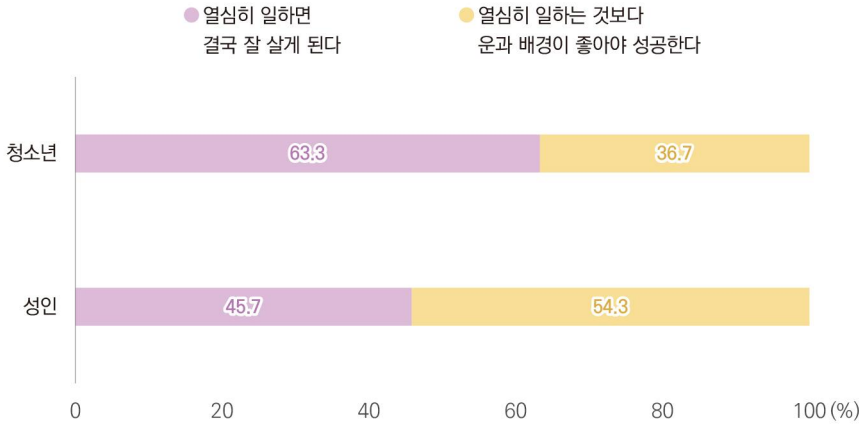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성격	경제력	장래성	자라온 환경	종교	외모/매력	취미	학력/지식	기타
청소년	65.8	9.3	0.9	2.3	1.3	14.1	2.9	2.4	1.0
↳초등학생	66.0	7.6	1.4	2.2	1.8	8.3	5.8	5.3	1.6
↳중학생	63.5	10.9	0.8	2.2	1.0	16.6	2.4	1.8	0.9
↳고등학생	68.1	8.7	0.8	2.6	1.2	15.8	1.2	1.0	0.7
성인	63.1	10.7	13.7	8.0	0.7	2.7	0.6	0.4	0.1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6.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동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청소년은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63.3%로 더 높았고, 성인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54.3%로 더 높았다.



* 주: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결과임.

그림 VI-9. 나의 미래 결정 요인(세대 비교)

표 VI-9. 나의 미래 결정 요인(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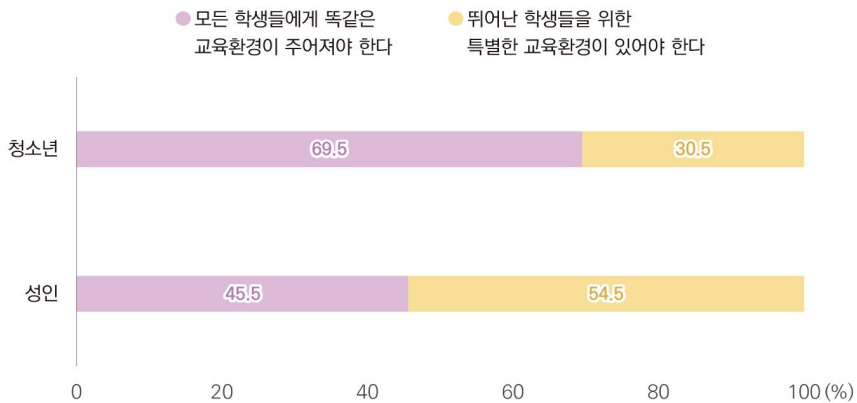
구분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청소년	63.3	36.7
↳초등학생	78.1	21.9
↳중학생	63.3	36.7
↳고등학생	52.6	47.4
성인	45.7	54.3

* 주: 성인은 「세계가치관조사」(2018)의 결과임.

청소년 세대 내에서의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이 초등학생 78.1%, 중학생 63.3%, 고등학생 52.6%로 학교급간 10%p 이상씩 감소하여 성인의 응답 비율인 45.7%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세대효과라기보다는 연령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宿命론적 사고가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교육의 차등과 형평

수월성과 형평성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상호 대립하는 가치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육 부문 가치관 비교를 위한 핵심 지표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한 세대 간 입장을 비교하였다. 먼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형평성 강조 입장은 청소년의 경우 69.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성인은 45.5%에 그쳤다. 반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수월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청소년은 30.5%에 그친 데 비해, 성인은 54.5%로 과반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교육의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은 교육의 수월성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0.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학교급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초등학생 78.2%, 중학생 69.1%, 고등학생 63.5%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강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반대로,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수월성 추구 입장은 초등학생 21.8%, 중학생 30.9%, 고등학생 36.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강화되며, 성인은 54.5%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

는 나이가 어릴 때는 형평성을 더 중시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가고 성인 세대로 접어들수록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10.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단위: %)

구 분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69.5	30.5
↳초등학생	78.2	21.8
↳중학생	69.1	30.9
↳고등학생	63.5	36.5
성인	45.5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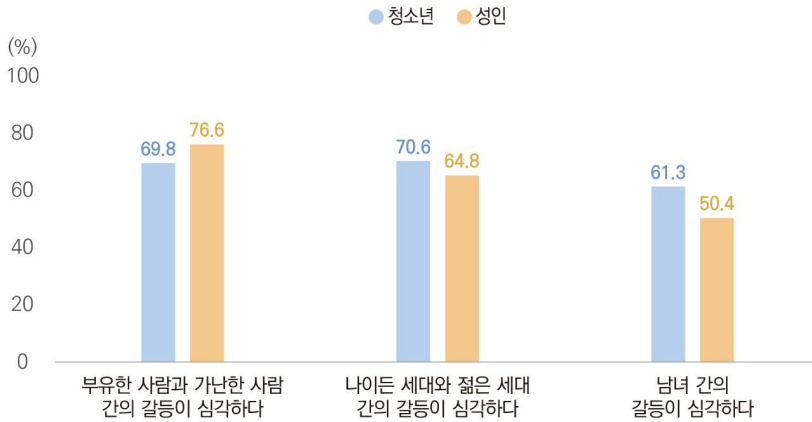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8. 사회갈등에 대한 관점

〈표 VI-11〉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집단 간 갈등인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청소년(69.8%)보다 성인(76.6%) 세대에서 더 많았고, 빈부 갈등을 제외한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청소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청소년 70.6%, 성인 64.8%로 청소년이 5.8%p 더 높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청소년 61.3%, 성인 50.4%로 청소년이 10.9%p 더 높았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학교급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 경향성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초등학생 60.4%, 중학생 72.1%, 고등학생 74.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도 증가한다. 이 문항에 대한 성인의 응답 비율은 76.6%로 높은 편이다. 반면,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의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중·고등학생이 더 높았고 성인 세대는

더 낮게 도출되었다. 예컨대 남녀 갈등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0.7%, 73.2%를 차지한 반면, 성인은 50.4%에 머물렀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1.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세대 비교)

표 VI-11.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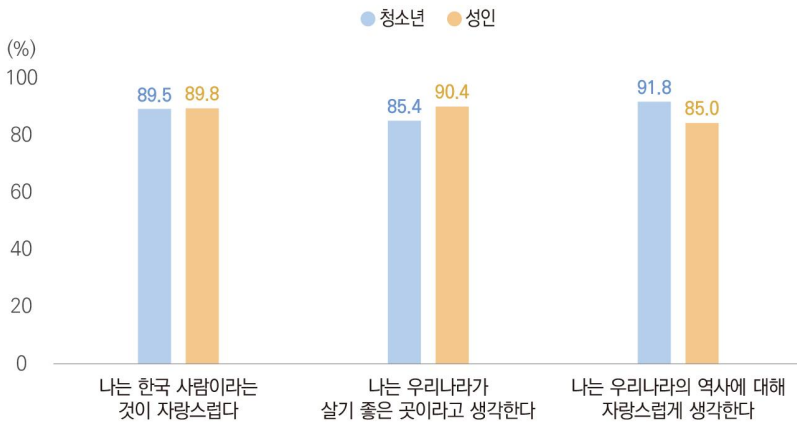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나이가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청소년	69.8	70.6	61.3
↳초등학생	60.4	58.8	45.6
↳중학생	72.1	73.4	60.7
↳고등학생	74.3	76.2	73.2
성인	76.6	64.8	50.4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9. 국가 및 역사에 대한 가치관

다음으로, <표 VI-12>와 [그림 VI-12]에는 국가관, 역사관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청소년 89.5%, 성인 89.8%로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데는 청소년 85.4%, 성인 90.4%가 동의하는 것으로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2. 국가관 및 역사관(세대 비교)

표 VI-12. 국가관 및 역사관(세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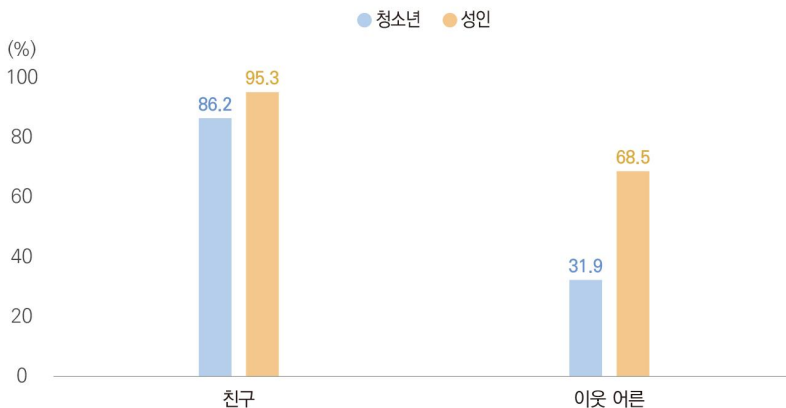
구 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청소년	89.5	85.4	91.8
↳초등학생	96.4	94.6	97.0
↳중학생	90.8	84.9	92.3
↳고등학생	83.2	79.3	87.4
성인	89.8	90.4	85.0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나타나, 성인 세대의 긍정응답 비율이 5.0%p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청소년 91.8%, 성인 85.0%로, 청소년이 6.8%p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비교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97.0%, 중학생 92.3%, 고등학생 87.4%, 성인 85.0%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 주변 대상에 대한 신뢰

〈표 VI-13〉와 〈그림 VI-13〉에는 청소년 주변 대상에 대한 신뢰도의 세대 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대상 중,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한 공통 항목으로 추출된 ‘친구’와 ‘이웃 어른’에 대한 응답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청소년 86.2%, 성인 95.3%로, 성인이 9.1%p 더 높게 나타났다.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 간 응답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 신뢰한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청소년은 31.9%에 그친 반면, 성인은 그 비율이 68.5%로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세대에 비해 청소년이 이웃을 중심으로 한 사회자본이 미약한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3. 대상별 신뢰도(세대 비교)

표 VI-13. 대상별 신뢰도(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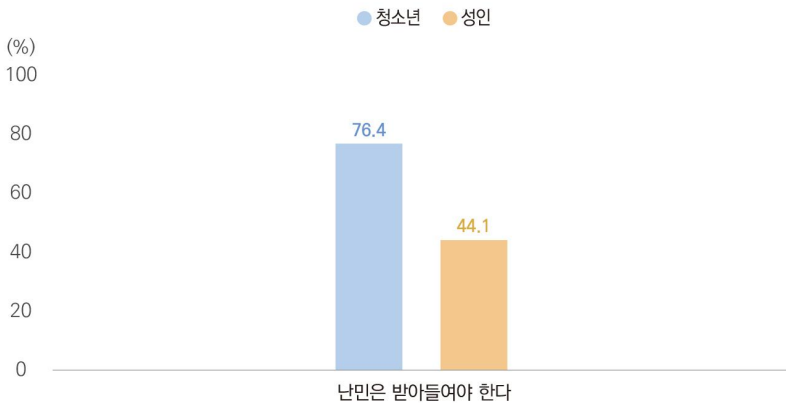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친구	이웃 어른
청소년	86.2	31.9
↳초등학생	86.6	39.3
↳중학생	85.4	32.4
↳고등학생	86.9	26.2
성인	95.3	68.5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11.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

[그림 VI-14]에는 난민 수용 입장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청소년은 76.4%로 나타난 반면, 성인은 그 비율이 44.1%에 그쳐 청소년에 비해 32.3%p 더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87.4%, 중학생 78.7%, 고등학생 66.0%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성인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44.1%까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난민 수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난민 수용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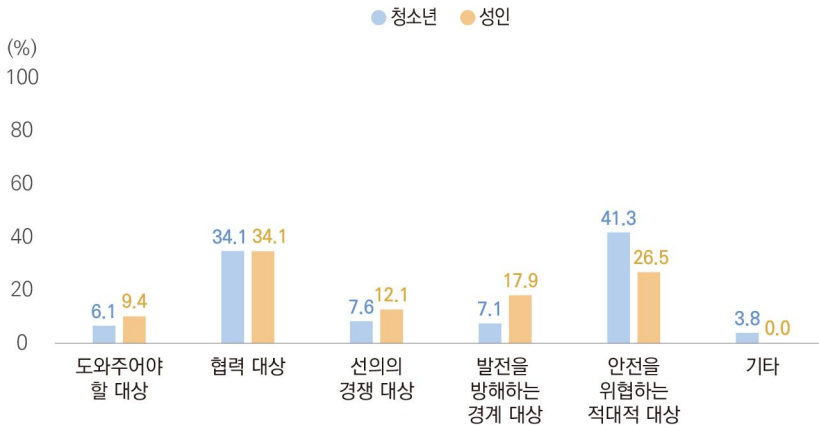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4. 난민 수용도(세대 비교)

12.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결과, 청소년 세대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성인 세대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우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세대에 비해 청소년 세대에서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5. 북한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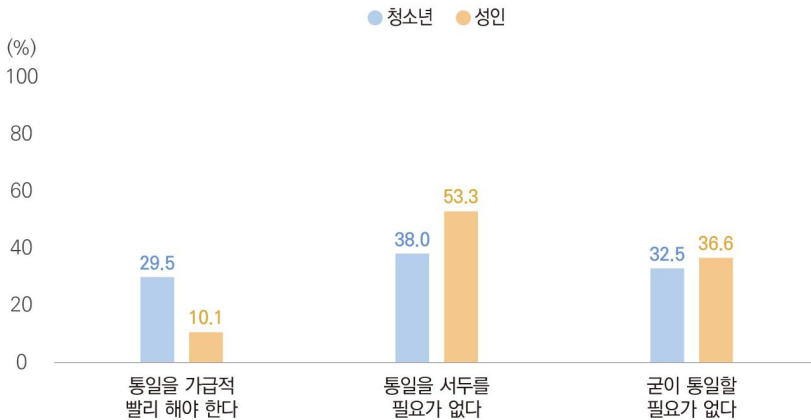
표 VI-14. 북한에 대한 인식(세대 비교)

(단위: %)

구분	도와주어야 할 대상	협력 대상	선의를 경쟁 대상	발전을 방해하는 경계 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	기타
청소년	6.1	34.1	7.6	7.1	41.3	3.8
↳초등학생	5.3	37.9	8.3	6.9	37.7	3.8
↳중학생	6.6	33.9	7.7	7.4	40.8	3.6
↳고등학생	6.0	31.4	7.1	7.0	44.5	4.0
성인	9.4	34.1	12.1	17.9	26.5	0.0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통일 시기에 대한 세대 간 의견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공통적이지만,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은 그 비율이 38.0%로 나타난 반면, 성인은 53.3%로 과반을 차지해, 청소년보다 15.3%p 더 높게 나타났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청소년 32.5%, 성인 36.6%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은 청소년 29.5%, 성인 10.1%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3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6. 통일 시기(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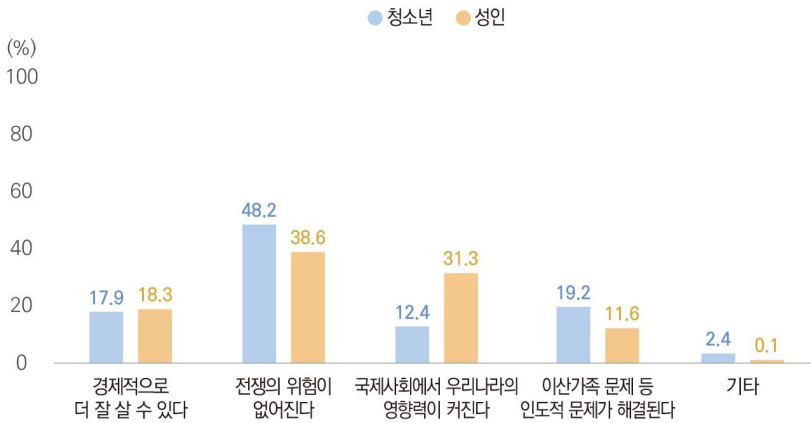
통일 시기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 결과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43.5%, 중학생 27.2%, 고등학생 21.8%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약 3배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의 응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이가 들수록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5. 통일 시기(세대 비교)

(단위: %)

구 분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청소년	29.5	38.0	32.5
↳초등학생	43.5	35.5	21.0
↳중학생	27.2	40.3	32.5
↳고등학생	21.8	37.3	40.9
성인	10.1	53.3	36.6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7.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세대 비교)

예상되는 통일 이후 장점에 대한 세대 간 비교 결과, '전쟁의 위험이 없다진다'는 응답이 청소년 48.2%, 성인 38.6%로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응답이 19.2%로 2순위를 차지한 반면, 성인은 해당 응답이 11.6%로 4순위에 그쳤다. 그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응답의 경우, 청소년은 12.4%로 4순위로 도출되었으나, 성인은 31.3%로 2순위를 차지했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청소년과 성인이 대등소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청소년 17.9%, 성인 18.3%).

청소년과 성인의 응답 양상이 달리 나타났던 문항을 중심으로 세대 간 차이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통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선택한 비율은 초등학생 27.1%, 중학생 18.2%, 고등학생 14.5%로,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성인의 경우에는 11.6%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견은 초등학생 6.2%, 중학생 12.9%, 고등학생 16.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성인 세대에서는 31.3%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VI-16.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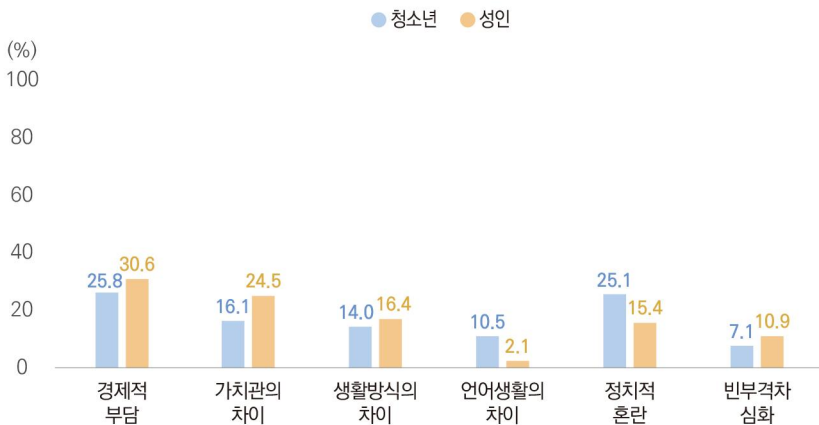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기타
청소년	17.9	48.2	12.4	19.2	2.4
↳초등학생	17.1	46.6	6.2	27.1	3.0
↳중학생	19.5	47.2	12.9	18.2	2.2
↳고등학생	16.9	50.3	16.2	14.5	2.1
성인	18.3	38.6	31.3	11.6	0.1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통일의 가장 큰 효용이라는 데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 세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실질적 측면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통일의 효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면, 이어서 통일의 비효용에 대한 세대 간 의견을 비교해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세대 모두 ‘경제적 부담’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청소년 25.8%, 성인 30.6%), 청소년은 ‘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5.1%로 2순위로 도출된 반면, 성인은 15.4%로 4순위에 그쳤다. 그에 비해 ‘가치관의 차이’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청소년은 16.1%로 3순위에 그쳤으나, 성인은 24.5%로 2순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그 밖에 ‘언어생활의 차이’가 가장 우려된다는 응답이 청소년은 10.5%를 차지한 반면, 성인은 2.1%로 매우 낮게 도출된 점도 대조를 이룬다.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그림 VI-18.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세대 비교)

청소년과 성인의 응답 양상에 차이가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우려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9.4%, 중학생 15.1%, 고등학생 22.0%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성인 세대의 응답 비율은 24.5%로, 청소년(16.1%)보다 8.4%p 더 높다. 반면, '언어생활의 차이'가 가장 걱정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은 21.0%로 높은 편이지만, 중학생 9.3%, 고등학생 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성인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과 성인 세대 모두 통일 후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치적 혼란', '언어생활의 차이'를 우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 VI-17.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세대 비교)

(단위: %)

구 분	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언어생활의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청소년	25.8	16.1	14.0	10.5	25.1	7.1
↳초등학생	19.1	9.4	20.8	21.0	21.9	5.0
↳중학생	25.0	15.1	13.1	9.3	27.7	8.4
↳고등학생	31.4	22.0	10.0	4.2	24.5	7.1
성인	30.6	24.5	16.4	2.1	15.4	10.9

* 주: 성인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의 결과임.

○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주요 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 3.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관을 폭넓게 파악하여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광범한 선행연구 검토, 반복적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의 초5~고3 청소년 약 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보다 명징하게 파악하려면,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어떠한 차이와 변화의 흐름을 보이는지, 또 성인 세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수행된 2008년, 2010년, 2012년, 2020년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용 범위 내에서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주로 활용하되, 조사 내용에 따라 통계청이 수집하는 「사회조사」, 국제비교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등 여타 가용 데이터도 폭넓게 활용하였다.

이 절에서는 상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발견점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1) 인생관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도를 ‘매우 중요하다’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81.7%, 건강 78.7%, 안전 75.8%, 여가 66.6%, 돈 64.4% 순임.
- 2008년, 2010년, 2012년 조사결과에 비해 가족, 친구 등 주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낮아지고, 여가, 돈 등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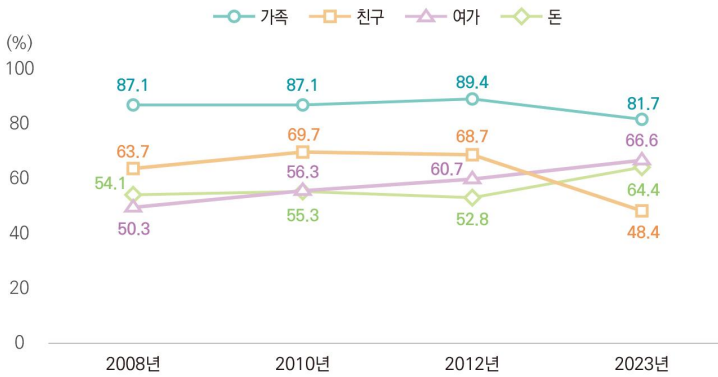


그림 VII-1. 다양한 가치의 중요도

-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의 89.8%는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2.4%는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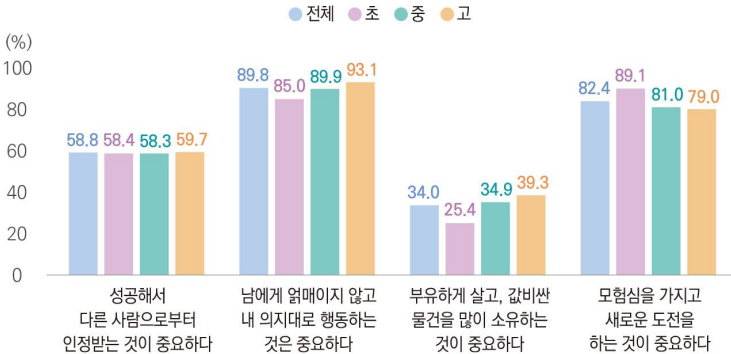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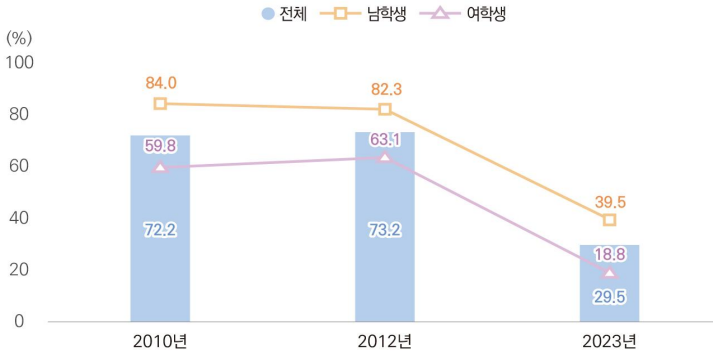


그림 VII-2. 성공과 부에 대한 가치관

2) 가족관

○ **(결혼관)** 청소년의 29.5%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 성별(남 39.5%, 여 18.8%) 차이가 있고, 2010년(72.2%)과 2012년(73.2%)에 비해 급감함.



* 주: 1) 2010년은 중1~고3, 2012년/2023년은 초5~고3의 결과임.
2) 2010년 결과에는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VII-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자녀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하였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응답은 19.8%에 불과하였음.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성차(남 27.8%, 여 11.2%)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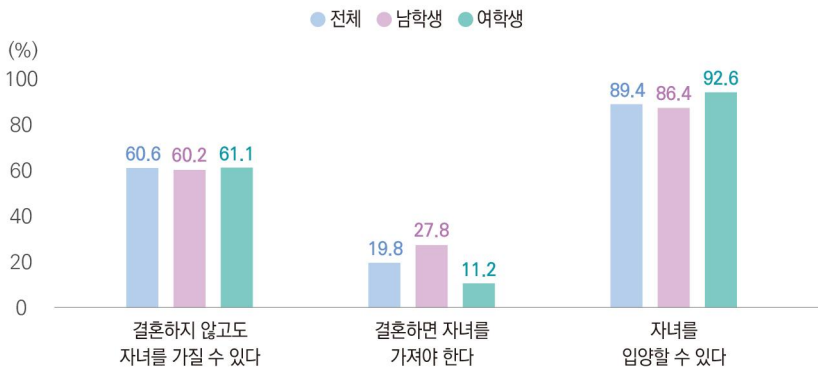


그림 VII-4. 자녀관

○ **(가족의 범주)** 청소년의 95.6%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61.4%는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3) 직업관·미래관

- **(직업관)** 청소년의 91.5%는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84.3%는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함. 92.9%는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35.4%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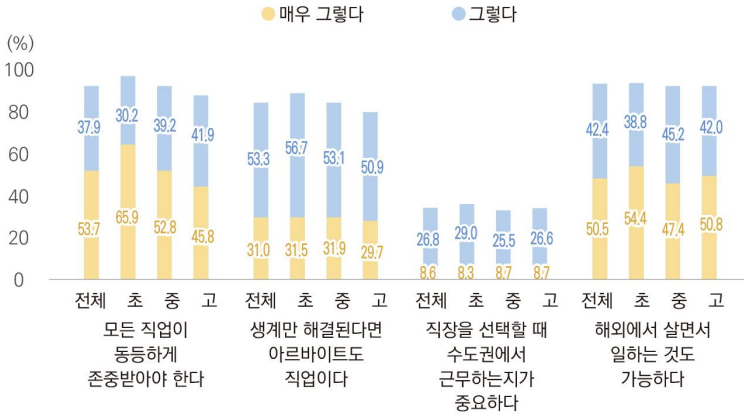


그림 VII-5. 직업관

- **(나의 미래 결정 요인)** 청소년의 63.3%는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음.

- 경제수준 하위집단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의견에 더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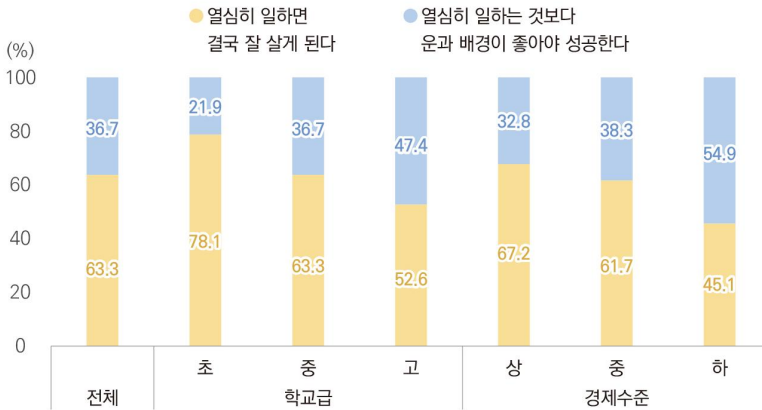


그림 VII-6. 나의 미래: 열심히 일 vs. 운과 배경

4) 교육관

- **(교육의 수월성 vs. 형평성)**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형평성 중시 의견이 69.5%로 다수를 차지했고,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수월성 지지 의견은 30.5%로 나타남.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형평성을 중시하는 의견은 감소하고, 수월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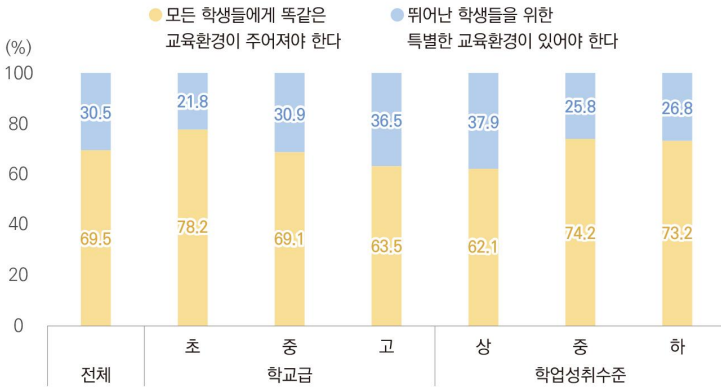


그림 VII-7.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 **(학력주의 가치관)** 청소년의 81.4%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5.9%는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36.3%에 그침.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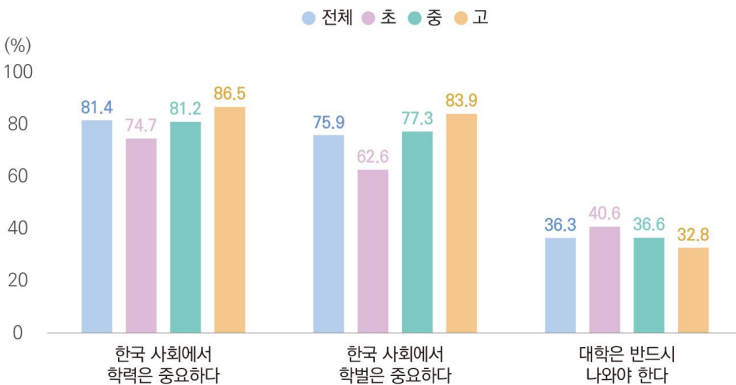


그림 VII-8. 학력주의 가치관

5)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국가관·역사관

- **(능력주의)**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10명 중 4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능력주의에 동조하는 의견은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능력주의 성향이 강한 경향을 나타냄(초등학생 38.6%, 중학생 61.2%, 고등학생 77.1%)
-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낸 청소년은 55.4%로 나타나, 2012년 조사결과(66.1%)에 비해 10.7%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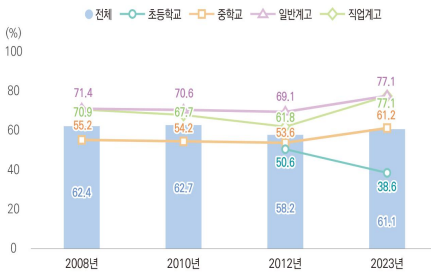


그림 Ⅷ-9. 능력주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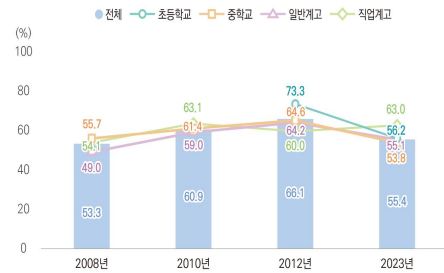


그림 Ⅷ-10. 집단주의 성향

- **(국가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008년 70.1%, 2010년 78.3%, 2012년 82.9%에 이어 2023년 89.5%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역사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6명은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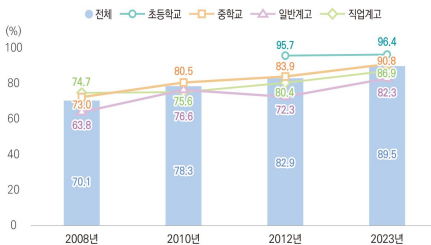


그림 Ⅷ-1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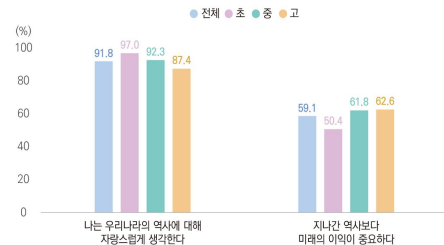


그림 Ⅷ-12. 역사관

6) 다문화 수용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

- **(다문화 수용도)**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 86.9%, 2012년 88.6%에 이어 일관되게 증가함.
 -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도 95.9%를 차지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응답 비율이 증가함.
- **(난민 수용)**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76.4%로, 반대 의견(23.6%)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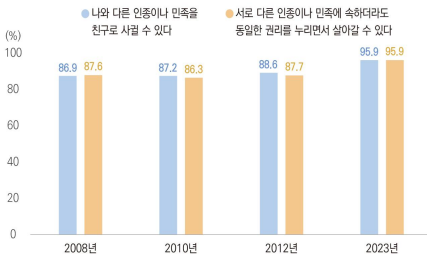


그림 VII-13. 다문화 수용도



그림 VII-14. 난민 수용 동의

- **(통일관)**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2.5%를 차지했음.
 - 통일의 기대 효과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통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25.8%), '정치적 혼란'(25.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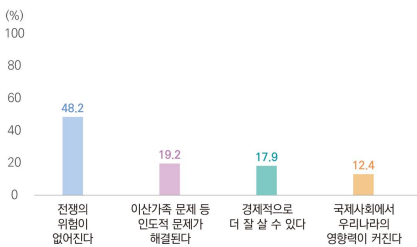


그림 VII-15.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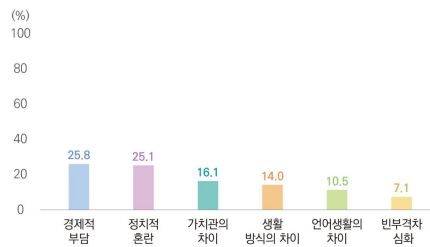


그림 VII-16.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7) 성인 세대와의 비교

-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청소년과 성인이 유사하였으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 일/직업,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결혼관 및 자녀관)** 청소년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성인보다 적고, 비혼동거, 비혼 자녀출산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용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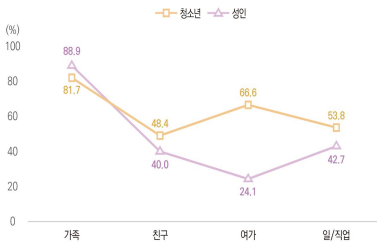


그림 VII-17.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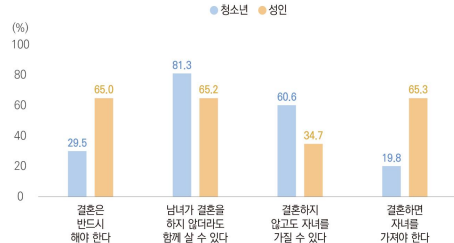


그림 VII-18. 결혼관 및 자녀관

- **(미래 결정 요인)** 성인 세대는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청소년은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살게 된다'는 인식이 63.3%로 더 높게 나타남.
- **(교육의 수월성 대 형평성)** 성인 세대는 교육의 수월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았으나, 청소년은 형평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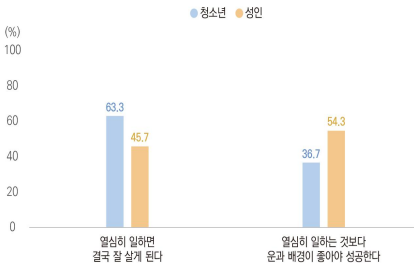


그림 VII-19. 미래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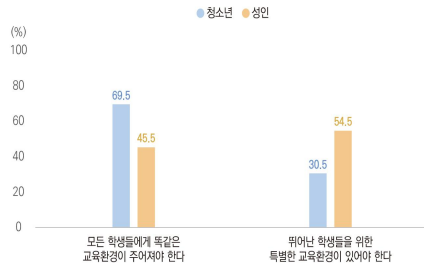


그림 VII-20. 교육의 수월성 vs. 형평성

2.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도출

여기에서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조사 결과 및 2차 자료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분야별 집중 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분야 전반 및 정책 전문가 2인, 교육 분야 전문가 3인, 복지/사회분야 2인, 가족정책 분야 1인, 진로정책 분야 1인, 통일정책·통일교육 분야 1인 등 총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향후 정책추진 방향과 가치관 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VII-21]에는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의 도출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VII-1>에는 도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VII-21.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도출 과정

표 VII-1.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도출 근거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주요 발견점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치관 변화와 같은 정책대상자의 특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 정책계획 수립 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기초자료로 활용
가족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에 동의하였고, 비혼동거, 국제결혼, 동성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높게 나타나는 등 더 이상 전통적인 결혼관을 유지하지 않음을 확인 자녀에 대해서도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청소년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10명 중 9명 정도의 청소년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함. 청소년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도 60%를 초과함. 청소년 세대는 가족을 혈연관계가 아닌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세대의 가족관/자녀관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 개념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 및 출산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 사회적 돌봄시스템 확대
교육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약 75%이나, 그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감소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수월성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30%이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비율 증가 성인 세대와의 비교 결과, 성인 세대는 형평성보다 수월성 지지 비율이 다소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교육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학교 안팎 연계 강화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의 수직적·수평적 다양성 보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 충족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도입 예정인 시디지 털교과서 적극 활용 필요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주요 발견점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슈에 대해 찬반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대북인식은 대체로 적대적이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유보적 인식이 우세 •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 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기피할 가능성 시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세대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내용 및 방식에서 이전과는 변화된 형태의 통일교육 필요 • 통일이라는 정답을 강요하거나 이를 설득하는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필요 	
진로 직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만 유지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등 유연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의 수도권 근무 희망 정도도 약 30% 수준에 그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개척하고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그에 맞는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필요 •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장정책 마련 • 청소년의 창업·창직 지원 진로정책 활성화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 등 청소년의 직업관 변화를 반영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 	
세계 시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세대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질감이 적고, 다문화 수용도도 성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냄.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개선 추진 필요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 청소년활동 등 정책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과 비중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 활성화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주요 발견점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데 청소년의 88.5%가 동의했고, 이러한 응답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를 도모 •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사회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생활의 편리함'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시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세대에 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한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할 때, 기후 위기, 난민 수용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필요 •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이웃 어른에 대해 부여하는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시계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사회적 이슈나 쟁점·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으며, 2008년 및 2012년 조사에 비해 크게 낮아짐. • 청소년 세대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고 있으며, 청소년 세대의 지역수준 사회자본의 약화될 가능성이 큼을 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탄한 지역수준 사회자본은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세대와 사회와의 응집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추진 •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멘토링 제도 등 지원 확대 • 거버넌스 측면에서 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응집성을 증진하고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 필요

[그림 VII-22]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제언 및 조사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책 개선 방안	1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결과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 여타 유관 정책계획 입안시 활용
	2	가족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 • 사회적 돌봄시스템 확대
	3	미래세대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및 인정 •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경제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 학교교육의 수직적·수평적 다양성 보장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 •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동일교육 방식의 변화
	4	청소년의 유연한 직업관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 •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장정책 마련 • 청소년의 창업·창직 지원 진로정책 활성화
	5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 세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 기후위기, 난민수용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6	청소년 세대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자본 확충 •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체계 확대
조사 개선 방안	7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방식 및 조사 주기 관련: 3년 주기 반복 횡단조사 시행 • 조사 대상 관련: 조사대상 중복 방지를 위해 후기청소년 제외 필요 • 조사 내용 관련: 핵심/부가 영역 및 문항으로 구분 관리

그림 VII-22.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개요

2)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적극 반영

(1) 제안 배경

본 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남에게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다문화 수용도가 높으며, 기후환경변화 및 국제원조 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수용도를 보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지와 집단주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이 같은 가치관 변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유관 정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대상 중심 정책계획에서부터, 「통일교육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내용 중심 정책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①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가장 직접적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23년~2027년까지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매 차수마다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청소년정책이 처한 환경 진단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포함한다.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는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특성 변화’와 관련하여, 객관적 실태에 대한 진단은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및 국제원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다문화 수용성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청소년정책 수립

에 반영할 경우, 청소년 활동정책 중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관련 활동 활성화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 청소년참여 활동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상과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주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창직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 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가치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니즈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청소년은 청년정책의 예비적·잠재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또는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바는 향후 청년정책 수립 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계열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였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으며,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낮았다. 특히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8%로, 청소년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도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생 문제가 획기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 중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영역은 제외되어 있다(그림 VII-23) 참조). 물론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광범하게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청년기에 결혼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청년정책에서도 결혼·출산 영역을 비중 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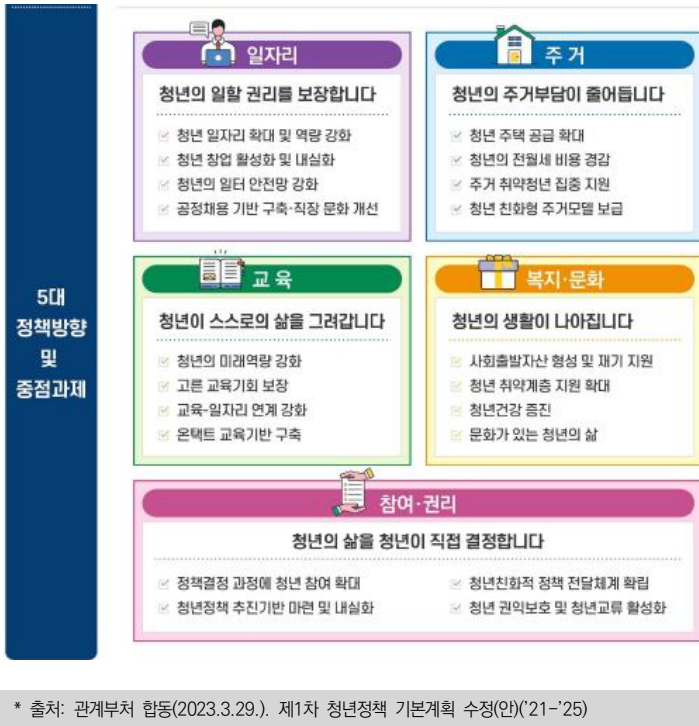


그림 VII-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한편,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를 고려하면, 청년정책 중 ‘참여 분야’에서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12)51.8%→(‘23)35.7%). 청년정책의 예비적·잠재적 대상인 청소년들의 이러한 가치관과 성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청년이 되어 사회·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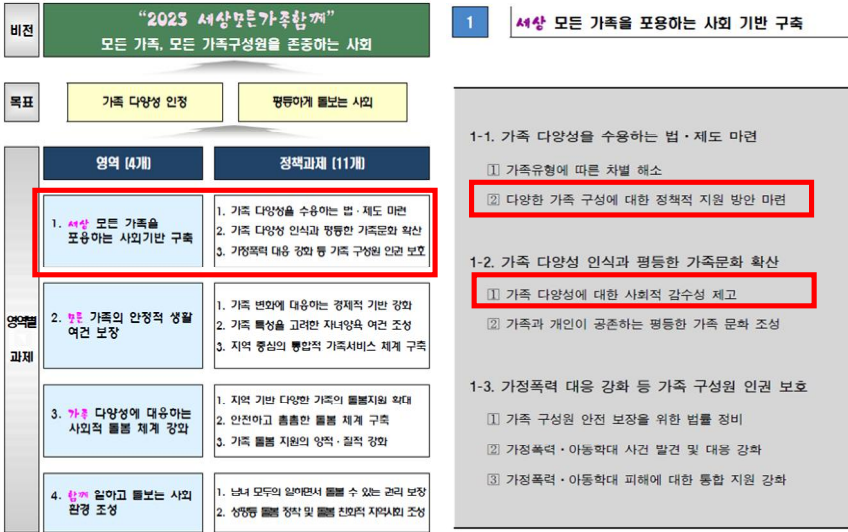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 중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는 참여 영역의 주요 정책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대폭 확대’, ‘청년 친화적 거버넌스 운영’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층 전반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이 경우, 청소년 참여에서 묵도되었던 문제, 즉 다수의 청소년들은 참여에서 배제되고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만이 참여기구 중심으로 참여활동을 했던 행태가 청년 대상 참여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청년 참여 정책은 ‘제한된 소수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 거버넌스 중심의 참여’ 외에, ‘다수의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③ 여타 유관 정책계획 입안 시 활용

다음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여타 유관 정책계획 입안 과정에도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파악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결과는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특히 여기에는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주요 교육 유형으로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 파악된 청소년의 통일관은 교육대상자인 청소년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정책 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중 가족관 관련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5년마다 수립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가족다양성 인정’을 2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제1영역으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추진과제를 위한 세부과제로 ‘Ⅰ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가족다양성 교육 운영 체계 구축 및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VIII-24 참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의 가족관 관련 조사 결과는 가족다양성 확대 정책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시 교육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교육내용 설계 등의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체계 중 가족다양성 관련 영역

가족다양성 영역 세부 과제 중 청소년의 가족관 조사 결과 반영 가능 과제

* 출처: 여성가족부(2021.4.).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그림 VII-24.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중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활용 영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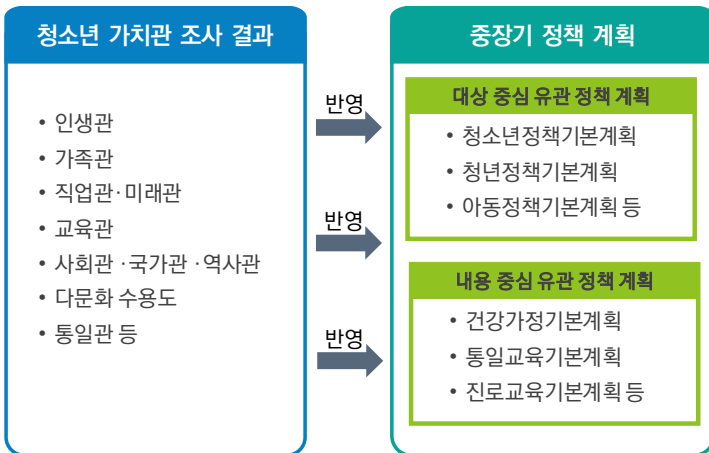


그림 VII-25.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의 중장기 정책 계획 연계·활용 방안(예시)

그 밖에 청소년의 진로관·미래관 관련 조사 결과는 「진로교육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진로교육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다양한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활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림 VII-25]에는 조사 결과를 정책대상 및 정책내용 측면에서 유관 중장기 정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3) 가족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

(1) 제안 배경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등 가족관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에 동의하였고, 비혼동거, 국제결혼, 동성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높았다. 자녀에 대해서도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청소년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10명 중 9명 정도의 청소년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세대는 가족을 혈연관계가 아닌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 및 출산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족정책 과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과 사회적 돌봄시스템 확대를 제안한다.

(2) 제안 내용

①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현재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개념을 고수하지 않는 세대이다. 청소년의 6할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는 결과는 결혼이 출산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이 약화하고 있고 가족 형태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가족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으며, 성별 격차 또한 크지 않았다.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도 과반이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혼동거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혼인이나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출산과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청소년의 인식 변화에 제도가 조응하면서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②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

앞으로의 국가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이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인생에서 여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008년 50.3%, 2010년 56.3%, 2012년 60.7%, 2023년 66.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부모가 될 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가 출산·양육의 삶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출산과 양육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의 정책 방향은 우선 남녀 모두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 우리사회에 안착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보다 10.3%(221시간) 줄어든 것이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199시간(11.6%) 많은 시간이다(연합뉴스, 2022.11.14.). 일상의 대부분을 근로에 사용하는 생활양식 자체는 출산과 양육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직장에만 한정된 근로를 탈피하고 청소년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근로 장소와 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물론 육아휴직의 장려 등 육아집중 시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남성들에게는 요원한 정책이다. 휴직 지원

금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도입, 개선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③ 사회적 돌봄시스템 확대

양육부담 감소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서 돌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많은 노력으로 유아기 돌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퇴근시간과 돌봄시간과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때 경험한 바와 같이 긴급돌봄의 틈새 또한 크게 남아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학령기 돌봄인데 초등입학 후의 돌봄은 현실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시범교육청과 늘봄학교를 선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표 VII-2.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유형	소관부처	운영현황	인원현황	주요 지원내용
늘봄학교	교육부	5개 교육청 214교	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5,144명 오후돌봄 10,010명 방과후 연계 돌봄 2,275명	입학초기 교육·돌봄(에듀케어)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저녁·틈새돌봄 등 지원
초등 돌봄교실		14,970실	299,400명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학교 돌봄터		70실	1,621명	방과후돌봄·프로그램 및 급·간식 지원 등
다함께 돌봄센터	보건 복지부	881개소	20,676명	
지역아동 센터		4,253개소	122,044명 (전체 정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342개소	6,908명 (초등 정원)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

* 주: 인원현황은 늘봄학교(2023.3.8. 기준)를 제외하고, 2022.12. 공급정원 기준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3.22.),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4쪽.

보도자료, 2023.3.22.). 늘봄학교의 전국 실시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8.17.). 늘봄학교의 전국 실시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연합뉴스, 2023.8.10.), 많은 가정에서 돌봄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사교육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공공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4) 미래세대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

(1) 제안 배경

조사 결과,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은 74.8%로 나타나,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를 반드시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2012년 조사 결과(77.5%)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요자에게 학교의 효용성에 대한 소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의 수월성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수월성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3명은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급이 높고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부족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상술한 결과는 다원화·다양화되는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효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가치관 조사 결과, 상반된 관점 또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청소년의 다수는 우리 사회의 빈부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회구성원 간 이견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 같은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의 대북·통일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또는 유보적 인식

이 강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 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통일교육은 청소년 세대의 인식과 특성을 고려해 교육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안 내용

①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및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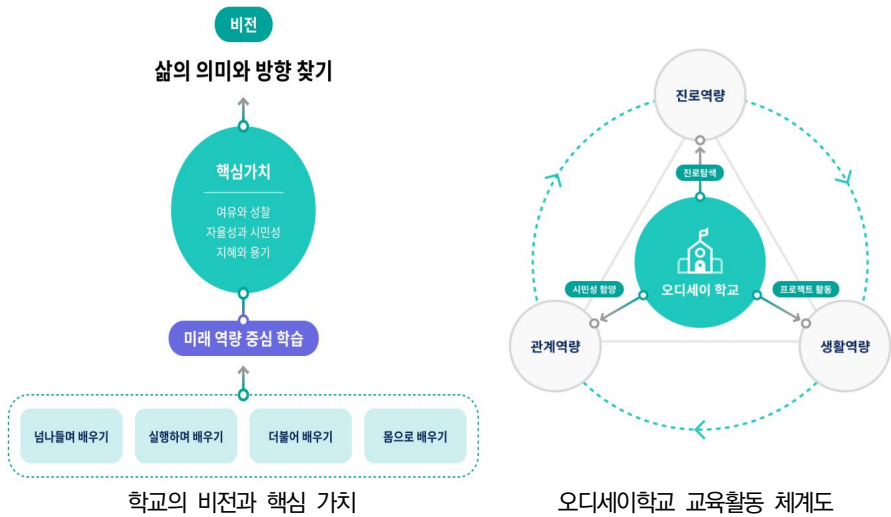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특히 이러한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지금은 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면서 졸업에 이르지만, 이들의 학교 이탈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와 학교 밖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를 현재의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면, 학교 밖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외 다양한 교육적 니즈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개설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 없이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디세이학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오디세이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성찰과 체험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1년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오디세이학교, 2023.10.17. 인출). 오디세이학교는 당초 일종의 교육과정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인문학·문화예술 등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출발했으나(연합뉴스, 2017.7.16.), 2017년 9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오디세이학교를 교육법령 상 각종학교로 전환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정식학교로 인정받게 되었다(오디세이학교, 2023.10.17. 인출).

오디세이학교는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등학교 1학년 보통교과 시수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탐색하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오디세이학교, 2023.10.17. 인출). 이를 위해 오디세이학교는 민간의 대안교육 기관들이 협력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과정’ 이면서, 이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오디 세이학교, 2023.10.17. 인출).



* 출처: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소개. <https://odyssey.hs.kr/curriculum> 에서 2023.10.17. 인출.

그림 VII-26. 오디세이학교의 주요 운영 원리

오디세이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단위로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융합적 운영을 지향하며, 각 교과목이 삶과 유리되지 않고 밀착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통해 배움이 교실에 제한되지 않고 학교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각 배움의 내용이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될 수 있다(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소개, 2023.10.17. 인출). 이처럼 삶과 밀착되어 유연하게 운영되는 교육과정 덕분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설문조사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료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각각 100%와 9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7.7.16.).

표 VII-3.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구성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자치활동, 여행, 멘토 특강 •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한국사) 등
선택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젝트 과정' • 일을 경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인턴십 과정' •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문화예술 과정' • 읽고 해석하고 쓰면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문학과 성장 과정' • 스스로 미래에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는 '문화기획 과정' •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진로역량을 키우는 '미래진로 과정'

* 출처: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소개. <https://odyssey.hs.kr/curriculum> 내용을 표로 재구성(2023.10.17. 인출).

오디세이학교는 민간과 공교육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성장 경험을 제공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안팎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경제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배움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도록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삶의 밀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고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관련하여, 과거 조사 결과에 비해 '돈'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였고,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2012년 37.1%에서 2023년 48.1%로 증가하였다. 한편, 고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복지에 대한 생각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38.2%)에 비해,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61.8%)이 훨씬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부(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부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스스로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부모 또는 정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다. 청소년 세대가 지닌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를 중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학교에서 거의 유명무실했던 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청소년의 삶에 지속적으로 유용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조사들은 청소년들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3,3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7.7%이고, ‘금융교육이 필요 없다’고 답한 학생은 8.5%에 불과했다(조선일보, 2020.1.6.). 2021년 조선일보·금융교육협회·한국교총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학생의 94%가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금융 지식을 얻는 경로로는 학교(20%)보다는 주로 부모님(56%)과 유튜브(39%)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다(조선일보, 2021.3.22.). 경제적 가치, 자본주의, 부(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제교육,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니즈를 고려했을 때, 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는 것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학교교육의 효용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경제교육 기조를 살펴보면 일부 수정 또는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부 내에는 ‘금융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 교육부, 공정위,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12.22.).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을 통해 기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삼아, 주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해 경제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2.12.).

물론 경제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정규수업 외 활동시간을 활용해 경제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활동(방과

후 수업,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확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현재와 같은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와 닿는 교육내용'의 운영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의 경제교육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은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어렵고 현학적인 학문 중심의 경제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경제교육 내실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부에 와 닿고 적용가능성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앞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운영해야 한다.

③ 학교교육의 수직적·수평적 다양성 보장

학교교육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수평적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직적 다양화를 실현하는 데도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선호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자 3명 중 1명은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수월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목할 부분은 수월성을 지지하는 응답 비율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성인 세대와 비교해보면 성인 세대에서는 54.5%가 수월성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의 형평성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지만, 학교급이 올라가고 성인기에 이르러 그간의 교육경험을 평가해보면 수월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교육정책은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통해 수준별로 학교나 학급을 구분하는 '수직적 다양화'보다는, 교육과정의 개인선택권을 확대하는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월성 가치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 또는 지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교육의 '수직적 다양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일컫는데,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우선 도입을 시작으로,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6.7.).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6.7.).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4쪽.

그림 VII-27.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도입 계획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학습을 보조하는 부교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정식 교과서로 개발되어 활용(교육부 보도자료, 2023.10.16.)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수직적 다양화'를 실현하고 수월성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는 학습 분석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충학습과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개발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6.7.). 이를 잘 활용하여, 차체에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준별 니즈가 반영된 교과서로 원활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학습자료가 준비되더라도, 이를 적용할 현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취수준의 학생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수준별로 다른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의·토론 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복지의 주체, 경쟁의 효용성, 교육의 수월성 대 형평성, 미래 성공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이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술한 이슈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치관 충돌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학교 교육을 통해 토의·토론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토의·토론은 차이에 대한 인정,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한 존중, 자유롭게 개방적인 의견의 표출,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일상적 과정이며, 이러한 연유로 토의·토론 경험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야 할 활동으로 볼 수 있다(성열관 외, 2015). 이에 토의·토론 수업은 사회과, 국어과 등 일부 교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가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교육원리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토의·토론 수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데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그 외에 교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따라서 토의·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토의·토론 수업 운영에 필요한 수업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며, 토의·토론 수업 지원을 위한 자생적 교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등의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김은주, 2017).

⑤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방식의 변화

앞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토론·토의 수업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통일교육의 방식 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대북·통일인식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통일 전망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의 대북 인식은 대체로 적대적이었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또는 유보적 인식이 우세하였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 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기피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통일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와는 교육내용이나 방식 등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통일이라는 정답을 강요하거나 이를 설득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통일과 평화공존을 선택의 문제로 제시하고, 통일 찬성 여부를 교육효과의 척도로 삼는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분단, 통일, 평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교실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소통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성찰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이 요구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이를 위해 잘 정리된 답을 제시하는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시민교육에서의 논쟁수업 모델을 통일교육에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이, 통일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교육적 원칙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및 북한에 관한 다양한 논쟁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은 상당 부분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다양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과 분단, 북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통일교육을 분절된 교육이 아니라 한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총체적 교육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5) 청소년의 유연한 직업관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1) 제안 배경

미래 사회는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빨라지고 직업 세계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청소년들도 유연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만 유지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의 수도권 근무 희망 정도도 3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노동시장 진입 시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는 괴리를 보였다. 조사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나 장소, 고용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유연한 직업관은 미래사회에 예측되는 직업세계와 일치하는 바, 미래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개척하고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그에 맞는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청년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 등 청소년의 직업관 변화를 반영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 제안 내용

① 청소년·청년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확산이 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 1차 유출되고, 구직단계(20대)에서 2차적으로 유출되는 등 학업과 직업의 원인으로 20대를 지나는 동안 지방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수도권 이동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고, 청소년기부터 수도권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미래사회는 원격근무를 활성화하여 생활하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들에게는 원격근무가 보다 친숙한 노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경험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원격근무가 도입 단계에 있으나 향후 원격근무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며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격근무에 대비한 제도와 문화의 안착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과 관련지어서는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의 원격근무가 보다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설이나 기관 내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더 넓은 지역사회 자원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전문인력의 디지털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이 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과 소통하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원격근무의 확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들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교류의 새로운 방향 차원에서 해외취업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문국에서 1년간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여행, 공부를 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23.10.25. 인출)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최로 개최된 ‘2023 글로벌 취업·창업 박람회’는 참고가 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청년, 취업·창업 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8월에 취업 박람회와 창업 박람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였다. 취업 정책 홍보관, 글로벌 취업 정보관, 현장 채용관, AI 면접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취업관과, 비즈쿨 투자존, 창업 관련기관, 창업 비즈쿨관, 창업기업 만남관, 현장메이커관 등으로 이루어진 창업관을 운영하였다. 글로벌 취업 정보관에서는 호주, 대만,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에 대한 인턴십, 교육 연구, 구직정보를 제공하였다(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2023.10.24. 인출).

또한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Global Talent Fair’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 행사는 채용박람회 성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투자기업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채용박람회와 고용부의 글로벌일자리대전 등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이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8.21.). 구체적으로는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기에 미리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매년 5월에 여성가족부가 개최하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하거나 청소년 글로벌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취업을 주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출처: (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cehongbo/223192271351> 에서 2023.10.24. 인출. (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2023.8.21.). 2023 글로벌 탈런트 페어 개최, 3쪽.

그림 Ⅶ-28.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사례

③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장정책 마련

조사대상 청소년의 84.3%가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로부터 앞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할 보장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고(한겨레, 2021.9.8.),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57)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률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자는 개정안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일경험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경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교육 차원에서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사회문화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공헌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의 창업·창직 지원 진로정책 활성화

청소년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진취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유연한 직업관과 더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선택 기준으로 자신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해섭과 문호영(2020: 34)도 청소년의 진로교육은 이론적 접근이 아닌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실천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에는 초·중·고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수업기반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밖 창업 체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비즈쿨을 통해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비즈쿨 페스티벌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10.23.).

청소년 창업·창직 지원 진로정책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센터 등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서 창업과 창직의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창업과 창직의 모의경험에서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는 경험은 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대학과 지역사회의 직업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지역 내에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6)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 세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1) 제안 배경

조사 결과, 청소년 세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세계시민(global citizen)’은 인종,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따라서 단일국가에 기반을 둔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의 모색과 관련이 깊다(조대훈, 2016). 이 같은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세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성인 세대에 비해서도 청소년 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세대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질감이 적고, 다문화 수용도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방증한다. 또한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데 청소년의 88.5%가 동의했는데, 이는 2008년 71.1%, 2012년 86.8%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생활의 편리함’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2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변화하는 청소년기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대 이상 기성세대보다 2배 가량 높았고, 기후변화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어린이조선일보, 2021.11.2.). 상술한 일련의 결과는 청소년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세계시민

으로서의 정체성이 높고,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 같은 세대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활동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 청소년활동 정책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KOIC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ODA 증액 촉구 청소년행진’을 공동주최한 바 있다. 유엔은 ODA 목표치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 공여를 위해 국민총생산(GNI)의 0.7%를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치(0.33%)의 절반인 0.1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청년투데이, 2023.4.13.). 이에 한국이 빈곤 국가,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시민단체의 주도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여 ODA 증액을 요구하는 청소년 참여행사를 개최하였다(청년투데이, 2023.4.13.). ODA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이를 통해 ODA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 활동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함께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중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청소년 국제프로그램지원, 청소년 국외 역사체험활동 등 기존에 수행되었던 프로그램 중 오프라인 교류는 상당액의 참가자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2023.10.19. 인출). 물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참

가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상당액의 비용 부담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온라인 프로그램은 참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2023.10.19. 인출). 또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제교류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제에 비대면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국제교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교류활동 추진 시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전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고 청소년은 참가자로 참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국제교류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교류활동의 주제와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에서는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3.29.). 본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스스로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같은 청소년의 특성과 유관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서도 청소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후위기, 난민수용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이전 세대에 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한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할 때, 기후 위기, 난민 수용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소년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행동 확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글로벌 청소년 기후 리더를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거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 및 환경부의 '한·중·일 청년 환경 포럼'에 청소년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2022).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청소년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추진해볼직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수립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입안 과정에 청소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기후 세대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황세영 외, 2022).

그 외에도 청소년은 성인 세대에 비해 난민 수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여타 조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난민 수용, 이주민과의 교류행동의지 등에서 기성세대보다 높은 수용성 수준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난민 수용 문제는 찬반이 맞서는 의제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 같은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인도적 측면에 치우치거나 반대로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토의·토론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관련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청소년 세대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1) 제안 배경

본 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이웃 어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다. 이웃 어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는데, 이는 2008년 41.1%, 2012년 38.7%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사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사회적 이슈나 쟁점·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5.7%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2008년 53.8%, 2012년 51.8%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세대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며, 특히 청소년 세대의 지역수준 사회자본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 탄탄한 지역수준 사회자본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여정, 2012).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웃 어른에 대한 신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세대와 사회와의 응집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수준 사회자본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발달에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2)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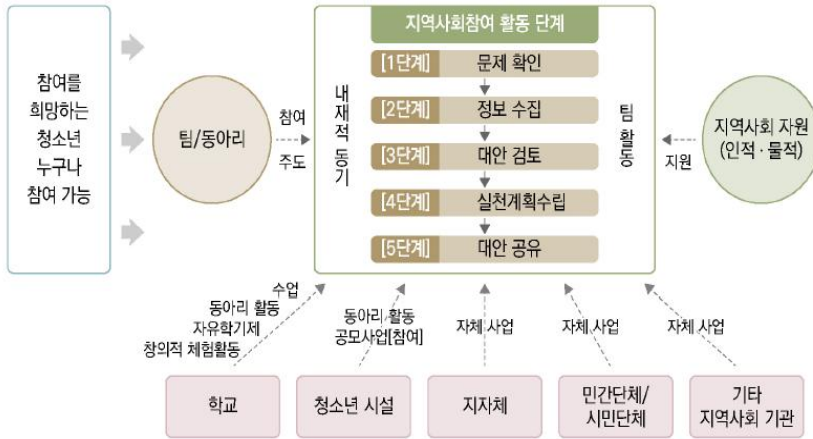
①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 동안 청소년 분야에서 추진된 다양한 마을 중심의 청소년 활동 사례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황여정, 2012).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볼 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여정(2017)의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동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그림 VIII-29) 참조). 여기에서는 학교, 청소년시설, 지자체, 기타 지역사회 기관 등 다양한 시설·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모형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참여 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모형은 청소년 참여가 거창한 사회적 담론이나 이슈,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거시적 차원의 논의와 활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내가 사는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참여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참여의 원리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황여정, 2017). 사회참여가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활동이 아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참여활동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활동 과정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이웃 어른들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의 확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의 청소년자

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산출된 성과는 이러한 모형이 충분히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 같은 사례와 모형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참여 활동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응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 황여정(201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279쪽, [그림 VI-3].

그림 VI-29.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모형

②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자본 확충

다음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포부, 희망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미래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배경'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한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자신의 미래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 김희삼(2016)이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성인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세대 내 상향 이동 및 세대 간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층에 따른 숙명론적 사고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며, 나이가 들수록 지속 또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운, 배경, 환경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계층 간 ‘희망 격차’, ‘포부 격차’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자신의 잠재력 발휘를 방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장벽이 청소년기부터 발현될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격차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멘토링을 비롯해, 정서적 지원, 진로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이하 서울런) 사업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참고해 보자. 서울런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함께 1:1 개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멘토링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멘토링은 1:1 개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 1회/1시간 또는 주 2회/30분 멘토링이 제공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1:2 그룹 멘토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1회/1시간 제공된다(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안내, 2023.10.20. 인출).

서울런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무척 높은 편이며, 멘토링 확대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2023.9.).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학습과 진로, 미래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타인(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멘토링이 그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형을 참고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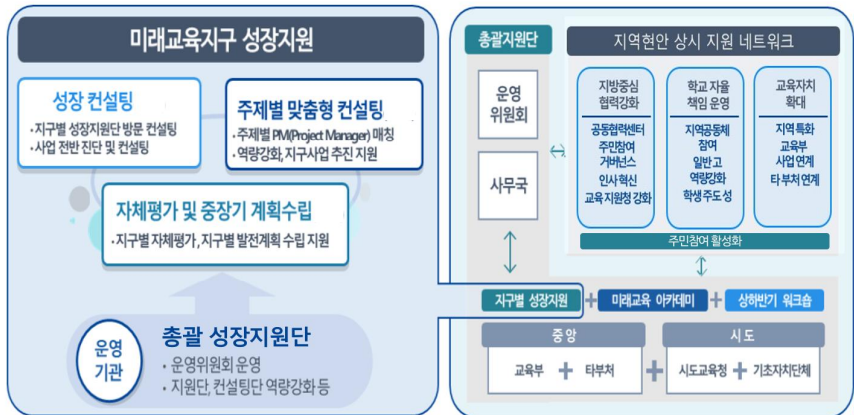
멘토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멘토에 대한 적절한 선발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서울런의 운영 모형을 참고하여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을 멘토로 활용하고, 교육봉사 점수나 학점이수로 인정하는 방식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적절한 멘토링 제도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체계 조성 및 확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응집성을 증진하고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 중심의 청소년 지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과제로 포함되어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및 이를 실행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황세영, 이경상, 송민경, 조운정, 2021에서 재인용). 이 사업은 2020년 도입된 이래 매년 4개 내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그 대상이 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12.6.). 2020년 11개 지구로 처음 시작한 이래, 2021년 22개 지구, 2022년에는 33개 지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미래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2.12.6.)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3쪽.

그림 VII-30. 2023년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체계(안)

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1억원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12.6.).

이들 사업이 직접적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접점을 늘리고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 밀착도를 높이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이들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추진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적용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바,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접촉이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긍정적 경험이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1) 조사 방식 및 조사 주기 관련

청소년 가치관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형태의 반복 횡단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조사의 핵심은 시계열 비교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 횡단조사 설계가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반복 횡단조사 설계를 유지하고, 시계열 비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 횡단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주기는 3년 주기와 5년 주기를 검토할 수 있다. 가치관의 속성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치관 조사를 매년 혹은 격년 주기의 단기 반복 횡단조사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3년 또는 5년의 중장기 반복 조사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3년 주기 조사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이 3년 간격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3년의 연령차를 보유한 서로 다른 조사집단에 대한 시계열 비교뿐만 아니라, 특정 코호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은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치관 조사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가 2013년부터 3년 주기 조사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 세대와의 비교 간격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가치관 조사 결과를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의 입안 시기와 조사 결과 산출 시기를 조율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5년 주기 조사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 반복 횡단조사로 5년 주기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5년 주기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 분야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맞춤으로써, 국가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 및 적용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관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2년 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결과가 산출되고, 이를 참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5년 주기 조사를 채택할 경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기와의 연동을 위해 차기 조사는 2026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3년 주기/5년 주기 조사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코호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3년 주기 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3년 주기	초	코호트A			코호트A			코호트A			코호트A	
	중	코호트B	비교		코호트B			코호트B			코호트B	
	고	코호트C		비교	코호트C			코호트C			코호트C	
5년 주기												
조사결과 산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기초 연구											
	정책 적용	7차(2023-2027)					8차(2028-2032)					

그림 VII-31.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조사주기와 정책계획 반영(안)

2) 조사 대상 관련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이슈는 후기 청소년 포함 여부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3.10.20. 인출). 이를 고려하면 10대 이하 청소년뿐만 아니라, 19~24세의 후기 청소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후기 청소년 또는 대학생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그러나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는 여타 조사와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의 중복 문제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조사 대상은 후기 청소년을 제외한 10대 이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기 청소년은 청년 또는 성인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여타 조사에 이미 조사 대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다. 1996년 처음 시작되어 2022년 제8회 조사가 실시된 이 조사는 가장 최근 수행된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79세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사회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인 「사회통합실태조사」도 후기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

번호 제417001호)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조사 목적으로 삼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1).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현재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8,000명이다. 2021년 조사 기준, 연령별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19~29세 연령은 1,327명(전체 조사대상자의 16.4%) 포함되었다. 그 외에 국제 비교 조사로 실시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도 후기 청소년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참여한 가장 최근 조사인 WVS 7차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World Values Survey, 2023), 이러한 표본 설계에 따라 후기 청소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분	연령	후기청소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세 이상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X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만 19세~79세 →					
사회통합 실태조사		X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만 19세 이상 →					
세계가치관조사 (WVS)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18세 이상 성인 →					

그림 VII-32. 가치관 관련 주요 조사의 청소년 연령대 포함 여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후기 청소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가치관 조사에 이미 조사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도 후기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여타 유사 조사와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10대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가치관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같은 조사 지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지속될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조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후기 청소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대 이하 청소년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사 대상의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한 난이도 및 이해도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

연령의 하한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본 조사를 3년 주기 반복 횡단조사로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앞서 설명한 학교급별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해서는 초 4~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으로 조사 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조사 대상 설계 측면에서 좀 더 명료할 수 있다.

3) 조사내용 관련

조사내용의 경우, 조사내용 관리 측면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염두에 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문항의 변경 또는 삭제에 최소화해야 하므로, 향후 조사에서 문항 변경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반복 조사의 특성상, 조사 시점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조사 내용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 영역과 조사 문항을 핵심(core) 영역/문항과 부가(add) 영역/문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 영역/문항의 경우에는 수정·변경을 최소화하여 가치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부가 영역/문항은 시대 변화 또는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추가·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의 구성 측면에서는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영역 또는 문항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조사에 비해 청소년 대상 가치관 조사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는 조사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들 수 있다. 현재 조사내용은 '환경보호' 키워드로 광범하게 구성되었는데, 최근에는 '환경보호'보다 '기후변화' 관련 표현이나 내용이 설문조사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전문가 자문의견, 2023.9.). 청소년은 기후 세대로서 성인 세대에 비해 기후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영할 때, 향후 실시될 조사에서는 '환경보호' 내용을 '기후변화'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세분하여 해당 내용을 강조 또는 보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조사 결과 시계열 비교 및 성인 세대와의 비교에서 가장 분명한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난 항목은 결혼관 및 가족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결혼관 및 가족관은 핵심 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조사내용도 보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만기, 이창은, 최규탁 (2005). 리커트 퍼지 척도에 대한 퍼지 가설검정. **한국지능시스템 학회논문지**, 15(5). 533-537.
- 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경기교육중단연구 8차년도 기초 분석**.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8.10.2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 관계부처 합동 (2023.3.2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년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6.).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2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10.20.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3.3.22.).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29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10.25.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3.6.7.).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26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10.17.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3.8.17.).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0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10.25.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23.10.16.).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7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10.17. 인출.
- 국가보훈처 (2010).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국가보훈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국가통계포털 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에서 2023.2.10. 인출.
- 국립통일교육원 (2023). **2023 통일교육 기본계획.**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20902&mid=SM00001162> 에서 2023.10.16. 인출.
- 권일남, 전명순 (2021). **청소년 문제와 보호.** 서울: 창지사.
- 금융위원회 (2022.1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 <https://www.fsc.go.kr/no010101> 에서 2023.10.17. 인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12.22.).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 에서 2023.10.17. 인출.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과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김기연, 신수진, 최혜경 (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기현, 조혜영, 장근영, 이창호, 고원, 강홍렬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2030(종합 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석호, 한준, 배영, 이윤석, 신인철, 한수진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영지, 최홍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육, 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 김은주 (2017). **학생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의·토론 수업 내실화 방안**.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이선, 최윤정, 정연주, 장희영, 이명진, 양계민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경, 김성훈 (2018).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6(1), 1-21.
- 김희삼 (2016).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통계개발원 발행,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대전: 통계개발원.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청소년가치관 정립 및 가치의식 함양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7).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12.).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민보경, 박성원, 성문주, 강정인, 김연숙, 손현주, 강경균 (2019).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민보경, 허종호, 이채정, 박성원, 정윤석, 김지범, 신인철, 심재만, 이옥태, 김솔이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박현애, 배성우, 박종석 (2014). 과학교육의 태도와 흥미 연구에서 리커트 척도 활용의 유의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4(4), 385-39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8.21.).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위한 만남의 장 열려: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역대 최대규모 382개 외투·해외기업 참여**.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700&bbs_cd_n=81¤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

earch_val_v=%EA%B8%80%EB%A1%9C%EB%B2%8C 에서 2023.10.25. 인출.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안내. <https://slearn.seoul.go.kr/front/mentoringService.do>
 에서 2023.10.20. 인출.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2023.9.). 「서울런 교육성과 실태조사 연구」 자문회의 자료
 (비공개 내부자료). 서울: 서울연구원.
 성열관, 김달효, 이형빈, 김평원, 이준희, 이성수, 강에스터 (2015).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를 위한 토의·토론수업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경희대학교
 손현주, 강정인 (2019).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래 선호가치. **지역사회연구**, 27(2), 179-205.
 양중희 (1999). **현대 한국의 가치체계의 기원과 변동**. 김일철 외(편저),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숨겨진 원리, 드러난 변화**, 55-84. 서울: 아르케.
 어린이조선일보 (2021.11.2.). “우린 세계 시민, 세상 더 나아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기성세대보다 ‘긍정적’. 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1/2021112100916.html 에서 2023.10.19. 인출.
 여성가족부 (2014.5.20.).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개선방안 관련 회의자료**(비공개 내부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4.).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2017.7.16.).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서울 ‘오디세이학교’ 정식학교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14147000004> 에서 2023.10.17. 인출.
 연합뉴스 (2022.11.14.).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아직은 OECD 5위**.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48600003> 에서 2023.10.24. 인출.
 연합뉴스 (2023.8.10.). **‘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에 교원단체 “현장 혼란” 비판**.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0102700530> 에서 2023.10.25. 인출.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소개. <https://odyssey.hs.kr/curriculum> 에서 2023.10.17. 인
 출.
 오디세이학교 홈페이지. <https://odyssey.hs.kr/> 에서 2023.10.17. 인출.
 오해섭, 문호영 (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위키피디아 세계가치관조사 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Values_Survey 에서 2023.2.13. 인출.

유성렬 (2007). 사회화 영향 측정에서의 안정도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직업보상가치관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12(2). 177-200.

유성렬, 김기현, 이기재 (2014).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유성렬, 최창욱, 백혜정 (2016).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 (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유진이 (2013).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경기: 양서원.

이경희 (2012). 한국사회 이중가치체계의 특성과 변화. **윤리연구**, 84, 33-52.

이미리, 김춘경, 여종일 (2019).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학지사.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운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희식, 이성용, 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주 (1985).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3), 1-32.

이수연, 김인순, 김현정, 김민정 (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호영 (2008).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문화의 역할: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유교문화의 계승방향. **국제지역연구**, 12(1), 165-19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cehongbo/223192271351> 에서 2023.10.24. 인출.

임성근, 박준, 이광희, 이종한, 은재호 (2022).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2001년~2011년. **진로교육연구**, 25(3), 19-37.

- 임희섭 (1997).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삶의 목표와 규범가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30, 143-162.
- 임희진, 김지연, 이경상 (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백혜정, 김현철, 강현철 (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 <https://whic.mofa.go.kr/whic/about/working.jsp> 에서 2023.10.25. 인출.
- 정규승, 강성중, 황영은 (2023).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6-25.
- 조대훈 (2016).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서울교육**, 225호(겨울호). <https://webzine-serii.re.kr/%EC%84%B8%EA%B3%84%EC%8B%9C%EB%AF%BC%EA%B5%90%EC%9C%A1%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 에서 2023.10.19. 인출.
- 조선일보 (2020.1.6.). **[금융교육 10살부터 ①] 금융위기마다 극단적 선택 증가… 교육이 생명 살린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0428.html 에서 2023.10.17. 인출.
- 조선일보 (2021.3.22.). **한국, 금융 교과서 채택 0곳… 미국, 금융위기 후 정규교육 강화**.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3/22/OAHVQ7FDXBHXPGSD7BFOBEIBLM/> 에서 2023.10.17. 인출.
- 차은주, 김영재 (2015). Rokeach 가치이론을 적용한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정책 가치 구조의 연결망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8(2), 201-224.
- 청년투데이 (2023.4.13.). **조희연 "미래세대 세계시민성 함양 위해 진보와 보수 힘모아"**,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과 'ODA 증액 촉구 청소년행진' 공동주최. <https://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15> 에서 2023.10.19. 인출.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국제교류활동**. <https://www.youth.go.kr/m/contents/intrIExchgActIntroForm.mo?curMenuSn=1414> 에서 2023.10.19. 인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최성욱 (2015).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7(4), 1011-1032.

최연실 (1995).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연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보도자료 (2022.11.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한겨레 (2021.9.8.) **근로기준법 새 판 짜는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법, 국회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0656.html> 에서 2023.10.24.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 **한국교육총단연구2013(VIII): 조사개요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2023.8.21.). **2023 글로벌 텔런트 페어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반복횡단조사 개요 설명**.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471&siteId=null> 에서 2023.2.10.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한혁, 금현섭 (2017). 만족도 측정 방법의 비교 가능성 연구: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4, 5, 11점 리커트형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8(1), 61-96.

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2022).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이경상, 송민경, 조운정 (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2012).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201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Baier, K. & Rescher, N.(1969). *Values and the Fu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Bronfenbrenner, U.(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531.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College.
- Bronfenbrenner, U.(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Reflections of a participant observer. In P. Moen, G. H. Elder Jr., & K. Lü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599-6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ermain, C. B.(1980). Social context of clinical social work. *Social Work*, 25(6), 483-488.
- Goodale, J. G.(1973). Effects of personal background and training on work values of the hard-cor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7(1), 1-9.
- Hechter, M, Nadel, L., & Michod, R. E.(1993). *The Origins of Valu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updated in 2001).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93) Cultural Constraints in Management Theorie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7, 81-94.
- Hofstede, G. & Hofstede, G. J.(2005).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Y: McGraw-Hill.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NY: McGraw-Hill.
- Inglehart, R.(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hle, L. R., Beatty, S. E., & Homer, P.(1986).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 The List of Values(LOV) and Values and Life Style(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3), 405-409.
-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 Row, Peterson.
- Kluckhohn, C.(1967),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pp. 388-433).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51).
- Lusk, E. J. & Oliver, B, L.(1974), American managers' personal value systems-revisited.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3), 549-554.
- McGuire, W. J.(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Mckinney, J. P.(1975). The development of values: A perceptual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01-807.
- Parsons, T. & Shills, E. A.(1951). Values, motives, and systems of action. In Parsons, T. & Shills, E.A.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 Shills, C.(1962).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Rokeach, M.(1968). *Belief,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 Schwartz, S. H. & Bilsky, W.(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Steinburg, L. & Morris, A. S.(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World Values Survey[Website]. (2023.2.9.) <https://www.worldvaluessurvey.org>.

Zastrow, C.(2000).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Belmont, CA: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법령 자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57)(강은미의원 등 11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S1S0S8T3C1O1T8A0N1F0V3N1Z7G0 에서 2023.10.24. 인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9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3.10.20. 인출.

○ — 부 록

부 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	--	--	--	--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임희진 선임연구원 hjlim@nypi.re.kr

황여정 선임연구원 hyj@nyp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나화정 선임연구원 02-3484-3092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학교,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출생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자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 혹은 ①에서 ⑩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 '그렇지 않다'면 ②, '그렇다'면 ③, '매우 그렇다'면 ④에 표시하거나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까운 곳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①	②	③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불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①	②	③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1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음 항목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7	2순위	1
-----	----------	-----	----------

① 성격

③ 장래성

⑤ 종교

⑦ 취미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② 경제력 (재산, 수입)

④ 자라온 환경

⑥ 외모/매력

⑧ 학력/지식

I 생활

※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아래의 각 항목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족	①	②	③	④
2) 동성친구(성별이 같은 친구)	①	②	③	④
3) 이성친구(성별이 다른 친구)	①	②	③	④
4) 이웃	①	②	③	④
5) 여가(휴식, 취미활동 등)	①	②	③	④
6) 건강	①	②	③	④
7) 안전	①	②	③	④
8) 일/직업	①	②	③	④
9) 학력	①	②	③	④
10) 권력/사회적 지위	①	②	③	④
11) 돈	①	②	③	④

3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2)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5)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7)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8)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4 여러분은 아래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4-1)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 →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4-2)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4-3)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 →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4-4)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 →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5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과학과 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II 가족과 결혼

※ 다음은 여러분이 **가족과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6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①	②	③	④
2)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 집은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7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동성결혼(같은 성별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①	②	③	④
9)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3) 집안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4)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② 대학교(원)를 졸업할 때까지
- ③ 취업할 때까지
- ④ 결혼할 때까지
- ⑤ 결혼한 후에도

10 부모님이 늙으시면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
- ② 가족
- ③ 정부·사회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11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음 항목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성격
- ② 경제력 (재산, 수입)
- ③ 장래성
- ④ 자라온 환경
- ⑤ 종교
- ⑥ 외모/매력
- ⑦ 취미
- ⑧ 학력/지식
- ⑨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12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녀를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자녀에게 문화, 예술적 경험을 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부모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부모자신의 사기 계획을 계속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III 진로와 미래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3)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4)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14 여러분은 아래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4-1)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 → 나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4-2) 열심히 일하면 결국 질질چه 된다 ← →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5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자신의 능력

③ 직업의 장래성

⑤ 자신의 적성

⑦ 사회에 대한 기여도

⑨ 안정성

⑪ 창의성 발휘

⑬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② 대중적 인기

④ 경제적 수입

⑥ 일과 삶의 균형

⑧ 사회적 지위

⑩ 의사결정권

⑫ 자아실현

IV 학교와 친구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17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들은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들을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18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미있어서	①	②	③	④
2)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①	②	③	④
3) 못하면 부끄러워서	①	②	③	④
4)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①	②	③	④

19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 ③ 대학원(석사) ④ 대학원(박사)

↓

19-1 (위 문항에서 ②번, ③번,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세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 ② 능력이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 ③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 ④ 주위(부모 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 ⑤ 결혼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유리해지기 위해서
- ⑥ 대학에 다들 가니까 나만 안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20 여러분은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3)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4)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5)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는 균등하다	①	②	③	④

21 여러분은 아래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V 사회와 국가, 역사

※ 다음은 여러분이 사회와 국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①	②	③	④
4)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5)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제개발사업이나 국제행사는 절대로 다른 지역에 양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23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2) 나이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3) 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24 아래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지나간 역사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5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1) 가족	①	②	③	④
2) 친구	①	②	③	④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이웃 어른	①	②	③	④
5) 정치인(국회의원)	①	②	③	④
6) 언론(TV, 신문)	①	②	③	④
7) 인터넷정보(포털,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8) AI(챗GPT 등 인공지능)	①	②	③	④

26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관심 없다 ← → 매우 관심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여러분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얻게 될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 ②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 ③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 ④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34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경제적 부담
- ② 가치관의 차이
- ③ 생활방식의 차이
- ④ 언어생활의 차이
- ⑤ 정치적 혼란
- ⑥ 빈부격차 심화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직장 및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에 포함됩니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형제자매
- ④ (외)할아버지
- ⑤ (외)할머니
- ⑥ 친척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배문2 현재 자신의 학업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래의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못한다		←	중간	→	매우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배문3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분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 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배문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니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5 현재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못 산다	←	중간	→	매우 잘 산다
①		③		⑤
		②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폭넓게 파악하여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내용을 설계하고, 전국의 초5~고3 청소년 약 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의 시계열 비교와 성인 세대와의 비교를 위해 2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가족이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친구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여가와 돈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에는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동의하였고, 10명 중 6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청소년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였다. 청소년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성인보다 적고, 비혼 동거, 비혼 자녀출산 등에 대해서는 훨씬 수용적이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의 청소년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형평성을 중시하고, 10명 중 3명이 수월성을 지지하였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과 다문화 수용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청소년 가치관 조사결과 적극 반영, ②가족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 ③미래세대 특성을 반영

한 교육제도 개선, ④청소년의 유연한 직업관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⑤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 세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⑥청소년 세대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정책 개선방안 및 ⑦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향후 추진을 위한 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by broadly investigating the values of adolescent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tha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policies targeting youths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e 2023 Youth Value Survey were designed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consulting with expert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bout 8,000 adolescents from the fif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across the country, and the data were analyzed. In addition, using secondary data analysis, we conducted a time series comparison of adolescent values as well as a comparison of values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 adult gener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value teenagers consider important in life has consistently been that of the family since 2008. Compared to 10 years ago, the importance of friends is de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leisure and money is increasing. Only about 3 in 10 agreed that marriage is essential; 6 in 10 thought it was possible to have children without marriage, and only 2 in 10 thought that they must have children after getting married. Adolescents were less likely than adults to believe that marriage was mandatory or that

marriage should lead to children, and they were much more receptive to living together and having children without being legally married. More than 9 in 10 youth believed that all jobs should be treated with equal respect and that living and working abroad is possible. Regarding education, 7 in 10 value equity, and 3 in 10 support excellence. Responses suggesting pride in their Korean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2008.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1) activel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Youth Value Survey when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olicy plans, (2) policy responses reflecting changes in family values, (3)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 generations, (4) promoting policies that respond to youths' flexible work outlook, (5) promoting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youths with values as global citizens, (6) promoting policies to expand the social capital of youths, and (7) improving the Youth Value Survey for future implementation.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아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유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
김성아·박광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박광욱·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료집

< 세미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 자 문 진 ◆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교수)

김 희 삼 (광주과학기술원·교수)

민 보 경 (국회미래연구원·부연구위원)

박 성 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백 병 부 (경기도교육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백 원 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연구위원)

손 광 수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교사)

신 영 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심 재 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이 혜 숙 (서울연구원·연구위원)

장 성 환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교사)

전 재 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문위원)

조 정 아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센터장)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인 쇄 2023년 12월 28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2-3 93330

연구보고 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2-3